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활용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선 영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활용

양 보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 선 영


인 준 서

박선영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4월

심사위원장 정 재 준 

심 사 위 원 김 종 영 

심 사 위 원 정 치 영 

심 사 위 원 이 자 인 

심 사 위 원 양 보 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지도는 지표면상의 지리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에 표현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관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지도를 제작한 사람의 생각까지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를 통해 지역의 과거 모습을 복원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상상해볼 수 있다.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제작된 지도는 동굴의 벽에서부터 시작해, 종이, 오늘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는 지도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도는 시기에 따라 제작 방법과 형태가 변화, 발전하였다.

한국의 지도 제작사 측면에서, 국내에서 근대적 측량 방법을 이용하여 한반도 지도를 제작한 시기는 19세기 말부터이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제물포조약,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지형도는 일본에 의해 제작되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945년 광복 전까지 한반도의 지형도는 크게 3차례 제작되었다. 이는 측도(測圖)된 시기별에 따라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구분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한국 근대지형도라 하겠다.

한국 근대지형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도 많은 양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근대지형도의 전체적 현황과 목록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해외 기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형도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반도의 변화된 지역 모습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내용과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기관은 한국의 네 개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장서각, 종로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외의 2개 기관인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그동안 소장 여부는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목록이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한국과 해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는 제1차지형도 132도엽, 제2차지형도 335도엽, 제3차지형도 712도엽으로 국내기관 중에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는 없는 각 시기별 지형도를 소장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제1차지형도 81도엽, 제2차지형도 34도엽, 제3차지형도 494도엽이 소장되어 있으며, 종로도서관에는 제3차지형도만 633도엽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3차지형도 722도엽으로, 한국의 소장 기관 중에 제3차지형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해외 소장기관으로 미국 의회도서관은 제1차지형도 46도엽, 제2차지형도 227도엽, 제3차지형도 424도엽으로, 중복된 지역의 도엽 포함하여 총 도엽수가 가장 많다. 그리고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한 지형도를 소장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제1차지형도 446도엽, 제2차지형도 315도엽, 제3차지형도 706도엽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과 해외 소장기관, 여섯 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을 파악한 결과, 이제까지 한국이나 일본에서 확인하지 못한 5도엽(부산, 가덕도, 동두말, 호도반도, 방구미리)을 미국 의회도서관과 영국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2차지형도의 경우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일부만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제2차지형도의 전체 목록과 지도를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외 여섯 개 기관 가운데 미국 의회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총 도엽수가 가장 많고, 지도 제작자가 가장 다양하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인 만큼,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50,000 지형도, 1,864도엽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시기별로 제작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에 대해 소장범위, 지형도의 구성, 직인(職印)·인기(印記)·메모기록 등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작기관, 소장처, 이관정보 및 지형도를 활용한 흔적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의회도서관에는 부산, 가덕도, 동두말, 호도반도 도엽이 소장되어 있으며, 제3차지형도 중 제3회수정측도된 12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도엽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지형도의 제작자 또한 11개의 기관으로 다양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지도제작 기관의 조직 개편과 기관명의 개칭이 지도에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해외 소장본인 만큼,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이관되기 전 원소장처를 분류한 결과, 소장된 도엽 중에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文部城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경성사단참모부(京城師團參謀部)’를 확인하였고, 미국으로 유입되었을 당시에는 ‘AMS(Army Map Service)’에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근대적 측량 방법으로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20세기 초의 한반도 지형은 물론 지역의 변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다. 이에 제3차지형도 전체 도엽을 활용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해안선과 하천을 GIS 기술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시기별로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여 지역단위로 행정구역, 교통로, 하천, 지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와 현재 해안선 내부 한반도 면적을 비교한 결과, 두 해안선 기준으로 한반도 면적의 차이가 제도도 면적에 약 2배로 나

타났다. 그리고 서해안 일대의 두 해안선 사이에 변화는 100년의 기간 동안 간척사업을 통해 농경지, 산업시설, 주택시설 등이 입지하여 지리 환경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단위와 지역단위로 GIS를 활용한 복원과정과 방법은 한국의 경관 변화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을 정리함에 첫 번째 의의를 둔다. 이는 20세기 중반 한국 근대지형도의 유출과정에 대한 연구는 물론, 앞으로 해외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 조사와 이를 활용한 기초적인 연구로, 향후 근대지형도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해안선의 비교를 통해 20세기 초 한반도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과거의 역사지리환경에 대한 복원 과정은, 100년 동안 변화된 한반도 경관 연구에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제시될 것이다.

주요어 : 한국 근대지형도,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근대지
도, 외방도, 복원, GIS, 디지털 아카이브

목 차

논문개요	i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과 선행 연구	4
1) 연구 방법	4
2) 선행 연구	6
II. 한국 근대지형도 제작	19
1. 한국 지도 측량사	19
1) 조선 후기에서 19세기 말	19
2)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	24
3) 광복 이후	28
2. 한국 근대지형도 제작	31
1) 한국 근대지형도의 측도 과정	31
2) 한국 근대지형도의 제작 과정	38
III. 한국 근대지형도 소장기관별 현황 및 비교	53
1. 국내 소장기관	55
1) 국립중앙박물관	56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77

3) 종로도서관	90
4) 국토지리정보원	97
2. 국외 소장기관	104
1) 미국 의회도서관	104
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24
3. 기관별 소장 현황 및 비교	142
IV.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 특징	147
1. 제1차지형도의 특징	149
1) 제1차지형도의 구성	149
2) 제1차지형도의 직인·인기·이관정보	152
2. 제2차지형도의 특징	154
1) 제2차지형도의 도엽명 비교	154
2) 제2차지형도의 구성	158
3) 제2차지형도의 직인·인기·이관정보	162
3. 제3차지형도의 특징	164
1) 제3차지형도의 새로운 도엽 확인	165
2) 제3차지형도의 구성 내용	173
3) 제3차지형도의 직인·인기·이관정보	194
4. 한국 근대지형도의 철도보입(鐵道補入)	200
5. 한국 근대지형도의 판권(板權)과 활용	205
1) 저작권소유 및 인쇄·발행자 분류	205
2) 이관 소장처별 분류	218
3) 지형도 사용(메모) 정보	223

V. 한국 근대지형도의 활용	231
1.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복원	232
1) 복원 과정	232
2) 해안선과 하천 복원	236
2. 한국 근대지형도를 이용한 ‘공주’의 변화 과정	262
1) 한국 근대지형도 ‘공주’ 도입	262
2)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화	264
3) 교통로의 변화	276
4)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20세기 전반 ‘공주’의 모습	285
VI. 결론	289

참 고 문 헌

ABSTRACT

※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자료 목록	5
<표 2>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의 주요내용	9
<표 3>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중 조선지도(朝鮮地圖) 관련 내용	11
<표 4> 한성부와 팔도관찰사영의 극고표 (1791년)	20
<표 5> 종이지도 제작현황 (2015년)	30
<표 6> 임시토지조사국의 측량 내용 (1910~1918년)	33
<표 7> 임시토지조사국의 지형도 제작 내용	35
<표 8> 한국 근대지형도의 측도 과정	36
<표 9> 육지측량부 도식	37
<표 10> 제1차지형도 내용	42
<표 11> 제2차지형도 내용	45
<표 12> 제3차지형도의 내용	49
<표 13> 제1차지형도·제2차지형도·제3차지형도의 내용 비교	50
<표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축척별 한국 근대지도 목록	57
<표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작시기별 도엽	59
<표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60
<표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63
<표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63
<표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64
<표 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67
<표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67
<표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68
<표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도엽	69
<표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72

<표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72
<표 26> 국립중앙박물관 제3차지형도 미소장(未所藏) 도엽	75
<표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도엽	75
<표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	76
<표 2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76
<표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작시기별 도엽	79
<표 3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발행년도 도엽	79
<표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82
<표 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85
<표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85
<표 3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88
<표 3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88
<표 37>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93
<표 38>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95
<표 39>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도엽	99
<표 40>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99
<표 41>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102
<표 42>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수정측도년도	102
<표 4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50,000 지형도 현황	107
<표 44>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발행년도 도엽	109
<표 45>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109
<표 46>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111
<표 47>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114
<표 48>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115
<표 49>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119
<표 5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119
<표 51>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도엽	121
<표 52>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	122

<표 5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도엽	123
<표 5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장서 조선관계지도자료 목록	125
<표 5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126
<표 5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129
<표 57>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131
<표 5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134
<표 5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의 증보개관 도엽	135
<표 60>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의 발행(發行年)이 상이한 도엽	136
<표 6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139
<표 6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139
<표 63> 1:50,000 지형도의 기관별 소장 내용	143
<표 64> 제3차지형도의 수정측도별 도엽	143
<표 65> 기관별 소장 현황	144
<표 66> 1:25,000 지형도의 기관별 소장 내용	145
<표 67>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 Class 분류	147
<표 68>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 Subclass 분류	148
<표 69> 제1차지형도 '개성'도엽의 난외주기 내용	151
<표 70>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의 상이한 도엽명 비교	155
<표 71> 제2차지형도 '고양'도엽의 난외주기 내용	161
<표 72> 제3차지형도 현황	164
<표 73> 제3차지형도의 새롭게 확인한 네 도엽	165
<표 74> 제3차지형도의 새롭게 확인한 방구미리 도엽	170
<표 75>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난외주기 내용	175
<표 76>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제1회수정측도)의 난외주기 내용	178
<표 77>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제2회수정측도)의 난외주기 내용	181
<표 78>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제3회수정측도)의 난외주기 내용	184
<표 79> 제3차지형도 청사진 도엽	192
<표 80>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직인·인기	198

<표 81> 이관 기관과 내용	199
<표 82> 철도보입 소속도엽과 도엽	200
<표 83> 일제강점기 사설철도 노선	201
<표 84> 철도보입 도엽의 측도·수정측도·제판	202
<표 85> 저작권소유자 인쇄결발행자 분류	205
<표 86> 소장처별 분류	218
<표 87> 20세기 초의 수계망과 해안선의 복원 과정	234
<표 88> 20세기 초와 현재 해안선 영역의 면적 비교	239
<표 89> ‘공주’ 도엽의 판권(板權)	263
<표 90> 시기별 ‘공주’ 도엽의 지명 통계	272
<표 91> ‘공주’ 도엽의 도로 길이(km)	280

그림 목 차

(그림 1) 도리도표(八道地圖, 咸鏡北道)	22
(그림 2) 《청구도》의 서문	23
(그림 3) 《대동여지도》의 좌표	24
(그림 4) 《元山津》해도 (1878년)	26
(그림 5) 《迎日灣略圖》, 柴山尙則 제작 (1891년)	27
(그림 6) 외방도 중 한국 근대지형도 작성현황	28
(그림 7) 광복 이후 육군측지부대의 1:50,000 지형도 (1954년)	29
(그림 8) 대마도와 부산의 연결삼각망	33
(그림 9) 한국의 대삼각본점망(大三角本點網) 지도	34
(그림 10) 제1차지형도 제작범위	39
(그림 11) 제1차지형도의 제작범위, 측도 추정지도와 영인본 수록 도엽	40
(그림 12) 제1차지형도의 부정합 도엽	41
(그림 13) 제2차지형도의 제작범위	44
(그림 14) 제3차지형도 측도별 도엽	46
(그림 15) 제3차지형도의 제작범위	47
(그림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직인	57
(그림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61
(그림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측도년도	62
(그림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65
(그림 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	66
(그림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및 수정측도	70
(그림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	71
(그림 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직인	78
(그림 2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80

(그림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 · 발행년도	81
(그림 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83
(그림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축도년도	84
(그림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86
(그림 2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축도년도	87
(그림 30)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직인 · 인기	90
(그림 31) 1:50,000 조선지도일람표(朝鮮地圖一覽表)	91
(그림 32)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과 수정축도	92
(그림 33)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축도년도	96
(그림 34)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97
(그림 35)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과 수정축도	98
(그림 36)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축도년도	103
(그림 37) 한국 근대지형도 의회도서관으로의 유출경로	106
(그림 38)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108
(그림 39)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 · 발행년도	110
(그림 4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112
(그림 41)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축도년도	113
(그림 42)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116
(그림 4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축도년도	117
(그림 44)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수정축도	118
(그림 45) 한국 근대지형도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경로	124
(그림 4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127
(그림 4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축도년도	128
(그림 4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132
(그림 4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축도년도	133
(그림 50)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137
(그림 5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축도년도	138
(그림 52) 제1차지형도의 구성	149

(그림 53) 제1차지형도 ‘개성’도엽(평양 2호)	150
(그림 54) 개성도엽의 직인·인기·이관정보	152
(그림 55) AMS도엽번호, 개성 ‘6331-II’	153
(그림 56)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도엽명	155
(그림 57) 제2차지형도의 구성	158
(그림 58) 제2차지형도 ‘고양’도엽(경성 2호)_01	159
(그림 59) 제2차지형도 ‘고양’도엽(경성 2호)_02	160
(그림 60) 고양도엽(경성 2호)_01의 직인·인기·이관정보	163
(그림 61) 고양도엽(경성 2호)_02의 직인·인기·압인·이관정보	163
(그림 62) 제3차지형도의 새롭게 확인한 4개 도엽의 위치	166
(그림 63) 호도반도 도엽(원산 5호)	167
(그림 64) 부산 도엽(부산 14호)	167
(그림 65) 가덕도 도엽(마산 2호)	168
(그림 66) 동두말 도엽(마산 3호)	168
(그림 67) 방구미리(芳久美里) 도엽(함흥 8호)	169
(그림 68) 원산 지역(영인본)	171
(그림 69) 원산 지역	171
(그림 70) 부산, 마산 지역(영인본)	172
(그림 71) 부산, 마산 지역	172
(그림 72) 제3차지형도의 구성	173
(그림 73)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공주 14호)	174
(그림 74) 제1회수정측도 ‘공주’도엽(공주 14호)	177
(그림 75) 제2회수정측도 ‘공주’도엽(공주 14호)	180
(그림 76) 제3회수정측도 ‘공주’도엽(공주 14호)	183
(그림 77) 채색 1색(흑색 단색), 안악도엽(해주 9호)	188
(그림 78) 안악도엽(해주 9호)의 뒷면	188
(그림 79) 채색 2색(하천 담청색), 이리도엽(군산 1호)	189
(그림 80) 채색 3색(도로 갈등색), 대정급마라도(제주도남부 9호)	190

(그림 81) 채색지도(갈색), 안변도엽(원산 6호)_01	191
(그림 82) 채색지도(녹색), 안변도엽(원산 6호)_02	192
(그림 83) 청사진, 강화도엽(경성 10호)	193
(그림 84) 2색, 강화도엽(경성 10호)	193
(그림 85)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인기	194
(그림 86) 제1회수정측도 공주도엽 직인·인기·이관정보	195
(그림 87) 제2회수정측도 공주도엽 직인·인기·이관정보	196
(그림 88) 제3회수정측도 공주도엽 직인·인기·이관정보	197
(그림 89) 여주도엽(충주 5호), 1910년 측도	203
(그림 90) 여주도엽(충주 5호), 1915년 측도	203
(그림 91) 여주도엽(충주 5호), 1915년 측도 1932년 철도보입	204
(그림 92) 중화도엽(평양 3호)	206
(그림 93)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	206
(그림 94) 구석평(강릉 6호)	207
(그림 95)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207
(그림 96) 대전도엽(대전 11호)	208
(그림 97)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208
(그림 98) 백령도도엽(백령도 5호)	209
(그림 99)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209
(그림 100) 울진도엽(울진 11호)	210
(그림 101) 참모본부	210
(그림 102) 부산도엽(부산 14호)	211
(그림 103)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211
(그림 104) 목포도엽(목포 12호)	212
(그림 105)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212
(그림 106) 울릉도도엽(울릉도 3·4호)	213
(그림 107)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213
(그림 108) 김천도엽(상주 16호)	214

(그림 109) 관동군사령부	214
(그림 110) 청석두리도엽(해주 3호, 1930년 수정측도)	215
(그림 111) 내무국토목과와 수정흔적	215
(그림 112) 의정부(춘천 14호, 1941년 수정측도)	216
(그림 113) 세포(철원 9호, 1941년 수정측도)	216
(그림 114) 사정국토목과와 수정흔적	216
(그림 115) 저작권소유·인쇄발행자 미기록, 인천도엽(경성 8호)	217
(그림 116) 우수영도엽(진도 9호)	219
(그림 117)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	219
(그림 118) 연천도엽(철원 16호)	220
(그림 119) 경성제국대학 직인	220
(그림 120) 장연도엽(해주 15호)	221
(그림 121) 경성사단참모부	221
(그림 122) 몽금포도엽(장산곶 3호)	222
(그림 123) AMS 번호	222
(그림 124) 중화도엽(평양 3호)	224
(그림 125) 세포도엽(철원 9호)	225
(그림 126) 천안도엽(충주 16호, 1916년 측도·제판), 濩泉(里)와 天安 邑內里	226
(그림 127) 구성도엽(안주 9호)	227
(그림 128) 구성도엽(안주 9호) 제2회수정측도	228
(그림 129) 1917년 측도와 1939년 제2회수정측도 비교	229
(그림 130) 원산(위)과 부산·마산(아래) 지역 복원 화면	237
(그림 131) 20세기 초의 해안선의 지도화	238
(그림 132) 20세기 초와 현재 국토면적 비교	240
(그림 133) 20세기 초의 남포 지역의 해안선	242
(그림 134) 제3차지형도의 남포 지역	243
(그림 135) 20세기 초의 인천·시흥·안산 지역의 해안선	244
(그림 136) 제3차지형도의 인천·시흥·안산 지역	244

(그림 137) 20세기 초의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해안선	246
(그림 138) 제3차지형도의 군산·김제·부안 지역	246
(그림 139) 20세기 초의 목포·영암 지역의 해안선	247
(그림 140) 제3차지형도의 목포·영암 지역	247
(그림 141) 20세기 초의 수계망의 지도화	250
(그림 142) 20세기 초의 한강의 유로(난지도에서 잠실까지)	251
(그림 143) 제3차지형도 ‘京城’ 도엽 (1926년 제1회수정측도), 난지도, 여의도	252
(그림 144) 제3차지형도 ‘蠶島’ 도엽 (1915년 측도), 부리도	253
(그림 145) 20세기 초의 금강의 유로(공주시 부근 일대)	253
(그림 146) 현재와 20세기 초의 낙동강 하류의 유로	254
(그림 147) 20세기 초의 대동강의 유로(평양시를 중심으로)	255
(그림 148)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와 개천	259
(그림 149) 도성내의 개천	260
(그림 150) 현대 도로와 개천	261
(그림 151) 사례도엽 ‘공주’	263
(그림 152) 조선후기 공주목 (1864년)	265
(그림 153) 제2차지형도 ‘公州’ (1910년 측도)	266
(그림 154) 제2차지형도 ‘公州’ (1910년 측도)의 공주의 일부분	267
(그림 155) 일제강점기 공주군 (1914년)	268
(그림 156) 제3차지형도 ‘公州面’ (1914년 측도)	269
(그림 157) 제3차지형도 ‘公州面’ (1914년 측도)의 공주면 부근	269
(그림 158)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公州郡’ (1938년 수정측도)	270
(그림 159)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公州郡’ (1938년 수정측도) 공주읍 부근	271
(그림 160) 제2차지형도 ‘公州’ (1910년 측도)의 공주시까지의 지명	273
(그림 161) 제3차지형도 ‘公州’ (1914년 측도)의 공주시까지의 지명	274
(그림 162) 제1회수정측도 ‘公州’ (1919년 측도)의 공주시까지의 지명	275
(그림 163) 교통로의 범례	277
(그림 164) 제2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0년 측도)의 도로	278

(그림 165) 제3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4년 측도)의 도로	279
(그림 166)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38년 수정측도)의 도로	280
(그림 167) 금강교 기념엽서 목교 형태(1916, 위), 배다리 형태(1920년대, 아래)	282
(그림 168) 공주 금강교(錦江橋)의 모습	283
(그림 169) 수부(水部)의 범례	284
(그림 170) 제2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0년 측도)	286
(그림 171) 제3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4년 측도)	286
(그림 172)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19년 수정측도)	287
(그림 173)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28년 수정측도)	287
(그림 174)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38년 수정측도)	288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역의 경관을 연구할 때 역사적 근거로 고지도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지도와 현대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은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지도의 제작 목적, 측량 방법, 사고관 등 지리정보·지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에는 당시 지역에 대한 인식과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그동안 과거의 인문, 자연경관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근대에 제작된 지도를 주목해야 할 점은 근대지도가 곧 지역의 근대와 지도제작의 근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¹⁾.

한국 지도 역사를 볼 때, 한반도 전역을 근대적 측량 방법으로 지도 제작을 한 시기는 19세기 말부터이다. 근대적 측량기구인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측량 지도를 제작하였으나, 한성부 등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전에 1876년 강화도조약과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제물포조약을 체결되면서, 지도 제작은 일본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한일병합 이전 비밀군사지도를 제작하였고, 이후 근대적 측량 방식으로 한반도 전역에 축척이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한반도는 물론 만주·대만 등 동아시아 일대 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를 외방도(外邦圖)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은 물론, 해외 기관에 소장된 외방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일본에 의

1) 양보경, 2005.3· 4, “테마기행: 지도이야기(8)-국토의 중심, 도성과 도성도”, 測量, 대한측량협회, pp.56~57.

해 제작된 외방도 중에 한반도를 대상으로 제작된 지형도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는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방도 중 조선반도(朝鮮半島)와 관련된 지형도(朝鮮地形圖)를 ‘한국 근대지형도’라고 부르기로 하며, 이는 19세기말 시작된 근대적 측량을 통해 1945년 전까지 제작된 지형도를 뜻한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지형도의 제작 방법, 일본의 각 기관에 소장하게 된 경로, 해외 기관으로 유출된 경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1996년 영인된 『舊韓末 韓半島地形圖』²⁾와 1998년 영인된 『(近世) 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³⁾를 통해 일본이 제작한 제1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를 좀 더 쉽게, 그리고 현재에는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과 미국에서 수집한 지형도를 영인한 것이다.

한국 근대지형도는 그동안 일본,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 왔는데, 한국의 기관에도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소장한 일부 기관이 원문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본 논문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기에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에 관한 연구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지도 측량사를 소략하게 정리하고, 일본이 제작한 외방도 중 한국 근대지형도에 대한 측도 및 제작 과정과 축척별 종류, 특히 축척 1:50,000와 1:25,000 한국 근대지형도를 제작된 시기별로 정리하여 각 시기별 한국 근대지형도를 비교·분석하여 지도학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현황을 조사, 정리하여 소장기관별 지도학적 구성과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국내외 기관 중에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는 다른 기관에 비해 도엽이 가장 많고,

2) 朝鮮總督府(남영우 편), 1996, 『舊韓末 韓半島地形圖』, 성지문화사.

3) 朝鮮總督府(경인문화사 편), 199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경인문화사.

제작자가 가장 다양한 지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일본이 아닌 제3국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형도의 구성 내용과 직인(職印), 인기(印奇), 기입패모 등을 통하여 제작시기, 소장처, 이관정보 및 지형도를 활용하여 사용한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넷째,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한반도 전체의 지형도를 활용하여 전국단위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해안선과 하천을 복원하고, 시기별로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여 지역단위로 지명, 행정구역, 교통로, 하천 등을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지리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지도학(GIS)과 지리학을 연결⁴⁾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한국 근대지형도가 지닌 의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지도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100년 전의 한국의 지역경관, 지형경관의 모습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료로, 전국단위, 동일시점, 단일시점의 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100년 동안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이력을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정확한 자료원이다. 한국 근대지형도를 기준으로 50년대, 70년대의 변화상을 시계열적으로 만듦으로 한국의 역사경관을 복원할 수 있다. 이 면에서 한국 근대지형도의 정리와 복원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 근대지형도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으므로, 본 논문은 한국 기관(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종로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와 해외(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기관에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여 GIS 방법으로 근대경관의 단면을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4) 허우궁, 2011, “지도와 사회”, 한국고지도연구 Vol.3 No.2, p.14. 논문에서 지도학(GIS)의 기술을 기반으로 주제가 바뀌면서 지도학(GIS)과 지리학의 간극이 생겨났음을 말하고 있다.

2. 연구 방법과 선행 연구

1)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첫째, 일본에서 연구된 외방도 중 한국 근대지형도와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기에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를 축척별로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축척이 1:50,000, 1:25,000인 지형도에 관해 시기별 축도 방법과 제작 도엽, 제작 과정을 조사, 정리하였다. 1:50,000 지형도는 시기에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분류하여 소장범위, 제작방법, 축도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한국근대지형도를 소장한 국내외 기관을 선정하고,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국내 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종로도서관, 국립지리정보원 4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국외 기관으로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조사하였다<표 1>. 조사 방법은 우선 지도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직접 사진 촬영을 통해 하였다. 그리고 지도 이미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정리,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관에서 발행한 지도 목록집을 바탕으로 소장 현황을 정리하고 조사하였다.

<표 1> 연구 자료 목록

기관 또는 도서명	도엽	연구 자료 형태
국립중앙박물관	1,520	지도자료 목록집, 원본 열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09	원본 열람
종로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22	웹사이트 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국토지리정보원	416	웹사이트 자료(http://map.ngii.go.kr/pd/ctlsSvc/ctlsSvc.do#)
미국 의회도서관	1,864	사진 촬영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401	지도자료 목록집
(근세)한반도오만분일지형도	722	영인본(한국)
구한말한반도 1:5만지형도	484	영인본(한국)
일만분일조선지형도집성	96	영인본(일본), 柏書房(1/만)
조선반도지도집성	475	영인본(일본), 科學書院(1/5만, 1/2만, 1/2만5천)

注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의 원본은 일부 열람.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의 원본 이미지는 양보경(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양윤정(성신여대 강사)이 2006~2007년 촬영한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현재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사진 촬영 이미지를 제공 받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 기관 중에 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 근대지형도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 중 1:50,000 지형도, 1,864도엽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양보경·양윤정이 사진 촬영한 자료를 제공 받아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의 소장범위, 지형도의 구성, 직인, 인기, 기입메모 등을 확인하여 제작기관, 소장처, 기관정보 및 지형도를 활용한 흔적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넷째, 전국 단위로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 727도엽을 활용하여 20세기 전반의 해안선과 하천 원형 복원하였다. 현재와 일제강점기의 해안선과 하천의 모습, 변화상을 비교하였고, 근대 시기의 해안선과 하천의 원형을 드러

내 보였다. 지역 단위로 ‘공주’ 지역을 사례로 한국 근대지형도가 측도, 수정 측도되면서 변화된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비교하였다.

다섯째, 한국 근대지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ArcGIS 10.3.1.을 이용하여,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의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의 인덱스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각 시기별 측도년도, 재판년도, 인쇄·발행년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 본 프로그램은 각 기관별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특징별로 비교·분석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2) 선행 연구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로는 근대지도의 기초 내용에 관한 연구, 지도 측량사에 대한 연구, 일본이 제작한 외방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외방도 중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역사지도학 연구가 있다.

첫째, 근대지도의 초기 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찬·양보경(1994)⁵⁾은 지도는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현상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근대지도는 근대식 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그린 지도를 말하고, 특히 1890년대 이후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광문, 융희연간에 제작된 근대지도를 소개하였다. 이 시기 한국에서 제작한 지도 외에 일본, 서양에서도 서울 및 한국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특히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지도 제작이 활발했음을 언급하고 있다⁶⁾.

양보경(2005)⁷⁾은 문화역사지리학회 심포지움 「근대와 지리」에서 지리학

5) 이찬·양보경, 1994, “서울 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Vol.- 3, pp.1~39.

6) 양보경, 2005.3· 4, “테마기행: 지도이야기(8)-국토의 중심, 도성과 도성도”, 測量, 대한측량협회, pp.56~57.

7) 양보경, 2005, “지도의 근대와 전근대”, 문화역사지리학회 심포지움 「근대와 지리」, pp.1~

의 한 분야인 한국 지도의 근대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일본에 의해 제작된 한국의 근대지도를 언급하고, 1:50,000, 1:10,000, 1:25,000, 1:500,000 등의 지형도를 소개하였다.

김중혁(2005)⁸⁾은 경기지도집성Ⅱ의 논고를 통해 한국에서 근대적 측량을 통한 1:50,000 대축척 지도의 제작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 논고에서는 특히 1:50,000 지형도 중에 제1차지형도인 약도(略圖)와 제3차지형도에 관해 지도학적으로 논하고 있다.

김중혁(2005)⁹⁾은 상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지도 8종에 관한 자료에 대한 특성과 가치를 기술하였다. 8종의 근현대 지도는 1910년대와 1930년대에 제작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두 차례에 걸쳐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말한다. 이 지도들은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되었고, 이후 한국의 근대지도 제작은 미군정기에 미군으로 이관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근대지도는 「구한말 한반도지형도」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하고, 1910년대 1:50,000 지형도 중 상주일대의 도엽을 중심으로 지형도를 분석하였다.

오상학(2015)¹⁰⁾은 근대적 지리학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음을 말하면서, 측량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작된 근대 지도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본에 의해 처음으로 측량되었다는 기존 연구를 지적하고,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측량기구인 양지아문의 측량작업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근대적 지도 제작 방법이 도입되었지만,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병합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근대적 지도학은 단절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 근대 관련한 지도 측량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진호(198

16.

8) 김중혁, 2005, “한국의 근현대 지도 제작 약사(略史)”, 경기지도집성Ⅱ-경기의 근현대지도(논고).

9) 김중혁, 2005, “상주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의 자료 특성과 내용적 가치”, 한국고지도연구 제7권 제1호, pp.109~126.

10)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9)¹¹⁾는 19세기 말의 지적과 측량의 역사를 논하였다. 주요내용은 측량외침과 한국백성의 저항과 역정, 양지아문 설립과 레이먼드 크럼(Reymond Krumm)¹²⁾의 측량교육, 한말 측량사양성과 토지조사, 민유지 측량을 위한 교육, 학교 부설 측량교육과 토지조사에 대한 것이다. 1908년까지 측량학교만 135개소나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비밀리에 측량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지아문에 초빙기사로 온 측량사 크럼과 측량학교 학생들과 제작한 《한성부지도(漢城府地圖)》를 소개하며 19세기 말에 지적과 측량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결과물을 만들어 냈음을 강조하였다.

최선웅(2015)¹³⁾은 한국의 지도제작사에서 지도제작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한 시기로 볼 수 있지만, 선진 지도제작은 일본에 의해 주도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대한제국시기에 측량과 지도제작을 위한 정부기구가 설치되었으나, 일본은 조선 각지를 측량하여 지도제작을 간행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1990년 말까지의 지도제작 기술을 고찰한 연구이다.

셋째, 일본이 제작한 한국 근대지형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 근대지형도 연구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시미즈 야스오(清水靖夫)(1986)¹⁴⁾에 일본통치기에 제작된 조선반도지형도(朝鮮半島地形圖)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조선반도지형도 축척별로 1:50,000, 1:25,000, 1:10,000, 1:200,000, 1:500,000 등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조선반도지형도 1:50,000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의 3종류로 제작된 것을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오사카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인문지리학교실(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11) 이진호, 1989, 대한제국 지적 및 측량사, 토지.

12) 미국인 측량기사로 양지아문에서 초빙한 초대 수기사(首技師)로 활동하였다.

13) 최선웅, 2015, “근현대 지도제작 기술의 변천”, 한국지도학회지 15권 2호, pp.103~115.

14) 清水靖夫, 1986,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 解題, 柏書房.

人文地理學教室)의 ‘외방도연구그룹(外邦図研究グループ)’에서 근대지형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3년에서 2014년까지 11권의 『외방도연구 뉴스레터(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를 발행하였고, 외방도연구 뉴스레터와 그 외 연구자료들이 오사카대학 인문지리학교실 웹사이트(大阪大學人文地理學教室のウェブサイト)에서 공개하고 있다¹⁵⁾. 서적으로는 3권,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2009)』¹⁶⁾, 『外邦図-帝國日本のアツア地図(2011)』¹⁷⁾,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図(2017)』¹⁸⁾을 출간하였다. 이 외에 자료집으로 『終戦前後の参謀本部と陸地測量部—渡辺正氏所藏資料集—(2005)』¹⁹⁾, 『日本地政學の組織と活動—綜合地理研究會と皇戰會—(2010)』²⁰⁾이 있다. 외방도 연구팀의 연구대상지역은 외방도가 제작된 모든 지역으로 일본, 조선, 중국, 만주, 인도, 대만, 동남아시아 등이 해당한다. 외방도를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를 파악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외방도연구 뉴스레터의 주요내용과 한국에 관련된 논문을 정리하였다<표 2, 3>.

<표 2>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의 주요내용

No	발행	주요 내용
1	2003.3	외방도 기초적연구 : British Library 소장의 외방도 미국 의회도서관, AGS Golda Meir도서관, 하와이대학 해일턴도서관의 소장현황 조사 도호쿠대학 소장의 외방도 활용 현황 조사 오차노미여자대학 소장의 외방도 조사 오사카대학문학연구과 인문지리학교실소장 외방도 조사
2	2004.3	외방도 기초적연구 :

15) 阪大學人文地理學教室のウェブサイト:

<http://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

16) 小林 茂(編), 2009,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 「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17) 小林 茂, 2011, 外邦図—帝國日本のアジア地図—, 中公新書2119.

18) 小林 茂(編) 2017,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図, 大阪大學出版會.

19) 渡辺正氏所藏資料集編集委員會, 2005, 終戦前後の参謀本部と陸地測量部—渡辺正氏所藏資料集—,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20) 小林 茂·鳴海邦匡·波江彰彦, 2010, 日本地政學の組織と活動—綜合地理研究會と皇戰會—,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p>외방도 작성 과정</p> <p>청국육군학생과 육지측량부수기소</p> <p>종전 전후의 참모본부와 지리학자와 교류 및 육지측량부에서 지리조사소에 개편 내용</p> <p>교토대학종합박물관의 소장 외방도 목록작성</p> <p>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 일본군 촬영 중국 항공 사진의 개황</p>
3	2005.3	<p>외방도 디지털 이미지화와 아카이브 구축(도호쿠대학)</p> <p>기후현도서관세계분포도센터의 외방도 수집과 정리, 활용</p> <p>외방도 측량기록(무라카미 수첩)</p> <p>제2차세계대전 말기의 일본외방도</p> <p>지도와 공중사진 : 패전 전후</p> <p>국립도서관소장의 외방도</p> <p>외방도측량연역사초안</p> <p>중국하문의 성곽도시연구에서의 외방도 이용</p>
4	2006.3	<p>외방도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이미지검색시스템)</p> <p>한국에 있는 외방도(군용비도)의 의의와 학술적가치</p> <p>일본육군지도와 원격탐사를 이용한 도시모니터링-자카르타</p> <p>오키나와현의 미군 제작지도에 대해</p> <p>와타나베 소장자료 국토지리원에 기증</p>
5	2008.3	<p>오차노미즈여자대학지리학교실과 외방도의 관계와 특징</p> <p>백두산 일대의 근세한국지도 임시제판 지형도</p> <p>오차노미즈여자대학 소장 대만지형도에 대해</p> <p>외방도의 반입경로</p> <p>청말에서 일제초기의 대만지도</p> <p>외방도 생성의 역사를 기록한 각종 목록과 외방도 초판인쇄</p> <p>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일본군 항공정찰사진</p>
6	2009.3	<p>러일전쟁 당시의 전쟁에서 정찰용으로 제작·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 내용</p> <p>종전 전후의 참모 본부 '연구동원학도'시대의 회상</p> <p>강연 기록 : 외방도의 성립과 행방, 활용 방법</p> <p>2008년 일본국제지도학회 정기대회 심포지엄 내용</p>
7	2010.3	<p>러시아 군의 러일전쟁 전장의지도 제작</p> <p>전시 하의 「皇軍」의「兵要地誌」와 지리학자의 참여</p> <p>네팔에 관련된 외방도(인도측량국 준비)에 대해</p> <p>외방도연구와 외방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p>
8	2011.3	<p>일본해도제작과정에 영국측량함(英國測量艦)의 기술지원</p> <p>미국 의회도서관, 휘순요새포대도및 5천분의1지형도의 해설및목록</p> <p>2010년도 일본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내용 수록</p>
9	2012.3	<p>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된 외방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의 보고</p> <p>간이 측량에 의한 외방도(청나라)의 새로운 (그림 소개</p> <p>대만의 관개수리의 발전과 수전개발</p> <p>참모본부대륙제7과에서 작성한 병요지지도 자료</p> <p>청일-러일전쟁기에 임시측도부가 중국대륙에서 제작한 지형도(오사카 대학 소장)</p> <p>미국에서 제2차세계대전 후 AMS에서 "Captured Maps" -(독일과 일본에서 접수한 지도)를 배정받은 대학과 도서관 목록</p>
10	2013.8	<p>미국 의회도서관 소장의 최초 외방도 측량원도데이터베이스 해설</p> <p>중국강북지역 항공사진촬영 주체로 촬영목적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의 자료에서</p>

		<p>대만 시찰보고</p> <p>미국 북태평양 측량함대(1853~1856)에 의한 지도와 그 목록</p> <p>미군이 제작한 오키나와지형도 -L893지도(1: 4,800)의 목록-</p> <p>북청사변시 제작된 2만분의1 "산해관" 지형도 (오사카대학 소장) -해설과 목록-</p> <p>2012년 인문지리학회대회 내용</p> <p>2013년 일본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성공서관에서 기상관측기록과 기상학 역사적 평가-</p>
11	2014.10	<p>하와이대학 해밀턴도서관에서 외방도·내방도의 새로운 발견</p> <p>교토대학의 1930년에 촬영한 항공사진</p> <p>서울대학교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 종로도서관에서 지도디지털아카이브의 견학 기록</p> <p>토호쿠 대학에서 '외방도 디지털아카이브' 운영과 활용</p> <p>자카르타 도시지역의 지도역사 1853~2010-공백 30년을 채울 외방도의 가능성-</p> <p>『조선국한성일본공서관기후경험록』기상데이터 관측지점에 대해</p> <p>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청국이십만분의1지도」의 해설과 목록</p> <p>미국 육군지도국(Army Map Service : AMS) 제작의 L893지도에 대해</p>

<표 3>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중 조선지도(朝鮮地圖) 관련 내용

No	발행	한국 근대지형도 관련 내용
1	2003.3	<p>외방도의 효시/시미즈 야스오(清水靖夫)</p> <p>British Library 소장의 외방도/하세가와 코지(長谷川孝治)</p> <p>주한미국 외방도의 소장현황-국회도서관 AGS Golda Meir도서관·하와이 해밀턴 도서관의 조사에서-/今里悟之·久武哲也</p>
2	2004.3	<p>외방도 작성 기록으로 각종일람도와 지리조사소에 외방도의 취급/나가오카 마사토시(長岡正利)</p> <p>종전전후의 참모본부와 지리학자 교류 및 육지측량부 지리조사소 개편내용(와타나베 자료를 바탕으로)/金窪敏知</p>
3	2005.3	<p>외방도측량의 기록-무라카미 수첩에 대해서-/牛越国昭</p> <p>국립국회도서관의 외방도/스즈키 준코(鈴木純子)</p> <p>『외방도측량연혁역사초안』제18권~20권 소개/牛越国昭</p>
4	2006.3	<p>한국에서 외방도(군용비도)의 의의와 학술적가치/남영우</p> <p>『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 미계재 지형도에 대해/오카다(타나) 료코(岡田(谷屋)郷子)</p> <p>『구한말한반도지형도』 1 : 50,000 해설/남영우·박택용 번역</p>
5	2008.3	<p>백두산 일대의 근세한국지도제판본의 지형도에 대해/남영우·이호상</p> <p>외방도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와 과제/村山良之·照内弘通·야마모토 켄타(山本健太)·미야자와 진(宮澤仁)</p>
6	2009.3	<p>외방도 디지털 아카이브 작성 및 공개에 따른 과제/村山良之·미야자와 진(宮澤仁)·세키네 료헤이(関根良平)</p>
7	2010.3	<p>러이사군의 러일전쟁 전장의 지도제작/金窪敏知</p> <p>대만, 한국 및 관동성의 일본 식민지지도 제작, 1895~1924/고바야시 시게루, 와타나베 리에, 나루미 쿠니타다</p> <p>1880년대 일본 육군 장교가 그린 한반도의 노선도/야마치카 쿠미코, 와타나베 리에, 고바야시 시게루</p>
8	2011.3	<p>「정보자원에 분석에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한 코멘트-외방도연구를 근거로-/파리아키히</p>

		코(波江彰彦)
9	2012.3	간이측량(簡易測量)에 의한 외방도(청국)의 새로운 지도 소개/아이다코우조우(井田浩三)
10	2013.8	미국 북태평양 측량 함대(1853~1856)에 의한 해도와 목록/고토 아츠시(後藤敦史)
11	2014.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종로도서관에서 지도디지털아카이브의 견학 기록/고바야시 시게루(小林茂)·야마모토 켄타(山本健太)·세키네 료헤이(関根良平) 도호쿠대학에서 「외방도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추이와 활용/세키네 료헤이(関根良平) 『조선국한성일본공사관기후경험록』에 기상데이터 관측 지점에 대해/고바야시 시게루(小林茂)·야마모토 켄타(山本健太)·세키네 료헤이(関根良平)

남영우(1992)²¹⁾는 일본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병요조선지지 및 한국근대지도의 작성 과정에서는 한국의 근대 지형도를 제작한 일제와 육군참모본부에 성립과 위치에 대해 설명과 육군참모의 첩보활동과 그의 행적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간행한 군용비도(軍用秘圖), 제1차지형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남영우(2007)²²⁾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에 대한 연구로 한국지도발달사에서 고지도와 현대지도의 잇는 작업이라고 언급하였다. 제2차지형도는 기존의 제1차지형도를 삼각측량에 의해 개측(改測)하거나 새롭게 측량하여 제작된 것이고, 제3차지형도는 식민지정책인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지도임을 논하고 있다.

남영우(2011)²³⁾는 조선말,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순으로 측량 칙령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조선말 측량 칙령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측량기관의 활동과 제작과 소장, 참모본부 간첩대의 해외 파견과 측량 배경, 간첩대의 측량과 정찰 루트, 초기 한국 근대지형도의 내용과 도식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비밀리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민간인들의 모습과 이와는 반대로 묵인하고 도와주는 관리 입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용석(2002)²⁴⁾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한반도 1/50,000 지형도에 대한

21) 남영우, 1992,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문화역사지리 4호, pp.77~96.

22) 남영우, 2007, “舊韓末과 日帝強占期の 韓半島 地圖製作”, 한국지도학회지 제7권 1호, pp.19~29.

23)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칙령사, 법문사.

제작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형도 구성에서 목포지역을 사례로 들어 도엽명, 행정구역, 도엽번호, 도엽번호, 범례, 축도 및 수정, 인쇄 및 발행, 제작기관, 축척의 지형도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대지형도를 활용하는 지역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양보경·양윤정(2009)²⁵⁾은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지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지도를 파악한 것으로, 'The Collection of Korea'로 분류·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도 142종, 주제도(subject 229종, region 29종, city 549종) 807종, 'Vault'본으로 분류된 한국 고지도 22종을 파악하고, 'Vault'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소개되지 않은 중요한 작품들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필사본 지도로, 50종 96장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工兵大尉海津三雄>, <陸軍歩兵大尉三浦自孝> 등 일본의 참모본부 소속 군인이 직접 손으로 그려 일본의 한국 침략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하고 중요한 의미를 언급하였다.

양윤정·양보경(2009)²⁶⁾은 미국 의회도서관 지도부가 소장하고 있는 'Vault'본 지도 중에 일본 군인들이 제작한 50종 96장의 비밀지도의 존재를 밝히고, 지도의 형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지도는 1878년에서 1895년,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로 인해 제작된 비밀지도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원본의 존재와 지도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근대지도 발달사에서 일본이 제작한 비밀지도가 고지도와 현대지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양윤정(2010)²⁷⁾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확인한 비밀군

24) 이용석, 2002,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 지형도의 성격과 활용", 생활문화연구 7, pp.49~68.

25) 양보경, 양윤정, 2009,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관련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pp.82~83.

26) 양윤정, 양보경, 2009, "19세기 후반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지도",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3호, pp.32~46.

사지도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 반도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비밀군사지도의 제작배경 및 수록정보를 파악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비밀군사지도와 대 동여지도, 일본 해군성수로국 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박선영(2006)²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를 중심으로 목록, 구성형태, 내용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81도엽, 제2차지형도 34도엽, 제3차지형도 256도엽을 확인하고, ‘천안’도엽을 사례로 지형도 변화상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외방도 중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역사지도학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²⁹⁾는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하여 조선시대 문화를 대상으로 주제별, 군현별로 분류하여 복원하였고, 25개 주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업이다.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전자지도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문화지도를 제작할 때 베이스맵과 데이터베이스 기초자료로 『구한말 한반도지형도』와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를 활용하였다.

김종혁(2001)³⁰⁾은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으로 역행법과 소급법³¹⁾을 이용하여 1770년대에 한강유역의 도로와 장시경관을 복원하였다. 복원하는 과정에

27)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8)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2002년, 2004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제1기, 제2기)을 받아 5년간(2002년 8월~2007년 8월) 구축한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IdxRoot.do>

30) 김종혁, 2001,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31) 기쿠치 도시오,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문화사, pp.144~145.

역행법이란 현재의 문화 경관을 분석하여 과거의 경관을 식별해내어 시대를 거슬러가면서, 후대에 변화된 경관에 대해 환원과 소거를 계속함으로써 과거의 문화경관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역행법이 과거의 경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경관을 자료로 하여 과거의 경관을 복원하는 방법이라면, 소급법은 현재의 경관에 초점을 맞추어 경관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서 『청구도』 · 『대동여지도』 · 1872년 군현지도 · 『구한말 한반도지형도』 ·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및 현대 1:5만 지형도를 활용하였다.

김중혁(2003)³²⁾은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것은 조선시대 역사지도, 문화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필수사항이라고 언급하고, 복원을 위한 필수 자료는 지도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부분적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복원하였다. 1861년의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대동여지도』와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한 1:5만 지형도³³⁾를 기본도로 활용하였다. 방법론으로 1914년부터 면의 이속을 소급, 추적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GIS 기술을 활용하여 역사지도를 구축하였다.

김중혁(2008)³⁴⁾은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전자문화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문화지도를 통해 전근대 자료를 지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것을 전자지도를 제작함으로써 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한말 한반도지형도』와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를 활용하였다.

김중혁(2009)³⁵⁾은 『구한말 한반도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형도에 있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43,746개의 지명에 대해 유형화 하였다. 지명은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으로 구분하고, 자연지명과 인문지명³⁶⁾은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구한말 한반도지형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대 상황과 지리 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보여 주는 문헌 자료, 고지도와 근대 지형도를 잇는 교량적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중혁(2013)³⁷⁾은 한국 근대 전자역사지도에 대한 편찬 수행하는 과정에

32) 김중혁, 2003, “朝鮮時代 行政區域의 變動과 復元”,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2호, pp.97~124.

33) 조선총독부(남영우 편), 1996, 『舊韓末 韓半島地形圖』, 성지문화사, 조선총독부(경인문화사 편), 2004,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경인문화사.

34) 김중혁, 2008,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국학연구 제12집, pp.263~290.

35) 김중혁, 2009,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 분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2호, pp.58~75.

36) 자연지명은 산지, 고개, 하천, 평야, 해안, 천정, 기타로, 인문지명은 취락, 경제, 교통, 군사, 문화, 기타로 분류하였다.

37) 김중혁, 201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개발 문화·역사지도의 DB 구조”, 대한지리학

서 전자역사지도를 바탕도, 기본도, 주제도, 일반도로 구분하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연 단위로 행정구역도와 해안선, 하천유로망, 철도망, 도로망을 시계열적으로 복원하였다.

정요근(2013)³⁸⁾은 GIS 기술을 기반으로 고려시대 역사지도를 제작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를 활용하여 바탕지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역사·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바탕지도 위에 고려시대의 군현 중심지와 군현의 영역을 현재의 행정단위와 어떻게 연결, 계승되는지 그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고려시대의 역사지도를 구축했는데 의의가 있다.

김현중(2017)³⁹⁾은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 방법론으로 역사지리정보시스템(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GIS)을 소개하고, GIS 기술로 지도를 구축하였다. 바탕지도로 조선시대와 가까운 시기에 근대적 측량 방법으로 제작된 『구한말 한반도지형도』와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를 활용하였다. 근대 지형도에서 도로를 추출하여 조선시대 교통로를 복원하였다.

배선학(2007)⁴⁰⁾은 1910년대의 경관을 담고 있는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를 활용하였다. 지형도를 도엽단위로 좌표를 부여하고, GIS 환경에서 현재 지도와 중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강릉지역에 한정하여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였다.

홍명진(2017)⁴¹⁾은 일본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활용하여 복원도를 제작한 상황을 소개하였다. 근세 시대(1603~1868년)

회 2013년지리학대회 발표논문요약집, pp.291~295.

38) 정요근, 2013, "GIS 기반 고려시대 역사지도의 제작", 한국중세사연구 37, pp.307~342.

39) 김현중, 2017,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활용한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 방법론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9권 제3호, pp.145~165.

40) 배선학, 2007, "1910년대 지형도를 이용한 근대화 이후의 도시 변화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10권 제3호, pp.93~103.

41) 홍명진, 2017, "일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연구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일본근세 시대 지역공간 복원방법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6호 pp.845~861.

의 문헌 자료들을 정리하여 일본 도쿄도 다이토쿠 우에노(日本東京都台東區上野) 지역을 사례로 복원도를 제작하였다. 역사지리학 분야에서 제작한 복원도는 일본 근세 시대의 실측도가 베이스맵으로 이용되었다.

이제까지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역사지도 연구에서 활용한 지도는, 모두 국내외 기관에 있는 원본이 아니고, 한국에서 영인본으로 출판된 『구한말 한반도지형도』와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를 활용하고 있다. 두 영인본은 한국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을 영인한 것이 아닌, 일본 국회도서관, 미국 클라크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영인한 것이다. 원본 자료로 연구한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자료를 활용(비밀간첩지도)한 양보경, 양윤정 연구와 박선영의 연구에 불과하다. 이 연구의 대상 지도들은 한국 근대지형도의 제작 시기보다 앞선 지도들이다. 현재 한국 근대지형도의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소장처는 물론 자료 파악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과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형도를 활용하여 100년 동안 변화된 한반도의 인문, 자연요소를 복원하는데 활용하기로 한다.

II. 한국 근대지형도 제작

한반도 전체 지역이 근대적인 방법으로 측량된 것은 19세기말 20세기초 일본에 의해서이다. 일본의 측량조직인 구육지측량부·조선총독부(舊陸地測量部·朝鮮總督府)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측량하여 조선반도(朝鮮半島)에 관한 지형도를 제작하였다⁴²⁾. 본 장에서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측량 역사와 제작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1. 한국 지도 측량사

한국 지도의 측량 역사는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 후기에서 19세기 말, 둘째는 일제에 의해 한국 근대지형도가 제작이 된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광복 이후, 현대의 측량 및 지도 제작에 대해 살펴본다.

1) 조선 후기에서 19세기 말

조선 후기에서 19세기 말에 좌표를 사용하여 제작된 지도들을 볼 수 있다. 세종대에 위도의 관측이 있었다는 기록되었으나 관측한 값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세계지도와 현대적인 관측기술이 중국을

42) 小林 茂(編), 2009,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清水 靖夫,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大阪大學出版會, p.131.

통해서 전래된 시기이다. 『국조역상고』⁴³⁾의 기록을 보면 1713년(숙종 39)에 청사 하국주(何國柱)가 상한대의라는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한성부의 위도(북극고도)를 관측하였고, 37°39′ 15″ 를 얻었다. 1791년(정조 15)에 팔도 관찰사영의 위도와 동서편도를 한성부의 위도와 비변사 소장의 지도의 경위선을 기준으로 하여 극고표를 만들었다⁴⁴⁾.

이후 『여도비지』에 수록된 경위도 자료는 이 때 측정한 팔도관찰사영의 극고를 기준으로 하여, 군현의 극고와 편도를 측정하여 표로 만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⁴⁵⁾. 팔도관찰사영이 관측한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한성부와 팔도관찰사영의 극고표 (1791년)

팔도관찰사영	위도		경도		
	극고				
경도한성부	37° 39′ 15″		편연경동	13° 30′	중선
호서공주목	36° 06′		편한양서	09′	
영남대구부	35° 21′		편한양동	1° 39′	
호남전주부	35° 15′		편한양서	09′	
해서해주목	38° 18′		편한양서	1° 24′	
관동원주목	37° 06′		편한양동	1° 03′	
관북함흥부	40° 57′		편한양동	1°	
관서평양부	39° 33′		편한양서	1° 15′	

출처 :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p.21. <표 1-1>를 재구성함.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국조역상고』는 서활수(徐活修, 1736~1796)가 정조 20년(1796) 관상감의 제조(提調)로 있을 때 정조의 문화정책을 익찬하는 뜻에서, 종래 역상(曆象)에 관한 전서가 없는 것을 보고, 제서(諸書)에 산재하는 역대의 천문력상에 관한 기록을 수집시켜 분류 정리한 책이다.

44)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p.20.

45)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pp.383~384.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는 일정한 축척이 반영된 지도와 일정한 축척이 반영되지 않은 회화식 지도로 구분한다. 일정한 축척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근대적 측량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시 지도 제작을 위해 측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중,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평탄한 곳에서는 100리(里)를 1척(尺)으로 표시, 산협이나 수곡(水谷)의 곡선에는 120~130리를 1척으로 표시’하였다. 지도의 여백에 제척(梯尺)을 종(縱)으로 표시하고, 백리척(百里尺)이라고 그려 넣었다. 제척의 실제 거리는 약 9.5cm이므로 백리를 9.5cm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처음으로 제척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여 실제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게 하였다⁴⁶⁾.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팔도지도의 함경북도 지도에 표시된 백리척의 모습이다(그림 1).

17세기 이후에 대축척 지도가 제작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모두 대축척 지도로, 축척의 개념이 뚜렷하게 보이는 지도이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비변사지도(備邊司地圖)의 특징을 보면 전국단위의 지도집으로 축척이 1:64,000~53,000 정도로 조선시기를 통틀어 축척이 가장 큰 대축척지도이다. 방안지도(方眼地圖)로 방안(方眼)이 7~8.5mm 내외로 넣어 축척을 나타내었고, 지도에 표시된 지리정보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표현하였다. 방안도법(方眼圖法)의 사용과 축척의 표시는 점차 정교화 되고 정밀화 되어 이후에 제작한 지도의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⁴⁷⁾.

46)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pp.22~23.

47) 양보경,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규장각 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vol.15,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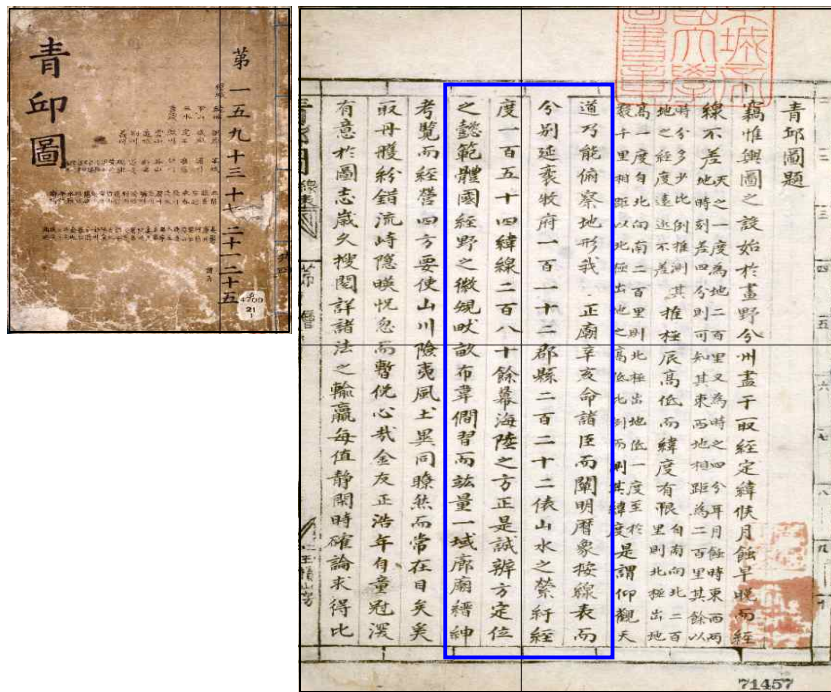
(그림 1) 도리도표(八道地圖, 咸鏡北道)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23

지도 좌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최한기가 작성한 김정호의 《청구도》의 서문에 잘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정묘신해(1791년)에 의상을 천명하여 선표(線表)를 안찰하고 지역을 분별하니 목부(牧府) 112, 군현(郡縣) 222로 산수의 엄함을 분계하였고, 경도 154, 위선 280여로 해륙을 덮었으니 이야말로 방을 분별하고 위치를 정하는 좋은 표본이요...’⁴⁸⁾

48)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p.21.제 인용.



(그림 2) 《청구도》의 서문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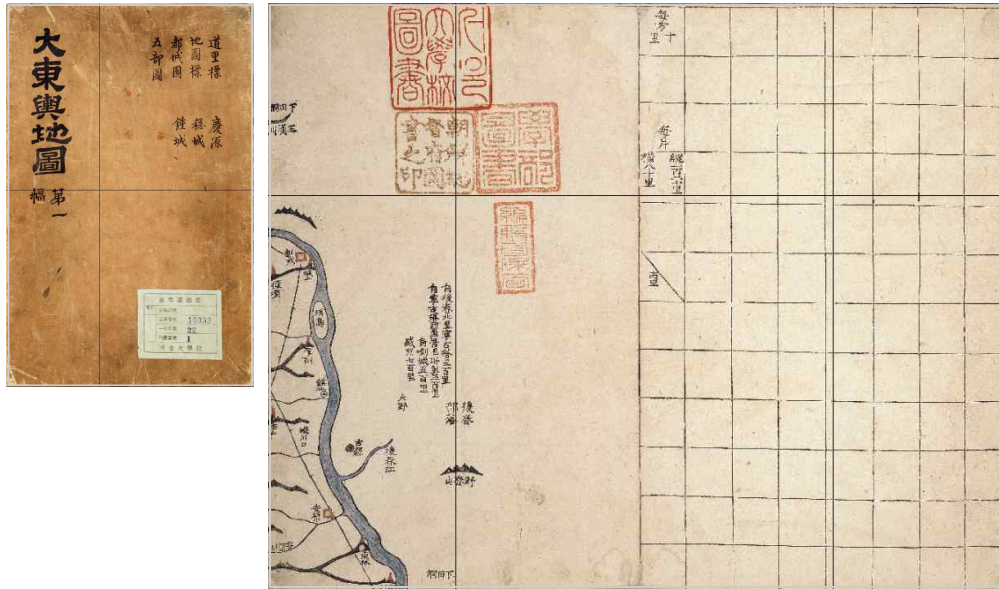
지도의 좌표를 ‘선표’로 표시하고, ‘경선’과 ‘위선’은 경위도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날줄과 씨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선 154, 위선 280’은 동서를 154로 나누고, 남북을 280으로 나눈 것으로 본다. 대략 10리를 기준으로 간격을 나누어 좌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22층으로, 각 층을 책의 크기로 접으로 수 있게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제작하였다. 각 층은 남북 120리, 동서 80리로 제작하였고, 축척은 약 1:160,000 정도이다. 각 층을 붙여서 만들면 길이가 약 8m, 폭이 약 3m로 대형 지도이다⁵⁰⁾. 지도에 축척

49)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축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pp.20~21.

50) 양보경, 1998, “대동여지도”, 한국사시민강좌, vol.23, pp.50~52.

표시는 없고, 제1층 방안으로 좌표를 표시하고 매방십리(每方十里)라고 적어 놓아 실질적인 축척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리를 눈금으로 10리마다 표시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대동여지도》의 좌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0333

2)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

1890년대 이후에 양지아문이 설치되어 근대식 측량 기법을 활용한 지도가 제작이 된다. 1898년 7월 6일에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으로 칙령 제25호이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근대적 측량 사무가 시작되었다. 칙령 제2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지아문은 내부와 농상공부에서 요청한 측량을 시행하고, 수기사(首技師) 1명은 외국인으로 초빙하고 기수보(技手補)는 10명 이내로 고용하여 20명을 견습시킨다. 양지아문 총재관은 각부 대신과 동등하니 경무사, 한성판윤, 각 관찰사 이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측량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방으로 시행하고 양지아문 기사가 지방 출장시는 순경이 보호한다.’

양지아문이 설치됨에 따라, 근대 측량법에 따른 측량이 실시되어 1899년 4월 1일에 남대문에서부터 근대적인 측량이 시작되었다. 양지아문은 3년 동안 유지되고 1901년 폐지되었다⁵¹⁾.

이 때 제작된 지도는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 《한양경성도(漢陽京城圖)》,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와 같은 전도에 삽입지도로 제작되었다. 또한 《실측도(實測圖)》, 《토지급산록도본(土地及山麓圖本)》, 《경부철도경성정차장부지평면도(京釜鐵道京城停車場敷地平面圖)》, 《대한의원병실설계도(大韓醫院病室設計圖)》와 같은 설계도류와 지적도 등이 제작되었다⁵²⁾.

일본은 운요호사건⁵³⁾으로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체결 내용 중에 제7조 내용을 보면, “일본은 조선의 연해·도서·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조선에 대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식민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때 일본 해군성이 근대적 측량 도구를 이용하여, 『해안해도(海岸海圖)』를 제작하였다⁵⁴⁾(그림 4).

51) 리진호, 1989, 대한제국 지적 및 측량사, 토지, pp.30~32.

52) 양보경, 2005.3·4, “테마기행: 지도이야기(8)-국토의 중심, 도성과 도성도”, 測量, 대한측량협회, p.57.

53) 운요호(雲揚號)사건, 조선이 문호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875년 군함 운요호를 항로 측량의 명목으로 조선 근해에 파견했다. 이때 강화도 부근에서 강화도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

54)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pp.403~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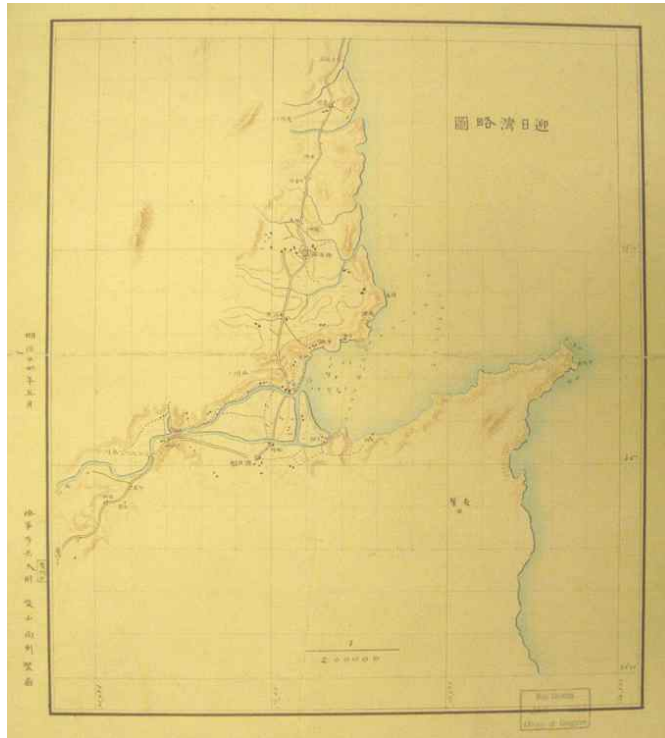


(그림 4) 《元山津》해도 (1878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1870년대 후반에 일본 첩보장교들이 한반도의 주요 거점 지역과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지역에서부터 북쪽지역까지 비밀리에 측량을 하고, 비밀군사지도를 제작하였다(그림 5). 이때 사용한 측도법은 신속측도, 노상측도, 목측측도, 기억측도 등을 사용하였다⁵⁵⁾. 일본은 한일병합 이전부터 한반도에 대해 근대적 측량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 사용한 보측·목측을 실시하였다.

55)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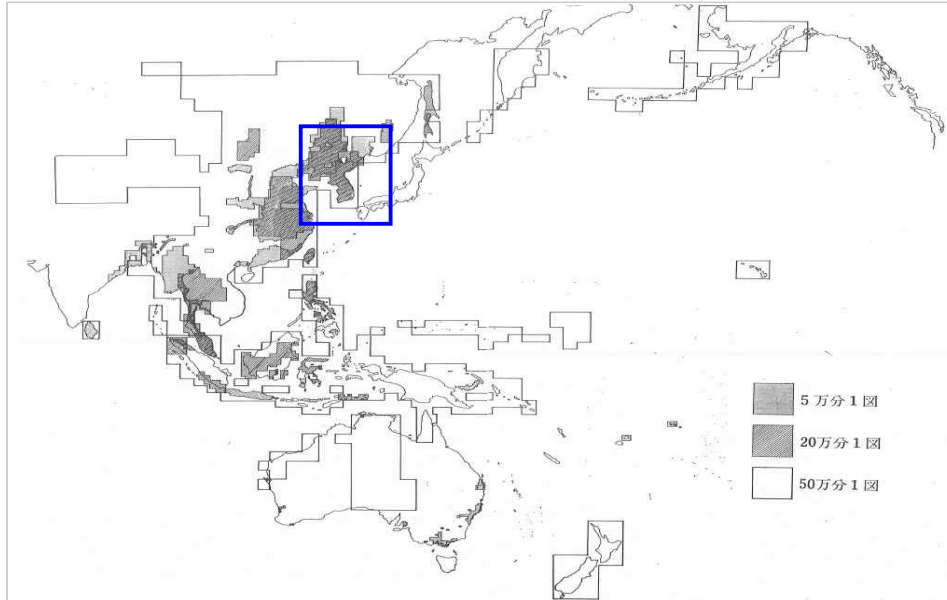


(그림 5) 《迎日灣略圖》, 柴山尙則 제작 (1891년)

출처 :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
 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p.61.

한일병합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의해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⁵⁶⁾에 의해 한국 근대지형도가 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축척이 1:50,000 지형도를 측도된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었고, 그리고 주요 지역에 따라서는 1:10,000, 1:25,000의 대축척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을 보여주기 위해 1:200,000, 1:500,000, 1:1,000,000 등의 보다 소축척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6). III장에서 한국 근대지형도 1:50,000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56)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p.311.
 일본의 육지측량부는 일본 근대지도의 총본산으로, 육군참모본부에서 측량기술의 완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6) 외방도 중 한국 근대지형도 작성현황

출처 : 建設省国土地理院, 1970, 測量, 地図百年史, 建設省国土地理院, pp.442 ~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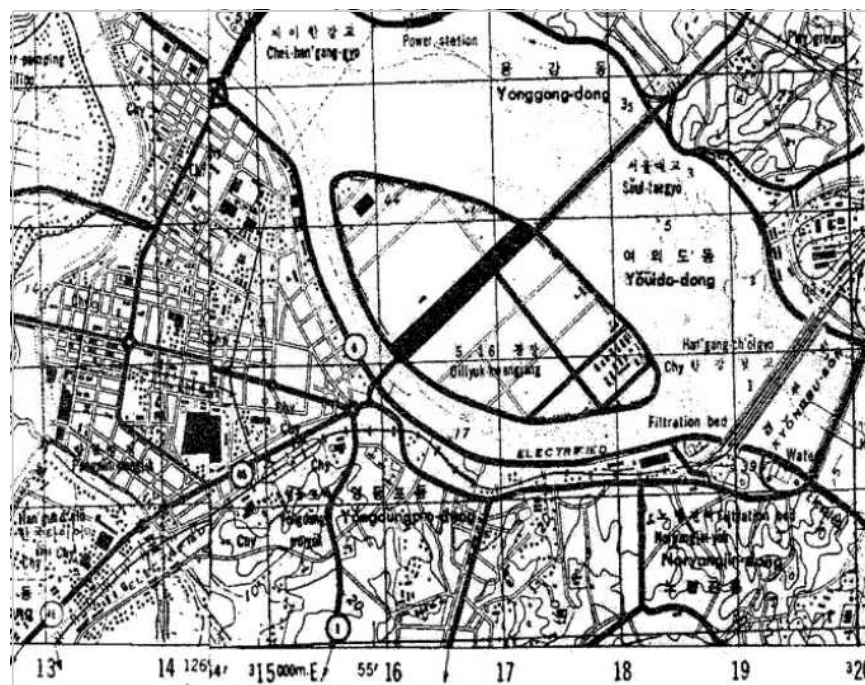
3) 광복 이후

광복 이후 한반도는 한국과 북한 두 국가체제에 의해 각 지역에 대한 지도가 제작되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성과로 1:50,000 지형도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제작한 측량자료인 측지자료와 1:50,000 지도원판은 일본육지측량부에서 보관되다가 주한미군에 의해 회수되었다.

1948년 8월, 남한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 토지국 측량계로 이전하였고, 이후 국방부로 이관되어 1949년에는 육군 공병대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측지자료는 일부 보관되어 있지만, 한국의 삼각망 또는 수준망의 정비 등의 측량기록은 전해지지 않았고, 일본 육지측량부의 후신인 일본의 국

토지리원에도 이와 관련되는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⁵⁷⁾. 북한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인민군 사령부에서 일본이 제작한 지형도를 복제하여 군사적 자체계로 다시 발행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후에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 육군측지부대에서 미군과 협동하여 1954년까지 1:50,000 지형도, 720도엽을 제작하여 완료하였다. 이때 제작된 지형도 중 서울의 여의도 부근 지역을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⁵⁸⁾.



(그림 7) 광복 이후 육군측지부대의 1:50,000 지형도 (1954년)

출처: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p.168.

1958년 4월 18일, 남한에서는 대통령령(1363호)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지

57)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pp.156~157.

58)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앞의 책, pp.163~168.

리연구소가 창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국가 기본도 제작, 측지기준점 조사, 복구 및 재설과 지명 조사와 정비 등이다. 이후 1961년 2월 15일에 내무부 토목시험소와 통합하고, 10월 2일에 국토건설청 국립건설연구소로 이관, 1962년 5월 29일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로 이관하였다. 이때 육군측지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던 1:50,000 군용지도를 민수용지도로 수정, 개정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1963년까지 남한 전역에 걸쳐 350도엽의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다. 1974년 11월 1일에 국립지리원을 창설하였다. 이후 국립지리원은 측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전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하여 GIS 구축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DB화 하였다⁵⁹⁾.

종이지도는 축척별로 1:25,000, 1:10,000, 1:5,000 등의 대축척지도를 제작되었다. 2015년까지 수정하여 제작된 도엽은 다음과 같다<표 5>. 1:50,000지형도는 1973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전국 241도엽이 제작되었는데, 이는 1:25,000지형도를 축소·편집한 것이다. 1:25,000지형도에 수정된 사항을 편집하여 1:50,000지형도에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표 5> 종이지도 제작현황 (2015년)

축척	1/5,000		1/25,000		1/10,000		1/50,000	
	제작	수정	제작	수정	제작	수정	제작	수정
합 (도엽)	17,524	60,172	811	6,165	282	-	241	1,562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注 : 종이지도는 남한지역에 한정하여 제작된 것임.

59)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앞의 책, pp.171~181.

2. 한국 근대지형도 제작

1) 한국 근대지형도의 측도 과정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 전역은 일본군에 의해 측량 조사가 이루어졌다. 육지측량부, 임시측도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측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1918년에 1:50,000의 실측도를 완료하였다. 일본군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한국 근대지형도 제작 과정은 세 단계로, 제1차임시측도부(臨時測図部)의 측량, 제2차임시측도부의 측량,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의 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⁰⁾.

첫째, 제1차임시측도부의 측량과정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후 일본군 소속인 참모본부에 의해 제1차임시측도부를 편성하여 시작되었다. 1895년부터 가장 먼저 측량한 곳은 한반도와 요동반도, 대만 지역이다. 파견된 측량수는 신분을 숨기고 네 개의 도시를 구분하여 측량 작업을 비밀리에 실시하였다. 파견 나갔던 측량수들은 당시 기후와 의병전쟁 등으로 측량작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에 육지측량부원이 한반도의 측량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둘째, 제2차임시측도부의 측량과정은 러일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1904년에 제1차임시측도부를 편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차임시측도부에서 측량하지 못한 지역과 정밀도가 떨어지는 기존 지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였고,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한반도의 이북 지역의 측량을 하였다. 1907년에 한반도의 북동부 지역을 측량하였고, 1908년부터 삼각쇄측량(三角鎖測量)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간측도(簡測圖)」로 축척

60) 谷屋 郷子, 2005, “朝鮮半島の外邦圖の作製過程-The process of Japanese mapping of Korea, 1895~1945-”, 外邦圖研究ニューズレター No.3, p.108.

1:50,000인 지형도가 제작되었다. 본래 한반도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1913년에 측량 작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으나, 1911년에 북쪽의 네 개도(道)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측량 작업을 남기고 종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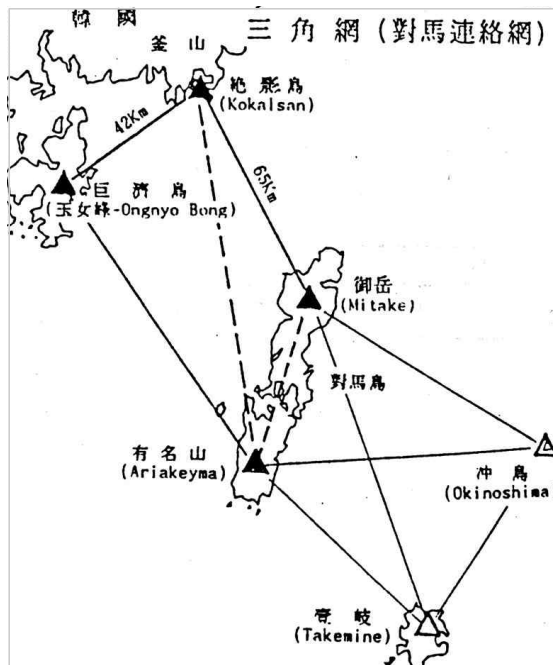
셋째, 임시토지조사국의 측량은 191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 칙령 제361호에 의해 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⁶¹⁾. 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되어 8년 8개월에 걸쳐 총 17,113명(20%는 일본인), 총 경비 2,040여만엔(¥)으로 전국의 측지 및 지형측량을 완료하였다. 당초의 계획은 1910년 3월부터 1916년 12월까지 7년 1개월에 총 경비 15,986,202엔으로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한반도 중부 지역부터 조사에 착수하고 점차 남부를 거쳐 북부로 옮겨 완결하는 것으로 하였다⁶²⁾.

측량의 대삼각측량은 일본의 삼각점과 연결하기 위해 대마도의 1등 삼각점인 오따케(御岳)과 아리아께야마(有明山)에서 부산의 절영도(絶影島)와 거제도(巨濟島)의 삼각점을 연결하고 순차로 대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그림 8, 9). 대삼각측량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소삼각측량을 시행하고 도근측량(圖根測量)과 조사(調査)업무 및 일필지측량(一筆地測量)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5년차 12월에 대삼각측량을 마치고 6년차 11월에는 외업전부를 마치며 7년차 12월에는 내업을 끝내고 정리하여 8년차 3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후에 계획 내용의 변동과 수정으로 예산의 경감되고, 사업기간은 8년 10개월로 1918년 12월에 종료하도록 계획하였다⁶³⁾. 이 때 진행된 측량 내용은 <표 6>과 같다. 기선측량은 1910년 6월 대전기선의 위치선정을 시작으로 1913년 고건원기선을 끝으로 13개 기선측량을 완료하였다.

61)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은 1910년 설치되어 1981년 폐지되었다. <http://www.law.go.kr/>

62) 大韓測量協會, 1993, 韓國의 測量.地圖, 大韓測量協會, p.17.

63) 大韓測量協會, 1993, 앞의 책, pp.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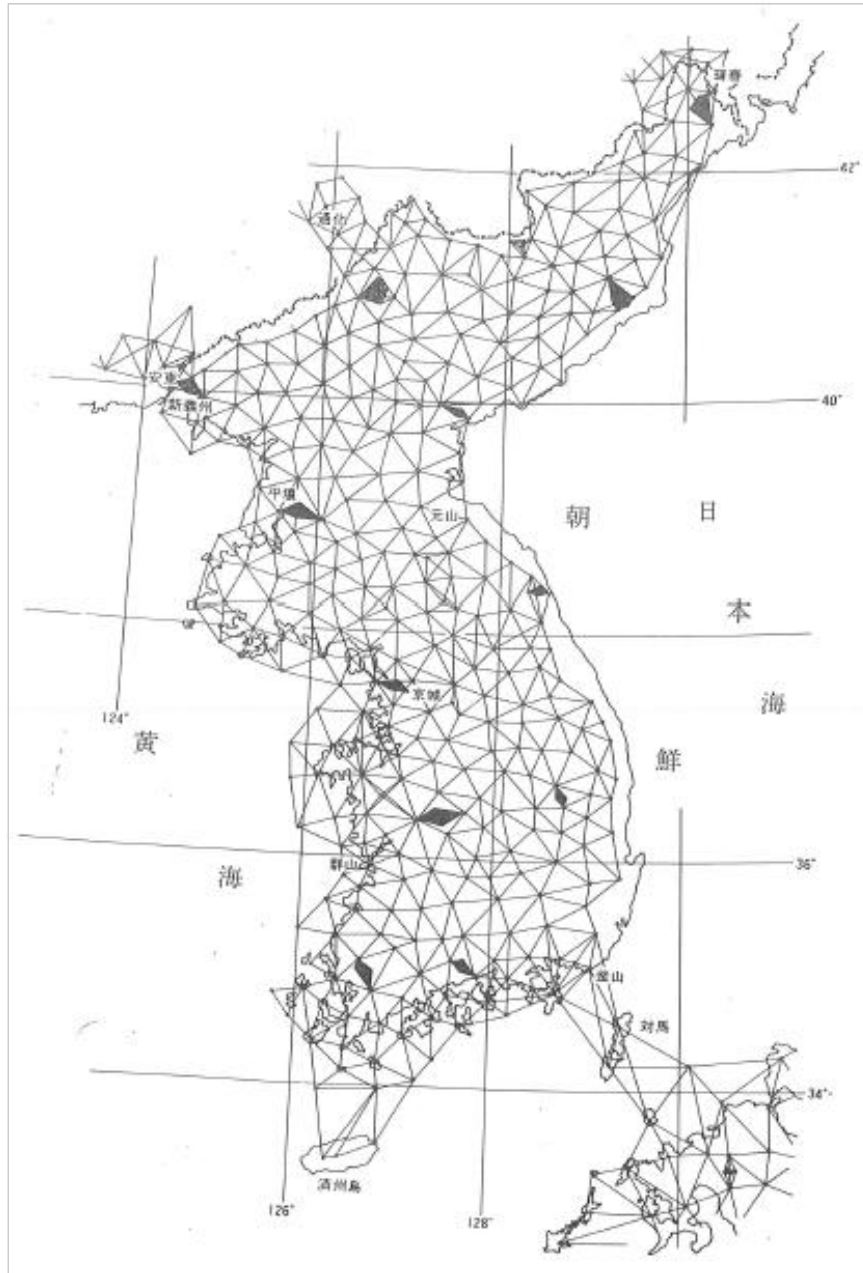
(그림 8) 대마도와 부산의 연결삼각망

출처 : 大韓測量協會, 1993, 韓國의 測量地圖, 大韓測量協會, p.18. 그림3.2-1.

<표 6> 임시토지조사국의 측량 내용 (1910 ~ 1918년)

구분	내용	비고
기선(基線)	13개소	대전, 노량진, 안동, 하동, 의주, 평양, 영산포, 간성, 함흥, 길주, 강계, 혜산진, 고건원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소삼각점(小三角點)	31,646점	
수진점(水準點)	2,823점	
협조장(驗潮場)	5개소	청진, 인천, 원산, 목포, 진남포

출처 : 大韓測量協會, 1993, 韓國의 測量地圖, 大韓測量協會, p.18.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그림 9) 한국의 대삼각본점망(大三角本點網) 지도

출처 : 建設省國土地理院, 1970, 測量, 地圖百年史, 建設省國土地理院, p.458.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임시토지조사국은 부대사업으로 세밀지형측량에 의해 지형도를 제작하였다<표 7>. 삼각측량 기법으로 1910년에서 1915년에 완료하였고, 1914년에서 1918년에 축척 1:50,000 지형도, 727도엽의 기본도(基本図)를 제작하였다.

<표 7> 임시토지조사국의 지형도 제작 내용

축척	매수
1:50,000	724*
1:25,000	144
1:10,000	54
1:200,000	65
1:500,000	13
1:1,500,000	1

출처 : 大韓測量協會, 1993, 韓國의 測量.地圖, 大韓測量協會, p.18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注 : 韓國의 測量.地圖에서는 1:50,000지형도 724매로 기록되어 있다.

제3차지형도의 도엽에 대해서는 일본측량협회에서 발행한 『측량·지도백사(測量·地圖百年史)』에서는 722도엽⁶⁴⁾, 한국에서 발행한 영인본에서 722도엽⁶⁵⁾를 수집하여 영인하였다. 그러나 타니야 료코(谷屋 郷子)는 ‘朝鮮半島の外邦図の作製過程’에서 724도엽⁶⁶⁾으로 명시하였다. 또 다른 주장으로 시미즈 야스오(清水靖夫)는 전체 도엽을 727도엽⁶⁷⁾으로 명시하고 있다. 727도엽 중에 영흥만의 2도엽, 진해만요새근방의 부산, 가덕도, 동두말 도엽, 총 5도엽이 발매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호도반도(島半島), 가덕도(加德島), 동두말(東

64) 建設省國土地理院, 1970, 測量, 地圖百年史, 建設省國土地理院, pp.460~461.

65) 경인문화사, 1998, 近世韓國五萬分一地形圖(影印本), 上 下권.

66) 谷屋 郷子, 2005, “朝鮮半島の外邦図の作製過程-The process of Japanese mapping of Korea, 1895~1945-”,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No.3, p.108.

67) 清水靖夫, 1986,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 解題, 柏書房, p.21~31.

頭末), 부산(釜山)으로 4도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영국 스탠포드도서관에서 방구미리(方久美里) 도엽을 확인하였다. 시미즈 야스오의 논문에서 언급한 발매되지 않은 5도엽은 발매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던 도엽인 것이다. 따라서 1914~1918년에 제작된 제3차지형도의 전체 제작도엽을 727도엽으로 명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1:50,000 지형도는 세 단계의 과정에 걸쳐 측도되었다. 제1차임시측도부에서 측량한 후 제작한 지형도는 제1차지형도로 약도(略圖), 군용비도(軍用秘圖) 등으로 불린다. 제2차임시측도부에서 측량한 후 제작한 지형도는 제2차지형도로 지형도(地形圖)라고도 한다.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한 후 제작한 지형도는 제3차지형도로 기본도(基本圖)라고도 불린다. 한일병합 전, 비밀 측량에 의해 제작된 제1차지형도, 삼각점망을 구축하고 1909~1911년에 측도, 1913~1916년에 발행된 제2차지형도, 그리고 삼각점망의 설치가 완료되고 1914~1918년에 측도하여 이후에 발행된 제3차지형도로 분류한다⁶⁸⁾<표 8>.

<표 8> 한국 근대지형도의 측도 과정

단계	내용	제작
1단계	제1차임시측도부, 청일전쟁 이후 (1895~)	제1차지형도
2단계	제2차임시측도부, 러일전쟁 이후 (1909~1911)	제2차지형도
3단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설치이후 (1910~1918)	제3차지형도

출처 : 谷屋 郷子, 2005, “朝鮮半島の外邦図の作製過程-The process of Japanese mapping of Korea, 1895 ~ 1945-”,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No.3, p.108. 재구성.

68) 清水靖夫, 1986, 앞의 책, pp.19~21.

측도 시기와 함께 지도의 형식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도식(圖式)의 변화는 1:50,000 지형도와 완성되기 이전의 ‘1880년식’과 ‘1885년식’을 포함하여, ‘1895년식’, ‘1900년식’, ‘1909년식’, ‘1917년식’의 순으로 수정·보완되어 지도 제작에 반영되었다<표 9>.

<표 9> 육지측량부 도식

년 도	발 달	사 건	도 식	
1876	明治 1 3	明治維新	明治13年式(1880, 프랑스식) 明治18年式(1885, 독일식)	
	4	강화도조약 西南戰爭		
	5			
	6			
	7			
	10			
	15			
	17			
	22			측량국
	24			육지측량부발족
1894	27		청일전쟁 대한제국의 성립	明治28年式(1895) 明治33年式(1900)
1897	32	러일전쟁 을사조약		
1904	37			
1905	41	한일합방	明治42年式(1909)	
1910				
1912	45			
	大正 1	조선토지조사사업	大正6年式(1917)	
	13			

출처 :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1:50,000 지형도를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부르기로 하고, 다음으로 지형도의 제작과정을 정리한다.

2) 한국 근대지형도의 제작 과정

축척이 1:50,000인 한국 근대지형도는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제작되었다. 한일병합 전에 비밀리에 측량하여 제작된 제1차지형도이다. 1910년 한일병합 직후, 제1차지형도를 수정·보완하여 제2차지형도를 제작하였다. 이는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의 중간단계의 지형도로, 제1차지형도와는 지도의 형식과 지리정보에서 차이가 난다. 제3차지형도는 삼각측량, 지형측량 방법으로 측도하여 제작한 지형도이다⁶⁹⁾.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는 시기에 축척이 다른 1:25,000, 1:10,000, 1:200,000, 1:500,000 (여지도輿地圖)도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하였다.

(1) 축척 1:50,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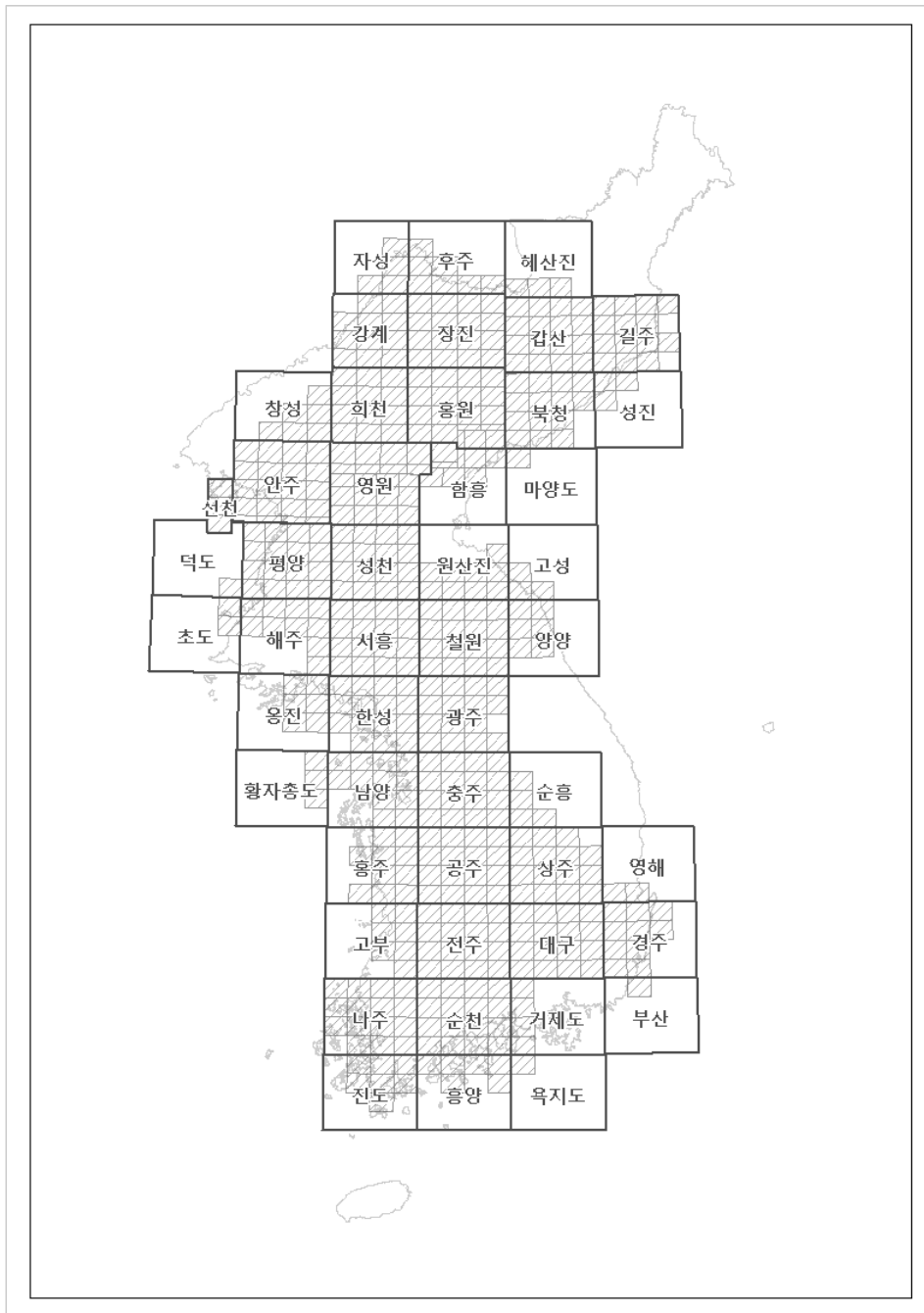
1:50,000지형도는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제작되었다. 시기별 지형도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① 제1차지형도

제1차지형도는 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측도되어 제작되었다. 제1차지형도는 484도엽이 제작되었고, 제작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10)(부록 1). 한국에서 발행한 영인본⁷⁰⁾에 수록된 도엽은 445도엽으로 484도엽에서 39도엽이 누락된 것이다. 제1차지형도의 제작 도엽을 484도엽으로 시미즈 야스오(清水靖夫, 1986)의 연구에 따른다. 그동안 한국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제1차지형도에 해당하는 81도엽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81도엽 중에 영인본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도엽, 4도엽(궐령, 북청, 평포, 홍리동)이 포함되어 있다⁷¹⁾

69) 清水靖夫, 1986, 앞의 책,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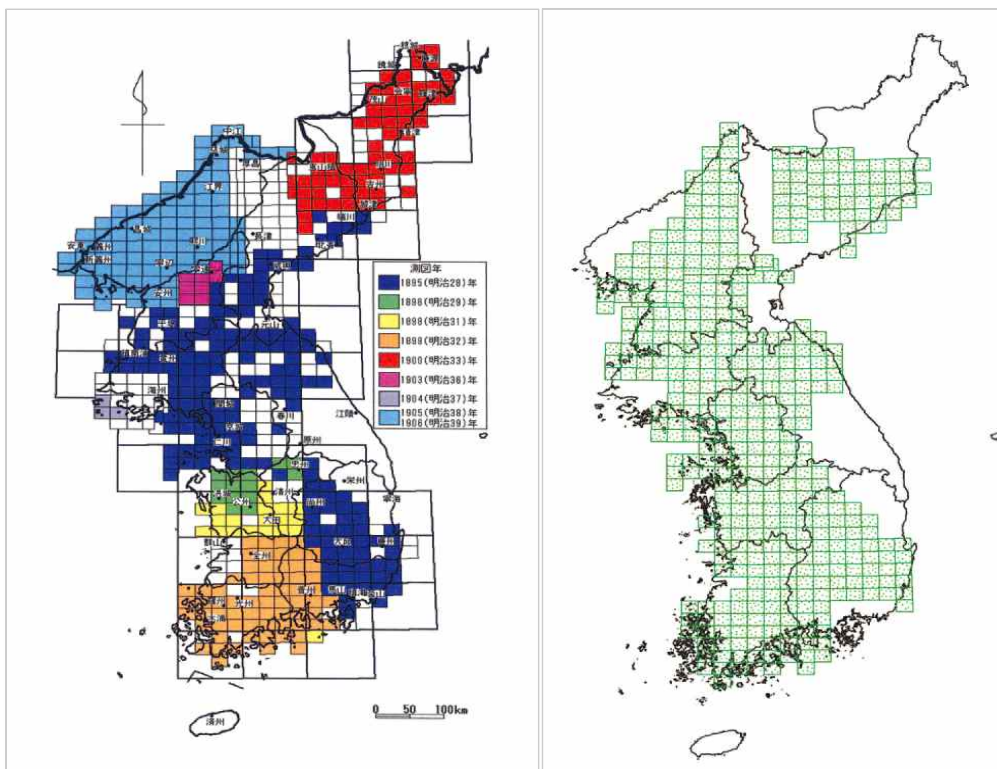
70) 朝鮮總督府(남영우 편), 1996, 『舊韓末 韓半島地形圖』, 성지문화사.



(그림 10) 제1차지형도 제작범위

71)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0, 43~44.

제1차지형도가 제작된 범위는 한반도 전역에 해당되지만, 북쪽 함경북도, 평안북도 압록강 지역, 동쪽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 남쪽 제주도와 일부 섬들과 동쪽 영흥만 원산부근의 지형도를 확인된 바 없다. 이 후에 교통도가 제작되었지만, 지형도의 내용이 일부 삭제되어 제작되었다. 원산이 일찍부터 개항장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형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제작은 되었지만 그 동안은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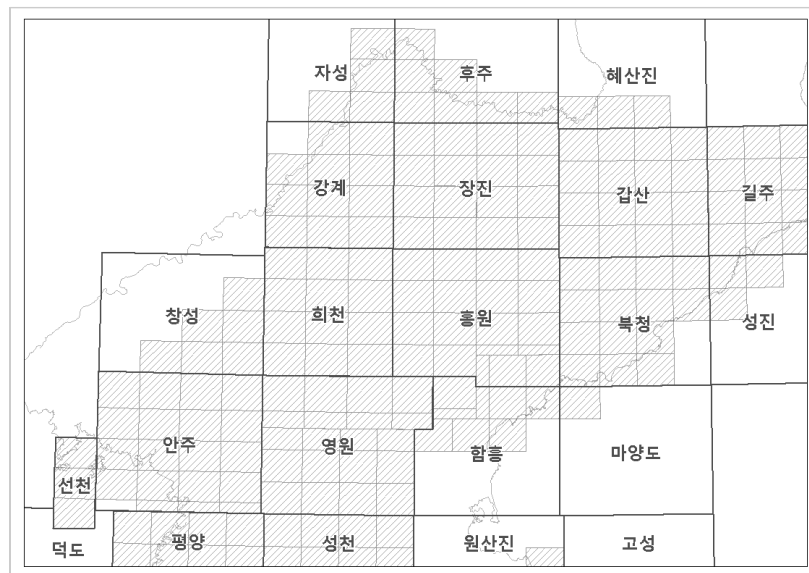
(그림 11) 제1차지형도의 제작범위, 측도 추정지도와 영인본 수록 도엽

출처 : 김중혁, 2009,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 분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2호, p.60. 재인용

72) 小林 茂(編), 2009,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清水 靖夫,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大阪大學出版會, p.134.

제1차지형도의 누락 또는 분실된 도엽 지역이 측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제2차 임시측도부원으로 활동한 무라카미 치요키치(村上千代吉)의 수첩 기록에서 1905~1906년에 한반도 북서부에서 활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1907년에는 만주에서 활동한 대원의 일부가 한반도 북동부 지역을 측량하였다⁷³⁾. 측도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1895년에 한반도 중심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측도가 되었다(그림 11).

제1차지형도는 1895년식, 1900년식의 도식에 준하여, 1906년까지 측도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목측과 보측을 사용하였고, 삼각 측량을 기반으로 제작되지 않아 제3차지형도에 비해 지리정보가 빈약하다. 각 도엽은 경도(가로, 동서)15', 위도(세로, 남북)10' 간격으로 구획되었으나, 삼각점망에 의거하여 제작된 측량도가 아니므로 도곽선이 정합을 이루지 않는 도엽들도 있다(그림 12).



(그림 12) 제1차지형도의 부정합 도엽

73) 김종혁, 2009,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 분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2호, pp.59~60, 재인용.

<표 10> 제1차지형도 내용

구분	내용
명칭	제1차지형도 또는 약도(略圖), 군용비도(軍用秘圖), 비(秘) 등
도식	1895년식 지형도 도식에 준한다. 1900년식 지형도 도식에 준한다.
측량방식	보측(步測)目測術
측량시기	1894 ~ 1906년
제작기간	1895-1909년(추정)
측도	고의적으로 삭제, 군사기밀도에 기재되어있음
제판	고의적으로 삭제, 군사기밀도에 기재되어있음
인쇄.발행	1911년 3월10일 ~ 15일(빠른 것) 1916년 6월25일 ~ 30일(뒤늦게)
색채	黑色單色
총도엽	484도엽
제작범위	대략 한반도 전역. 함경북도 . 평안북도 . 강원도 일부 및 제주도와 부산 . 원산 등 제외되었고, 주요부는 거의 모두 포함.
지명표기	한자지명. 카타카나 병기
기타	한일병합 전에 비밀 측량, 측도

출처: 清水靖夫, 1981, “「日本統治機關作制にかゝる朝鮮半島地形図の概要」, 『一万分一朝鮮地形図集成』”解題, 第1表.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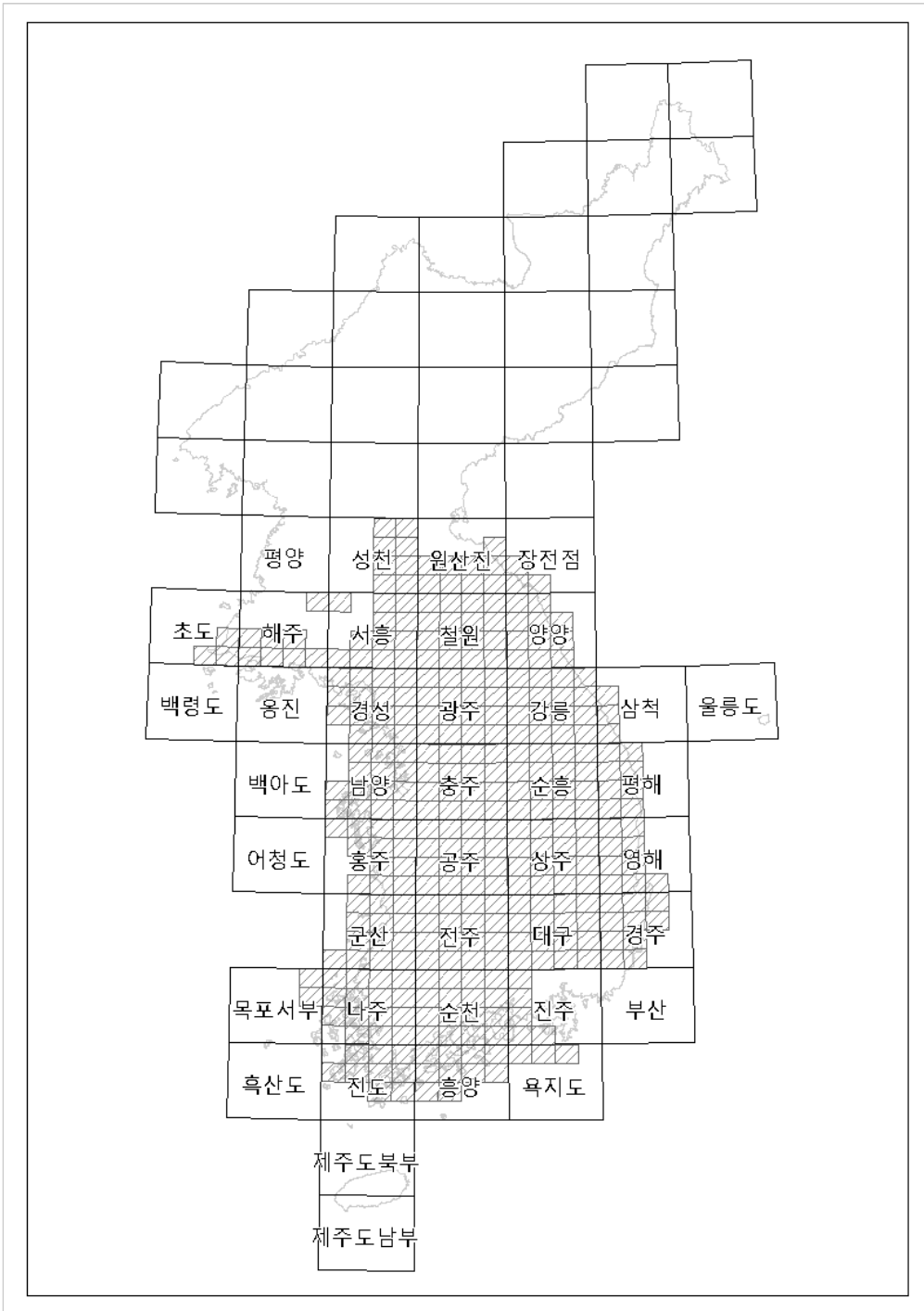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 표.4를 수정.보완함.

② 제2차지형도

제작범위는 한반도 남반부 전역에 해당한다. 한일병합 이후에 근대적인 삼각측량 방법으로 제작한 최초의 지형도로, 일본의 2등, 3등 이하의 삼각측량 방식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제1차지형도와 비교해 보면 도엽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제2차지형도는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의 중간 단계의 지형도라 할 수 있다. 제2차지형도 제작도엽은 342도엽이다(그림 13)(부록 2). 채색은 흑색단색으로 제작되었다.

제2차지형도의 도식은 1909년식의 도식에 준하여 측도되었고, 제3차지형도의 도식이 사용되기 전에 제작되었다. 제2차지형도는 1909년에서 1911년까지 측도하여 1912년에서 1916년까지 제판되었다. 1912년부터 1916년 발행하였다.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기 전까지 활용되었고, 한반도에 삼각점망이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육지측량부연혁지(陸地測量部沿革志)에 「朝鮮五万分一略圖(改測修正の分)」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제1차지형도를 수정측도하여 제작된 지도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제2차지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⁷⁴⁾<표 11>.

74) 小林 茂(編), 2009,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清水 靖夫,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大阪大學出版會, pp.149~150.



(그림 13) 제2차지형도의 제작범위

<표 11> 제2차지형도 내용

구분	내용
명칭	제2차지형도, 지형도(地形圖)
도식	1909년식
측량방식	대삼각점 . 소삼각점 사용 약도를 수정·보완
측량시기	1909 ~ 1915년
제작기간	제3차지형도 제작하기 전까지
측도	1909 ~ 1911년
제판	1912 ~ 1916년
인쇄·발행	1912 ~ 1916년
색채	黑色單色
총도엽	342도엽
제작범위	대략 한반도 남부 전역
지명표기	한자지명 . 카타카나 병기
기타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의 중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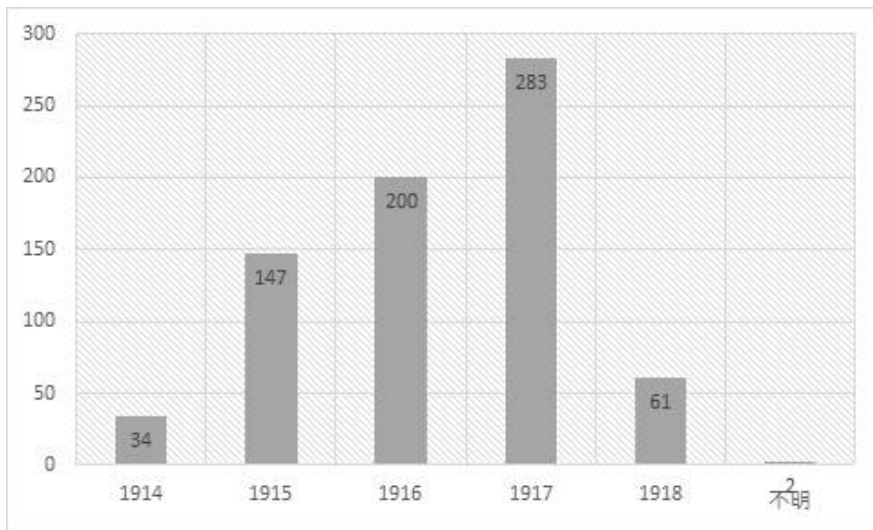
출처 : 清水靖夫, 1981, “「日本統治機關作制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図の概要」, 『一万分一朝鮮地形図集成』解題, 第1表. 재구성.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5, 표.5를 수정·보완함.

③ 제3차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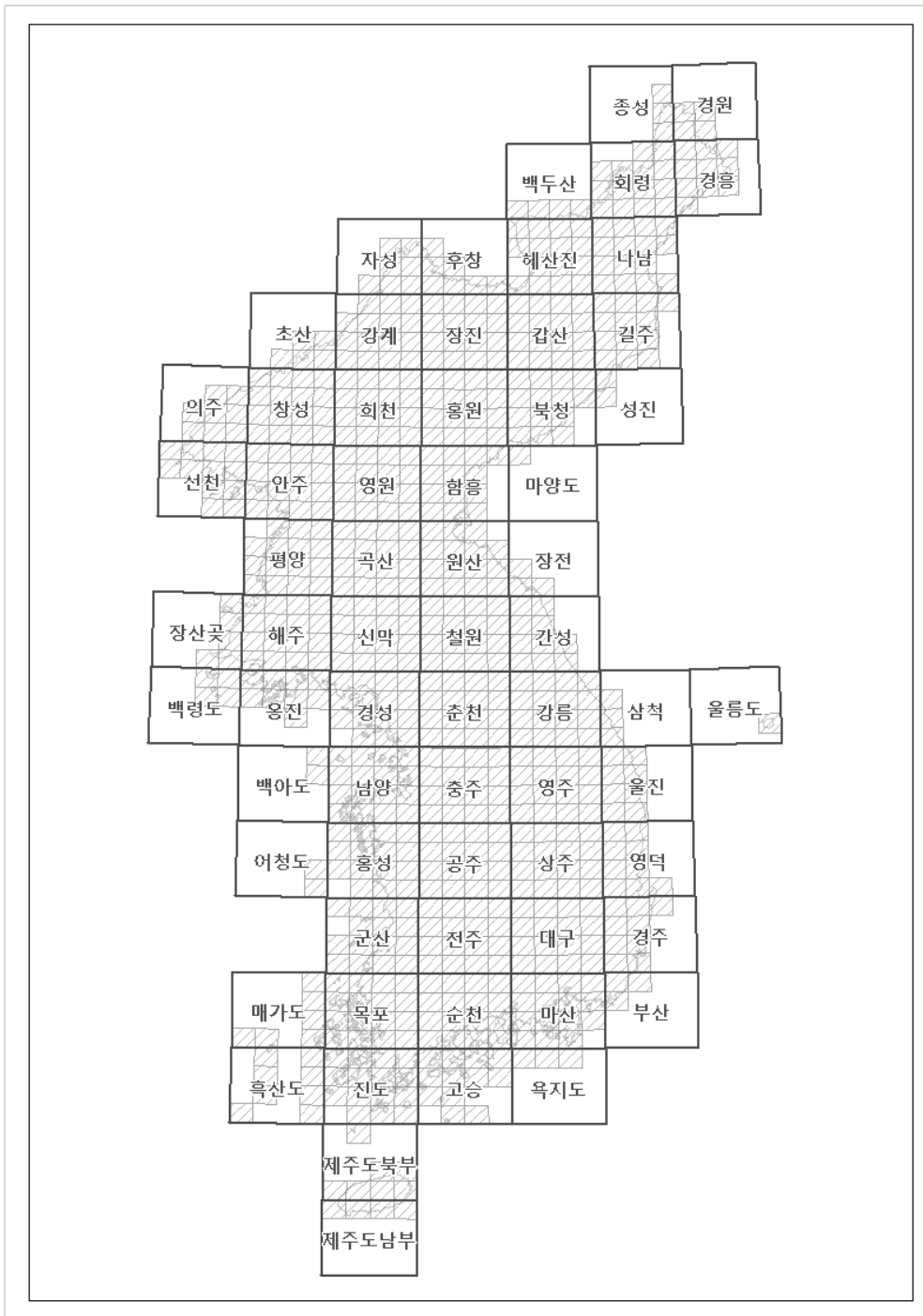
제3차지형도는 삼각점망이 완성되어 그 결과, 제작된 지형도로, 명칭은 「五万分一地形図」이다. 제3차지형도의 측도는 1914~1918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완성하였고, 제작된 도엽은 727도엽이다⁷⁵⁾(그림 15)(부록 3).

측도년도를 보면, 1914년에 제작된 34도엽은 남쪽지역의 주요도시에 해당하는 경주(6), 부산(1), 상주(3), 대구(4), 충주(7), 공주(6), 남양(6), 홍성(1)이다. 1915년에 147도엽, 1916년에 200도엽, 1917년에 283도엽, 1918년에 61도엽, 측도년도를 알 수 없는 2도엽으로 727도엽이다(그림 14). 『측량·지도백사(測量·地圖百年史)』에서와 상이한 부분은 1916년에서 1도엽, 1917년에서 2도엽, 원산부근의 불명확한 2도엽을 추가하여 5도엽으로, 주요 비밀지역의 도엽이 누락되었다. 누락도엽은 호도반도, 방구미리, 부산, 가덕도, 동두말 도엽이다.



(그림 14) 제3차지형도 측도별 도엽

75) 小林 茂(編), 2009, 앞의 책, p.150.



(그림 15) 제3차지형도의 제작범위

제3차지형도의 측도는 경부선 부근에서 시작해서 황해도 부근에서 마무리하게 된다. 제1,2차지형도와는 달리 1909년식 도식으로 바꾸어 제작하였고, 도엽 외도곽에 「圖式」을 명시하였다. 채색은 대부분이 수부(水部)를 담청색으로 표현하고 2색, 또는 갈등색인 도로까지 구분한 3색으로 인쇄되었다. 일부 흑단색(黑單色)으로 발행된 것도 있다. 3색 인쇄는 지속적으로 발행되지 않았고, 2색 인쇄는 판매가 정지될 때까지 계속 발행되었다<표 12>.

1926년 이후에는 특수한 기밀지역에 한해서 교통도(交通圖)가 간행되었는데, 등고선, 표고숫자를 제외하고 해안 등 상세한 지형을 생략하여 발행하였다. 이 시기는 백두산 지역과 만주 국경지역의 비밀 지역이 해지된 때도, 단색판 제판으로(일부 청회판(淸繪版)) 발행되기도 하였다. 1935년(소화 10)에 존재하는 교통도는 64도엽이다⁷⁶⁾.

<표 13>는 앞에서 논의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의 내용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76) 小林 茂(編), 2009, 앞의 책, pp.150~151.

<표 12> 제3차지형도의 내용

구 분	내 용
명칭	제3차지형도, 기본도(基本圖)
도식	1909년식
측량방식	삼각점망, 2차 지형도 수정 . 보완
측량시기	1914 ~ 1918년
제작기간	1914 ~ 1918년
측도	1914 ~ 1918년
제판	1915 ~ 1918년, 이후 1925 ~ 1926년(교통도) ⁷⁷⁾ , 철도보입(鐵道補入) 등
인쇄.발행	1916 ~ 1919년, 이후 계속 수정지도 발행
색채	黑色單色 . 2색(하천부분 담청색) . 3색(도로부분 갈등색)
총도엽	727도엽
제작범위	한반도 전역
지명표기	한자지명 . 카타카나 병기
기타	광복전까지 수정지도가 발행

출처: 清水靖夫, 1981, “「日本統治機關作制にかゝる朝鮮半島地形図の概要」, 『一万分一朝鮮地形図集成』”解題, 第1表. 재구성.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표.6을 수정,보완함.

77) 清水靖夫, 1981, “「日本統治機關作制にかゝる朝鮮半島地形図の概要」, 『一万分一朝鮮地形図集成』”解題, 第1表.

<표 13> 제1차지형도.제2차지형도.제3차지형도의 내용 비교

구 분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명칭	제1차지형도, 약도(略圖), 군용비도(軍用秘圖), 비(秘)	제2차지형도, 지형도(地形圖)	제3차지형도, 기본도(基本圖)
도식	1895년식, 1900년식	1909년식	1909년식
측량방식	보측(步測), 목측(目測術)	대삼각점 . 소삼각점 사용 약도를 수정.보완	삼각점망, 2차 지형도 수정 . 보완
측량시기	1894 ~ 1906년	1909 ~ 1915년	1914 ~ 1918년
제작기간	1895 ~ 1909년(추정)	제3차지형도 제작하기 전까지	1914 ~ 1918년
측도	고의적으로 삭제, 군사기밀도에 기재	1909 ~ 1911년	1914 ~ 1918년
제판	고의적으로 삭제, 군사기밀도에 기재	1912 ~ 1916년	1915 ~ 1918년, 이후 1925 ~ 1926년(교통도) ⁷⁸⁾ , 철도보입도 등
인쇄.발행	1911 ~ 1916년	1912 ~ 1916년	1916 ~ 1919년, 이후 계속 수정지도 발행
색채	흑색단색	흑색단색	흑색단색 2색(하천부분 담청색) 3색(도로부분 갈등색)
총도엽	484도엽	342도엽	727도엽
제작범위	대략 한반도 전역. 함경북도 . 평안북도 . 강원도 일부 및 제주도와 부산 . 원산 등 제외되었고, 주요부는 거의 모두 포함.	대략 한반도 남부 전역	한반도 전역
지명표기	한자지명. 카타카나 병기	한자지명 . 카타카나 병기	한자지명 . 카타카나 병기
기타	한일병합 전에 비밀 측량, 측도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의 중간 단계	

출처: 清水靖夫, 1981, “「日本統治機關作制にかゝる朝鮮半島地形図の概要」, 『一万分一朝鮮地形図集成』解題, 第1表. 참조.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표.7을 수정.보완함.

78) 清水靖夫, 1981, 앞의 논문, 第1表.

(2) 축척 1:25,000 지형도

이만오천분일지형도(二萬五千分一地形圖)는 1914년부터 1918년에 제3차지형도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축도하였다. 축도한 도엽은 총 143도엽이다. 이만오천분일지형도의 제작범위는 군사·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대부분의 도엽이 원도엽을 다시 수정축도하여 제작된 경우가 많다. 비급(秘拔)으로 분류되어 보관·관리한 지역인, 영흥만요새근방의 16도엽, 진해만요새근방의 21도엽, 회령지방의 9도엽으로 46도엽을 포함한 총 143도엽이다(부록 4). 이 외에 인천근방(仁川近傍)이 3도엽인 인천동부, 옥귀도, 인천서부이고, 부산요새근방(釜山要塞近傍)의 8도엽을 비밀도엽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외 특수도가 3도엽(開城, 扶余, 慶州)이다.

채색은 거의 모든 도엽이 2색 또는 3색으로 인쇄되었고, 천진 및 나남지방의 10도엽(가제관)만 흑색단색으로 인쇄되었다. 이 중에 특수도로 5도엽이 제작되었는데, 3도엽은 5색인쇄로 사적탐방용으로 1:50,000지형도를 수정한 것이다. 채색은 지모(地貌)가 차(茶), 식생(植生)이 녹(綠), 집락·교통로(集落·交通路)가 적(赤), 수부(水部)가 청(淸), 주기·철도(注記·鐵道)등은 흑(黑)색으로 인쇄하였다. 로마자로 지명과 유적명이 표기되었고, 토(ルビ)가 병기되었다. 간단한 지역설명이 일문과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3) 축척 1:10,000 지형도

일만분일지형도(一萬分一地形圖)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45도시를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63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형도 제작을 하였다. 일만분일지형도의 제작 시기는 첫 번째 시기는 제3차지형도를 제작할 시점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43개의 도시, 1919년, 1920년에 1개씩의 도시를 제작하여 총 45개 도시가 제작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지방도시에 이르는 제작기간으로 1929년부터 1938년에 19개의

도시를 제작하였다. 일본이 제작한 한국 근대지형도는 정치의 중심지는 물론, 역사적·군사적·경제적인 도시의 인구가 1만 이하로 소규모 지역도 지형도를 제작하였다(부록 5). 이는 일본이 자국의 소규모 지역 지도 제작과 비교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⁷⁹⁾. 채색은 제2회수정측도 이후에 식생 등 녹색의 특수망판(特殊網版)을 삭제하고 등고선을 녹색으로 하여 4색 인쇄로 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1:50,000, 1:25,000, 1:10,000 한국 근대지형도를 살펴보았다. 이외에 축척이 다른 지형도들은 朝鮮20萬分1圖, 50萬分1輿地圖·帝國圖, 100萬分1東亞輿地圖·假製東亞輿地圖, 萬國100萬分1圖(100萬分1萬國圖), 300萬分1航空圖, 1萬分1圖, 2萬分1圖, 5千萬1圖 등이 있다.

79) 小林 茂(編), 2009,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清水 靖夫,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大阪大學出版會, pp.168~169.

Ⅲ. 한국 근대지형도 소장기관별 현황 및 비교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일본의 패전 전후의 참모본부와 육지측량부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육군본부(참모본부)에 따르면 「情勢ノ變轉ニ伴フ作戰用地図處理要領」의 기안 부분에, 소장 지도의 처리에 관한 부분과 지도의 원도(原圖)·인쇄도(印刷圖)가 제작된 대상지역에 관해 설명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방지역의 「初刷」은 다카야마(飛驒高山)에 의해 은닉된 것과 지도의 원도·원판·인쇄된 지도도 그 대상지역에 따라 제멋대로 흩어지거나 소각되었다고 기록되었다.⁸⁰⁾

일본의 패전 후에 일본군과 관련된 자들로 인해 한국 근대지형도의 많은 자료들이 소각되었다. 그러나 한국 근대지형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상당수의 한국 근대지형도가 소각을 모면했다. 최대 규모는 육지측량부의 지도 제작을 계승한 일본의 국토지리원에 인계했고, 어느 시기에 방위성으로 이관되었다. 일부는 자원과학연구소(資源科學研究所), 도호쿠대학 지리학교실(東北大地理學教室)등으로 반출되었고, 이후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 교토대학 문학부(京大文學), 동남아시아연구센터(東南アジア研究センター), 히로시마대학(廣大), 릿교대학(立教大) 등에 분배되었다. 패전 이후에 한국 근대지형도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도서관·문서보관소 등에 소장되었다⁸¹⁾. 이처럼 한국 근대지형도는 일

80) 渡辺正氏所藏資料集編集委員會, 2005, 終戦前後の參謀本部と陸地測量部-渡辺正氏所藏資料集-,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pp.73~74. 와타나베가 소장한 자료집을 중심으로 펴낸 뉴스레터. 와타나베는 육군대학교 졸업 후 대동아 전쟁 말기의 참모본부(제2부) 참모였으며, 군사요충지의 지지의 정보와 육지측량부의 관할을 담당하였다. 와타나베가 남기려고 했던 지도는 패전 시에 참모본부(한국 근대지형도 포함)에 있었던 것으로 관련자들의 노력으로 곳곳에 남겨져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1) 石原 潤, 2004, “はしがき: 「外邦図」のこと”, 外邦図研究グループ, 外邦図研究 No2,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p. iv.

본 제국주의의 확대와 패전 등의 시간과 함께 대규모 생산되고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존재를 알고 한국에서 영인한⁸²⁾ 한국 근대지형도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한국 근대지형도의 원본이 한국의 주요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을 뿐 자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⁸³⁾ 해외 소장기관의 한국 근대지형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한국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 있는 주요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종로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4군데 기관, 국외기관은 미국 의회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으로 2군데 기관으로 총 6군데 기관의 소장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82) 朝鮮總督府(남영우 편), 1996, 『舊韓末 韓半島地形圖』, 성지문화사와 朝鮮總督府(경인문화사 편), 199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경인문화사 영인본으로 발행되었다.

8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한국 근대지형도 자료 연구로는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석사논문에서 밝힌 바 있고, 종로도서관과 국토지리정보원 웹사이트에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1. 국내 소장기관

국내 주요 기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를 파악하고, 기관별 목록을 파악하였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1997년에 연구자료목록집으로 발행한 “光復以後 博物館資料目錄集⁸⁴⁾”의 지도(地圖)로 분류된 것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일부 실물을 조사하였다⁸⁵⁾. 목록에는 1,520도엽이 소장되어 있는데 실물을 일부만 볼 수 있었다.

둘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2006 필자의 석사논문⁸⁶⁾을 작성할 당시 축척이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를 파악한 상태에서 축척이 다른 한국 근대지형도를 추가로 파악하였다. 목록상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는 609도엽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종로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종로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⁸⁷⁾에서 공개되고 있다. 축척이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가 공개되어 있고 총 722도엽이다. 이 중에 원본이 633도엽이고, 89도엽이 「근대한국오만분일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一地形圖)」에 해당하는 영인본이다.

넷째, 국토지리정보원 소장본은 국토정보플랫폼의 웹사이트⁸⁸⁾에서 확인하였다. 공개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축척이 1:50,000로 총 347도엽이고, 북한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해당하는 도엽이다. 축척 1:10,000 지형도는 69도엽이 존재하는데 2도엽만 원본지도이고, 나머지 67장은 일본에서 발행한 영인본⁸⁹⁾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84) 국립중앙박물관, 1997, 光復以後 博物館資料目錄集, 국립중앙박물관, pp.309~362.

85)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근대지형도를 유물이 아니라 연구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일괄 열람이 불가하여, 연구기획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실물(원산, 대전, 남양, 홍원)을 확인하였다.

86)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7)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도자료에 공개되어 있다. 웹사이트 주소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88) 국토정보플랫폼 웹사이트, 구지도 항목에 광복이전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 : <http://map.ngii.go.kr/pd/ctlsSvc/ctlsSvc.do#>

각 기관의 한국 근대지형도는 공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추후에 연구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자료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⁹⁰⁾ 크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공개’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공개⁹¹⁾’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공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 자료⁹²⁾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이관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생산하고 보관했던 문서를 일컫는데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⁹³⁾ 한국 근대지형도 자료는 문서에도 유리건판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고 연구 자료로 남아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에 해당하는 지도는 1,520도엽으로 확인되었다. 1:50,000인 지형도 이 외에도 축척별도 다양한 도엽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 제3차지형도의 형태는 (그림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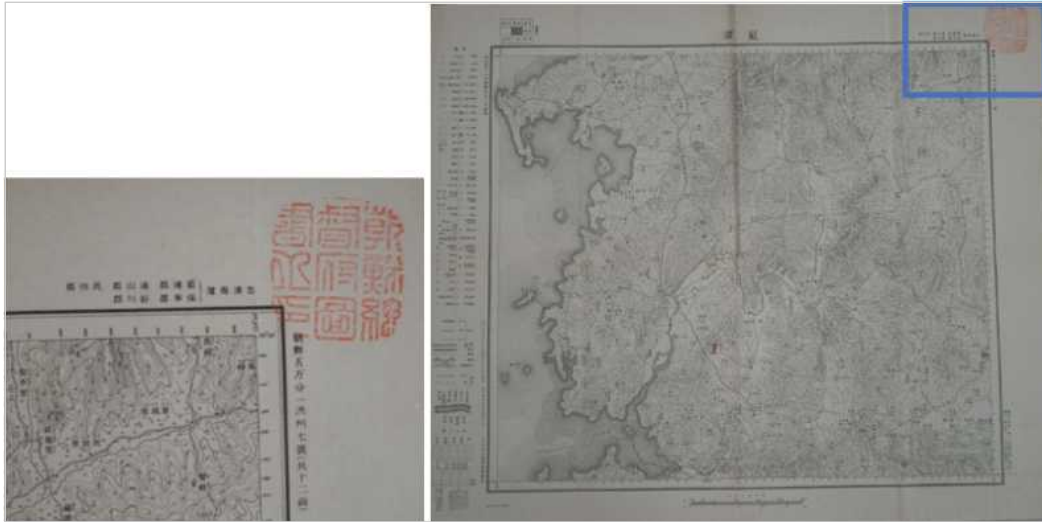
89) 朝鮮總督府, 1985, 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 柏書房. 일본 백서방에서 발행한 영인본이다.

90)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에 일제강점기 자료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주소 : 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japanese_gov_gen_korea

91) 현재의 필름에 해당하는 유리건판은 20세기 초,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3만 8천여 장의 유리건판을 소장하고 있는데 지역별·주제별(고고, 미술, 건축, 문자자료, 인류·민속, 기타)로 분류, 공개하고 있다. 유적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정비 복원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귀중하다.

92)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 근대지형도 목록을 확인 후에 연구기획부에 문의하니,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근대지형도는 공개문서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 근대지형도는 자료 분류상 난해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담당자와 면담 이후에 한국 근대지형도를 추후 웹사이트에 공개목록에 넣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방대하여 개인에게 전부 공개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열람을 하였다.

9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이다. 웹사이트에 다양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http://www.museum.go.kr/modern-history/info_museum.do



(그림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직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지도를 축척별로 도엽명과 소장 도엽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축척별 한국 근대지도 목록

축척	도엽 내용	소장도엽
1:3,200,000	만주국연락도	1
1:3,000,000	단면도일람 -부조선지도신구대조 동경125, 126, 127, 128, 129, 130도 단면 북위41, 39, 37, 35도 단면 해산진 부산 청진간 도로 단면도 해산진 갑산 북청간 도로 단면도 함흥 장진 자성간 도로 단면도 안주 자성간 도로 단면도 진남포 평양 원산간 도로 단면도 군산 공주 청주 충주 평창 강릉간 도로 단면도 목포 광주 남원 거창 대구 포항간 도로 단면도 인천 용산 원산간 도로 단면도 경성 부산간 도로 단면도 산악고저일람	24

	하천류장급유역면적일람 오만분일지형도일람 이만오천분일지형도일람	
1:1,500,000	조선백십만분일람, 기독교 각파 조선포교 구역도	2
1:1,000,000	부산, 울산성 전투 일선도, 조선지질광상분포도	3
1:600,000	전라남도지도	1
1:500,000	강원도지도, 경기도지도, 경상북도지도, 전라남도지도, 충청북도지도, 평안남도지도, 평안북도지도, 함경남도지도, 함경북도지도, 황해도지도, 강원도관내도	11
1:400,000	경기도지도 동궁어성훈기념 일본교통 분현지도 기32	2
1:350,000	황해도관내도	1
1:250,000	전라북도관내도	1
1:200,000	남양, 북청, 삼척, 영덕, 울진, 춘천, 진도, 옥지도, 백두산, 나남, 경원, 어청도, 안주, 창전, 선천, 곡산, 백아도, 울릉도, 홍원, 희천, 창성, 의주, 함흥, 장진, 강계, 초산, 성진, 길주, 갑산, 해산진, 후창, 신막, 자성, 백령도, 해주, 흑산도, 해가도, 회령, 종성, 장산곶, 영주, 간성, 고흥, 순천, 웅진, 강릉, 제주도 북부, 상주, 원산, 공주, 철원, 체신지도	52
1:150,000	해남군관내도	1
1:100,000	조선전도	1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 제1차, 제2차, 제3차지형도가 섞여있음, 기타지도 7장 포함 (오만분일지형도 재창2호, 강계1호·2호·3호 합도-화평·원평동·아득령, 소진-정강2호, 화평·원평동·아득령·종포진·주막거리·강계·연포동·만포진·풍릉동·고산진·위원합도, 금강산, 독도·경성 합도, 충청북도 도로도)	1,258
1:25,000	군산지방, 목포지방, 의주지방, 함흥지방, 대구지방, 대전지방, 진남포지방, 평양지방, 개성특수지형도	70
1:10,000	군산시가지도, 이리2, 진남포부관내도, 평양동부지형도, 속리산, 진남포, 충주, 강경, 마산3, 통영, 조치원, 개성, 해주, 목포, 상주2, 포항, 김천, 밀양, 진주, 철원, 영산포, 울산, 수원, 대전2, 공주, 광주, 청주, 함흥, 원산2, 회령, 의주, 영등포, 나남2, 경성, 성진, 춘천, 나주, 대구, 전주, 부산, 강계, 수침동, 노동, 평남진, 온상참, 경주, 진해, 통영, 안동3, 김천, 철원, 성진, 진주, 경성, 밀양, 수원, 회령, 경성서북부, 경성지형도, 경성서남부, 경성동남부, 경성동북부, 경성지형도, 목포부시가지도, 낙랑군시대고분배치도, 송도면고분도, 함흥군과인접지방고성지위치도 부도제1, 함흥군과인접지방고성지위치도부도 제2	78
1:5,000	울산성 추정도	1
1:3,000	함경남도 흥원군 학천면 신상리 성령 국유림 경계도	1
기타	동아대륙제국 강역도, 만몽도, 평양부시가지도, 고려능묘 분포 제19도, 일명양군의 행동일람도, 일본군 배치 요도, 논산 부여 금산 무주 지도, 소구락부 제18권 제1호 부록 최근세계대물도, 남한특산물 지도철, 산계와 하계 지도, 기타	12
합		1,520

전체 1,520도엽 가운데 1:50,000 지형도는 1,258도엽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중복된 도엽까지 합하면 2,316도엽이 된다. 이 중에 경성에 분류되어 있는 1장(경성도)과 평양지형도에 분류되어 있는 2장(평양부근 고구려 유적지, 평양 동서부 지도), 자산 지도 1장, 함경북도 백두산 지도 1장, 제주도 북부 1장(도엽명과 측도제판기록이 없음), 부산 1장, 기타지도로 분류된 7장(오만분일지형도 재창2호, 강계1호·2호·3호 합도-화평·원평동·아득령, 소진-정강2호, 화평·원평동·아득령·종포진·주막거리·강계·연포동·만포진·풍릉동·고산진·위원 합도, 금강산, 독도·경성 합도, 충청북도 도로도) 14장의 지도를 제외한 1,244도엽을 지형도 제작시기와 내용에 맞게 분류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제1차지형도는 137도엽, 제2차지형도는 335도엽, 제3차지형도는 수정측도된 도엽을 포함하여 738도엽이 있다. 여기서 중복도엽을 제외하면 712도엽이다. 제3차지형도 중에 제1회 수정측도 도엽은 25도엽, 제2회 수정측도 도엽은 8도엽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목록상으로 측도, 제판, 인쇄, 발행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도엽이 2도엽으로, 제작시기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복 도엽들과 함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표 15>.

<표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작시기별 도엽

제 작 시 기	도 엽 수	비 고
제1차지형도	132	
제2차지형도	335	
제3차지형도	705	
제3차지형도/제1회수정측도	25	
제3차지형도/제2회수정측도	8	
제외도엽(중복,기타)	48	정보없음
합	1,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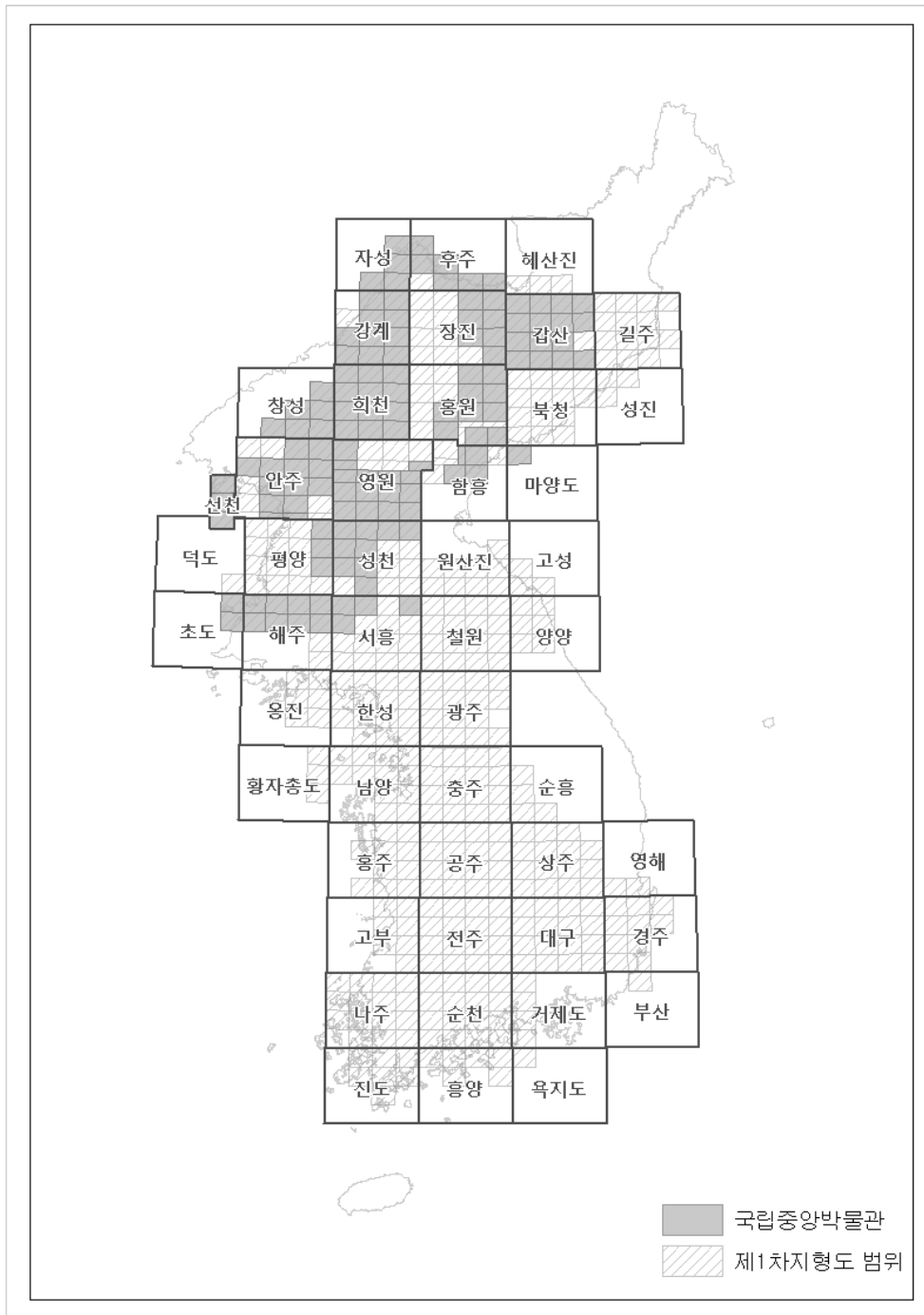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에 주목해서 볼 것은 가제판(假製版)본과 군사기밀(軍事機密), 군사기밀 가제동아(軍事機密 假製東亞), 비 군사기밀(秘 軍事機密)로 인기(印記)가 기입된 도엽이다. 가제판에 해당하는 도엽은 31도엽,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도엽은 45도엽, 군사기밀 가제동아에 해당하는 도엽은 5장, 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도엽은 3도엽으로 특수하게 외도곽에 기입되어 있는 도엽들은 총 84도엽으로 확인하였다<표 16>.

<표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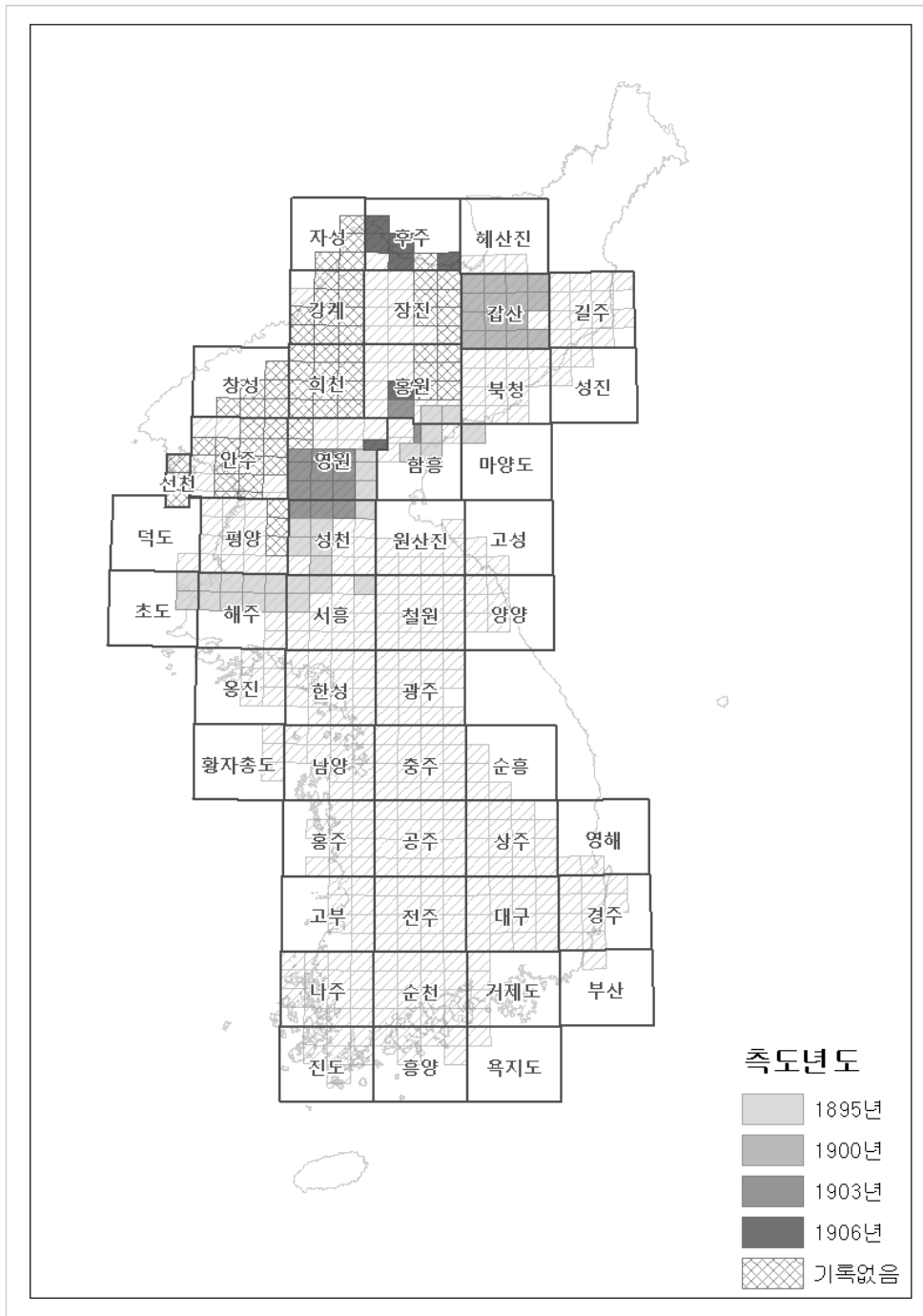
내용	도엽
假製版	31
軍事機密	45
軍事機密 假製東亞	5
秘 軍事機密	3
합	84

(1) 제1차지형도

제1차지형도는 약도(略圖)로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본군에 의해 비밀리에 측량되어 만들어진 지도로 군사기밀도(軍事機密圖)라고도 불린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제1차지형도는 총 132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제1지형도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484도엽으로 제작되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제1지형도는 북한쪽에 치중되어 총 132도엽만이 소장되어 있다(그림 17). 측도 시기는 1895년~1906년으로, 이 중 1/2 정도는 측도·제판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되어 있는 측도년도 중에는 1895년에 측도된 수가 29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17>,(그림 18).



(그림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그림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속도년도

<표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895년	29
1900년	15
1903년	14
1906년	7
기록없음	67
합	132

제1차지형도를 소속도엽별로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갑산	15	합수, 석포, 증산, 남설령, 동점, 도창, 장파, 대문장, 갑산, 림어수동, 조가동, 삼수, 원덕장, 평리, 황수원
강계	10	동곡장, 중남면, 강계, 수침동, 종포진, 만포진, 용암리, 성간관, 위원, 황장
마양도	1	마양도
서흥	4	이목정, 대평, 능리, 서흥
선천	3	선사, 탄도, 대신도
성천	9	기린산, 오류, 별창, 동창, 신라, 수안산, 성천2, 강동2, 삼등2
안주	13	운산, 영변, 개천, 태천, 박천, 안주, 숙천, 어파, 방소리, 정주, 애도, 일동리, 선천
영원	15	입석리, 사수산, 대평리, 관평리, 영원, 동문외, 태을리, 덕천, 맹산, 용연리, 동창, 서창, 구장, 봉창, 은산2
자성	6	건포, 만흥리, 장성리, 자성강구, 자성, 원동
장진	7	상동구, 청산령, 서수동, 생수동, 전지령, 신방포, 능구장
창성	6	하창평, 우현진, 복진, 성평, 청산장시, 남창
초도	2	초도, 사기
평양	3	사인장, 관파, 중화
함흥	4	함흥, 서호, 원산리, 정평
해주	8	검수역, 황주, 재령, 안악, 문화, 은율, 풍천
홍원	10	평북군, 삼수동, 신평리, 홍원, 광대평, 감지원, 경흥리, 임도원, 고토수, 중리
후창	4	신평리, 후주고읍, 하산면, 부산동
희천	12	노동, 평남진, 유원진, 온상참, 가다참, 진평리, 백토계, 행천리, 대수리, 삼봉리, 장재참, 희천
합	132	

제1차지형도에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도엽이 45도엽, 군사기밀 가제동아에 해당하는 도엽이 5도엽, 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도엽이 3도엽으로 확인하였다<표 19>.

<표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차지형도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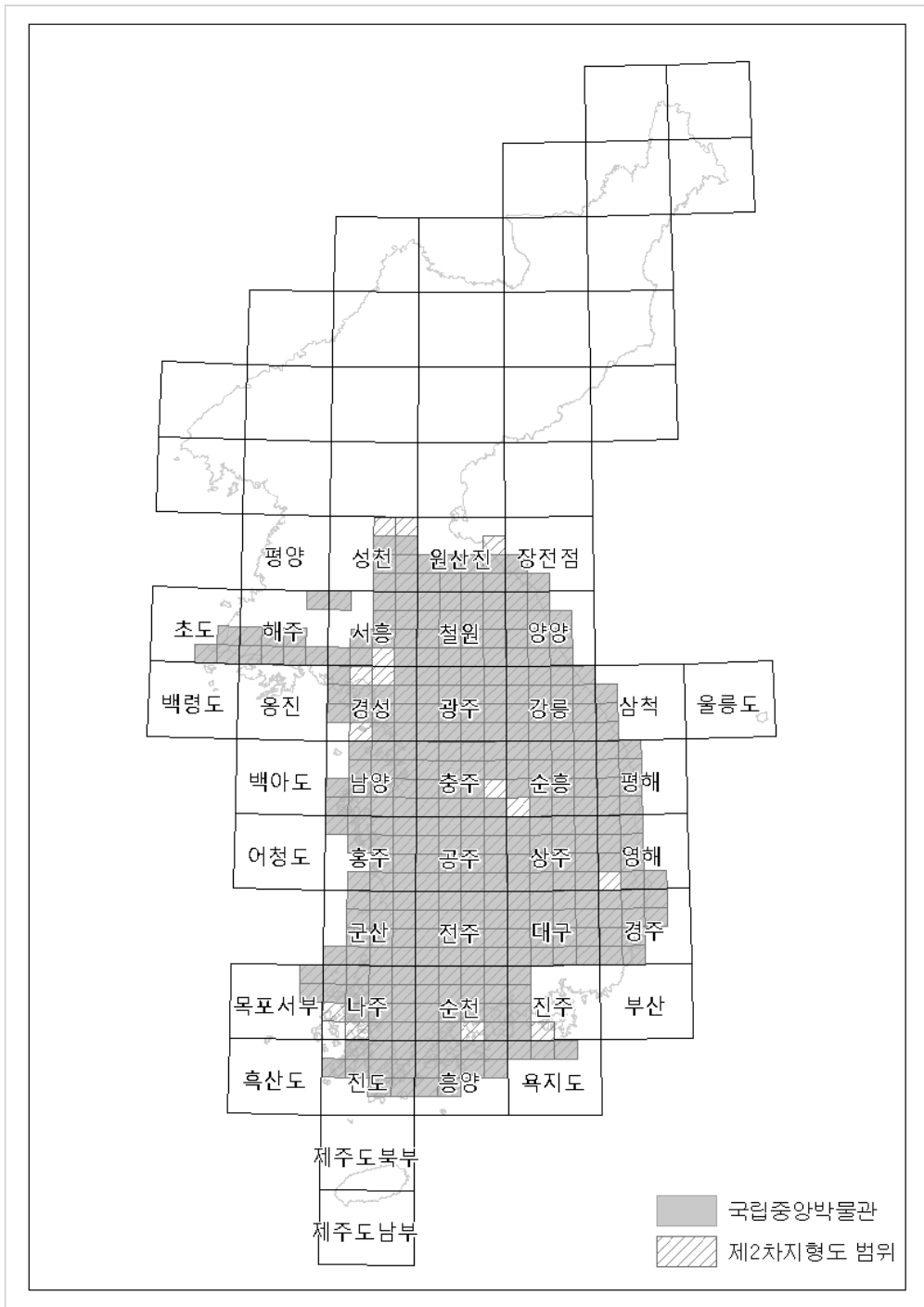
내용	도엽
軍事機密	45
軍事機密 假製東亞	5
秘 軍事機密	3
합	53

(2) 제2차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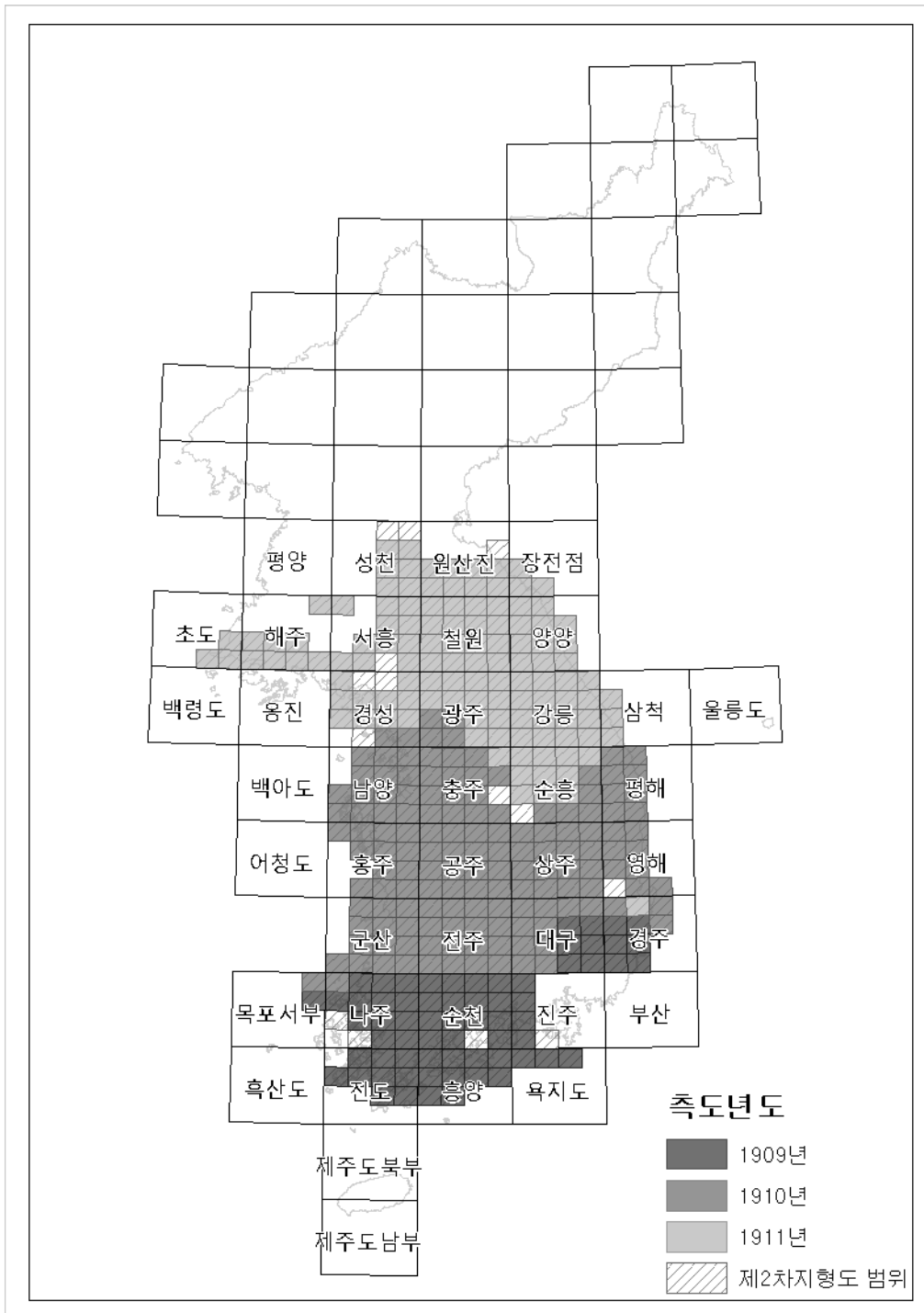
제2차지형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석사논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34장이 소개된 것이 전부이다⁹⁴⁾. 제2차지형도는 도엽명은 물론 제1차지형도에서 제3차지형도로 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화상이 확인되어 비교 연구할 가치가 있다.

제2차지형도는 한반도 전역에 제작되어 있지 않고, 제작 범위는 평양 이남의 남한 전역에 이른다. 제2차지형도 모두 342도엽이 제작되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7도엽이 부족한 335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제작범위를 보면 (그림 19)와 같다. 측도 시기는 1909년~1911년으로, 1910년에 측도된 수가 143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20>,(그림 20).

94)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51.



(그림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그림 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

<표 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09년	66
1910년	143
1911년	119
기록없음	7
합	335

제2차지형도를 소속도엽별로 살펴보면 335도엽으로 <표 21>과 같다.

<표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강릉	16	강릉, 구석평, 도전동, 동평장, 상군두리, 상대화리, 음양리, 정선, 주문진, 창촌, 퇴곡리, 평창, 하안흥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4	강화, 경성, 고양, 능내동, 무학동, 부평읍내, 시흥, 연안, 인천, 적성, 주문도, 통진
경주	11	경주, 남창, 모양리, 사라, 안포, 양산, 연양, 연일, 울산, 조양
공주	16	강경, 공주, 광정리, 금산, 대전, 무주, 문의, 보은, 설천, 속리산, 연산, 영동, 옥천, 청산, 청주, 회덕
광주	16	가평, 감천리, 광주, 도지가, 마석우리, 생십리, 양주, 양평, 용두, 원주, 이포, 춘천, 포천, 하창봉리, 흥천, 화대리
군산	13	격포, 고군산도, 군산김제, 락수정, 무장, 방축구미도, 법성포, 부안, 안마군도, 임피, 정읍, 흥덕
나주	16	광주, 나주, 능주, 담양, 망운장, 무안, 보천장, 서부대비치도, 서부부남군도, 송이도, 영광, 영산포, 영암, 장항, 지, 지도
남양	14	구진, 남양, 당진, 대난지도, 대부도, 덕산, 발안장, 방축리, 서산, 아산, 영흥도, 예산, 용두동, 파수리
대구	17	경산, 대구, 밀양, 삼가, 성주, 신반??급??, 야로, 영산, 영천, 유천, 자인, 지례, 창령, 청도, 합천, 현풍
삼척	3	낙풍리, 산성우, 삼척
상주	16	개령,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선산, 신령, 안동, 예천, 음지, 의성, 인동, 장기동, 차동, 편향리, 함창
서흥	11	기린장, 김천, 삭령, 시변리, 신계, 용당리, 이천, 추천리, 탁영대, 한포, 후평신장
성천	8	가려주, 곡산, 동창, 마가리, 백산, 별창, 신창리, 양덕
순천	15	곤양, 광양, 구례, 남해, 노양동, 단성, 동부, 동북, 보성, 복내장, 석실장, 순천, 옥과,

		유둔장,지리산,하동
순흥	15	단양,동대리,물운리,봉화,서벽리,서창,순흥,연상리,영월,영주,영춘,예안,오미리,장기,청풍
양양	11	간성,고성,공수진,서화리,양양,오리진,용두리,용산리,우석동,인제,장연리
영해	8	도평동,영덕,영해,장기갑,진보,청송,청하,흥해
육지도	3	대매물도,육지도동부,육지도서부
울진	8	고사리,사전리,영양,오저동,용추갑,울진,추천진,평해
원산	8	고산,구당리,남평동,노탄동,철령,통천,화천,회양
장전점	3	장림,장전점,포항리
전주	16	갈담,거창,남원,무풍장,산청,순창,안성장,안의,용담,운봉,익산,장계장,전주,진안,함양
진도	9	강진,군내동,민치,석장리,우수영,이진,진도,해남,회령진
진주	4	사천,삼천리,삼화동,진주
철원	16	금성,김화,대정리,북창,신대,양구,연평,옥동리,외건솔,창도리,철원,토성,토요동,평강,풍전리,화천
초도	3	백촌,조니동,청돌동
충주	15	괴산,목계,문막,성환,수원,안성,여주,오근장,음성,이천,장호원,진위,진천,천안,청안
해주	8	공세장,남호동,신원,장연,중일리,청석두,태탄포,해주
홍주	12	연도,거아도,남포,대흥,보령,부여,서천,승산리,정산,한산,호포,홍주
홍양	10	감목리,녹수,돌산,서동리,소영리,손죽도,연도,예하리,죽포,홍양
합	335	

제2차지형도에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은 가제판에 해당하는 도엽이 22도엽,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도엽이 3도엽으로 25도엽이다. 가제판은 나주에 5도엽, 남양에 6도엽, 진주에 1도엽, 홍양에 10도엽으로 22도엽이고, 군사기밀은 초도에 3도엽이다<표 22>.

<표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2차지형도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내용	도엽	해당지역	
假製版	22	나주	5
		남양	6
		진주	1
		홍양	10
軍事機密	3	초도	3
합	25		

(3) 제3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는 한국에 영인본으로 소개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한계가 있고, 제3차지형도는 여러 번 수정측도하여 판이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영인본은 하나로 엮었기 때문에 수정측도된 과정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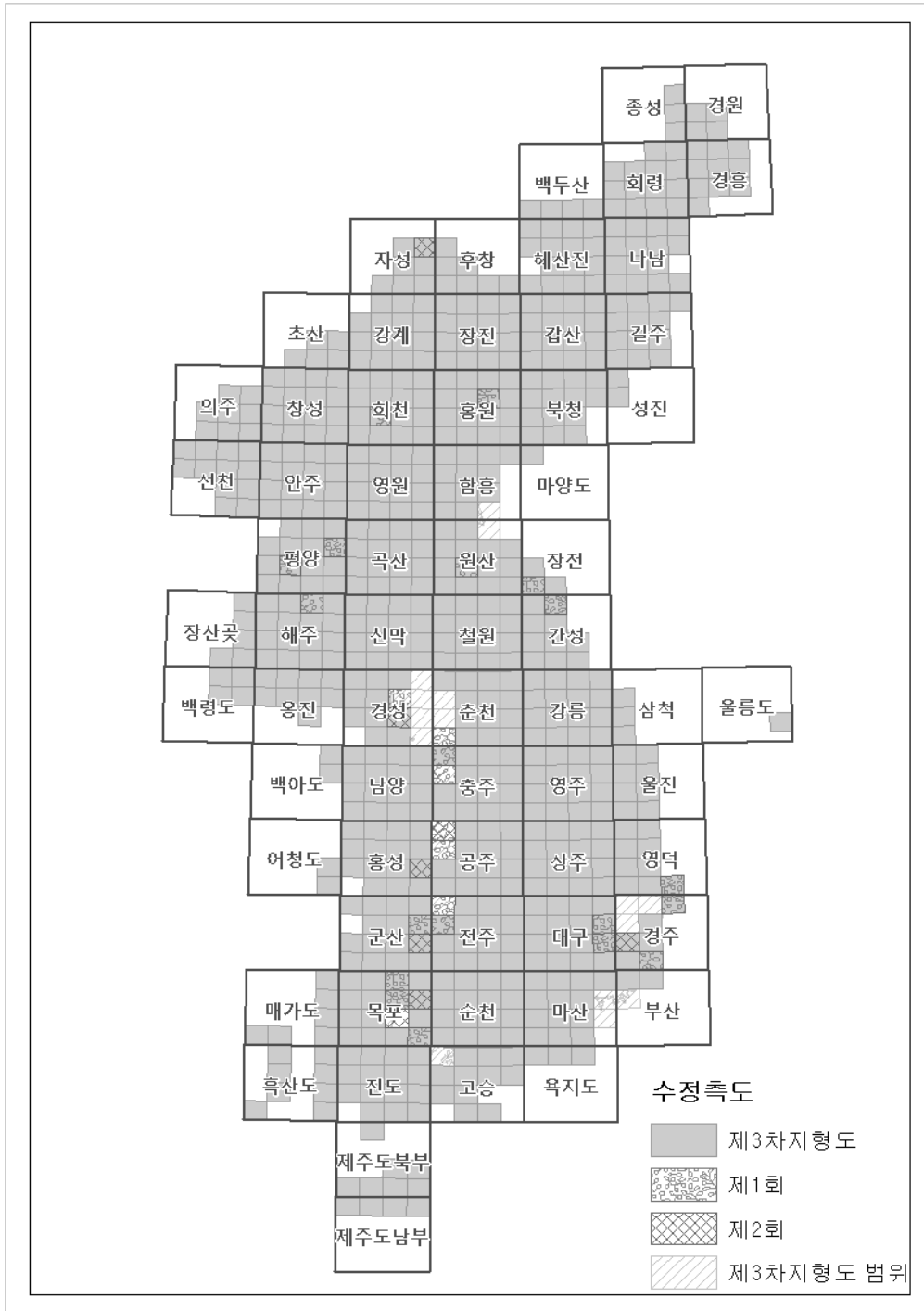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제3차지형도는 중복된 도엽을 제외하면 712도엽으로, 제3차지형도 제작도엽 727도엽과 비교하면, 15도엽이 누락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전체 도엽 중에 제3차지형도가 705도엽, 제1회 수정측도 도엽은 25도엽, 제2회 수정측도 도엽은 8도엽이다. 수정측도 도엽 중에 중복된 도엽을 제외하면 712도엽이다<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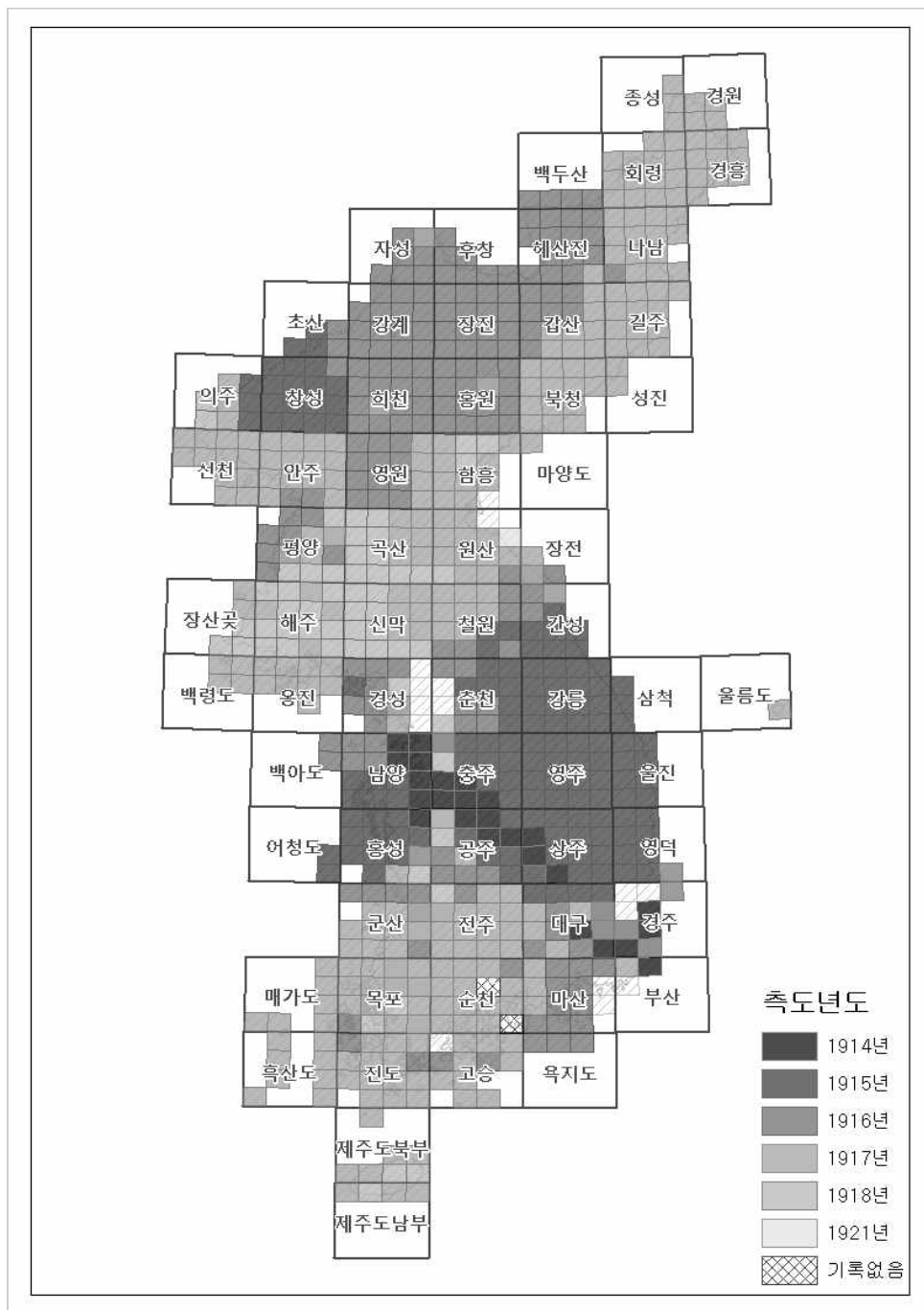
<표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도엽

제3차지형도 분류	도엽 수	비고
제3차지형도	705	
제3차지형도/제1회수정측도	25	중복 19
제3차지형도/제2회수정측도	8	중복 6
합	712	중복제외

제작범위와 수정측도(1회~2회)를 (그림 21)에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광복이후 박물관자료목집’의 목록상으로 측도, 제판, 인쇄, 발행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2도엽은, 제작시기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다.



(그림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및 수정측도



(그림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

측도 시기는 1914년~1921년으로, 1917년에 측도된 수가 284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24>,(그림 22). 이 중에 1921년 측도된 도엽은 교통도이다.

<표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14년	34
1915년	144
1916년	196
1917년	284
1918년	51
1921년	1
기록없음	2
합	712

제3차지형도 중에 측도제판(縮圖製版)하여 제작된 도엽을 제외하고 소속도엽별로 정리하면 <표 25>과 같다.

<표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10	간성, 고성, 내금강, 만대리, 설악산, 양양, 용진, 이포리, 인제, 창암점
갑산	16	갑산, 고성리, 도창, 동점, 동흥리, 보거리, 상리, 신복장, 신하리, 어평리, 울족리, 원덕장, 증평장, 풍산, 함정포리, 합수
강계	15	강계, 고산진, 만포진, 맹부산, 무평리, 별하리, 아득령, 연, 포동, 원평동, 위원, 종포진, 주막거리, 풍용동, 한장, 화평
강릉	16	갑천리, 강릉, 북익리, 석병산, 안흥리, 오태산, 자은리, 정선, 주문진, 창동, 창촌, 평창, 풍암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1	강화, 개성, 김포, 무학리, 통진, 백천, 연안, 온수리, 용유도, 인천, 주문도
경원	4	경원, 신건동, 혼용, 혼용동
경주	6	구룡포, 양산, 언양, 울산, 장생포, 조양
경흥	10	경흥, 고건원, 고읍동, 나진, 덕명, 서수라, 신동, 신아산, 용기, 이진
고흥	11	거금도, 거문도, 고흥, 광도급백도, 돌산, 섭도, 소리도, 외라노도, 외라노도동부, 죽포리, 초도
곡산	16	강동, 곡산, 곡량지, 능리, 대동리, 별창리, 상원, 선암, 성천, 수안, 신평, 양덕, 울리, 파읍, 한달리, 회창

공주	16	강경, 금산, 논산, 대전, 무주, 미원, 보은, 설천, 속리산, 영동, 옥천, 유성, 광정리, 공주, 청산, 청주
군산	15	고창, 군산(대정5/대정6측도), 김제, 말도, 법성포, 부안, 신흥리, 십이동파도, 안마도, 왕등도, 위도, 이리, 장자도, 정읍, 줄포
길주	13	고보, 고참동, 극동, 길주, 명천, 사포동, 성진북부, 응주동, 이암동, 임명동, 재덕, 칠보산, 하응봉
나남	15	경성, 고성령, 관모봉, 광덕동, 나남, 보화보, 봉파동, 사지동, 설령, 성정, 여대진, 연진, 장흥동, 주촌후장, 청진
남양	16	남양, 당진, 대부도, 덕적도, 발안장, 방축리, 산전리, 서산, 선갑도, 아산, 안흥, 영흥도, 예산, 장고항리, 풍도, 해미
대구	16	가야산, 경산, 고령, 남지, 대구, 밀양, 삼가, 영산, 영천, 왜관, 유천, 자인, 지례, 창녕, 청도, 합천
마산	13	거제도, 구조라, 김해, 마산, 미륵도, 미조리, 사천, 삼천포, 선녕, 진동, 진주, 진해, 통영
마양도	1	마양도
매가도	6	매가도, 대비치도, 대흑산도, 매가도, 부남군도, 비금도, 자은도서부
목포	16	광주, 기좌도, 나주, 능주, 담양, 망운, 영산포, 목포, 무안, 송이도, 영광, 영암, 자은도, 장흥, 지도, 포천리
백두산	4	농사동, 백두산, 원지, 장산령
백령도	4	대청도, 마합도, 백령도, 소청도
백아도	2	굴업도, 백아도
부산	2	동래, 월내리
북청	14	단천, 답동리, 대만춘, 방춘, 북청, 상농리, 신창, 신포, 쌍상리, 이원, 장흥리, 중리, 직동, 후치령
삼척	3	산성우, 삼척, 옥계
상주	16	구산동,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선산, 안동, 예천, 옥산동, 의성, 인동, 천지동, 편향리, 함창, 효령
선천	12	대화도, 선암동, 선천, 수운도, 신도, 신미도, 신시동, 영문강, 용암포, 우리도, 차련관, 철산
성진	2	성진, 용대동
순천	16	광양, 괴목리, 구례, 남해, 단성, 동북, 보성, 복내장, 상주리, 순천, 여수, 유평리, 진교, 창평, 하동, 화개장
신막	16	기린리, 김천, 대평, 마전, 문암리, 물개리, 삭령, 시변리, 신계, 신막, 양합, 연탄, 온정리, 이천, 추천리, 한포
안주	16	고성동, 구성, 남시, 납청정, 박천, 속천, 순천, 안주, 영변, 운무도, 운산, 운전동, 입석리, 정주, 천태동, 평원리
어청도	2	어청도, 황도
영덕	9	기계, 도평동, 영덕, 영양, 영해, 장기갑, 청송, 청하, 포항
영원	16	관평리, 구창, 내창, 대평리, 덕천, 도평리, 동창, 맹산, 북창, 사둔, 신읍, 알일령, 영원, 용천리, 은산, 토성
영주	16	내성, 단양, 문경, 서벽리, 신림,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옥동, 의림길, 적성, 제천, 춘양, 호명, 황강리
웅진	9	강령, 대연평도, 마산, 부포, 웅진항, 용매도, 옹호도, 창린도, 청단
육지도	3	대매물도, 육지도동부, 육지도서부
울릉도	1	울릉도
울진	8	고사리, 삼근, 석포, 울진, 일월산, 임원진, 평해, 흥부동
원산	14	가여주, 도남리, 두류산, 마전리, 삼방, 석왕사, 법동, 안변, 원산남부, 원산북부

		통천, 패천리, 화천, 회양
의주	8	방산동, 비현, 서호동, 신의주와 안동, 영산시, 의주, 천마동, 청성진
자성	7	만흥동, 소회동, 옥동, 자성, 자성강구, 중강진, 토성동
장산곶	5	덕동, 몽금포, 장산곶, 진강포, 초도
장전	3	두백리, 외금강, 해금강
장진	16	나흥리, 남사, 능구리, 덕실리, 보성리, 산양리, 삼덕리, 삼포리, 신관원, 양평리, 연화산, 운산리, 원동리, 장진, 중강리, 청산령
전주	16	갈담, 거창, 남원, 무풍장,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임실, 장계장, 고산, 전주, 진안, 함양
제주도남부	4	대정과 마라도, 모슬포, 서귀포, 표선
제주도북부	7	금녕, 비양도, 성산포, 제주, 추자군도, 한라산, 한림
총성	3	온성, 유원진, 총성
진도	15	강진, 노화도, 마량리, 소안도, 어룡도, 완도, 우수영, 이진, 인지리, 진도, 청산도 와 태랑도, 하의도, 하조도, 해남, 횡간도
창성	16	고장, 대관, 벽동, 북진, 비래봉, 삭주, 신창, 양강동, 용성동, 우현진, 응봉, 창주, 청산장시, 탑동, 평장리, 회하동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말회리, 문동, 산양리, 세포, 양구, 연천, 옥동리, 지포리, 창도리, 철원, 평강, 화천, 후평리
초산	5	신도장, 아이진, 이운선리, 초산, 충흥리
춘천	14	가평, 광주, 기산리, 내평리, 마석우리, 양덕원, 양평, 용두, 원주, 이포, 청평천, 춘천, 포천, 흥천, 광주
충주	16	괴산, 목계, 문막, 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오산, 음성, 이천, 장호원, 진천, 천안, 청안, 오산, 충주, 평택
평양	15	강서, 검이포, 광양만서부, 기양, 사립장, 순안, 온정리, 이압도, 중화, 증산, 진남포, 평양동부, 평양서부, 한천, 흑교
함흥	12	고원, 단속산, 삼봉리, 서호진, 영흥, 정평, 지경, 진흥리, 퇴조, 파춘장, 풍송리, 함흥
해주	16	공세장, 남호동, 사리원, 송화, 신원, 신주막, 신천, 안악, 은율, 은파리, 장연, 재령, 청석두리, 태탄포, 해주, 황주
혜산진	15	곽지봉, 백사봉, 보안소리, 보천보, 산양태, 삼포산, 소백산, 신무성, 연암, 유평, 증산, 최가령, 포태리, 혜산진, 호평동
흥성	15	거아도, 남포, 내파수도, 대천리, 대흥, 부여, 서천, 안면도남부, 안면도북부, 연도, 외연도, 청양, 함열, 호도, 흥성
흥원	16	검산령, 고토수, 광대리, 구진, 금패령, 동백산, 메물리, 부전령, 신평리, 신흥, 오노리, 윤담, 원평장, 유담, 하탕우리, 흥원
회령	14	고풍산, 무산, 부거, 부녕, 상창평, 서호동, 운연동, 원영 서부, 지초동, , 진화동, 창평, 풍산동, 행영, 회령
후창	7	송전동, 신갈파진, 이평, 하구배, 후주고읍, 후창, 후창강구
흑산도	8	거차군도, 내병도, 대흑산도남부, 병풍도, 소중관군도, 소흑산도, 우이도, 하태도
희천	16	관상동, 구창, 남흥동, 대수동, 백산, 사창, 안돌, 유원진, 이만동, 재양동, 창리, 평남진, 평원동, 회목동, 후지동, 희천
합	712	

제3차지형도의 제작도엽 727도엽에서 소장하지 않은 도엽은 15도엽이다. 주요 도엽명을 보면 경성, 의정부, 경주, 부산, 호도반도, 동구미리, 가덕도, 동두말 등 주요 도시의 도엽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6>.

<표 26> 국립중앙박물관 제3차지형도 미소장(未所藏)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당도엽명
경성	4	문산, 고양, 경성, 군포장
춘천	2	의정부, 독도
고흥	1	녹두
경주	3	연일, 경주, 모량리
부산	1	부산
월산	1	호도반도
함흥	1	동구미리
마산	2	가덕도, 동두말
합	15	

제3차지형도에서 제1회 수정측도 도엽의 소속도엽과 도엽명을 정리하면 총 25도엽으로 <표 27>과 같다.

<표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당도엽명
간성	1	고성
경성	1	통진
경주	2	구룡포, 장생포
공주	2	광정리, 공주
군산	1	김제
대구	2	자인, 유천
목포	3	장흥, 영광, 나주
영덕	1	장기갑
월산	1	석왕사
장전	1	장전
전주	2	고산, 전주
춘천	1	광주
충주	2	수원, 오산
평양	2	평양동부, 강서
해주	1	사리원
홍원	1	부전령
희천	1	희천
합	25	

제3차지형도에서 제2회 수정측도 소속도엽과 도엽명을 정리하면 총 8도엽으로 다음과 같다<표 28>.

<표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당도엽명
경성	1	대대방168 ~ 53(경성 7호/김포)
경주	1	연양
공주	1	광정리
군산	1	정읍
목포	2	광주, 영산포
자성	1	중간진
홍원	1	부여
합	8	

제3차지형도에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중 가제판에 해당하는 9도엽, 특히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측도(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測圖)가 기입된 도엽을 확인하였는데 마산에 소속하는 의령(宜寧) 도엽이다<표 29>.

<표 2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3차지형도 인기(印記) 기입된 도엽

내용	도엽	해당지역
假製版	9	원 산 1 해산진 8
秘	1	경 성
縮圖製版	1	경 성
鐵道補入	3	해 주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測圖	1	마 산
합	10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대지도는 축척도 다양하고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도엽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원본을 확인하며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들은 조선왕실의 서각자료를 관리·보관한 왕실도서관이다(이하 장서각이라 부른다). 1908년에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실을 회복하고 황실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집옥재(集玉齋), 춘방 등의 서적을 인수관(人壽館)으로 이관하고, 대제실도서관을 세우려고 노력했고, 『제실도서목록』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일강제병합으로 일본은 조선왕실 관련 기관을 이왕직으로 지위를 낮추어 왕실 자료를 창덕궁의 선원전에 임시 수장하고 이 곳을 ‘이왕직서무계도서실(李王職庶務係圖書室)’이라고 불렀다. 자료가 방대해지자 1918년 창경궁에 서고를 건립하고 ‘장서각(藏書閣)’이라고 이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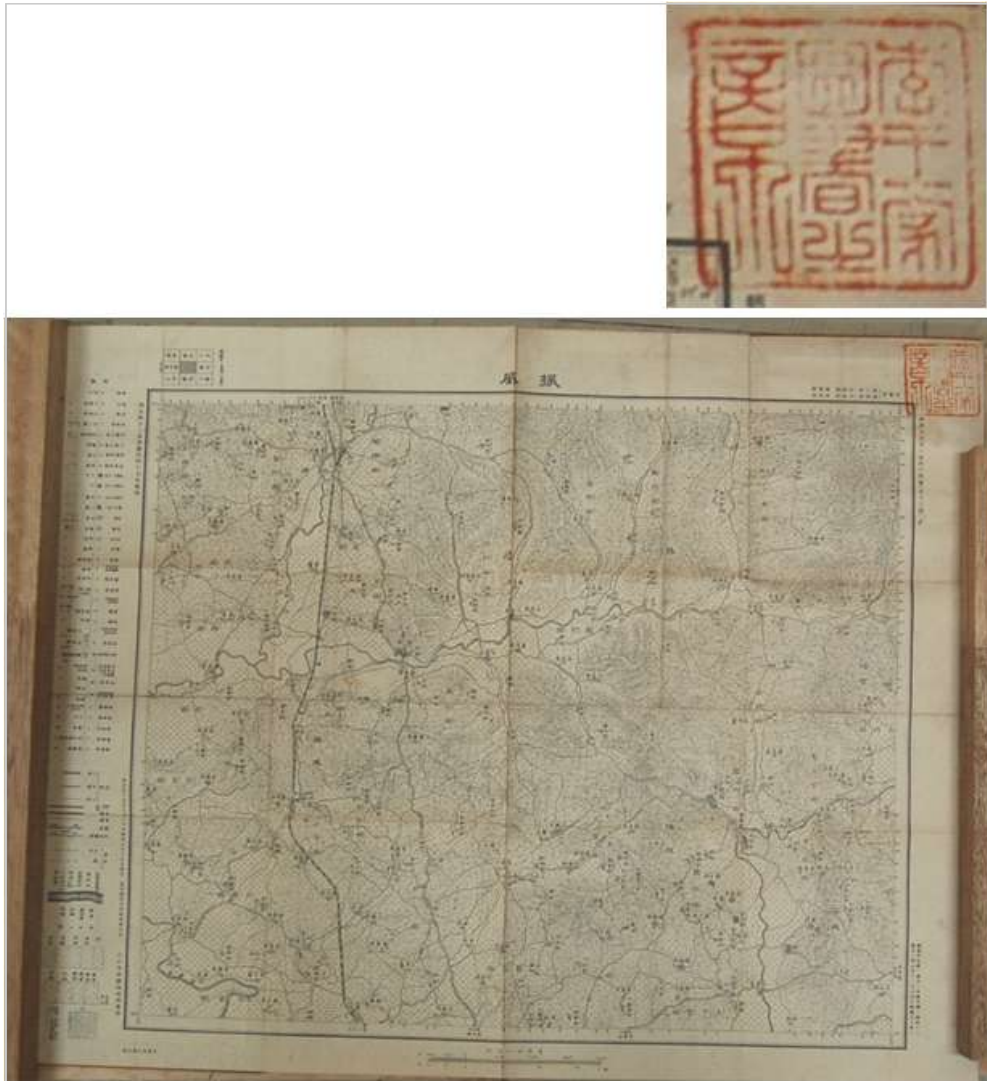
장서각은 장서를 보관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37년 이왕직박물관을 덕수궁으로 옮길 때 장서각도 함께 옮겼다. 1948년 광복 이후 미군정청은 이왕직을 구 왕궁사무청으로 개편하고, 장서각의 관리도 창경원사무소로 이관되었다. 이후 각종 귀한 자료들이 장서각에 이관되어 장서각은 조선왕실의 주요 자료를 소장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 1981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옮겨졌다.⁹⁵⁾

장서각의 지도류들은 2006⁹⁶⁾년, 2017⁹⁷⁾년에 두 번의 해제작업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중에 한국 근대지형도에 해당되는 지도가 축척별로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다.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가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가 있다. 직인과 지형도의 형태는 (그림 23)과 같다.

9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home/info/history.do> 장서각 소개의 글

9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지리류3-,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9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 史部19-,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그림 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직인

제작시기별로 제1차지형도는 81도엽, 제2차지형도는 34도엽, 제3차지형도는 494도엽으로, 609도엽이 있다<표 30>.

<표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작시기별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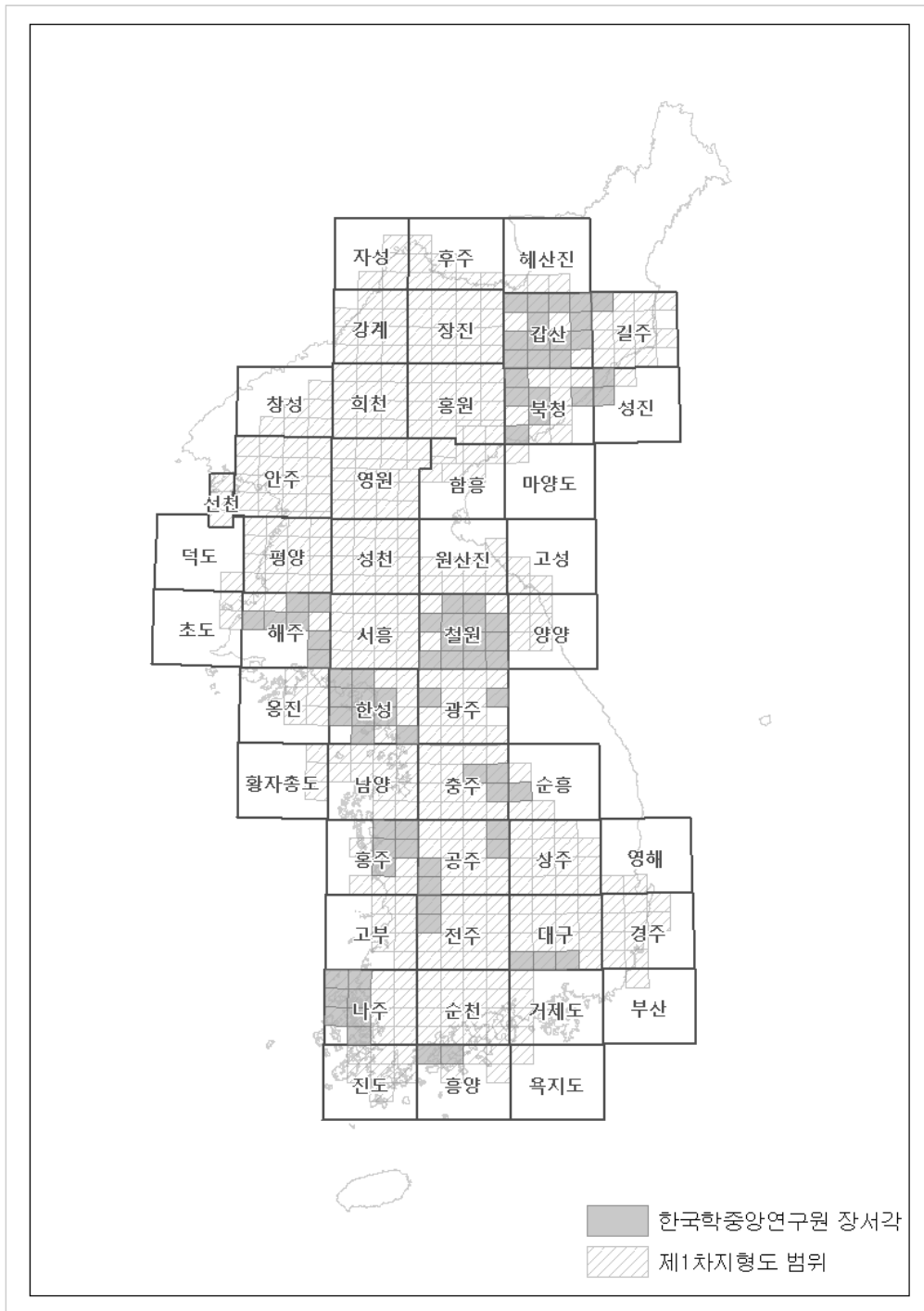
제 작 시 기	도 엽 수
제1차지형도	81
제2차지형도	34
제3차지형도	494
합	609

(1) 제1차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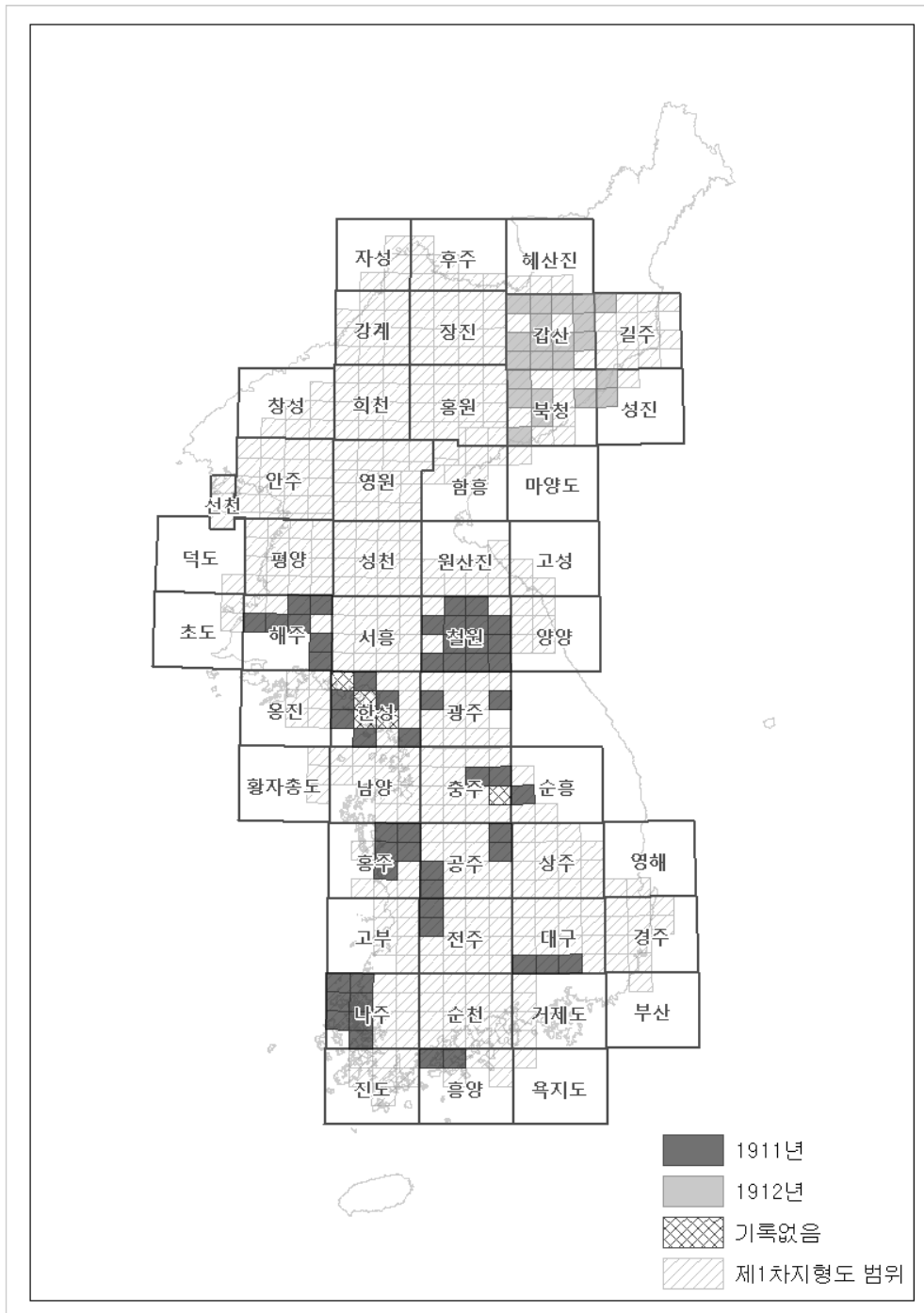
제1차지형도 484도엽으로 제작되었는데, 장서각에 소장된 제1차지형도는 81도엽으로 (그림 24)와 같다. 측도와 제판년도가 도엽 난외주기에 기재되지 않고, 인쇄, 발행일만 기재되어 있다<표 31>,(그림 25). 1911년에 가장 많은 수의 도엽이 발행되었다.

<표 3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발행년도 도엽

인쇄, 발행년도	도엽
1911년	54
1912년	22
기록없음	5
합	81



(그림 2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그림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발행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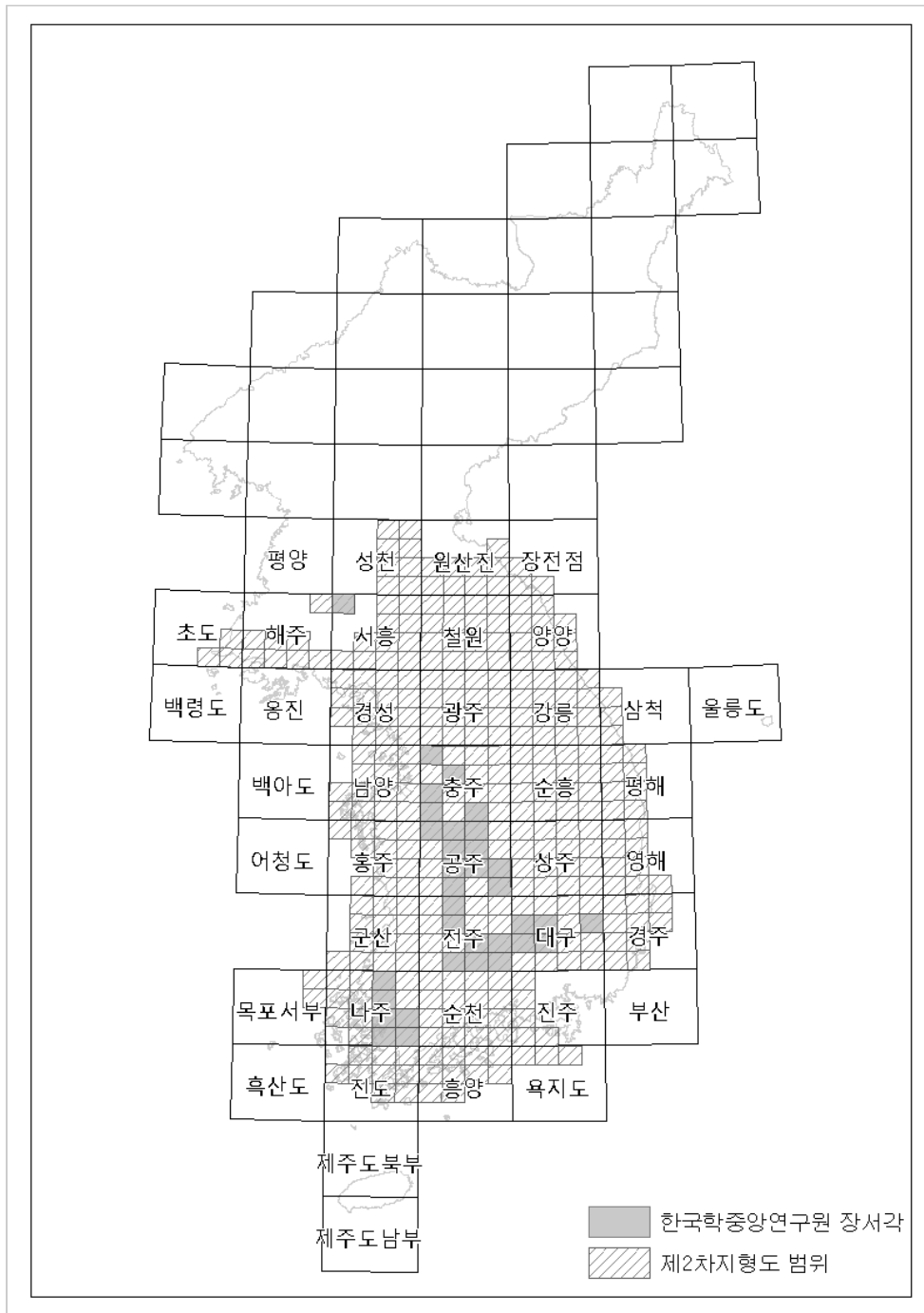
장서각에 소장된 소속도엽과 도엽은 81도엽으로 다음과 같다<표 32>.

<표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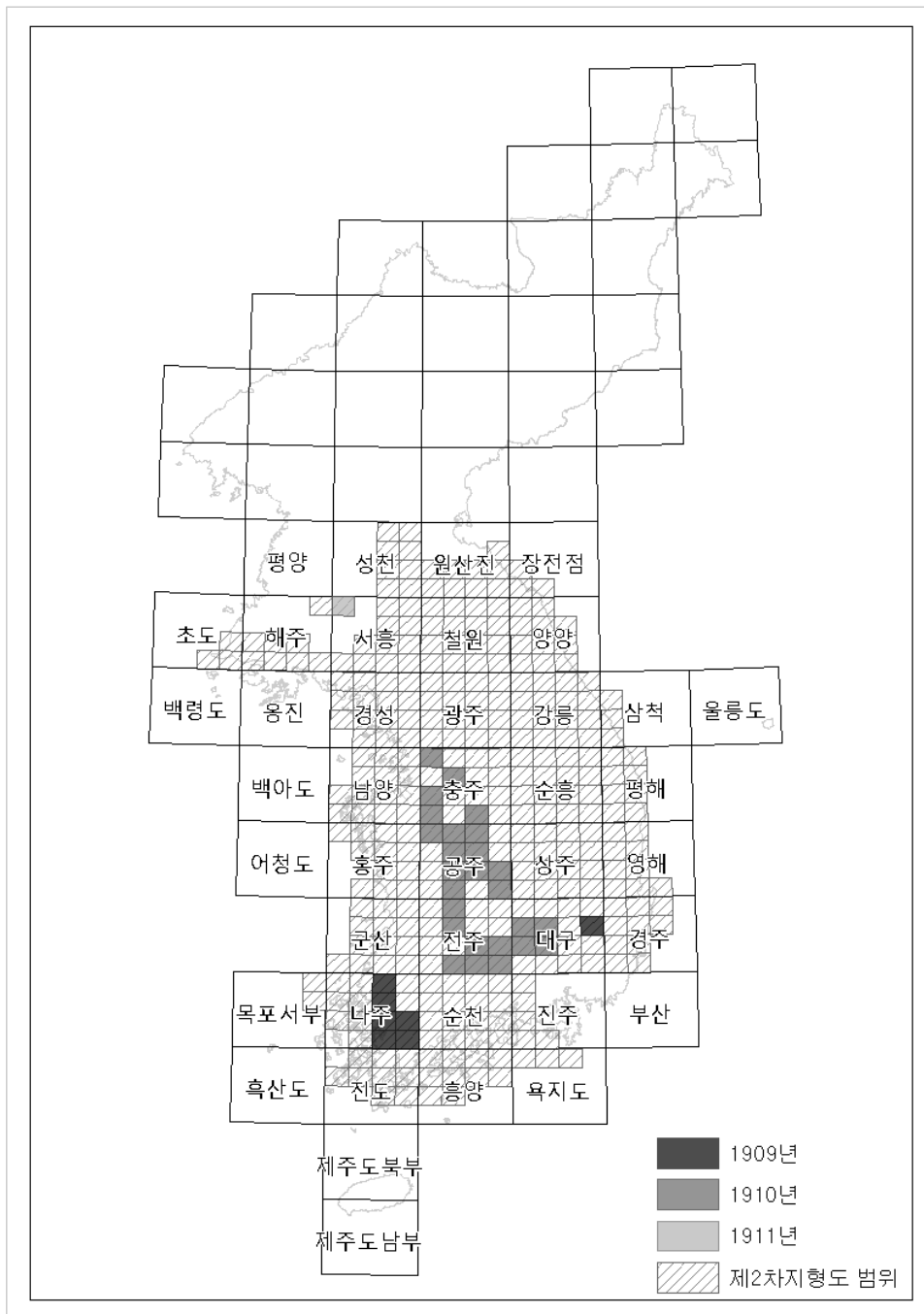
소속도엽명	도엽	도엽명
갑산	13	합수, 석포, 오을죽, 남설령, 도창, 장파, 대문장, 갑산, 임어수 등, 조가동, 삼수, 평리, 황수원
공주	4	송면장, 화령장, 연산, 여산
광주	2	양주, 연엽산
길주	1	운주성
나주	7	보천장, 망운, 무안, 목포항, 낙월도, 지도, 지도남변
대구	3	밀양, 신급, 삼가
북청	6	단천, 궤령, 북청, 장춘포, 흥리동, 평포
성진	2	성진, 이호
순흥	1	신당리
전주	2	익산, 전주
철원	13	송거리, 문등, 청평사, 창도역, 금성, 사방거리, 낭천, 토성, 평강, 김화, 지포, 옥동, 영평
충주	3	하담, 충주, 음죽
한성	10	과천, 통진읍내, 부평, 풍덕, 강화, 정족산성, 용류도, 연안, 교동도, 주문도
해주	7	봉산, 석교장, 평강, 황주, 재령, 문화, 풍천
홍주	5	대흥, 정산, 홍주, 보령, 남포
흥양	2	흥양, 죽시장
합	81	

(2) 제2차지형도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의 중간단계에서 제작된 지형도로 제2차지형도라고 한다. 장서각에 소장한 제2차지형도는 총 34장이다. 제2차지형도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소장범위를 보면 (그림 26)과 같다. 측도 시기는 1909년~1911년으로, 1910년에 측도된 수가 26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33>,(그림 27).



(그림 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그림 2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축도년도

<표 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09년	7
1910년	26
1911년	1
합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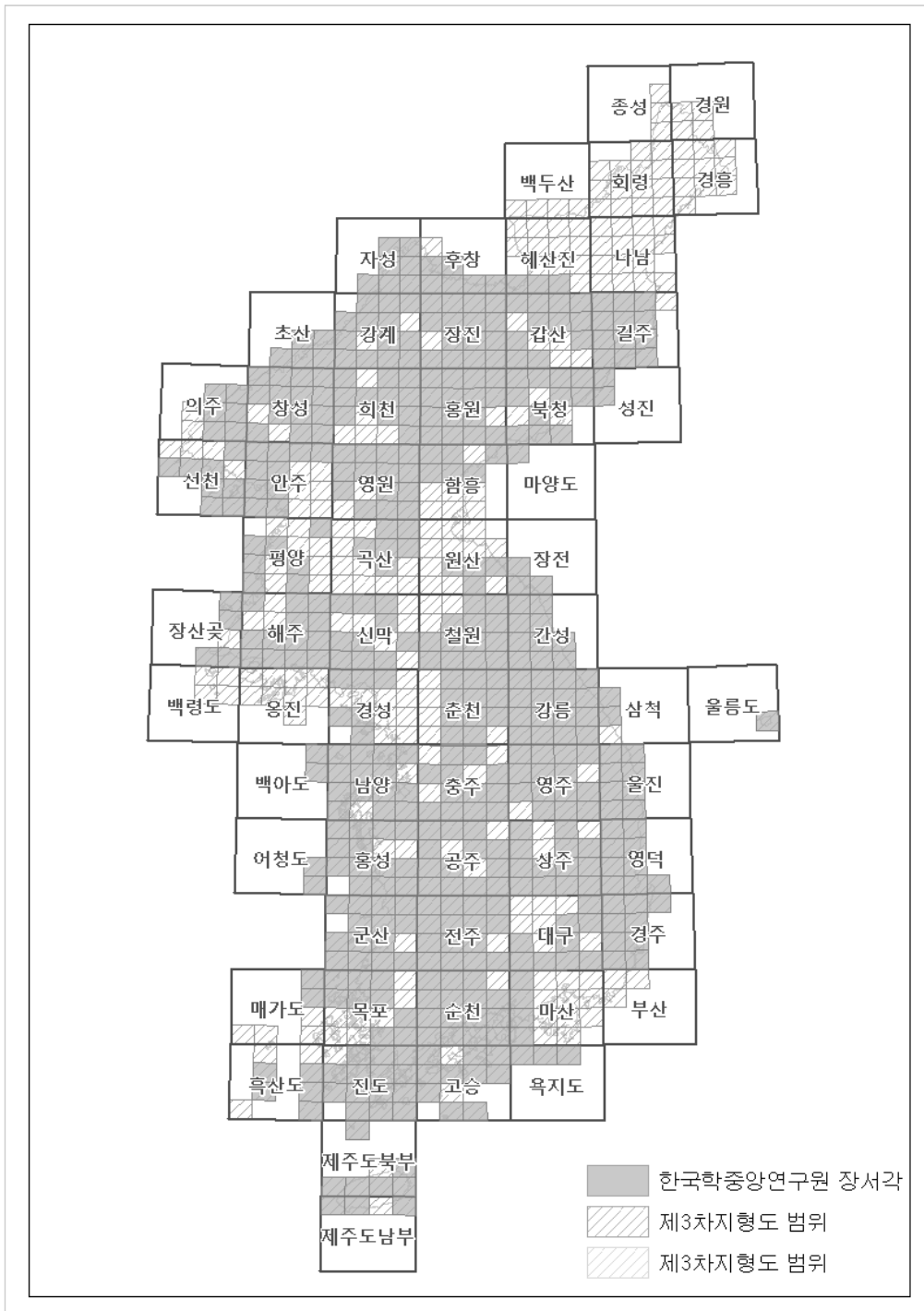
장서각에 소장된 제2차지형도의 도엽 목록은 <표 34>과 같다. 대구(5도엽), 충주(5도엽), 공주(10도엽), 전주(7도엽), 나주(6도엽)에 해당한다.

<표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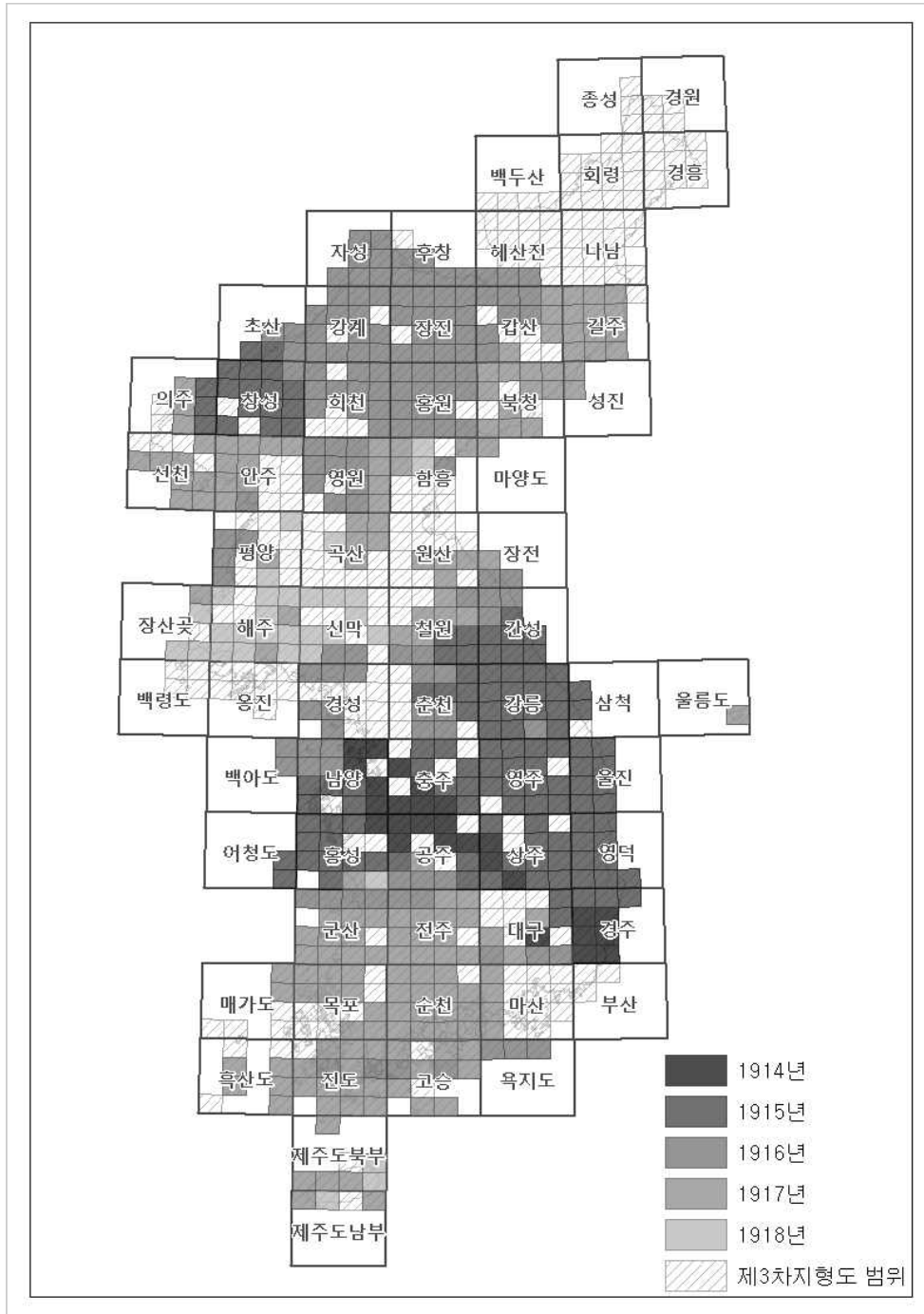
소속도엽명	도엽	도엽명
공주	10	영동, 설천, 문의, 보은, 옥천, 청주, 회덕, 대전, 금산, 광 정리
나주	6	능주, 장흥, 영광, 나주, 영산포, 영암
대구	5	자인, 현풍, 야로, 창빈, 합천
신막	1	기림장
전주	7	안의, 산청, 함양, 운봉, 용담, 진안, 남원
충주	5	청안, 안성, 수원, 진위, 천안
합	34	

(3) 제3차지형도

한국에 소개된 영인본은 채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는 채색을 확인할 수 있어 하천과 도로의 구분이 뚜렷하다. 장서각이 소장한 제3차지형도는 494도엽으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정측도된 도엽은 소장하지 않고, 수정측도되지 않은 제3차지형도만 있다. 이에 소장범위를 보면 (그림 28)과 같다. 측도 시기는 1914년~1918년으로, 1917년에 측도된 수가 167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35>,(그림 29).



(그림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그림 2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축소년도

<표 3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14년	27
1915년	124
1916년	145
1917년	167
1918년	31
합	494

장서각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 494도엽으로, 도엽 목록은 <표 36>과 같다.

<표 3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10	웅진, 양양, 고성, 간성, 창암점, 설악산, 내금강, 이포리, 만대리, 인제
갑산	11	합수, 신복장, 울족리, 동흥리, 동점, 함정포리, 갑산, 어평리, 중평장, 상리, 풍산
강계	13	화평, 아득령, 맹부산, 종포진, 주막거리, 강계, 별하리, 연포동, 만포진, 무평리, 고산진, 위원, 황장
강릉	16	주문진, 강릉, 석병산, 하임계, 북분리, 오태산, 하진부, 현리, 창촌, 창동, 평창, 자뼀리, 풍암리, 갑천리, 안흥리, 정선
경성	6	개성, 백천, 온수동, 용우도, 연안, 주문도
경주	9	구룡포, 연일, 조양, 울산, 장생포, 경주, 모량리, 언양, 양산
고흥	10	죽포리, 소리도, 돌산, 외라로도동부, 광도급백도, 외라로도, 거문도, 녹두, 거금도, 섭도
곡산	6	석탄지, 양덕, 파읍, 대동리, 신평, 회창
공주	15	청산, 영동, 윤천, 미원, 보은, 옥천, 무주, 청주, 회덕, 대전, 금산, 광청리, 공주, 논산, 강경
군산	14	이리, 김제, 신흥리, 군산, 부안, 줄포, 고창, 말도, 장자도, 위도, 법성포, 십이동파도, 왕등도, 안마도
길주	12	극동, 칠보산, 하응봉, 사포동, 명천, 고참동, 길주, 임명동, 응주동, 재덕, 고보, 성진북부
남양	14	남양, 아산, 예산, 대부도, 장고항리, 당진, 해미, 영흥도, 풍도, 서산, 덕적도, 선감도, 방축리, 안흥
대구	11	영천, 자인, 밀양, 경산, 청도, 영산, 현풍, 남지, 야로, 합천, 삼가
마산	4	진주, 사천, 삼천포, 미조리
마양도	1	마양도
매가도	2	대비지도, 부남군도
목포	10	능주, 장흥, 영광, 나주, 영산포, 영암, 포천리, 망운, 송이도, 지도
백야도	2	굴업도, 백야도
북청	11	답동리, 단천, 상능리, 쌍상리, 대만촌, 직동, 북청, 신창, 후치령, 중리, 신평
삼척	2	산성우, 옥계
상주	13	천지동, 구산동, 신령, 안동, 의성, 군위, 효령, 선산, 인동, 함창, 상주, 옥산동, 김천
선천	8	신시동, 신미도, 우리도, 철산, 선암동, 대화도, 수운도, 신도

성진	2	성진, 이호
순천	15	진교, 남해, 상주리, 화개장, 하동, 광양, 여수, 구례, 괴목리, 순천, 유둔리, 창평, 동북, 복내장, 보성
신막	10	석령, 신계, 추천리, 양합, 대평, 한포, 금천, 연탄, 기린리, 온정리
안주	10	운산, 고성동, 구성, 남청정, 운전동, 입석리, 남시, 정주, 천태동, 운무도
어청도	2	어청도, 황도
영덕	9	장기갑, 영해, 영덕, 청하, 포항, 영양, 청송, 도평동, 기계
영원	14	신읍, 용천리, 대평리, 관평리, 도평리, 영원, 맹산, 토성, 내창, 덕천, 동창, 구장, 알일령, 사든
영천	14	호명, 춘양, 예안, 의림길, 옥동, 내성, 영천, 냉월, 영춘, 단양, 적성, 신림, 제천, 황강리
육지도	3	매물도, 육지도동부, 육지도서부
울릉도	1	울릉도
울진	8	임원진, 흥부동, 울진, 평해, 고사리, 석포, 삼근, 일월산
원산	4	통천, 도남리, 회양, 석왕사
의주	6	청성진, 천마동, 영산시, 방산동, 의주, 비현
자성	7	중강진, 만흥동, 소회동, 토성동, 자성강구, 자성, 옥동
장산곶	4	초도, 진강포, 덕동, 장산곶
장전	3	해금강, 두백리, 외금강
장진	15	삼덕리, 청산령, 양평리, 나흥리, 보성리, 원동리, 능구리, 운산리, 남사, 산양리, 중강리, 연화산, 신관원, 삼포리, 덕실리
전주	16	무풍, 거창, 안의, 산청, 안성장, 장계, 함양, 운봉, 용담, 진안, 임실, 남원, 고산, 전주, 갈담, 순창
제주도남부	3	표선, 대정급마라도, 모슬포
제주도북부	6	김령, 성산포, 한라산, 추자군도, 한림, 비양도
진도	14	당진, 마량리, 완도, 청산도급태랑도, 해남, 이진, 노화도, 소안도, 우수영, 진도, 어룡도, 횡간도, 인지리, 하조도
창성	14	고장, 양강리, 우현진, 응봉, 평장리, 회하동, 복진, 청산장시, 벽동, 비래봉, 신창, 창주, 삭주, 탑동
철원	13	말회리, 대정리, 문동, 양구, 창도리, 금성, 산양리, 화천, 평강, 김화, 지포리, 철원, 연천
초산	5	신도장, 초산, 이운선리, 아이진, 총흥리
춘천	11	내평리, 흥천, 양덕리, 춘천, 가평, 용두, 리포, 기산리, 청평천, 마석우리(양수리), 양평
충주	13	목계, 충주, 괴산, 여주, 음성, 청안, 리천, 안성, 진천, 오근장, 수원, 오산, 천안
평양	7	사인장, 기양, 겸이포, 증산, 이압도, 온정리, 광양만서부
함흥	6	퇴조, 서호진, 지경, 정평, 농송리, 단속산
해주	13	황주, 은파리, 청석두리, 신주막, 사리원, 재령, 신원, 해주, 공세리, 태탄, 은룡, 장연, 남호리
혜산령	3	백사봉, 보안소리, 혜산령
홍성	13	대흥, 부여, 함열, 홍주, 남포, 서천, 안면도북부, 안면도남부, 호도, 연도, 거아도, 내파수도, 외연도
홍원	15	운택, 금패령, 홍원, 광대리, 부재령, 신흥, 원평장, 메물리, 하갈우리, 고토수, 오노리, 구진, 유택, 동백산, 검산령
후창	6	신갈파진, 송전동, 하구배, 후창고읍, 후창강구, 후창
흑산도	5	내병도, 거차군도, 병풍도, 하태도, 소중관군도
희천	11	후지동, 남흥동, 창리, 사창, 평남진, 재양동, 유원진, 백산, 대수동, 회목동, 평원동
합	494	

3) 종로도서관

일제강점기에 종로도서관은 경성제국도서관의 분원이었다. 경성제국분원이었을 때부터 한국 근대지형도를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근대지형도에 찍힌 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로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종로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⁹⁸⁾에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개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1:50,000 제3차지형도에 해당하는 722도엽이다. 이 중 633도엽이 원본이고, 누락지역의 89도엽은 영인본⁹⁹⁾이다.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의 형태는 (그림 3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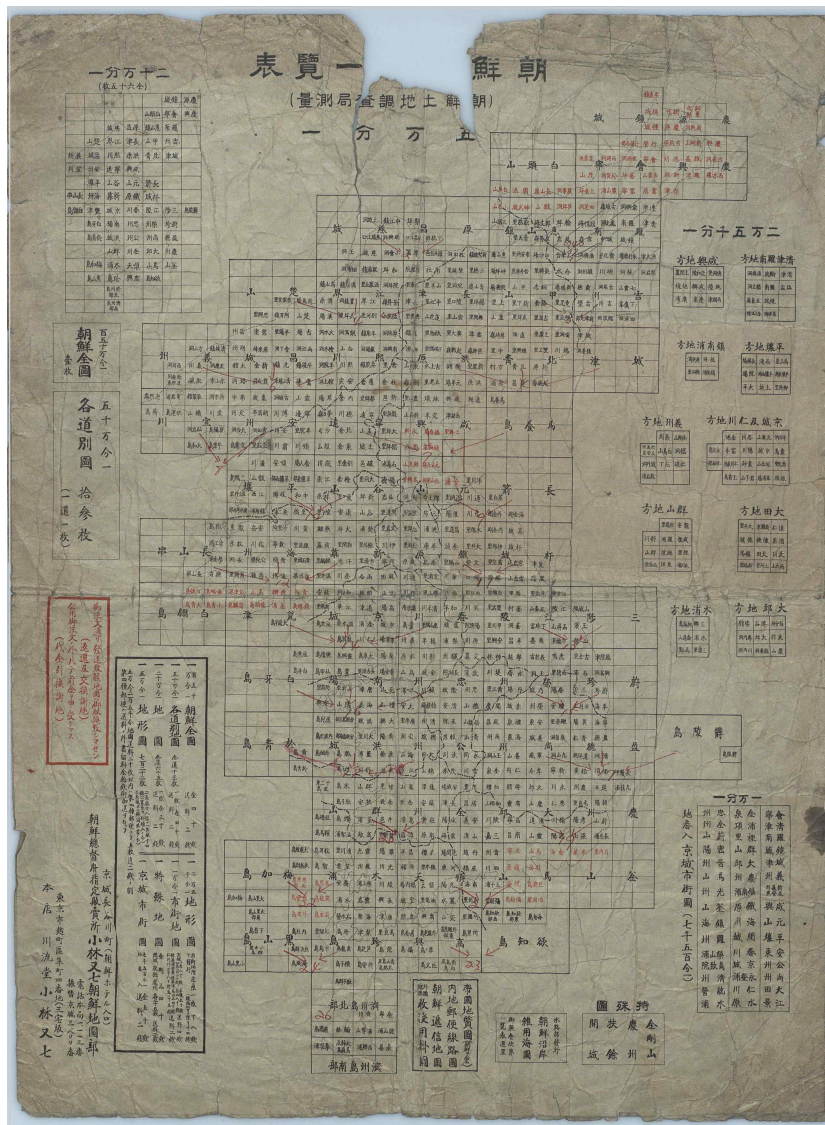
(그림 30)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직인.인기

98) 종로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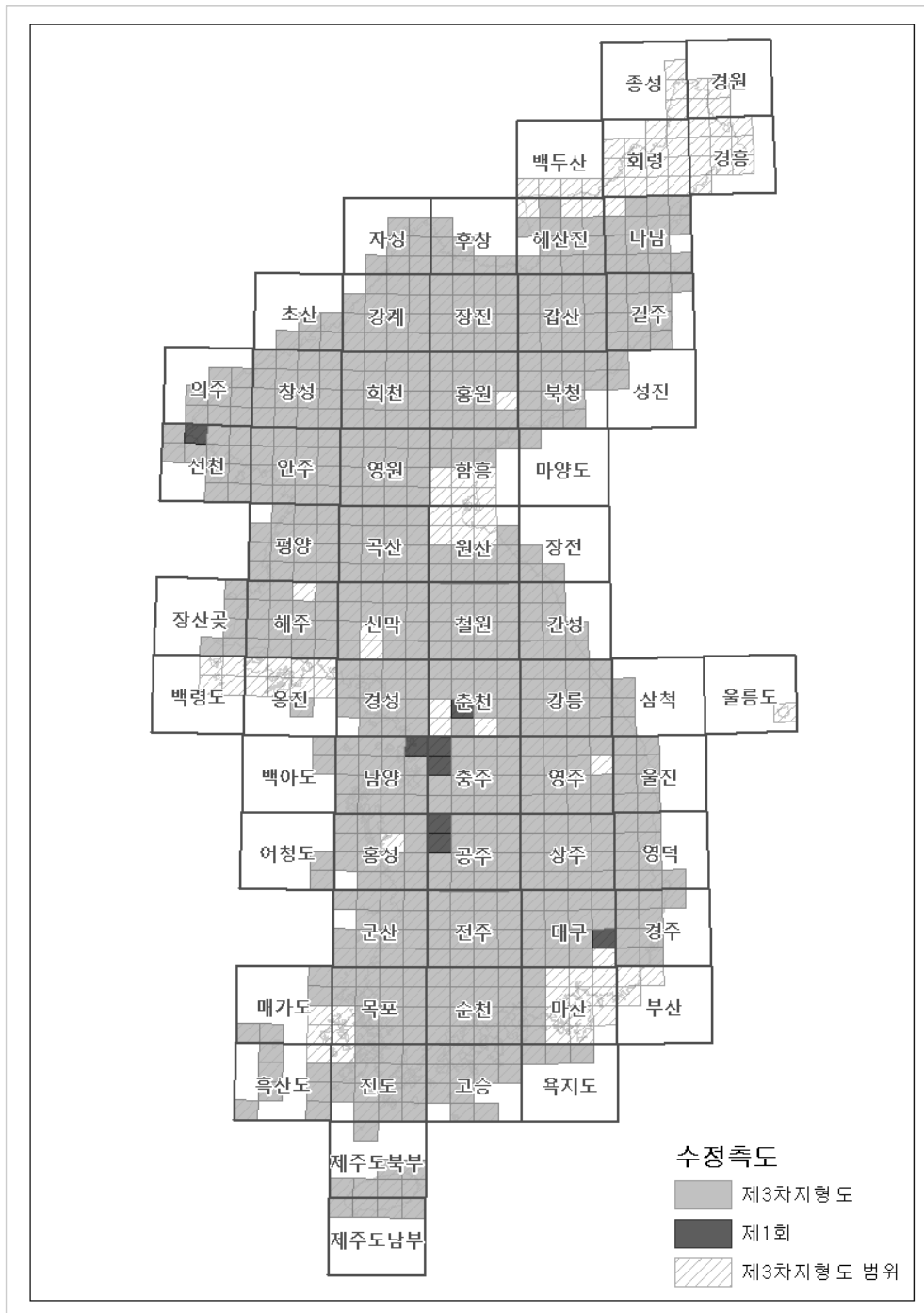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99) 近世韓國五萬分一地形圖로 경인문화사(上·下)에서 발행한 영인본이다.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 일람표와 원본의 소장범위는 (그림 31, 32)와 같다. 633도엽 중에 제1회수정측도 도엽이 8도엽이다. 제3차지형도 625도엽으로 종로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는 수정측도 되지 않은 제3차지형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31) 1:50,000 조선지도일람표(朝鮮地圖一覽表)



(그림 32)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과 수정측도

종로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속도엽과 해당도엽내용을 살펴 보면 <표 37>과 같다.

<표 37>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10	간성, 고성, 내금강, 만대리, 설악산, 양양, 응진, 이포리, 인제, 창암점
갑산	16	갑산, 고성리, 도창, 동점, 동흥리, 보거리, 상리, 신복장, 신하리, 어평리, 올족리, 원덕장, 중평장, 풍산, 함정포리, 합수
강계	15	강계, 고산진, 만포진, 맹부산, 무평리, 별하리, 아득령, 연포동, 원평동, 위원, 종포진, 주막거리, 풍용동, 한장, 화평
강릉	16	갑천리, 강릉, 북익리, 석병산, 안흥리, 오탈산, 자은리, 정선, 주문진, 창동, 창촌, 평창, 풍암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5	강화, 개성, 경성, 고양, 군포장, 김포, 무학리, 문산, 백천, 연안, 온수리, 용유도, 인천, 주문도, 통진
경주	9	경주, 구룡포, 모양리, 양산, 언양, 연일, 울산, 장생포, 조양
고흥	12	거금도, 거문도, 고흥, 광도급백도, 녹두, 돌산, 섭도, 소리도, 외라노도, 외라노도동부, 죽포리, 초도
곡산	16	강동, 곡산, 능리, 대동리, 별창리, 상원, 석탕지, 선암, 성천, 수안, 신평, 양덕, 울리, 증창, 파읍, 한달리
공주	16	강경, 공주, 광정리, 금산, 논산, 대전, 무주, 미원, 보은, 설천, 속리산, 영동, 옥천, 유성, 청산, 청주
군산	15	고창, 군산, 김제, 말도, 법성포, 부안, 신흥리, 십이동파도, 안마도, 왕등도, 위도, 이리, 장자도, 정읍, 출포
길주	13	고보, 고참동, 극동, 길주, 명천, 사포동, 성진북부, 응주동, 이암동, 임명동, 재덕, 칠보산, 하응봉
나남	14	경성, 고성령, 관모봉, 광덕동, 나남, 보화보, 봉파동, 설령, 성정, 어대진, 연진, 장흥동, 주춘후장, 청진
남양	16	남양, 당진, 대부도, 덕적도, 발안장, 방축리, 산전리, 서산, 선갑도, 아산, 안흥, 영흥도, 예산, 장고항리, 풍도, 해미
대구	15	가야산, 경산, 고령, 남지, 대구, 삼가, 영산, 영천, 왜관, 유천, 자인, 지례, 창녕, 청도, 합천
마산	4	미조리, 사천, 삼천포, 진주
마양도	1	마양도
매가도	4	대비치도, 대흑산도, 매가도, 부남군도
목포	14	광주, 나주, 능주, 담양, 망운, 목포, 무안, 송이도, 영광, 영산포, 영암, 장흥, 지도, 포천리
백아도	2	굴업도, 백아도
북청	14	단천, 답동리, 대만촌, 방촌, 북청, 상능리, 신창, 신평, 쌍상리, 이원, 장흥리, 중리, 직동, 후치령
삼척	3	산성우, 삼척, 옥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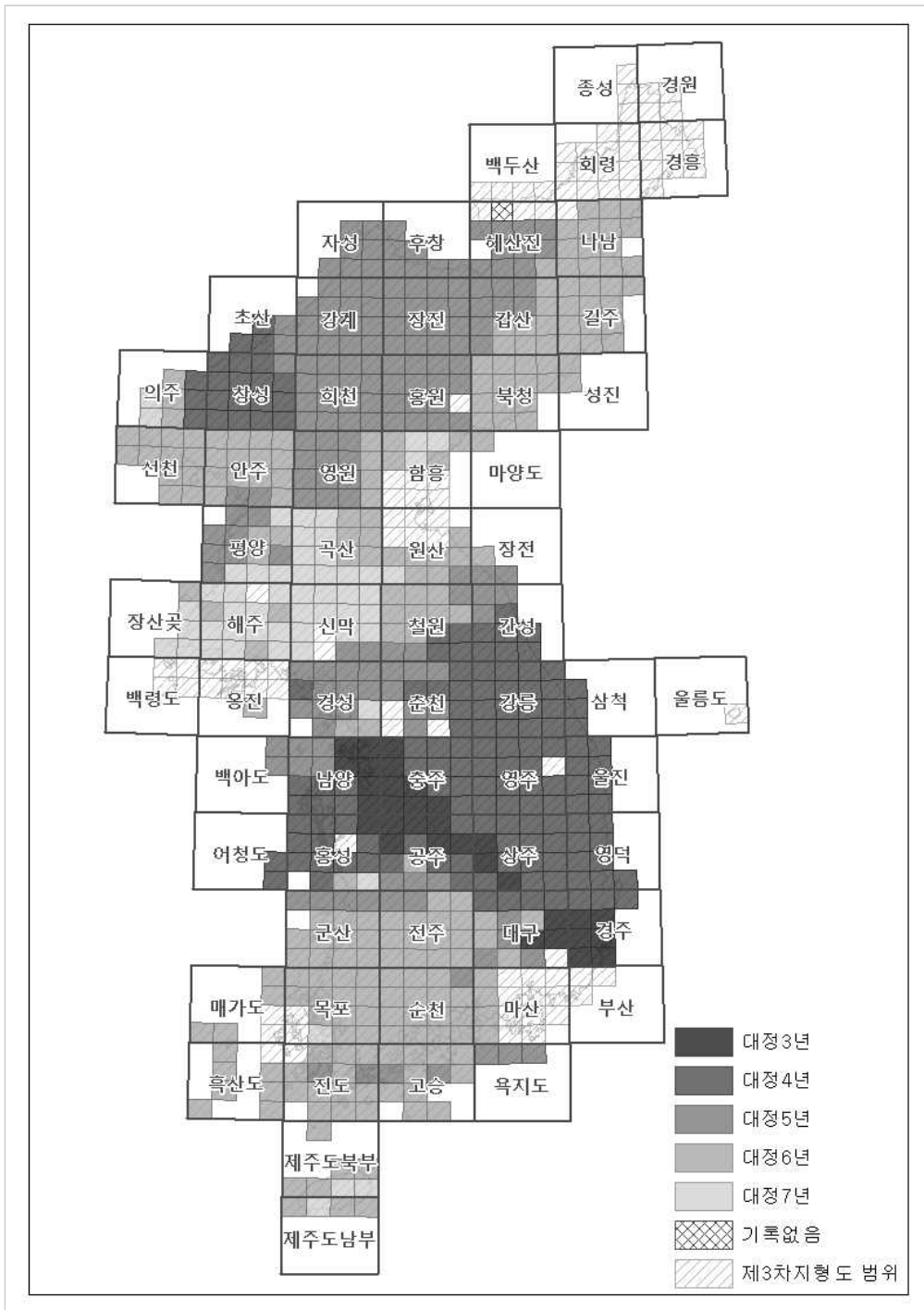
상주	16	구산동,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선산, 신령, 안동, 예천, 옥산동, 의성, 인동, 천지동, 편향리, 함창, 효령
선천	12	대화도, 선암동, 선천, 수운도, 신도, 신미도, 신시동, 영문강, 용암포, 우리도, 차련관, 철산
성진	2	성진, 용대동
순천	16	광양, 괴목리, 구례, 남해, 단성, 동복, 보성, 복내장, 상주리, 순천, 여수, 유둔리, 진교, 창평, 하동, 화개장
신막	14	기린리, 대평, 마전, 문암리, 물개리, 삭령, 시변리, 신계, 신막, 양합, 연탄, 온정리, 이천, 추천리
안주	16	고성동, 구성, 남시, 남청정, 박천, 속천, 순천, 안주, 영변, 운무도, 운산, 운전동, 입석리, 정주, 천태동, 평원리
어청도	2	어청도, 황도
영덕	9	기계, 도평동, 영덕, 영양, 영해, 장기갑, 청송, 청하, 포항
영원	16	관평리, 구장, 내창, 대평리, 덕천, 도평리, 동창, 맹산, 북창, 사둔, 신읍, 알일령, 영원, 용천리, 은산, 토성
영주	15	내성, 단양, 문경, 신림,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옥동, 의림길, 적성, 제천, 춘양, 호명, 황강리
웅진	1	대연평도
육지도	3	매물도, 육지도동부, 육지도서부
울진	8	고사리, 삼근, 석포, 울진, 일월산, 임원진, 평해, 흥부동
원산	9	가여주, 도남리, 법동, 삼방, 석왕사, 통천, 패천리, 화천, 회양
의주	8	방산동, 비현, 서호동, 신의주급안동, 영산시, 의주, 천마동, 청성진
자성	7	만흥동, 소회동, 옥동, 자성, 자성강구, 중강진, 토성동
장산곶	5	덕동, 몽금포, 장산곶, 진강포, 초도
장천	3	두백리, 외금강, 해금강
장진	16	나흥리, 남사, 능구리, 덕실리, 보성리, 산양리, 삼덕리, 삼포리, 신관원, 양평리, 연화산, 운산리, 원동리, 장진, 중강리, 청산령
전주	16	갈담, 거창, 고산, 남원, 무풍,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임실, 장계, 전주, 진안, 함양
제주도남부	4	대정급마라도, 모슬포, 서귀포, 표선
제주도북부	7	김녕, 비양도, 성산포, 제주, 추자군도, 한라산, 한림
진도	14	강진, 노화도, 마량리, 소안도, 어룡도, 완도, 우수영, 이진, 인지리, 진도, 청산도급태량도, 하조도, 해남, 횡간도
창성	16	고장, 대관, 벽동, 북진, 비래봉, 삭주, 신창, 양강동, 용성동, 우현진, 응봉, 창주, 청산장시, 탑동, 평장리, 회하동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말회리, 문등, 산양리, 세포, 양구, 연천, 옥동리, 지포리, 창도리, 철원, 평강, 화천, 후평리
초산	5	신도장, 아이진, 이운선리, 초산, 충흥리
춘천	13	가평, 기산리, 내평리, 마석우리, 양덕원, 양평, 용두, 원주, 의정부, 청평천, 춘천, 포천, 흥천
충주	16	괴산, 목계, 문막, 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오산, 음성, 이천, 장호원, 진천, 천안,

		청안, 충주, 평택
평양	15	강서, 검이포, 광양만서부, 기양, 사인장, 순안, 온정리, 이압도, 중화, 증산, 진남포, 평양동부, 평양서부, 한천, 흑교
함흥	7	단속산, 서호진, 정평, 지경, 퇴조, 풍송리, 함흥
해주	15	공세리, 남호리, 송화, 신원, 신주막, 신천, 안악, 은율, 은파리, 장연, 재령, 청석두리, 태탄, 해주, 황주
혜산진	12	곽지봉, 백사봉, 보안소리, 보천보, 산양태, 삼포산, 신무성, 연암, 유평, 최가령, 포태리, 혜산진
홍성	14	거아도, 남포, 내파수도, 대흥, 부여, 서천, 안면도남부, 안면도북부, 연도, 외연도, 청양, 함열, 호도, 홍성
홍원	15	검산령, 고토수, 광대리, 구진, 금패령, 동백산, 메물리, 부전령, 신흥, 오노리, 운담, 원평장, 유담, 하탕우리, 홍원
후창	7	송전동, 신갈파진, 이평, 하구배, 후주고읍, 후창, 후창강구
흑산도	7	거차군도, 내병도, 대흑산도남부, 병풍도, 소중관군도, 소흑산도, 하태도
희천	16	관상동, 구창, 남흥동, 대수동, 백산, 사창, 안돌, 유원진, 이만동, 재양동, 창리, 평남진, 평원동, 회목동, 후지동, 희천
합	633	

측도 시기는 1914년~1918년으로, 1917년에 측도된 수가 227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38>,(그림 33).

<표 38>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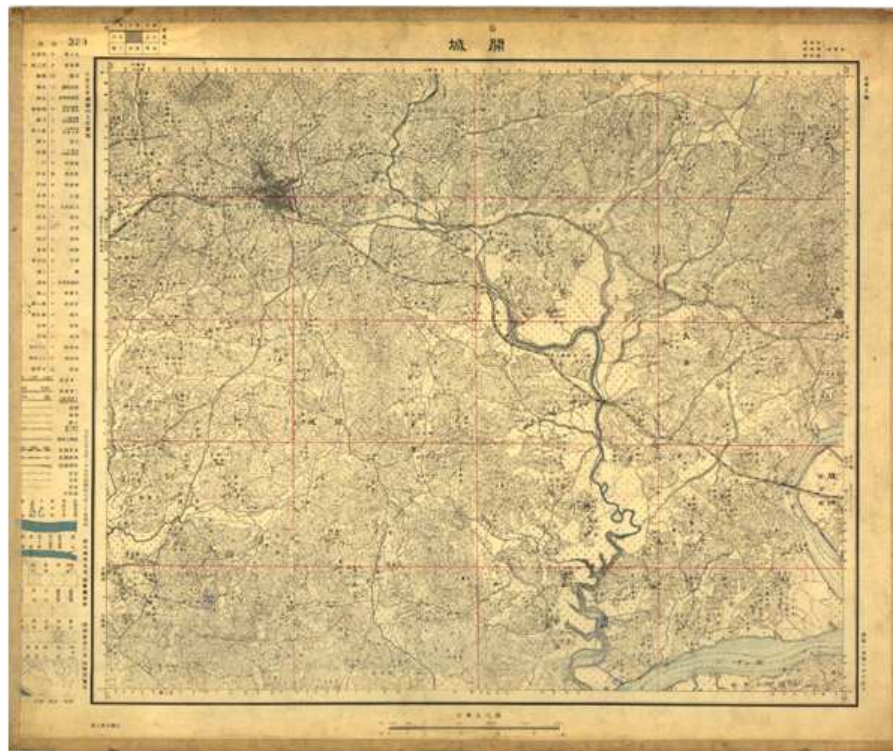
측도년도	도엽
1914년	32
1915년	144
1916년	175
1917년	227
1918년	54
기록없음	1
합	633



(그림 33) 종로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축도년도

4)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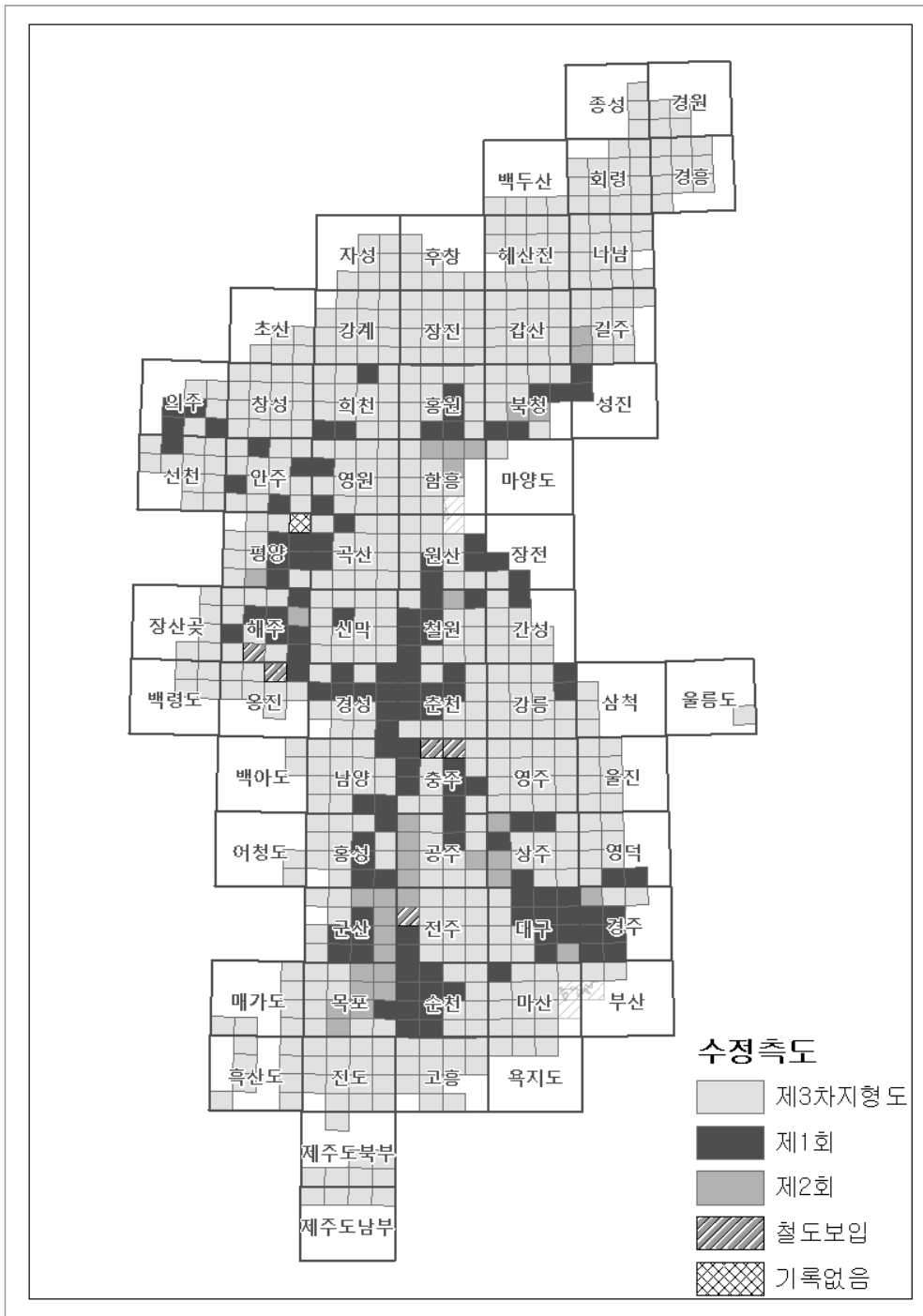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국토정보플랫폼의 웹사이트¹⁰⁰⁾에서 구지도(광복이전지형도)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개된 한국 근대지형도 1:50,000는 722도엽이고, 소장범위는 한반도 전역이다. 1:50,000 지형도 이외에 1:10,000 지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69도엽으로 2도엽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발행한 영인본¹⁰¹⁾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의 한국 근대지형도의 도엽 이미지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100) 국토정보플랫폼 웹사이트, 구지도 항목에 광복이전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 : <http://map.ngii.go.kr/pd/ctlsSvc/ctlsSvc.do#>

101) 朝鮮總督府, 1985, 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 柏書房. 일본 백서방에서 발행한 영인본이다.



(그림 35)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과 수정측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원본만 정리하면, 지형도의 범위와 수정측도(제1회, 제2회) 및 철도보입은 (그림 35)와 같다<표 39>. 제3차지형도 554도엽, 제1회수정측도 128도엽, 제2회수정측도 34도엽, 철도보입 5도엽, 수정측도 기록 없는 도엽이 1도엽으로 총 722도엽이 있다.

<표 39>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도엽

제3차지형도 분류	도엽 수
제3차지형도	554
제3차지형도/제1회수정측도	128
제3차지형도/제2회수정측도	34
철도보입	5
수정측도 기록없음	1
합	722

국토지리정보원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속도엽과 도엽을 살펴보면 <표 40>과 같다. 추가로 발견한 5도엽을 제외산 한반도 전역인 722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표 40>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당도엽명
간성	10	간성, 고성, 내금강, 만대리, 설악산, 양양, 응진, 이포리, 인제, 창암점
갑산	16	갑산, 고성리, 도창, 동점, 동흥리, 보거리, 상리, 신복장, 신하리, 어평리, 울족리, 원덕장, 증평장, 풍산, 함정포리, 합수
강계	15	강계, 고산진, 만포진, 맹부산, 무평리, 별하리, 아득령, 연, 포동, 원평동, 위원, 종포진, 주막거리, 풍용동, 한장, 화평
강릉	16	갑천리, 강릉, 북익리, 석병산, 안흥리, 오태산, 자은리, 정선, 주문진, 창동, 창춘, 평창, 풍암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5	강화, 개성, 김포, 무학리, 통진, 백천, 연안, 온수리, 용유도, 인천, 주문도, 문산, 고양, 경성, 군포장
경원	4	경원, 신건동, 혼용, 혼용동
경주	9	구룡포, 양산, 언양, 울산, 장생포, 조양, 연일, 경주, 모량리
경흥	10	경흥, 고건원, 고읍동, 나진, 덕명, 서수라, 신동, 신아산, 웅기, 이진
고흥	12	거금도, 거문도, 고흥, 광도급백도, 돌산, 섭도, 소리도, 외라노도, 외라노도동부, 죽포리, 초도, 녹두
곡산	16	강동, 곡산, 곡당지, 능리, 대동리, 별창리, 상원, 선암, 성천, 수안, 신평, 양덕, 울리, 파읍, 한달리, 회창

공주	16	강경, 금산, 논산, 대전, 무주, 미원, 보은, 설천, 속리산, 영동, 옥천, 유성, 광정리, 공주, 청산, 청주
군산	15	고창, 군산(대정5/대정6측도), 김제, 말도, 법성포, 부안, 신흥리, 십이동파도, 안마도, 왕등도, 위도, 이리, 장자도, 정읍, 줄포
길주	13	고보, 고참동, 극동, 길주, 명천, 사포동, 성진북부, 응주동, 이암동, 임명동, 재덕, 칠보산, 하응봉
나남	15	경성, 고성령, 관모봉, 광덕동, 나남, 보화보, 봉파동, 사지동, 설령, 성정, 어대진, 연진, 장흥동, 주촌후장, 청진
남양	16	남양, 당진, 대부도, 덕적도, 발안장, 방축리, 산전리, 서산, 선갑도, 아산, 안흥, 영흥도, 예산, 장고항리, 풍도, 해미
대구	16	가야산, 경산, 고령, 남지, 대구, 밀양, 삼가, 영산, 영천, 왜관, 유천, 자인, 지례, 창녕, 청도, 합천
마산	13	거제도, 구조라, 김해, 마산, 미륵도, 미조리, 사천, 삼천포, 선녕, 진동, 진주, 진해, 통영
마양도	1	마양도
매가도	6	매가도, 대비치도, 대흑산도, 매가도, 부남군도, 비금도, 자은도서부
목포	16	광주, 기좌도, 나주, 능주, 담양, 망운, 영산포, 목포, 무안, 송이도, 영광, 영암, 자은도, 장흥, 지도, 포천리
백두산	4	농사동, 백두산, 원지, 장산령
백령도	4	대청도, 마합도, 백령도, 소청도
백야도	2	굴업도, 백야도
부산	2	동래, 월내리
북청	14	단천, 답동리, 대만춘, 방촌, 북청, 상농리, 신창, 신포, 쌍상리, 이원, 장흥리, 중리, 직동, 후치령
삼척	3	산성우, 삼척, 옥계
상주	16	구산동,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선산, 안동, 예천, 옥산동, 의성, 인동, 천지동, 편향리, 함창, 효령
선천	12	대화도, 선암동, 선천, 수운도, 신도, 신미도, 신시동, 영문강, 용암포, 우리도, 차련관, 철산
성진	2	성진, 응대동
순천	16	광양, 괴목리, 구례, 남해, 단성, 동북, 보성, 복내장, 상주리, 순천, 여수, 유둔리, 진교, 창평, 하동, 화개장
신막	16	기린리, 김천, 대평, 마전, 문암리, 물개리, 삭령, 시변리, 신계, 신막, 양합, 연탄, 온정리, 이천, 추천리, 한포
안주	16	고성동, 구성, 남시, 남청정, 박천, 속천, 순천, 안주, 영변, 운무도, 운산, 운전동, 입석리, 정주, 천태동, 평원리
어청도	2	어청도, 황도
영덕	9	기계, 도평동, 영덕, 영양, 영해, 장기갑, 청송, 청하, 포항
영원	16	관평리, 구장, 내창, 대평리, 덕천, 도평리, 동창, 맹산, 북창, 사둔, 신읍, 알일령, 영원, 용천리, 은산, 토성
영주	16	내성, 단양, 문경, 서벽리, 신림,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옥동, 의림길, 적성, 제천, 춘양, 호명, 황강리
웅진	9	강령, 대연평도, 마산, 부포, 웅진항, 용매도, 용호도, 창린도, 청단
육지도	3	대매물도, 육지도동부, 육지도서부
울릉도	1	울릉도
울진	8	고사리, 삼근, 석포, 울진, 일월산, 임원진, 평해, 흥부동

원산	14	가여주, 도납리, 두류산, 마전리, 삼방, 석왕사, 법동, 안변, 원산남부, 원산북부, 통천, 패천리, 화천, 회양
의주	8	방산동, 비현, 서호동, 신의주와 안동, 영산시, 의주, 천마동, 청성진
자성	7	만흥동, 소회동, 옥동, 자성, 자성강구, 중강진, 토성동
장산곶	5	덕동, 몽금포, 장산곶, 진강포, 초도
장전	3	두백리, 외금강, 해금강
장진	16	나흥리, 남사, 능구리, 덕실리, 보성리, 산양리, 삼덕리, 삼포리, 신관원, 양평리, 연화산, 운산리, 원동리, 장진, 중강리, 청산령
전주	16	갈담, 거창, 남원, 무풍장,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임실, 장계장, 고산, 전주, 진안, 함양
제주도남부	4	대정과 마라도, 모슬포, 서귀포, 표선
제주도북부	7	금녕, 비양도, 성산포, 제주, 추자군도, 한라산, 한림
종성	3	온성, 유원진, 종성
진도	15	강진, 노화도, 마량리, 소안도, 어룡도, 완도, 우수영, 이진, 인지리, 진도, 청산도와 태랑도, 하의도, 하조도, 해남, 횡간도
창성	16	고장, 대관, 벽동, 복진, 비래봉, 삭주, 신창, 양강동, 용성동, 우현진, 응봉, 창주, 청산장시, 탑동, 평장리, 회하동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말회리, 문등, 산양리, 세포, 양구, 연천, 옥동리, 지포리, 창도리, 철원, 평강, 화천, 후평리
초산	5	신도장, 아이진, 이운선리, 초산, 충흥리
춘천	16	가평, 광주, 기산리, 내평리, 마석우리, 양덕원, 양평, 용두, 원주, 이포, 청평천, 춘천, 포천, 흥천, 광주, 의정부, 독도
충주	16	괴산, 목계, 문막, 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오산, 음성, 이천, 장호원, 진천, 천안, 청안, 오산, 충주, 평택
평양	15	강서, 검이포, 광양만서부, 기양, 사입장, 순안, 온정리, 이압도, 증화, 증산, 진남포, 평양동부, 평양서부, 한천, 흑교
함흥	12	고원, 단속산, 삼봉리, 서호진, 영흥, 정평, 지경, 진흥리, 퇴조, 파춘장, 풍송리, 함흥
해주	16	공세장, 남호동, 사리원, 송화, 신원, 신주막, 신천, 안악, 은율, 은파리, 장연, 재령, 청석두리, 태탄포, 해주, 황주
혜산진	15	팍지봉, 백사봉, 보안소리, 보천보, 산양태, 삼포산, 소백산, 신무성, 연암, 유평, 증산, 최가령, 포태리, 혜산진, 호평동
홍성	15	거야도, 남포, 내파수도, 대천리, 대흥, 부여, 서천, 안면도남부, 안면도북부, 연도, 외연도, 청양, 함열, 호도, 홍성
홍원	16	검산령, 고토수, 광대리, 구진, 금패령, 동백산, 메물리, 부전령, 신평리, 신흥, 오노리, 운담, 원평장, 유담, 하탕우리, 홍원
회령	14	고풍산, 무산, 부거, 부녕, 상창평, 서호동, 운연동, 원영 서부, 지초동, , 진화동, 창평, 풍산동, 행영, 회령
후창	7	송전동, 신갈파진, 이평, 하구배, 후주고읍, 후창, 후창강구
흑산도	8	거차군도, 내병도, 대흑산도남부, 병풍도, 소중관군도, 소흑산도, 우이도, 하태도
희천	16	관상동, 구창, 남흥동, 대수동, 백산, 사창, 안돌, 유원진, 이만동, 재양동, 창리, 평남진, 평원동, 회목동, 후지동, 희천
합	722	

측도 시기는 1914년~1918년으로, 1914년 34도엽, 1915년 148도엽, 1916년 196도엽, 1917년 287도엽, 1918년 56도엽, 측도년도 기재되지 않은 도엽이 1도엽으로 1917년에 가장 많은 측도가 이루어졌다<표 41>,(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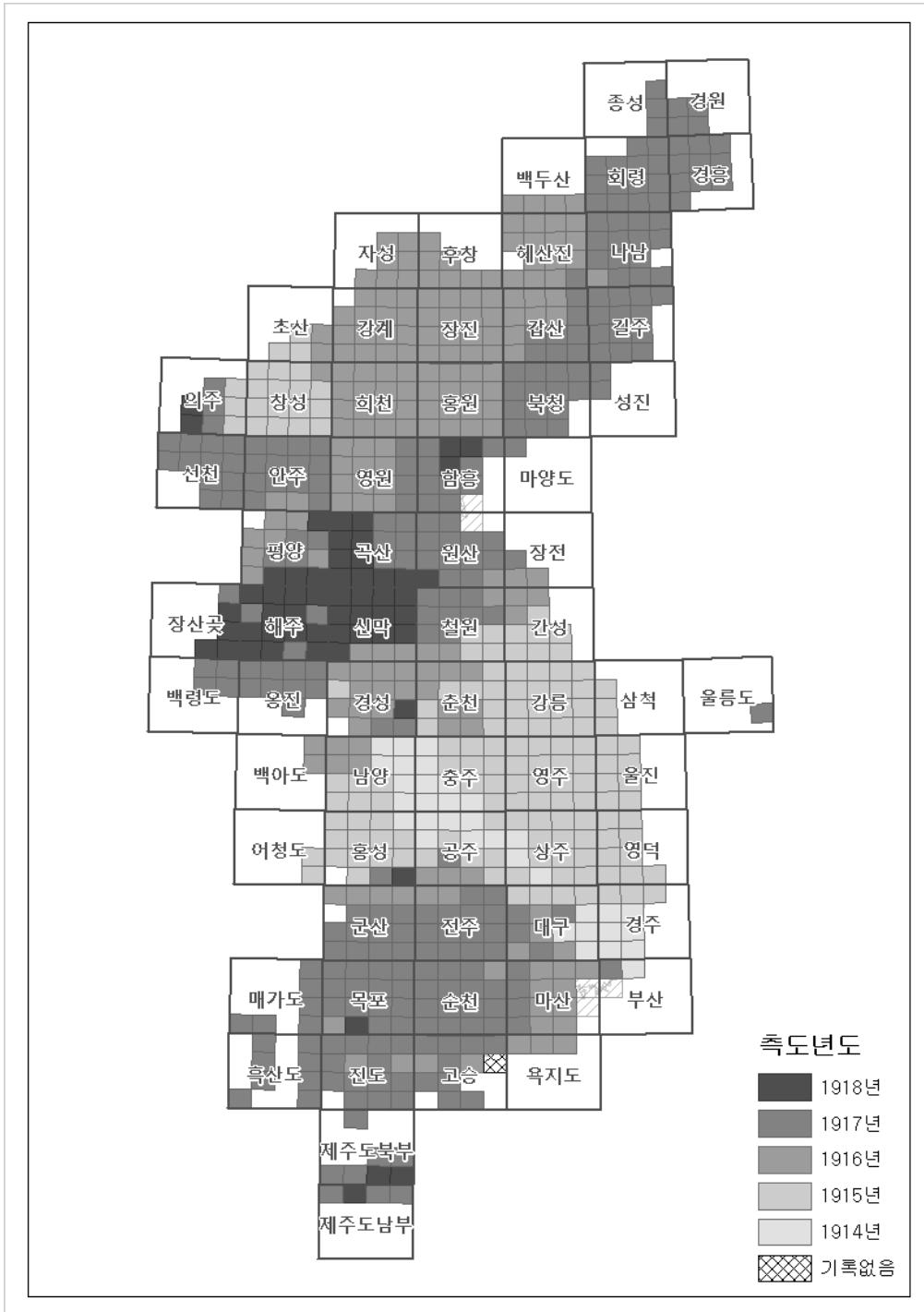
<표 41>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14년	34
1915년	148
1916년	196
1917년	287
1918년	56
기록없음	1
합	722

측도 후에 수정측도된 연도를 다시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의 수정측도는 1919년부터 1938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수정측도년도

수정측도년도	도엽
1919	4
1920	2
1921	4
1923	1
1925	15
1926	8
1927	16
1928	11
1929	5
1930	19
1931	14
1932	7
1933	23
1934	29
1935	2
1936	6
1937	1
1938	1
합	168



(그림 36)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

2. 국외 소장기관

많은 한국 근대지형도가 일본의 패전 전후로 일본군에 의해 소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근대지형도의 상당수가 국내의 기관에 보존·보관되어 있다. 일본에 소장된 기관 중에 국토지리원이 최대 규모로 인계하였다. 또 다른 기관으로는 자원과학연구소(資源科學研究所), 도호쿠대학지리학교실(東北大地理學教室),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 교토대학 문학부(京大文學), 동남아시아연구센터(東南アジア研究センター), 히로시마대학(廣大), 릿교대학(立教大) 등에 분배되었다.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 이외의 국가에 이관되게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도서관·문서보관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¹⁰²⁾ 본 절에서는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일본의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일본에서 유출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경로는 1945년 일본의 만철동경도서관(滿鐵東京圖書館), 참모본부육지측량부(參謀本部陸地測量部), 육군습지야학교(陸軍習志野學校), 동아연구소(東亞研究所),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에서 유출되어 미국 AMS(Army Map Service)의 육군성 군사지도국(陸軍省 軍事地圖局)이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AMS에서 보관·관리해 온 한국 근대지형도는 1945년에 WDC(Washington Document Center) ワシントン 文書センター(워싱턴 문

102) 石原 潤, 2004, “はしがき：「外邦図」のこと”, 外邦図研究グループ, 外邦図研究 No2,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p.iv.

서센터)로 이관하였고, 1948년에 의회도서관(LC) 지리지도부(議會圖書館 地理地圖部)로 이관하게 되었다. 둘째 경로는 1947년에 공동인쇄(共同印刷)된 한국 근대지형도가 유출되어 미국 AMS(Army Map Service)의 육군성 군사지도국(陸軍省 軍事地圖局)이 보관·관리하게 되었고, 1948년에서 1949년에 의회도서관 지리지도부로 이관되었다¹⁰³⁾(그림 37).

미국 의회도서관에는 한국관련 한국 근대지형도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는데, 양윤정¹⁰⁴⁾이 1880대 일본 참모본부 소속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군사지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후 시기에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에 대해서는 소장된 것만 확인이 하였으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절에서 1:50,000은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를 파악하고 정리한다.

103) 小林 茂, 2009,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圖」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pp.39~40.

104)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논문.



(그림 37) 한국 근대지형도 의회도서관으로의 유출경로

출처 : 小林 茂, 2009,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外邦圖」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p.40, 재구성.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 자료는 축척이 1:50,000 지형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와 축척이 1:25,000 지형도를 파악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지형도를 정리한 결과, 총도엽은 1,864도엽이다. 이 중에 제1차지형도는 70도엽, 제2차지형도는 266도엽, 제3차지형도는 1,528도엽으로 파악되었다. 제3차지형도는 수정측도(제1회, 제2회, 제3회)된 도엽을 포함한 것이다.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도엽은 528도엽, 제2회수정측도 도엽은 149도엽, 제3회수정측도 도엽은 19도엽이다. 이 안에는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129도엽도 포함되어 있다<표 43>.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지형도는 대체로 평양 위쪽이 누락되어 있다. 평양이남 지역에서는 소속도엽명으로 남양(경기도)과 대흥(충청도)에 해당하는 도엽이 누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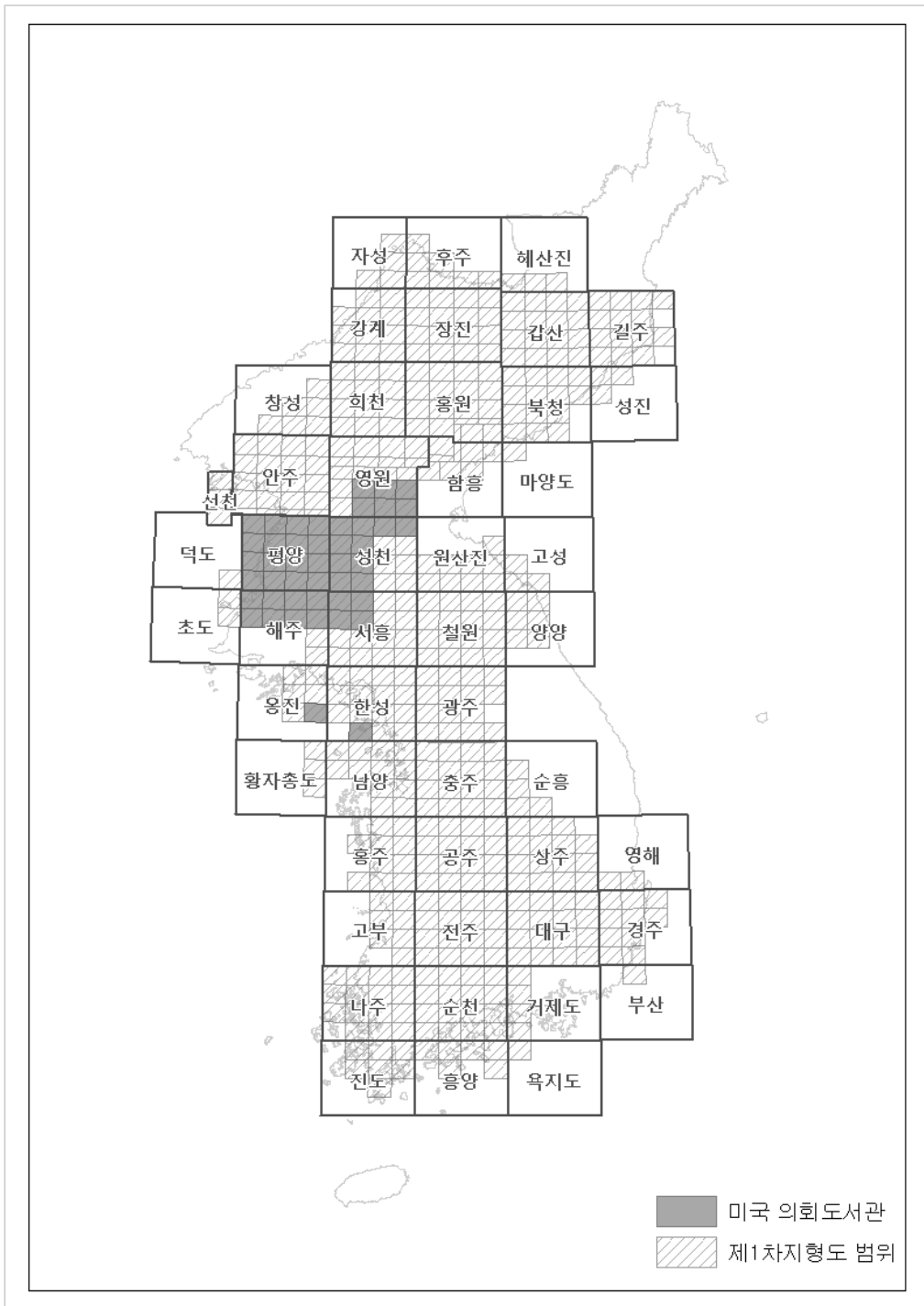
<표 4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50,000 지형도 현황

분류	도엽(중복포함)	도엽(중복제외)
제1차지형도	70	46
제2차지형도	266	227
제3차지형도	832	390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528	254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149	71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19	12
합	1,864	1,000

注 : 중복도엽 포함한 도엽은 1,864도엽, 중복도엽을 제외하면 총 도엽은 1,000도엽임.

(1) 제1차지형도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1차지형도는 70도엽으로 중복도엽을 제외하면 46도엽이다. 소장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38).



(그림 38)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제1차지형도는 측도·제판 기록이 삭제되어 있는 도엽이 대부분이다. 인쇄발행년도 1911년~1916년으로, 1911년에 40도엽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표 44>,(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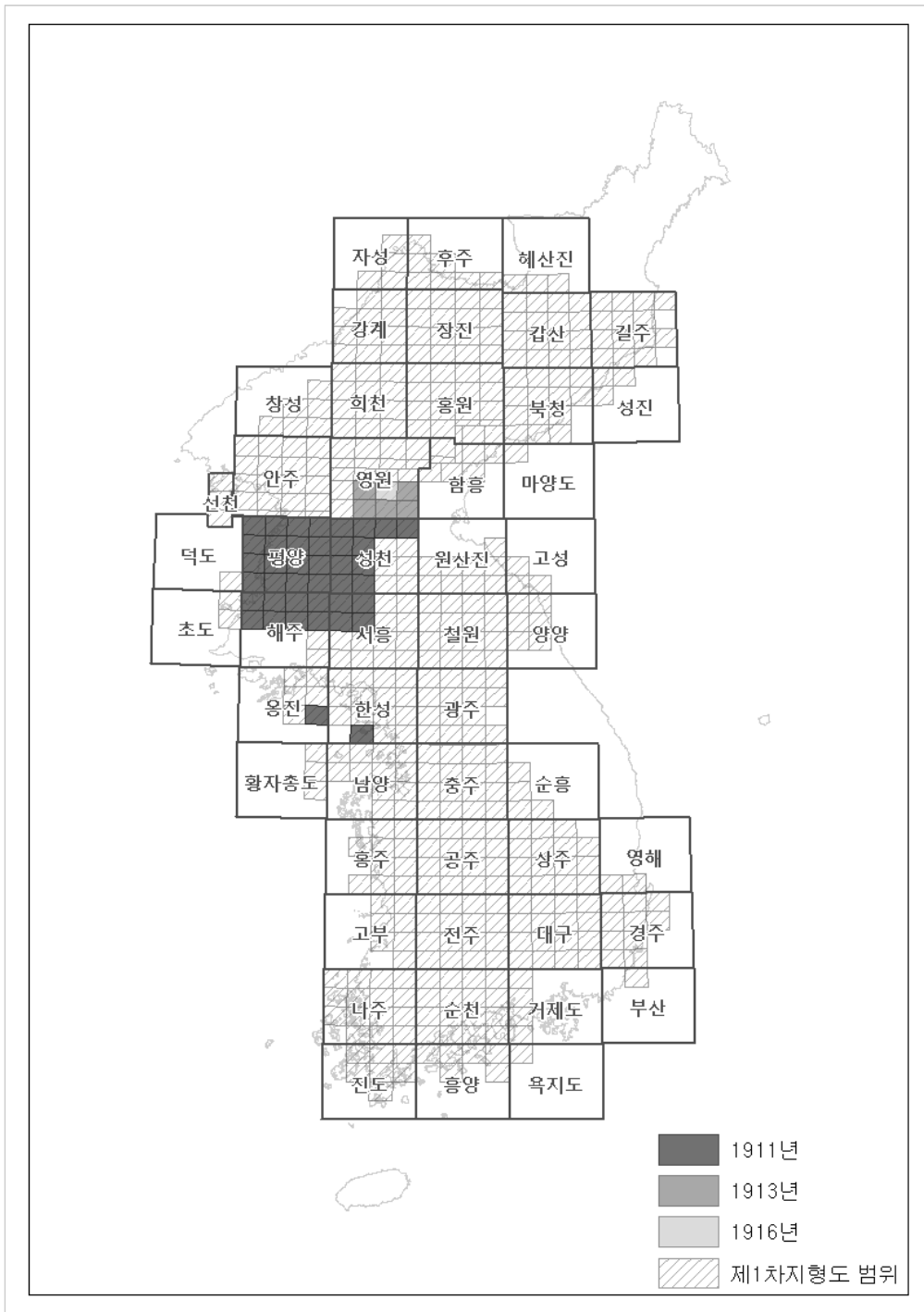
<표 44>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발행년도 도엽

인쇄, 발행년도	도엽
1911년	40
1913년	5
1916년	1
합	46

제1차지형도에 해당하는 소속도엽별로 도엽과 해당도엽명을 보면, 46도엽으로 다음과 같다<표 45>. 평양의 16개 도엽이 모두 소장되어 있고, 평양부근 지역에 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표 45>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당도엽명
서흥	4	대평, 총수역, 능리, 서흥
성천	10	기린산, 오류동, 별창, 동창, 신라, 수안, 성천, 강동, 삼등, 상원
영원	6	대평리, 관평리, 동문외, 태을리, 맹산, 용연리
응진	1	モルラン嶋
평양	16	사인장, 관파, 중화, 간동, 순안, 평양, 재송원, 요포, 한천, 증산, 함중, 진남포, 상망어도, 입석, 비석가, 증악리
한성	1	용류도
해주	8	봉산, 검수참, 황주, 재령, 안악, 문화, 은율, 송화
합	46	



(그림 39)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인쇄.발행년도

(2) 제2차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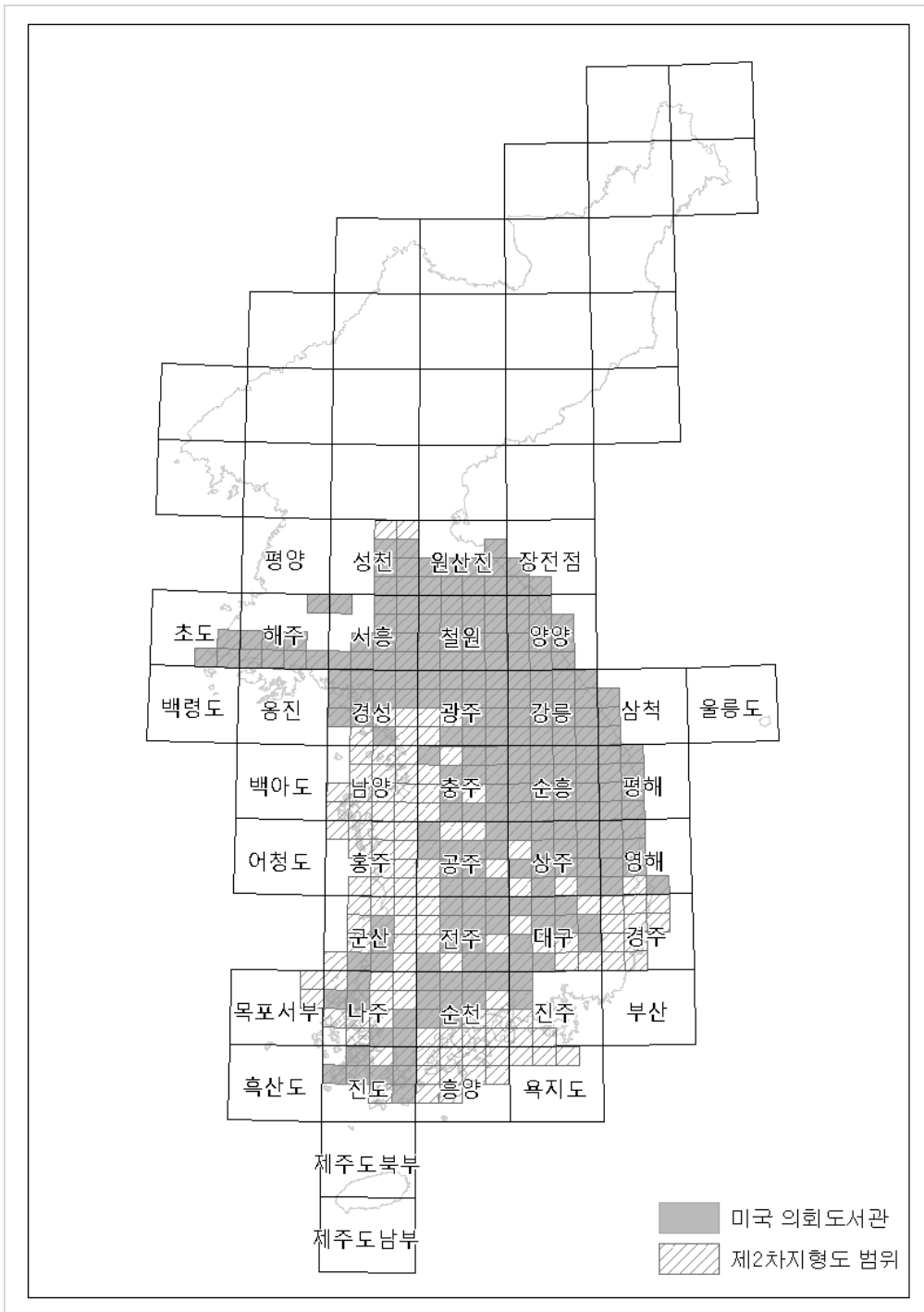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제2차지형도는 266도엽이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도엽을 제외하면 227도엽이다. 국내에서 알려진 제2차지형도는 장서각에 소장된 34도엽이 전부였다¹⁰⁵⁾.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2차지형도가 227도엽으로 확인되었다. 소장 범위를 보면 (그림 40)과 같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부산, 남해안 일대 도엽이 누락되어 있다.

측도 시기는 1909~1911년으로, 1911년에 측도된 수가 121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46>,(그림 41). 1910년 1911년에 집중하여 측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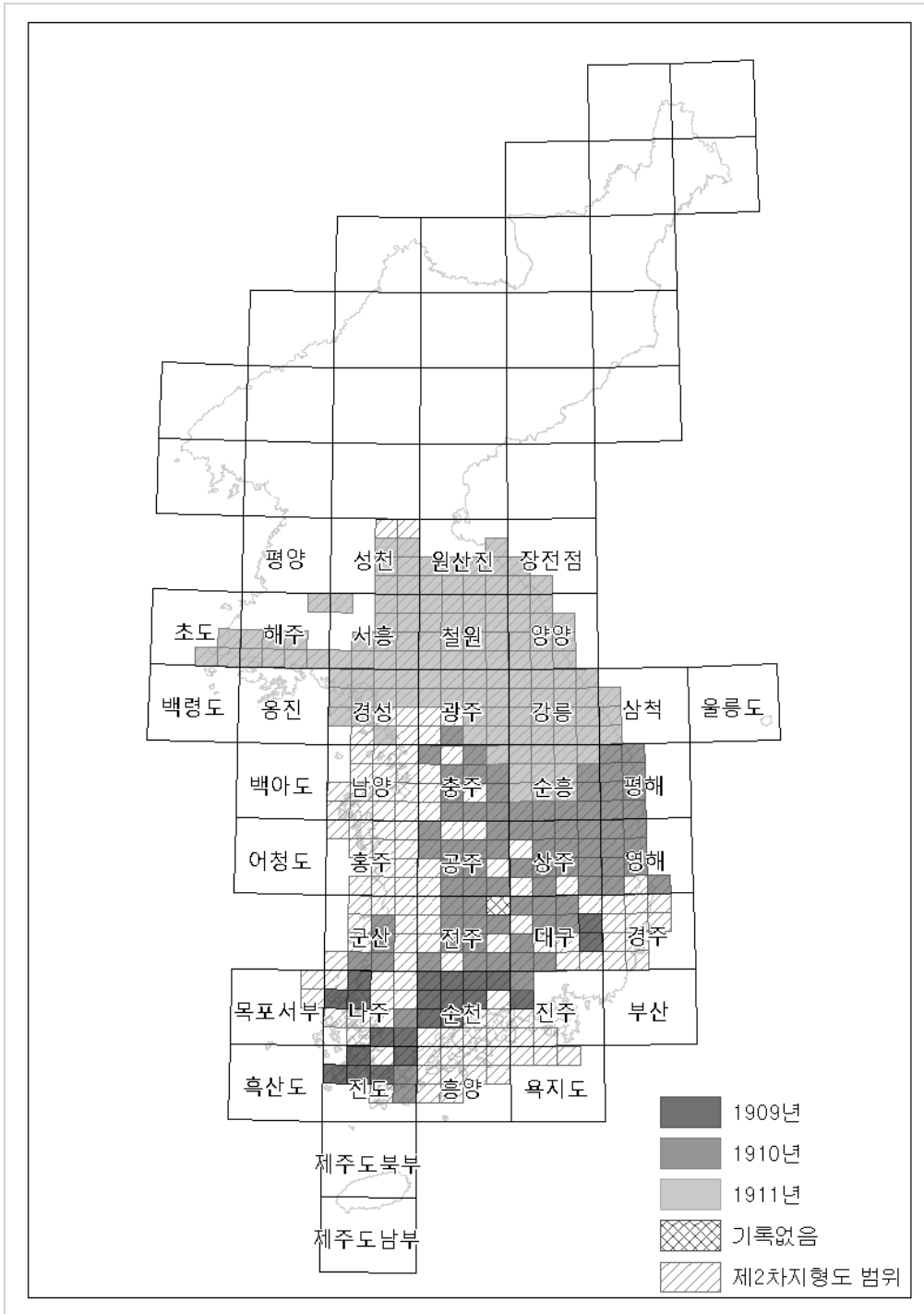
<표 46>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09년	22
1910년	83
1911년	121
기록없음	1
합	227

105)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51.



(그림 4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그림 41)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

제2차지형도의 소속도엽별로 도엽과 해당도엽명을 정리하면 227도엽으로 <표 47>과 같다.

<표 47>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11	간성, 고성, 공수진, 서화리, 양양, 오리진, 용두리, 용산리, 우석동, 인제, 장연리
강릉	16	강릉, 구석평, 도전동, 동평장, 상군사리, 상대화리, 음양리, 정선, 주문진, 창촌, 퇴곡리, 평창, 하안흥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1	강화, 개성, 고양, 무학리, 백천, 연안, 온수리, 인천, 적성, 주문도, 통진
곡산	6	가려주, 곡산, 마가리, 백산, 신창리, 양덕
공주	11	공주, 광정리, 금산, 대전, 무주, 보은, 설천, 속리산, 옥천, 청산, 회덕
군산	4	무장, 법성포, 부안, 흥덕
대구	10	경산, 고령, 대구, 삼가, 성주, 신우, 유천, 자인, 지례, 합천
마산	2	사천, 진주
목포	6	능주, 망운, 영암, 장흥, 지도, 포천장
삼척	3	락풍리, 산성우, 삼척
상주	13	개령, 구산동, 군위, 낙동, 선산, 신령, 안동, 예천, 의성, 인동, 천지동, 편향리, 함창
순천	9	괴목리, 구례, 단성, 동북, 복내장, 순천, 장평, 하동, 화개장대
신막	12	금천, 기린리, 삭령, 시변리, 신계, 양합, 용당리, 이천, 추천리, 탁영대, 한포, 후평신장
영덕	8	기계, 도평동, 영덕, 영해, 장기갑, 진보, 청송, 청하
영주	16	내성, 단양, 동대리, 문경, 서벽리, 서창, 연상리,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오미리, 장기, 청풍, 춘양, 호명
울진	8	고사리, 사전리, 영양, 오저동, 용추갑, 울진, 임천진, 평해
원산	9	고산, 구당리, 남평동, 노탄동, 철령, 통천, 패천리, 화천, 회양
장산곶	3	백촌, 조니동, 청돌동
장전	3	외금강, 장림, 포항리
전주	11	거창, 무풍장, 산청, 순창, 안성장, 용담, 운봉, 임실, 장계장, 진안, 함양
진도	7	강진, 군내동, 민치, 우수영, 이진, 진도, 회령진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북창, 신대, 양구, 연천, 옥동리, 외건설, 창도리, 철원, 토성, 토요일, 평강, 풍전리, 화천
춘천	13	가평, 감천리, 도지가, 양주, 양평, 용두, 원주, 이포, 춘천, 포천, 하창봉리, 흥천, 화대리
충주	11	괴산, 문막, 산계, 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장호원, 진천, 청안, 충주
해주	8	공세리, 남호동, 신원, 장연, 중일리, 청석두, 태탄포, 해주
합	227	

(3) 제3차지형도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는 중복된 도엽과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 도엽이 묶여 있다. 이 도엽들을 제외하면 390도엽이다. 제1회수정측도 도엽은 254도엽, 제2회수정측도 도엽은 71도엽, 제3회수정측도 도엽은 12도엽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제3회수정측도 도엽이 12도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표 48>. 또 수정측도를 포함하여 중복된 지역 도엽을 제외하면 494도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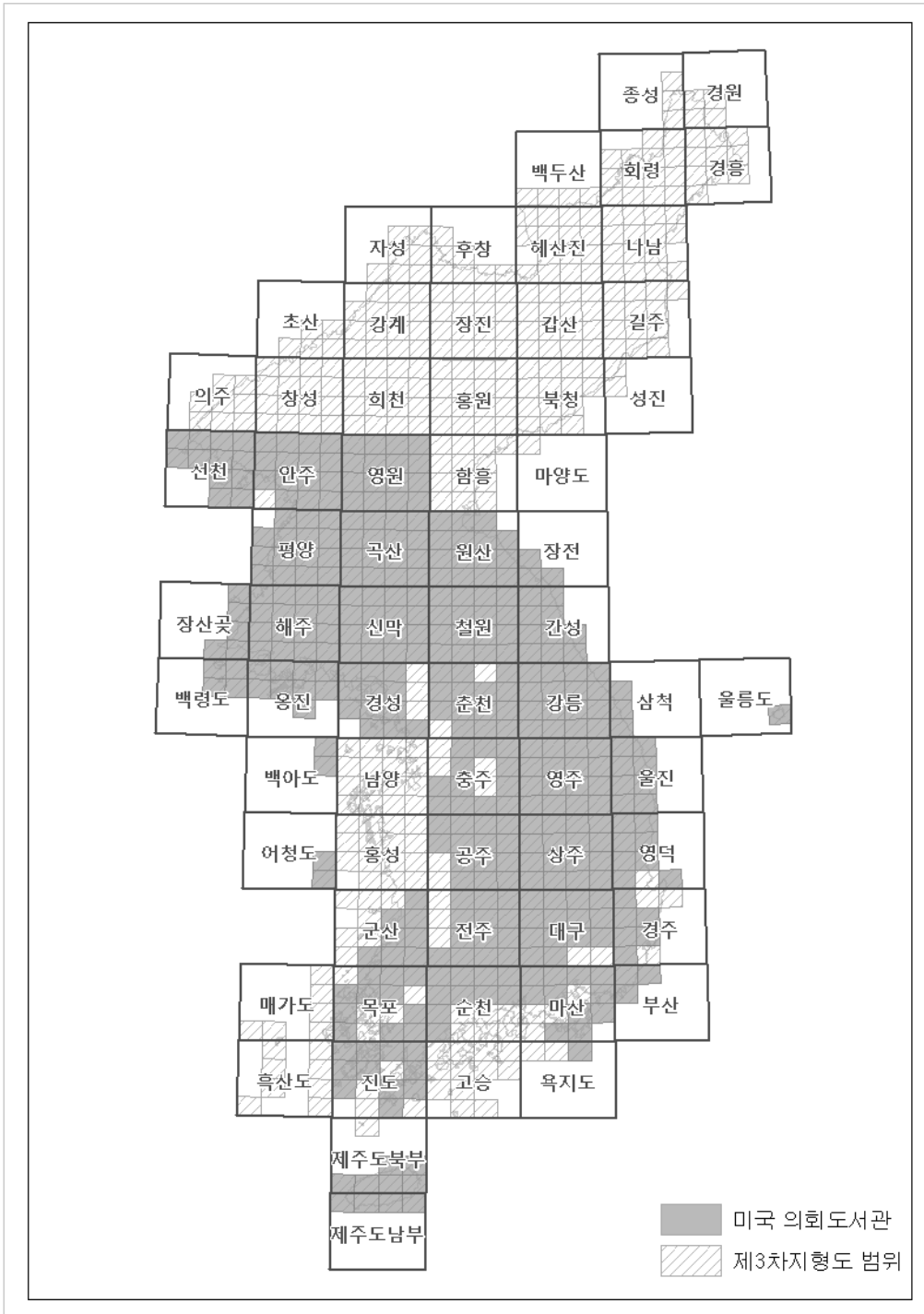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는 똑같은 도엽이 다수 존재하는데, 도엽 외곽 정보와 도곽내 정보가 상이하다. 제3차지형도를 제작·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원본의 인기, 직인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V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표 48>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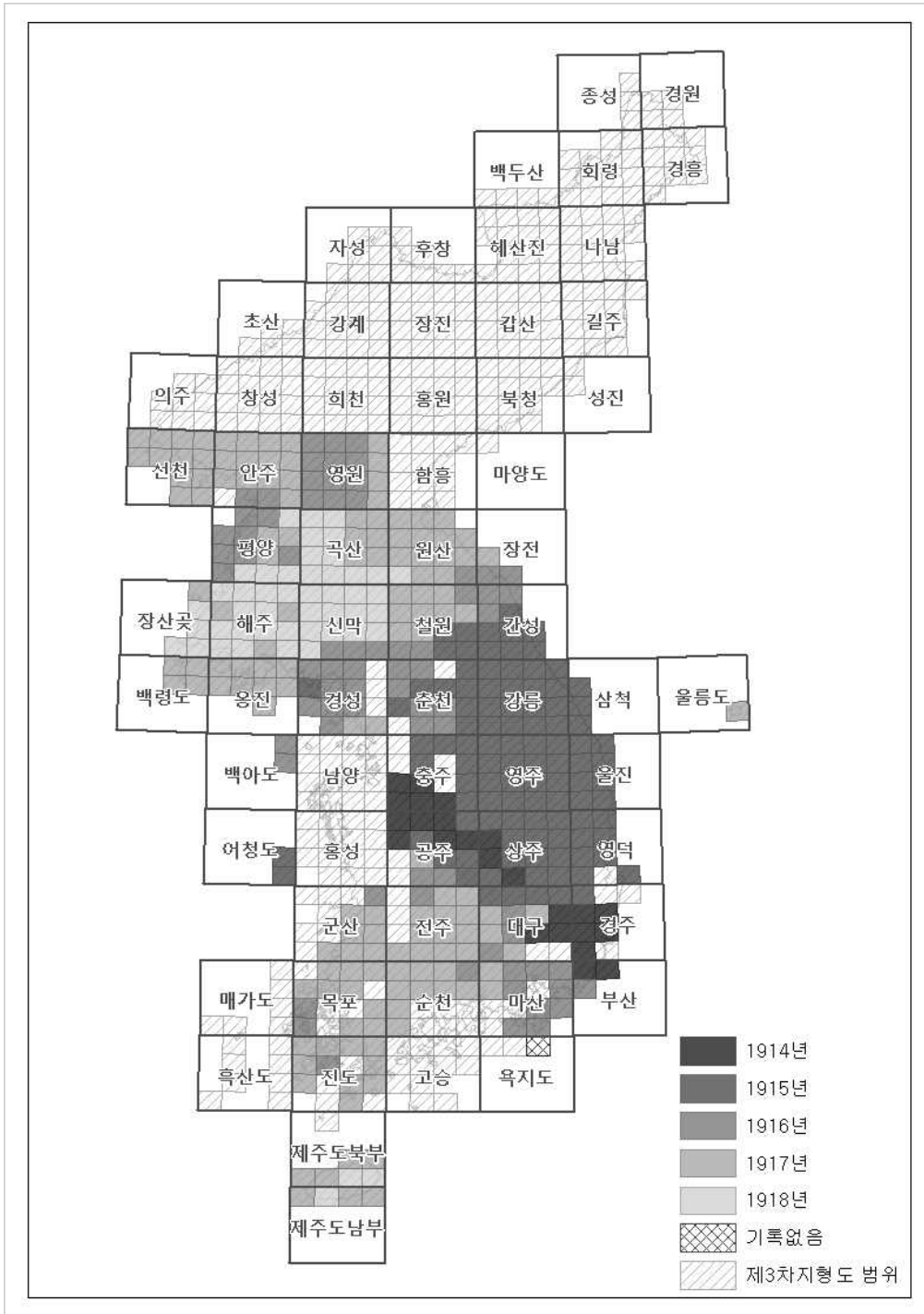
분류	도엽(중복포함)	도엽(중복제외)
제3차지형도	832	390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528	254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149	71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19	12
합	1,528	727

注 : 미국 의회도서관 제3차지형도와 1회~3회수정측도를 포함하여 중복된 지역의 도엽을 하면 총 494도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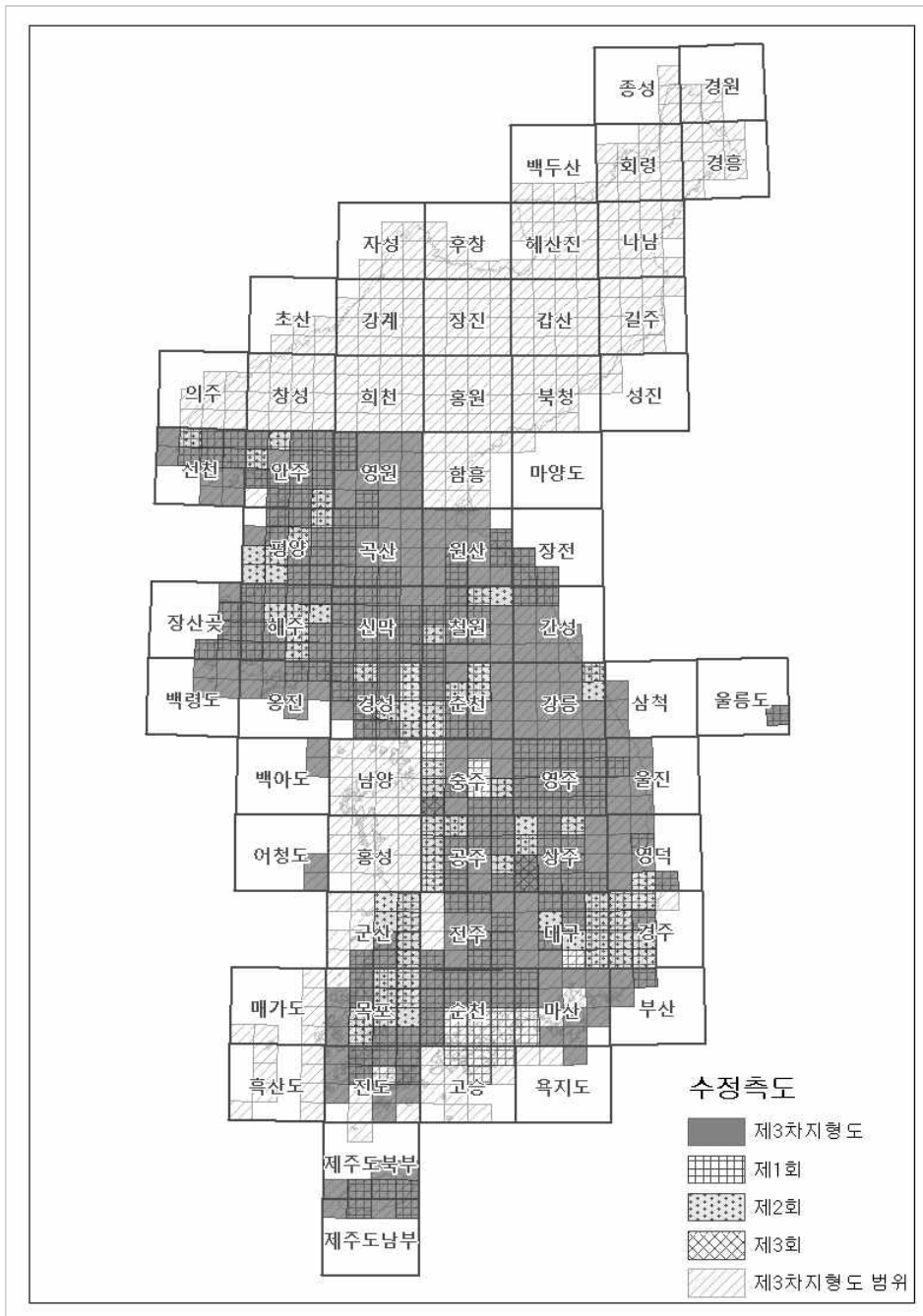
미국 의회도서관의 제3차지형도의 소장범위는 (그림 42)와 같고, 측도 시기는 1914~1918년으로, 1917년에 142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49>,(그림 43). 제1회~제3회수정측도 현황은 (그림 44)와 같다.



(그림 42)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그림 4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



(그림 44)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수정측도

<표 49>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14년	24
1915년	102
1916년	73
1917년	142
1918년	48
기록없음	1
합	390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를 소속도엽별로 도엽과 해당도엽명을 정리하였다<표 50>. 주목할 점은 영인본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4도엽이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 도엽은 호도반도(虎,島半島), 부산(釜山), 가덕도(加德島)와 동두말(東頭末)이다.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엽을 확인하였다.

<표 5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10	간성, 고성, 내금강, 만대리, 설악산, 양양, 웅진, 이포리, 인제, 창암점
강릉	16	갑천리, 강릉, 북익리, 석병산, 안흥리, 오대산, 자은리, 정선, 주문진, 창동, 창촌, 평창, 풍암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2	강화, 개성, 군포장, 김포, 무학리, 백천, 연안, 온수리, 용유도, 인천, 주문도, 통진
경주	6	경주, 모양리, 양산, 언양, 울산, 조양
곡산	16	강동, 곡산, 능리, 대동리, 별창리, 상원, 석탕지, 선암, 성천, 수안, 신평, 양덕, 울리, 증창, 파읍, 한달리
공주	14	공주, 광정리, 금산, 대전, 무주, 미원, 보은, 설천, 속리산, 영동, 옥천, 유성, 청산, 청주
군산	8	고창, 김계, 법성포, 부안, 신흥리, 이리, 정읍, 줄포
대구	14	가야산, 경산, 고령, 남지, 대구, 삼가, 영천, 왜관, 유천, 자인, 지례, 창녕, 청도, 합천
마산	11	가덕도, 거제도, 구조라, 김해, 동두말, 마산, 미륵도, 사천, 선녕, 진동, 진주
목포	11	기좌도, 나주, 능주, 담양, 망운, 영광, 영암, 자은도, 장흥, 지도, 포천리
백령도	4	대청도, 마합도, 백령도, 소청도
백야도	2	굴업도, 백야도

부산	3	동래, 부산, 월내리
삼척	3	산성우, 삼척, 옥계
상주	16	구산동,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선산, 신령, 안동, 예천, 옥산동, 의성, 인동, 천지동, 편향리, 함창, 효령
선천	12	대화도, 선암동, 선천, 수운도, 신도, 신미도, 신시동, 영문강, 용암포, 우리도, 차련관, 철산
순천	10	괴목리, 구례, 단성, 동복, 보성, 복내장, 진교, 창평, 하동, 화개장
신막	16	금천, 기린리, 대평, 마천, 문암리, 물개리, 석령, 시변리, 신계, 신막, 양합, 연탄, 온정리, 이천, 추천리, 한포
안주	15	고성동, 구성, 남시, 남청정, 박천, 속천, 순천, 안주, 영변, 운산, 운전동, 입석리, 정주, 천태동, 평원리
어청도	2	어청도, 황도
영덕	8	기계, 도평동, 영덕, 영양, 영해, 장기갑, 청송, 청하
영원	16	관평리, 구장, 내창, 대평리, 덕천, 도평리, 동창, 맹산, 북창, 사둔, 신읍, 알일령, 영원, 웅천리, 은산, 토성
영주	16	내성, 단양, 문경, 서벽리, 신림,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옥동, 의림길, 적성, 제천, 춘양, 호명, 황강리
웅진	9	강령, 대연평도, 마산, 부포, 웅진항, 용매도, 옹호도, 창린도, 청단
옥지도	1	매물도
울릉도	1	울릉도
울진	8	고사리, 삼근, 석포, 울진, 일월산, 임원진, 평해, 흥부동
원산	15	가려주, 도남리, 두류산, 마전리, 법동, 삼방, 석왕사, 안변, 원산남부, 원산부외북부, 통천, 패천리, 호도반도, 화천, 회양
장산곶	5	덕동, 동금포, 장산곶, 진강포, 초도
장전	3	두백리, 외금강, 해금강
전주	13	거창, 남원, 무풍,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임실, 장계, 진안, 함양
제주도남부	4	대정급마라도, 모슬포, 서귀포, 표선
제주도북부	6	김녕, 비양도, 성산포, 제주, 한라산, 한림
진도	11	강진, 노화도, 마량리, 소안도, 완도, 우수영, 인지리, 진도, 하의도, 하조도, 해남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말회리, 문동, 산양리, 세포, 양구, 연천, 옥동리, 지포리, 창도리, 철원, 평강, 화천, 후평리
춘천	14	가평, 가산리, 내평리, 독도, 마석우리, 양덕원, 양평, 용두, 원주, 의정부, 이포, 청평천, 포천, 흥천
충주	12	괴산, 목계, 문막, 안성, 여주, 오근장, 이천, 진천, 천안, 청안, 충주, 평택
평양	15	강서, 겸이포, 광양만서부, 기양, 사인장, 순안, 온정리, 이압도, 중화, 증산, 진남포, 평양동부, 평양서부, 한천, 흑교
해주	16	공세리, 남호리, 사리원, 송화, 신원, 신주막, 신천, 안악, 은율, 은파리, 장연, 재령, 청석두리, 태단, 해주, 황주
합	390	

제1회 수정측도 도엽은 254도엽으로 <표 51>과 같다.

<표 51>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2	고성, 내금강
강릉	1	주문진
경성	13	강화, 개성, 고양, 군포장, 김포, 무학리, 문산, 백천, 연안, 온수리, 용유도, 인천, 통진
경주	8	경주, 모양리, 양산, 언양, 연일, 울산, 장생포, 조양
고흥	4	고흥, 돌산, 외라노도동부, 죽포리
곡산	7	강동, 곡산, 능리, 별창리, 상원, 성천, 수안
공주	14	강경, 공주, 광정리, 금산, 논산, 대전, 미원, 보은, 설천, 속리산, 영동, 유성, 청산, 청주
군산	7	고창, 김제, 법성포, 신흥리, 이리, 정읍, 줄포
대구	9	경산, 대구, 밀양, 영산, 영천, 왜관, 유천, 자인, 창녕
마산	4	미조리, 사천, 삼천포, 진주
목포	11	광주, 나주, 담양, 망운, 목포, 무안, 영광, 영산포, 영암, 장흥, 포천리
부산	1	월내리
상주	11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신령, 안동, 예천, 옥산동, 의성, 인동, 효령
선천	6	선천, 수운도, 신시동, 용암포, 차연관, 철산
순천	16	광양, 괴목리, 구례, 남해, 단성, 동복, 보성, 복내장, 상주리, 순천, 여수, 유둔리, 진교, 창평, 하동, 화개장
신막	15	금천, 기린리, 대평, 마전, 물개리, 삭령, 시변리, 신계, 신막, 양합, 연탄, 온정리, 이천, 추천리, 한포
안주	14	고성동, 구성, 남시, 박천, 속천, 순천, 안주, 영변, 운산, 운전동, 입석리, 정주, 천태동, 평원리
영덕	3	영덕, 장기갑, 포항
영원	3	구장, 동창, 알일령
영주	16	내성, 단양, 문경, 서벽리, 신림,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옥동, 의림길, 적성, 제천, 춘양, 호명, 황강리
웅진	2	강령, 청단
울릉도	1	울릉도
울진	1	석포
원산	4	삼방, 석왕사, 통천, 패천리
장산곶	4	덕동, 몽금포, 장산곶, 진강포
장진	3	두백리, 외금강, 해금강
전주	8	거창,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함양
제주도남부	2	대정급마라도, 표선
제주도북부	3	성산포, 한라산, 한림
진도	6	강진, 마량리, 우수영, 이진, 진도, 해남

철원	9	금성, 김화, 산양리, 세포, 연천, 옥동리, 창도리, 철원, 평강
춘천	10	가평, 광주, 독도, 마석우리, 양평, 의정부, 이포, 청평천, 춘천, 포천
충주	10	괴산, 수원, 오산, 음성, 장호원, 진천, 천안, 청안, 충주, 평택
평양	11	강서, 겸이포, 기양, 사인장, 순안, 중화, 증산, 평양동부, 평양서부, 한천, 흑교
해주	15	공세리, 남호리, 사리원, 송화, 신원, 신주막, 신천, 안악, 은율, 장연, 재령, 청석두리, 태탄, 해주, 황주
합	254	

제2회 수정측도 도엽은 254도엽으로 <표 52>와 같다.

<표 52>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강릉	2	강릉, 주문진
경성	6	경성, 고양, 군포장, 김포, 문산, 백천
경주	7	경주, 모양리, 양산, 언양, 연일, 울산, 장생포
공주	6	강경, 공주, 광정리, 논산, 영동, 청주
군산	6	군산, 김제, 부안, 신흥리, 이리, 정읍
대구	6	고령, 밀양, 영천, 유천, 자인, 청도
목포	8	광주, 나주, 능주, 담양, 목포, 무안, 영광, 영산포
상주	3	상주, 안동, 함창
선천	1	용암포
안주	3	구성, 순천, 정주
영덕	1	포항
철원	3	말휘리, 창도리, 철원
춘천	5	가평, 광주, 독도, 청평천, 춘천
충주	3	오산, 충주, 평택
평양	6	강서, 광양만서부, 사인장, 온정리, 진남포, 평양서부
해주	5	신원, 신천, 은파리, 재령, 해주
합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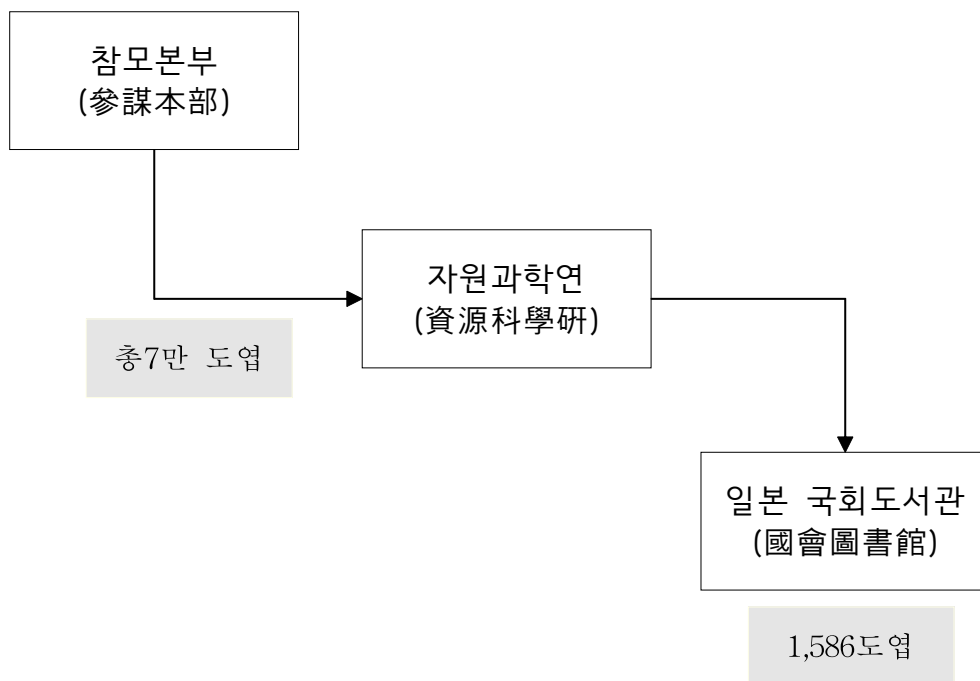
제3회 수정측도 도엽은 12도엽으로 중복된 도엽을 제외한 것이다. 공주도엽이 2도엽(공주, 청주), 목포도엽이 5도엽(광주, 나주, 목포, 무안, 영산포), 상주도엽이 2도엽(김천, 옥산동), 충주도엽이 1도엽(천안), 평양도엽이 1도엽(평양서부), 해주도엽이 1도엽(은파리)이다<표 53>.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회수정측도된 도엽은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지도이다.

<표 53>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공주	2	공주, 청주
목포	5	광주, 나주, 목포, 무안, 영산포
상주	2	김천, 옥산동
충주	1	천안
평양	1	평양서부
해주	1	은파리
합	12	

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지도들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관련 지도들도 공개하고 있는데, 고지도와 일부 한국 근대지형도, 현재 지도들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지형도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제작 지형도 중에 한국 근대지형도가 일본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된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5). 참모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지형도가 자원과학연으로 이관되고, 이후 일본 국회도서관에 1,586도엽이 최종 이관되었다. 이중에 한국 근대지형도가 포함되어 보관·관리되고 있다.



(그림 45) 한국 근대지형도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경로

출처 : 小林 茂, 2009,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外邦圖」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p.38. 재수정

본 절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한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조선 관계지도자료목록(國立國會図書館所藏 朝鮮關係地図資料目録)¹⁰⁶⁾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지형도를 정리하였다.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조선관계지도자료 목록집은 크게 3부(部)로 나누어 한국관련 지도를 목록화 하였다. 제1부는 일반간행지도(一般刊行地図), 제2부는 해도(海圖), 제3부는 지형도류(地形圖類)로 분류하였다<표 54>.

<표 5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조선관계지도자료 목록

부(部)	1분류	2분류		
일반간행지도 (一般刊行地圖)	朝鮮半島全域圖	李朝朝鮮刊行地圖 日本刊行地圖 大韓民國刊行地圖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刊行地圖		
	地方圖·都市圖	京畿道地方	京畿道全域, 仁川, 開成, 其他	
		忠清道地方	忠清道全域, 忠清南道全域, 忠清北道全域, 大田, 其他	
		全羅道地方	全羅道全域, 全羅南道全域, 全羅北道全域, 其他	
		濟州島地方	-	
		慶尙道地方	慶尙道全域, 慶尙南道全域, 慶尙北道全域, 釜山·東萊, 蔚山, 熊川, 慶州, 大邱, 馬山, 鎭海, 其他	
		黃海道地方	-	
		平安道地方	黃海道全域, 黃海南道全域, 黃海北道全域, 平壤	
		江原道地方	-	
	咸鏡道地方	咸鏡南道全域, 咸鏡北道全域, 慶城, 元山, 咸興, 清津, 其他		
主題圖	戰況圖, 行政, 地籍圖, 産業, 通信, 地質等, 海洋圖, 下川改修計畵圖, 其他			
해도(海圖)	-	-		

106) 國立國會図書館, 1993, 國立國會図書館所藏 朝鮮關係地圖資料目録, 記伊國屋書館.

지형도류 (地形圖類)	縮尺 100万分 1	東亞輿地圖 1: 1,000,000 WORLD 1: 1,000,000(AMS L1301)
	縮尺 50万分 1	五十万分一輿地圖·滿洲五十万分一圖
	縮尺 25万分 1	KOREA 1:250,000(AMS L552)
	縮尺 20万分 1	朝鮮二十万分一圖
	縮尺 10万分 1	元山近傍 漢城近傍 釜山近傍
	縮尺 5万分 1	略圖(朝鮮五万分一地形圖) 朝鮮五万分一地形圖·交通圖 新版1:50,000基本圖地圖帖 1:50,000 지형도
	縮尺 2.5万分 1	朝鮮二万五千分一地形圖
	縮尺 1万分 1	朝鮮一万分一地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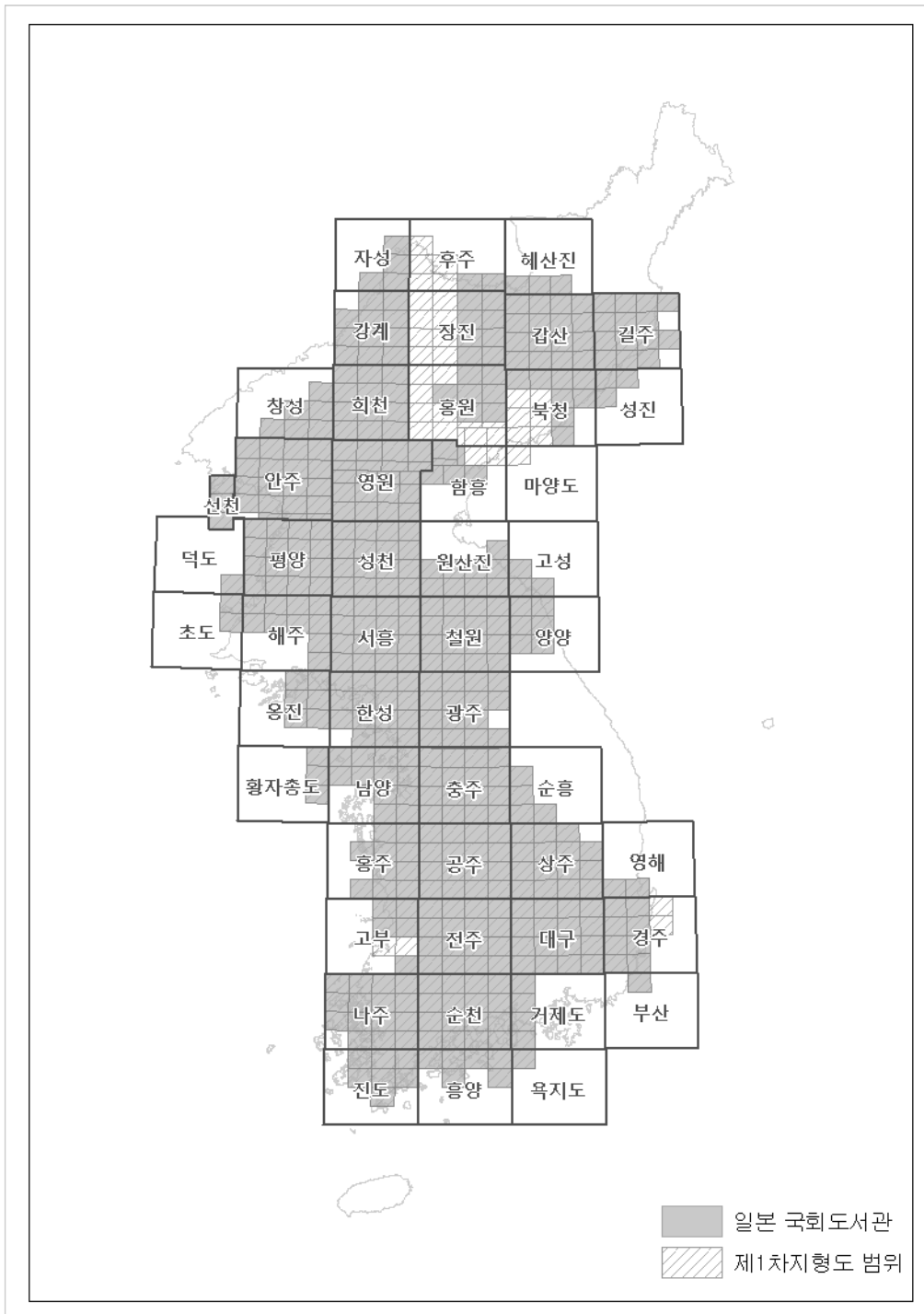
(1) 제1차지형도

제1차지형도는 약도(略圖)로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본군에 의해 비밀리에 측량되어 만들어진 지로도 군사기밀도(軍事機密圖)라고도 불린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제1차지형도는 446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제1차지형도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484도엽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제1차지형도는 38도엽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 소장기관 중에 제1차지형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소장 범위를 보면 (그림 4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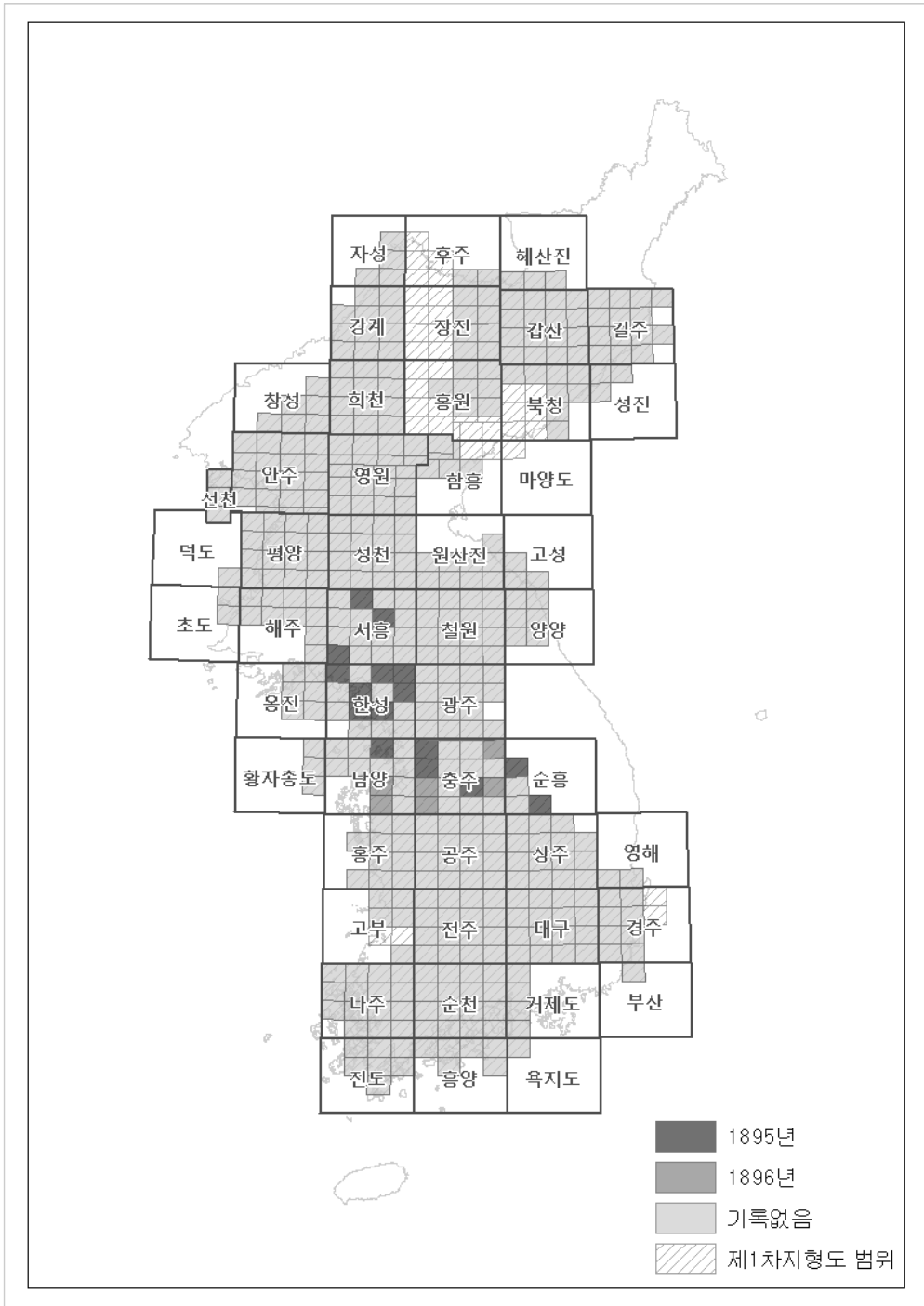
측도 시기는 1895~1896년으로, 1895년에 측도된 수가 16도엽으로 많다 <표 55>, (그림 47). 그러나 제1차지형도는 한일병합 전에 비밀리에 측량·측도한 것으로, 측도·제판년도를 기재하지 않은 도엽이 상당수이다.

<표 5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인쇄, 발행년도	도엽
1895년	16
1896년	6
기록없음	424
합	446



(그림 4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현황



(그림 4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측도년도

제1차지형도에 해당하는 도엽의 목록은 <표 56>과 같다.

<표 5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1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갑산	16	갑산, 남설령, 대문장, 도창, 동점, 림어수동, 삼수, 석포, 오을족, 원덕장, 장파, 조가동, 증산, 평리, 합수, 황수원
강계	11	강계, 동곡장, 만포진, 성간관, 수침동, 용암리, 위원, 입석평, 종남면, 종포진, 황장
거제도	4	목장, 삼천리, 안간, 진주
경주	8	경주, 대분, 서생, 아화동, 양산, 언양, 영일, 울산
고부	5	길곶, 만경, 약수정, 옥구, 외사가리
고성	3	고성, 송도, 장전점
공주	16	공주, 광정, 금산, 미원, 보은, 송면장, 양산, 여산, 연산, 영동, 옥천, 진령, 청주, 화령장, 황간, 회덕
광주	15	가평, 곤지암, 광리, 광단, 미원장, 부창, 송파진, 양근, 양주, 연엽산, 지평, 지평동부, 추동, 춘천, 포천
길주	14	길주, 림명역, 명천, 목진, 상운사장, 상응봉, 수남, 쌍포, 오상진, 운주성, 지경장, 평륙, 하응봉, 화대
나주	15	광주, 나주, 낙월도, 능주, 담양, 망운, 목포항, 무안, 보천장, 영광, 영산포, 영암, 장흥, 지도, 지도남변
남양	12	남양, 당진, 대부도, 덕적도, 면천, 발안장, 선갑도, 아산, 영흥도, 예산, 풍도, 해운봉
대구	16	가조장, 경산, 고령, 대구, 밀양, 삼가, 삼랑진, 성주, 신급, 영천, 유천, 자인, 지례, 청도, 초계, 합천
덕도	1	덕도
부산	1	이천포
북청	8	개고성, 거산, 곡구역, 관남리, 금창, 단천, 리원, 장춘포
상주	15	갑장산, 구미, 금산, 상주, 선산, 소감천, 수산, 신령, 용궁, 의성, 의흥, 인동, 차동, 함창, 호잠
서흥	16	구화장, 기린장, 김천, 능리, 대평, 삭령, 서흥, 시변리, 신계, 양합리, 온정원, 이목정, 이천, 지식장, 충수역, 평산
선천	3	대신도, 선사, 탄도
성진	3	이호, 성진, 유진
성천	16	가려주, 강동, 곡산, 기린산, 동창, 문성장, 백산, 별창, 삼등, 상원, 성천, 수안, 신라, 양덕, 오류동, 하람산
순천	16	곤양, 광양, 구례, 남해, 노양동, 단성, 동북, 보성, 복내장, 석실장, 순천, 여수, 옥과, 유둔장, 지리산, 하동
순흥	4	마천, 문경, 신당리, 증리
안주	19	개천, 광산, 귀성, 박천, 방소리, 선천, 숙천, 순천, 신시, 안주, 애도, 어파, 영변, 운무도, 운산, 일동리, 자산, 정주, 태천
양양	6	간성, 금강산, 용산리, 포진, 한무봉, 화진포

영원	20	관평리, 관흥리, 구장, 대평리, 덕천, 동문외, 동창, 등룡동, 마상리, 맹산, 봉창, 사수산, 서창, 신창면, 애창장, 영원, 용연리, 은산, 입석리, 태울리
영해	2	기산, 흥해
응진	6	モルラン嶋, 대연평도, 소수압도, 소연평도, 용매도, 청단역
육지도	1	미조정
원산진	9	고산역, 봉황산, 철령, 추지령, 통천, 황룡산, 회양, 흡곡, 희룡산
자성	4	원동, 자성, 자성동구, 장성리
장진	8	능구장, 상동구, 생수동, 서수동, 신방포, 신흥동, 전지령, 청산령
전주	16	갈담, 거창, 남원, 무주, 무풍장, 산청, 순창, 안의, 용담, 운봉, 익산, 임실, 장계장, 전주, 진안, 함양
진도	7	강진, 어란진, 우수영, 이진, 통포, 해남, 회령진
창성	6	남창, 북진, 성평, 우현진, 청산장시, 하창평
철원	16	금성, 기산리, 김화, 남천, 문등, 사방거리, 송거리, 영평, 옥동, 지포, 창도역, 철원, 청평사, 토성, 통구현리, 평강
초도	2	사기동, 초도
충주	16	괴산, 문막, 성환, 수원, 여주, 오근장, 음성, 음죽, 이천, 죽산, 진위, 진천, 천안, 청안, 충주, 하담
평양	16	간동, 관파, 비석가, 사인장, 상망어도, 순안, 요포, 입석, 재송원, 중화, 증산, 증악리, 진남포, 평양, 한천, 함중
한성	15	강화, 개성, 고양, 과천, 교동도, 부평, 연안, 용류도, 정족산성, 제물포, 주문도, 통진읍내, 파주, 풍덕, 한성
함흥	6	단속산, 서호, 원산리, 정평, 추상리, 풍송리
해주	10	검수참, 문화, 봉산, 석교장, 안악, 은율, 재령, 평강, 풍천, 황주
혜산진	3	운충보, 운충보동변, 혜산진
흥원	7	감지원, 경흥리, 광대평, 구읍, 삼수동, 신흥리, 평북군
흥주	10	남포, 대흥, 보령, 부여, 서천, 연도, 정산, 한산, 호포, 흥주
황자총도	3	パンガルシヨマ, 굴업도, 백야도
후창	2	신파리, 후주고읍
흥양	6	돌산, 발포진, 우실포, 죽시장, 죽포, 흥양
희천	12	가다참, 노동, 대수리, 백토계, 삼봉리, 온상참, 유원진, 장재참, 진평리, 평남진, 행천리, 희천
합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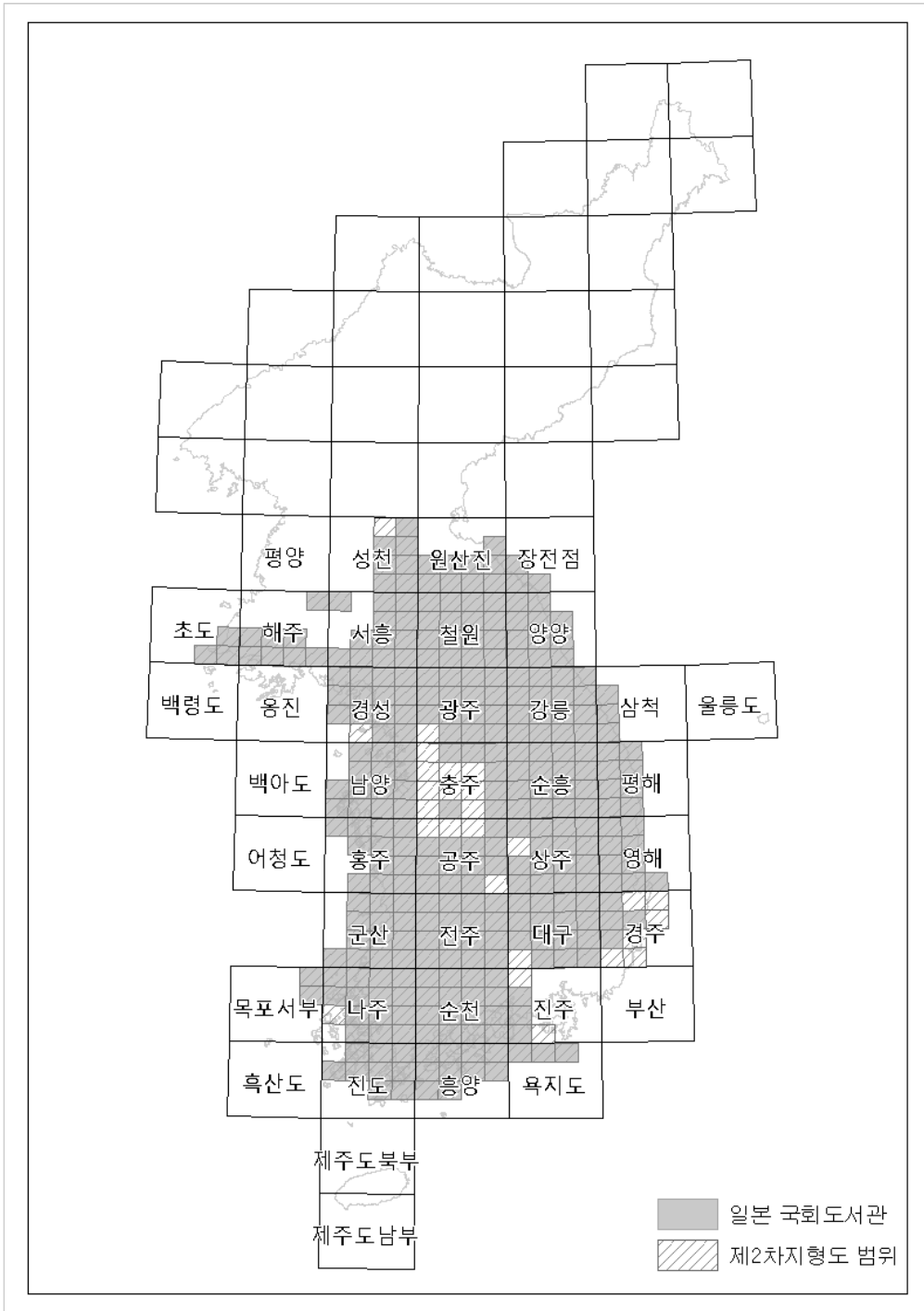
(2) 제2차지형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2차지형도는 ‘朝鮮五万分一地形圖·交通圖, 1:50,000, [東京] 陸地測量部 1912년(明治45)~1943년(明治18)’에 분류되어 있다¹⁰⁷⁾. 제3차지형도와 같이 묶여서 분류하고 있어서 제2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본 절에서는 제2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를 측도년과 발행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제2차지형도는 315도엽으로 소장범위를 보면 (그림 48)과 같다. 측도 시기는 1909~1911년으로, 1910년에 측도된 수가 127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57>,(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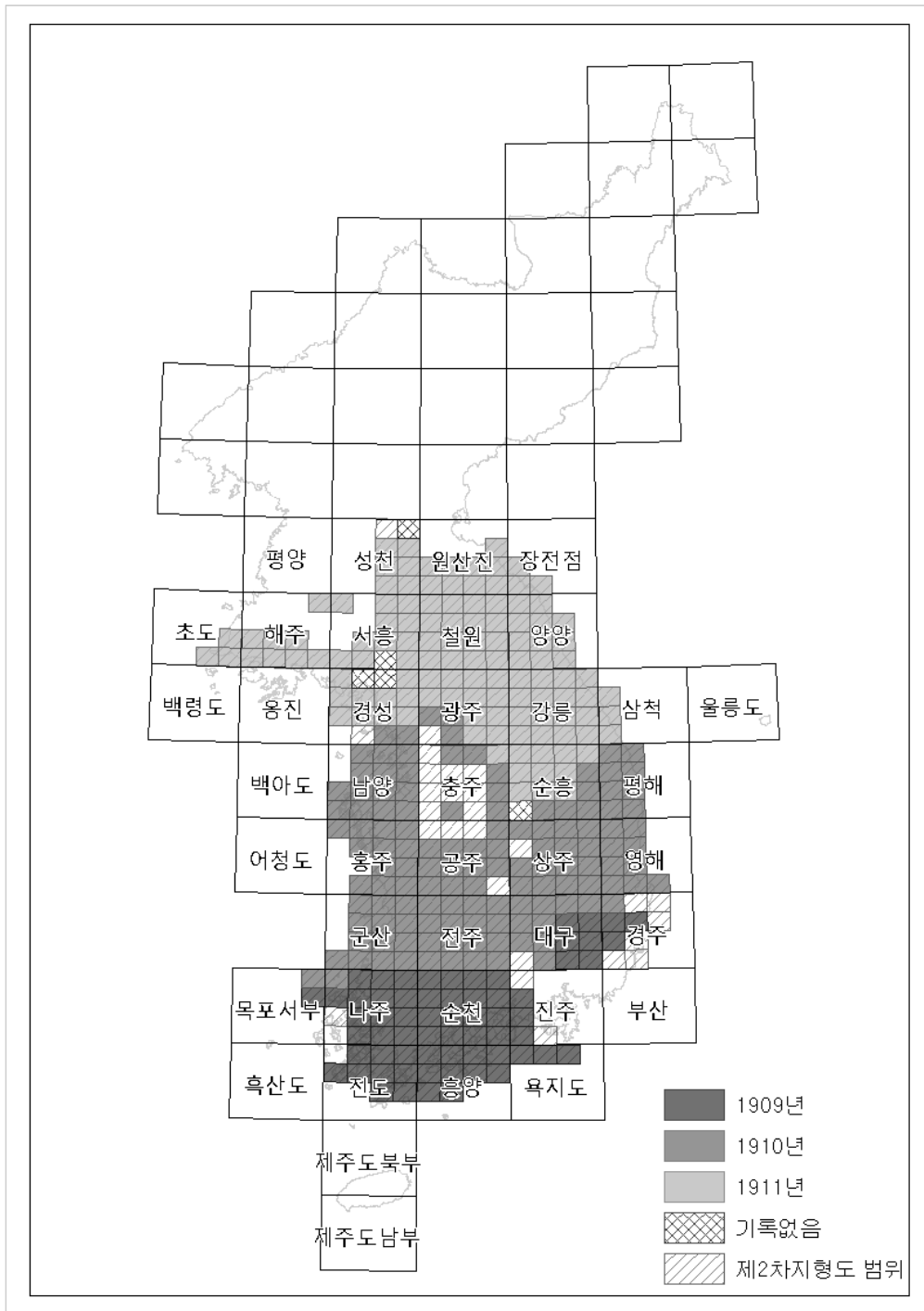
<표 57>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09년	64
1910년	127
1911년	119
기록없음	5
합	315

107) 國立國會圖書館, 1993, 앞의 책. pp.102~163.



(그림 4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현황



(그림 4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측도년도

제2차지형도의 도엽의 목록을 정리하면 315도엽으로 <표 58>과 같다.

<표 5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강릉	16	강릉, 구석평, 도전동, 동평장, 상군두리, 상대화리, 음양리, 정선, 주문진, 창촌, 퇴곡리, 평창, 하안흥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4	강화, 개성, 경성, 고양, 능내동, 무학동, 백천, 부평읍내, 시흥, 연안, 인천, 적성, 주문도, 통진
경주	4	경주, 모양리, 언양, 조양
공주	12	강경, 공주, 금산, 대전, 무주, 보은, 속리산, 연산, 영동, 옥천, 청산, 회덕
광주	15	가평, 감천리, 도지가, 마석우리, 양주, 양평, 왕십리, 용두, 원주, 이포, 춘천, 포천, 하창봉리, 흥천, 화대리
군산	13	격포, 고군산도, 군산, 김제, 락수정, 무장, 방축구미도, 법성포, 부안, 안마군도, 임피, 정읍, 흥덕
나주	14	광주, 나주, 능주, 담양, 망운장, 목포, 무안, 보천장, 송이도, 영광, 영산포, 영암, 장흥, 지도
남양	14	구진, 남양, 당진, 대난지도, 대부도, 덕산, 발안장, 방축리, 서산, 아산, 영흥도, 예산, 용두동, 파수리
대구	16	경산, 대구, 밀양, 성주, 신반, 야로, 영산, 영천, 유천, 자인, 지례, 창령, 청도, 합천, 현풍
매가도	2	대비지도, 부남군도
삼척	3	낙풍리, 산성우, 삼척
상주	15	개령, 군위, 김천, 낙동, 선산, 신령, 안동, 예천, 음지, 의성, 인동, 장기동, 천지시, 편향리, 함창
서흥	12	기린장, 김천, 삭령, 시변리, 신계, 양합리, 용당리, 이천, 추천리, 탁영대, 한포, 후평신장
성천	7	가려주, 곡산, 마가리, 백산, 석탕지, 신창리, 양덕
순천	16	곤양, 광양, 괴목장, 구례, 노양동, 단성, 동복, 보성, 복내장, 상주포, 순천, 여수, 옥과, 유둔장, 하동, 화개장대
순흥	16	단양, 동대리, 물은리, 문경, 봉화, 서벽리, 서창, 순흥, 연상리, 영월, 영천, 영춘, 예안, 오미리, 장기, 청풍
양양	11	간성, 고성, 공수진, 서화리, 양양, 오리진, 용두리, 용산리, 우석동, 인제, 장연리
영해	9	도평동, 영덕, 영해, 월천동, 장기갑, 진보, 청송, 청하, 흥해
육지도	3	대매물도, 육지도동부, 육지도서부
원산	9	고산, 구당리, 남평동, 노탄동, 철령, 통천, 포천리, 화천, 회양

장전점	3	장림, 장전점, 포항리
전주	16	갈담, 거창, 남원, 무풍장,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익산, 임실, 장계장, 전주, 진안, 합양
진도	9	강진, 군내동, 민치, 석장리, 우수영, 이진, 진도, 해남, 회령진
진주	3	사천, 삼천리, 삼화동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북창, 신대, 양구, 연천, 옥동리, 외건설, 창도리, 철원, 토성, 토요동, 평강, 풍건리, 화천
초도	3	백촌, 조니동, 청돌동
충주	7	괴산, 문막, 산계, 여주, 오근장, 이천, 충주
평해	8	고사리, 사전리, 영양, 오저동, 용추갑, 울진, 추천진, 평해
해주	8	공세장, 남호동, 신원, 장연, 중일리, 청석두, 태탄포, 해주
홍주	12	거아도, 남포, 대흥, 보령, 부여, 서천, 승산리, 연도, 증장, 청양, 함열, 홍주
홍양	10	감목리, 녹수, 돌산, 서동리, 소영리, 손죽도, 연도, 예하리, 죽포, 홍양
합	31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제2차지형도에는 총 315도엽 이 외에 증보개판(增補改版)한 도엽과 발행(發行年)이 상이한 도엽이 있다. 증보개판한 도엽은 총 10도엽으로 다음과 같다<표 59>.

<표 5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의 증보개판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경성	4	능내동, 부평읍내, 인천, 무학동
남양	1	용두동
초도	1	백촌
해주	4	청석두, 신원, 공세장, 장연
합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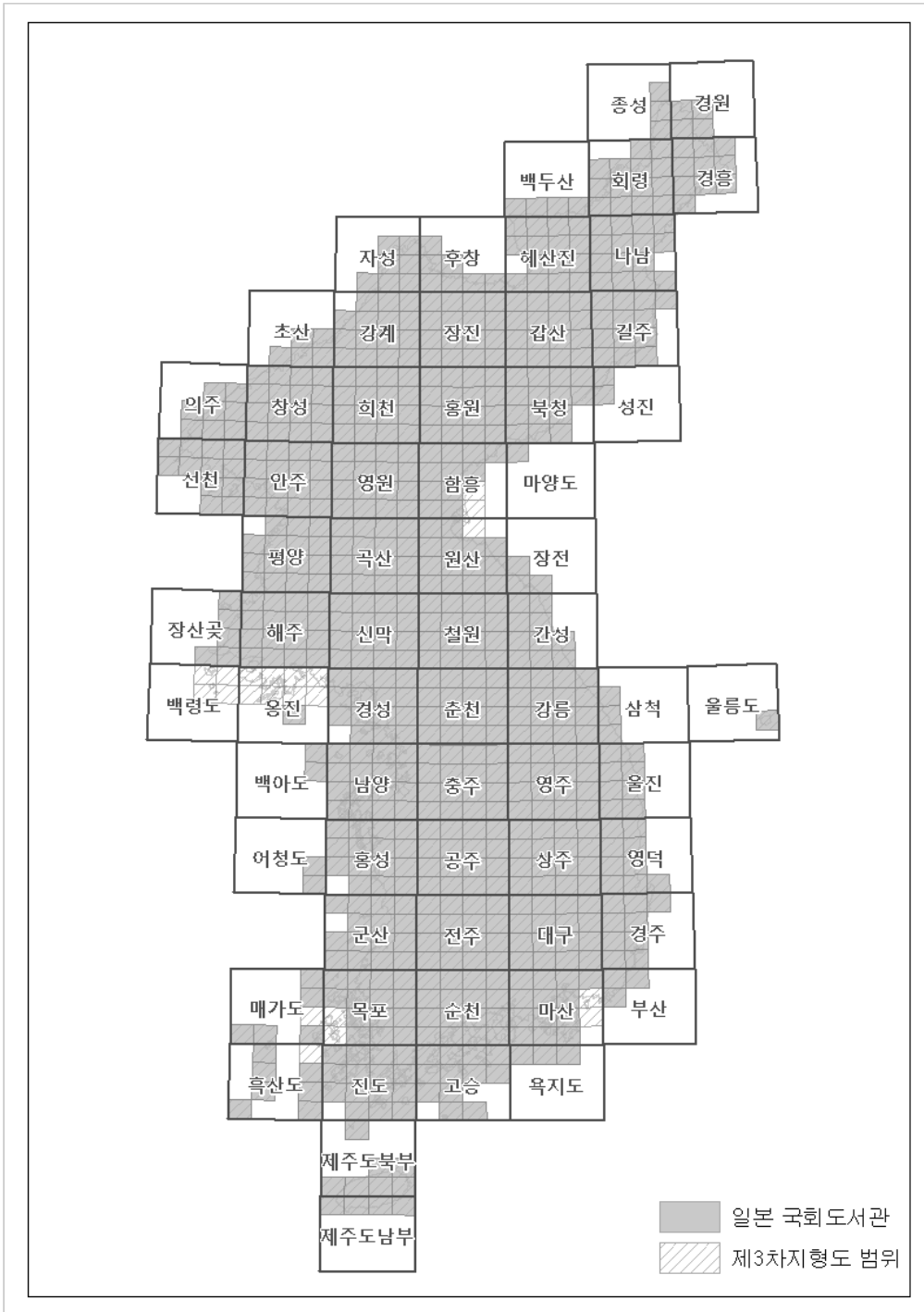
제2차지형도 중에 발행년도가 상이한 도엽은 총 37개 도엽으로 <표 60>과 같다.

<표 60>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의 발행(發行年)이 상이한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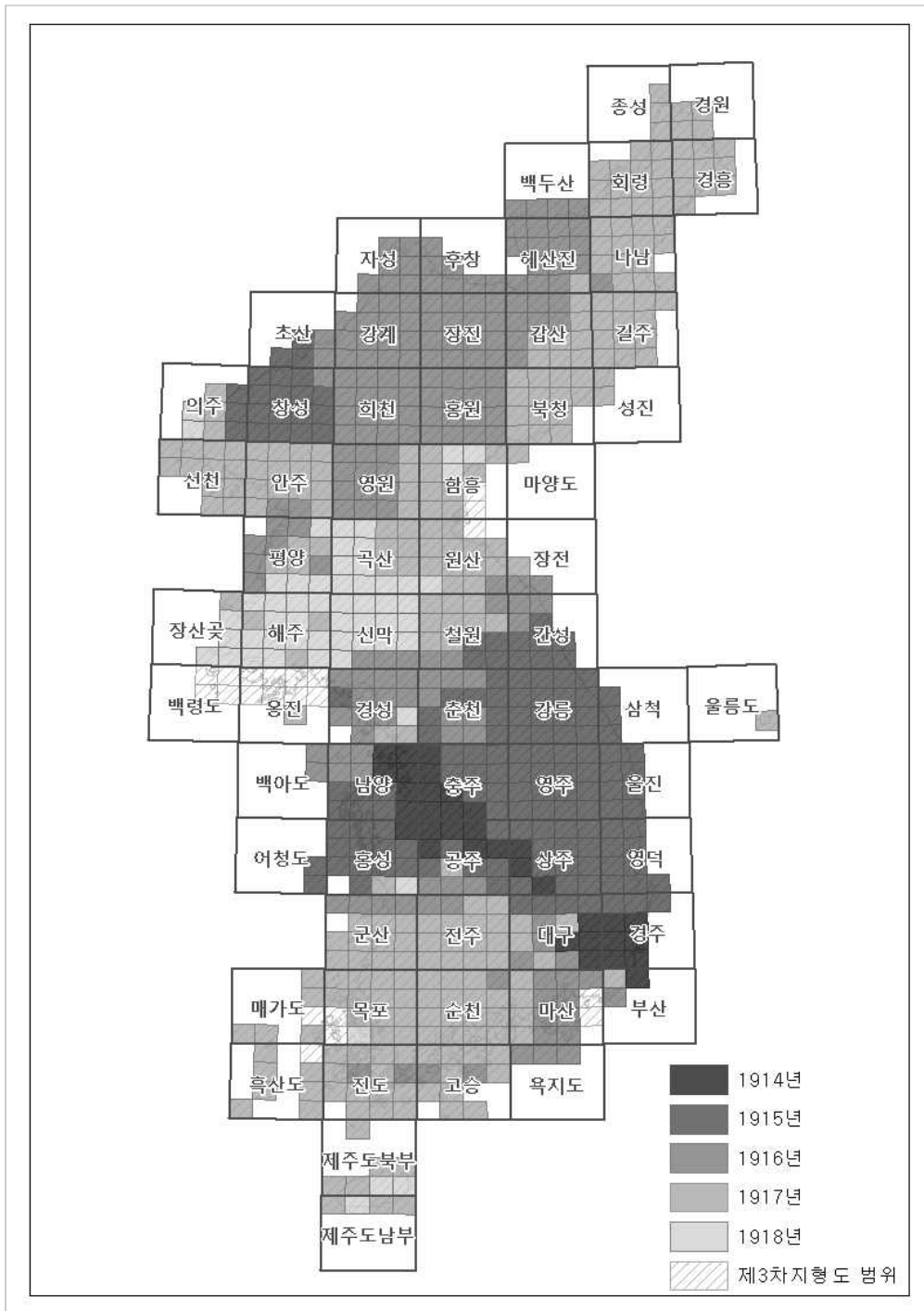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군산	2	고군산도, 안마군도
나주	6	망운장, 목포, 무안, 보천장, 송이도, 지도
매가도	2	대비치도, 부남군도
순천	5	곤양, 노양동, 상주포, 여수, 유둔장
욕지도	3	대매물도, 욕지도동부, 욕지도서부
진도	7	군내동, 민치, 석장리, 우수영, 이진, 진도, 회령진
홍주	2	연도, 중장
홍양	10	감목리, 녹수, 돌산, 서동리, 소영리, 손죽도, 연도, 예하리, 죽포, 홍양
합	37	

(3) 제3차지형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는 706도엽이다. 이 중 부산지역의 월내리와 동래도엽만 알려졌는데, 부산도엽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전제제작도엽 중, 누락도엽은 함흥도엽이 2도엽(삼봉리, 방구미리), 백령도도엽이 4도엽(마합도,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 용진도엽이 8도엽(청단, 용매도, 강령, 부포, 마산, 용호도, 용진항, 창린도), 목포도엽이 2도엽(자은도, 가좌도), 매가도도엽이 1도엽(자은도서부), 흑산도도엽이 1도엽(우이도), 마산 2도엽(가덕도, 동두말), 원산 1도엽(호도반도)으로 21도엽이다. 제3차지형도의 소장범위는 (그림 50)과 같다. 측도 시기는 1914~1918년으로, 1917년에 측도된 수가 272도엽으로 가장 많다<표 61>,(그림 51).



(그림 50)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현황



(그림 5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

<표 6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측도년도별 도엽

측도년도	도엽
1914년	34
1915년	148
1916년	196
1917년	272
1918년	56
합	706

제3차지형도의 도엽의 목록은 706도엽으로 <표 62>와 같다.

<표 6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제3차지형도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 당 도 엽 명
간성	10	간성, 고성, 내금강, 만대리, 설악산, 양양, 웅진, 이포리, 인제, 창암점
갑산	16	갑산, 고성리, 도창, 동점, 동흥리, 보거리, 상리, 신복장, 신하리, 어평리, 울족리, 원덕장, 중평장, 풍산, 함정포리, 합수
강계	15	강계, 고산진, 만포진, 맹부산, 무평리, 별하리, 아득령, 연포동, 원평동, 위원, 종포진, 주막거리, 풍용동, 한장, 화평
강릉	16	갑천리, 강릉, 복익리, 석병산, 안흥리, 오테산, 자은리, 정선, 주문진, 창동, 창촌, 평창, 풍암리, 하임계, 하진부, 현리
경성	15	강화, 개성, 경성, 고양, 군포장, 김포, 무학리, 문산, 백천, 연안, 온수리, 용유도, 인천, 주문도, 통진
경원	4	경원, 신건동, 훈용, 훈용동부
경주	9	경주, 구룡포, 모양리, 양산, 언양, 연일, 울산, 장생포, 조양
경흥	10	경흥, 고건원, 고읍동, 나진, 덕명, 서수라, 신동, 신아산, 웅기, 이진
고흥	12	거금도, 거문도, 고흥, 광도급백도, 녹두, 돌산, 섭도, 소라도, 외라노도, 외라노도동부, 죽포리, 초도
곡산	16	강동, 곡산, 능리, 대동리, 별창리, 상원, 석탕지, 선암, 성천, 수안, 신평, 양덕, 울리, 증창, 파읍, 한달리
공주	16	강경, 공주, 광정리, 금산, 논산, 대전, 무주, 미원, 보은, 설천, 속리산, 영동, 옥천, 유성, 청산, 청주
군산	15	고창, 군산, 김제, 말도, 법성포, 부안, 신흥리, 십이동파도, 안마도, 왕등도, 위도, 이리, 장자도, 정읍, 줄포
길주	13	고보, 고참동, 극동, 길주, 명천, 사포동, 성진북부, 응주동, 이암동, 임명동, 재덕, 칠보산, 하응봉
나남	15	경성, 고성령, 관모봉, 광덕동, 나남, 보화보, 봉파동, 사지동, 설령, 성정, 어대진, 연진, 장흥동, 주춘후장, 청진
남양	16	남양, 당진, 대부도, 덕적도, 발안장, 방축리, 산전리, 서산, 선갑도, 아산, 안흥, 영흥도, 예산, 장고항리, 풍도, 해미

대구	16	가야산, 경산, 고령, 남지, 대구, 밀양, 삼가, 영산, 영천, 왜관, 유천, 자인, 지례, 창녕, 청도, 합천
마산	13	거제도, 구조라, 김해, 마산, 미륵도, 미조리, 사천, 삼천포, 선녕, 진동, 진주, 진해, 통영
마양도	1	마양도
매가도	5	대비치도, 대흑산도, 매가도, 부남군도, 비금도
목포	14	광주, 나주, 능주, 담양, 망운, 목포, 무안, 송이도, 영광, 영산포, 영암, 장흥, 지도, 포천리
백두산	4	농사동, 백두산, 원지, 장산령
백아도	2	굴업도, 백아도
부산	3	동래, 부산, 월내리
북청	14	단천, 답동리, 대만춘, 방촌, 북청, 상농리, 신창, 신포, 쌍상리, 이원, 장흥리, 중리, 직동, 후치령
삼척	3	산성우, 삼척, 옥계
상주	16	구산동, 군위, 김천, 낙동, 상주, 선산, 신령, 안동, 예천, 옥산동, 의성, 인동, 천지동, 편향리, 함창, 효령
선천	12	대화도, 선암동, 선천, 수운도, 신도, 신미도, 신시동, 영문강, 용암포, 우리도, 차련관, 철산
성진	2	성진, 용대동
순천	16	광양, 괴목리, 구례, 남해, 단성, 동북, 보성, 복내장, 상주리, 순천, 여수, 유둔리, 진교, 창평, 하동, 화개장
신막	16	기린리, 김천, 대평, 마전, 문암리, 물개리, 삭령, 시변리, 신계, 신막, 양합, 연탄, 온정리, 이천, 추천리, 한포
안주	16	고성동, 구성, 남시, 남청정, 박천, 숙천, 순천, 안주, 영변, 운무도, 운산, 운전동, 입석리, 정주, 천태동, 평원리
어청도	2	어청도, 황도
영덕	9	기계, 도평동, 영덕, 영양, 영해, 장기갑, 청송, 청하, 포항
영원	16	관평리, 구창, 내창, 대평리, 덕천, 도평리, 동창, 맹산, 북창, 사둔, 신읍, 알일령, 영원, 용천리, 은산, 토성
영주	16	내성, 단양, 문경, 서벽리, 신림, 영월, 영주, 영춘, 예안, 옥동, 의림길, 적성, 제천, 춘양, 호명, 황강리
응진	1	대연평도
옥지도	3	매물도, 옥지도동부, 옥지도서부
울릉도	1	울릉도
울진	8	고사리, 삼근, 석포, 울진, 일월산, 임원진, 평해, 흥부동
원산	14	가여주, 도남리, 두류산, 마전리, 법동, 삼방, 석왕사, 안변, 원산남부, 원산북부, 통천, 패천리, 화천, 회양
의주	8	방산동, 비현, 서호동, 신의주급안동, 영산시, 의주, 천마동, 청성진
자성	7	만흥동, 소회동, 옥동, 자성, 자성강구, 중강진, 토성동
장산곶	5	덕동, 풍금포, 장산곶, 진강포, 초도
장전	3	두백리, 외금강, 해금강
장진	16	나흥리, 남사, 능구리, 덕실리, 보성리, 산양리, 삼덕리, 삼포리, 신관원, 양평리, 연화산, 운산리, 원동리, 장진, 중강리, 청산령

전주	16	갈담, 거창, 고산, 남원, 무풍, 산청, 순창, 안성장, 안의, 용담, 운봉, 임실, 장계, 전주, 진안, 함양
제주도남부	4	대정급마라도, 모슬포, 서귀포, 표선
제주도북부	7	김녕, 비양도, 성산포, 제주, 추자군도, 한라산, 한림
충성	3	운성, 유원진, 충성
진도	15	강진, 노화도, 마량리, 소안도, 어룡도, 완도, 우수영, 이진, 인지리, 진도, 청산도급태랑도, 하의도, 하조도, 해남, 횡간도
창성	16	고장, 대관, 벽동, 복진, 비래봉, 삭주, 신창, 양강동, 용성동, 우현진, 응봉, 창주, 청산장시, 탑동, 평장리, 회하동
철원	16	금성, 김화, 대정리, 말회리, 문등, 산양리, 세포, 양구, 연천, 옥동리, 지포리, 창도리, 철원, 평강, 화천, 후평리
초산	5	신도장, 아이진, 이운선리, 초산
춘천	16	가평, 광주, 기산리, 내평리, 독도, 마석우리, 양덕원, 양평, 용두, 원주, 의정부, 이포, 청평천, 춘천, 포천, 홍천
충주	16	괴산, 목계, 문막, 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오산, 음성, 이천, 장호원, 진천, 천안, 청안, 충주, 평택
평양	15	강서, 검이포, 광양만서부, 기양, 사인장, 순안, 온정리, 이압도, 증화, 증산, 진남포, 평양동부, 평양서부, 한천, 흑교
함흥	11	고원, 단속산, 서호진, 영흥, 정평, 지경, 진흥리, 퇴조, 파춘장, 풍송리, 함흥
해주	16	공세리, 남호리, 사리원, 송화, 신원, 신주막, 신천, 안악, 은율, 은파리, 장연, 재령, 청석두리, 태탄, 해주, 황주
혜산진	15	괘지봉, 백사봉, 보안소리, 보천보, 산양태, 삼포산, 소백산, 신무성, 연암, 유평, 증산, 최가령, 포테리, 혜산진, 호평동
흥성	15	거아도, 남포, 내파수도, 대천리, 대흥, 부여, 서천, 안면도남부, 안면도북부, 연도, 외연도, 청양, 함열, 호도, 흥성
흥원	16	검산령, 고토수, 광대리, 구진, 금패령, 동백산, 메물리, 부전령, 신평리, 신흥, 오노리, 운담, 원평장, 유담, 하탕우리, 흥원
회령	14	고풍산, 무산, 부거, 부녕, 상창평, 서호동, 운연동, 지초동, 진화동, 창평, 풍산동, 행영, 행영서부, 회령
후창	7	송전동, 신갈파진, 이평, 하구배, 후주고읍, 후창, 후창강구
흑산도	7	거차군도, 내병도, 대흑산도남부, 병풍도, 소중관군도, 소흑산도, 하태도
희천	16	관상동, 구창, 남흥동, 대수동, 백산, 사창, 안돌, 유원진, 이만동, 재양동, 창리, 평남진, 평원동, 회목동, 후지동, 희천
합	706	

3. 기관별 소장 현황 및 비교

한국과 해외의 주요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국내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장서각, 종로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네 개 기관, 국외기관은 미국 의회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으로 두 개 기관의 소장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국내외 1:50,000 지형도의 기관별로 소장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소장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제1차지형도의 도엽이 132도엽, 제2차지형도의 도엽이 335도엽, 제3차지형도의 도엽이 712도엽으로 국내기관 중에 가장 많은 도엽을 소장하고 있다. 장서각은 제1차지형도의 도엽이 81도엽, 제2차지형도의 도엽이 34도엽, 제3차지형도의 도엽이 494도엽이다. 종로도서관은 제3차지형도의 도엽이 633도엽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3차지형도의 도엽이 722도엽이다.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국외 소장기관으로 미국의회도서관은 제1차지형도의 도엽이 46도엽, 제2차지형도의 도엽이 227도엽, 제3차지형도의 도엽이 424도엽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은 도엽이 가장 많고 각 기관별로 제작된 도엽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리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제1차지형도의 도엽이 446도엽, 제2차지형도의 도엽이 315도엽, 제3차지형도의 도엽이 706도엽이다.

국내외 1:50,000 지형도의 기관별 소장 현황을 보면 <표 63, 65>와 같다. 제1차지형도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제2차지형도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제3차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표 64>는 각 기관별 수정측도 도엽을 정리한 것으로, 수정측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3차지형도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도서관 장서각, 종로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과 미국

의회도서관에 수정측도 도엽이 다른 기관보다 많은 수가 소장되어 있다. 특히 제3회수정측도 도엽은 미국 의회도서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표 63> 1:50,000 지형도의 기관별 소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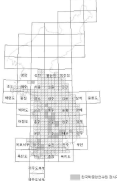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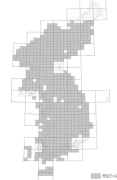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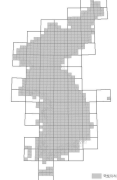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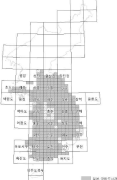

	소장기관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국내 소장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132	335	7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81	34	494
	종로도서관	공개자료없음	공개자료없음	633
	국토지리정보원	공개자료없음	공개자료없음	722
국외 소장 기관	미국 의회도서관	46	227	42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446	315	706

注 : 제3차지형도 중복, 수정측도 포함 : 국립중앙박물관 786도엽, 미국 의회도서관 1,528도엽,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401도엽

<표 64> 제3차지형도의 수정측도별 도엽

	소장기관	제3차지형도	제1회 수정측도	제2회 수정측도	제3회 수정측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도엽(중복제거)
국내 소장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705	25	8	-		7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94	-	-	-		494
	종로도서관	625	8	-	-		633
	국토지리정보원	554	128	34	-	5	722
국외 소장 기관	미국 의회도서관	390	254	71	12	23	42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664	42	-	-		706

<표 65> 기관별 소장 현황

소장기관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종로도서관	-	-	
국토지리정보원	-	-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내외 1:25,000 지형도의 기관별 소장 현황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25,000 지형도는 66도엽으로 의주지방, 함흥지방, 평양지방, 진남포지방, 대전지방, 대구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의 도엽이다. 장서각이 소장한 1:25,000 지형도는 49도엽으로 의주지방, 함흥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 대전지방, 대구지방, 경성급인천지방의 도엽이다.

국외 소장기관으로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1:25,000 지형도는 144도엽으로 청진및나남지방, 의주지방, 함흥지방, 평양지방, 진남포지방, 경성및인천지방, 대전지방, 대구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 인천근방, 부산요새근방, 진해만요새근방, 영흥만요새부근, 회령부근의 도엽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1:25,000 지형도는 99도엽으로 청진급나남지방, 함흥지방, 평양지방, 진남포지방, 의주지방, 대구지방, 대전지방, 경성급인천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의 도엽이다. 목록상으로 파악한 결과, 1:25,000지형도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표 66>.

<표 66> 1:25,000 지형도의 기관별 소장 내용

	소장기관명	내용	도엽
국내 소장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의주지방, 함흥지방, 평양지방, 진남포지방 대전지방, 대구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	6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의주지방, 함흥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 대전지방, 대구지방, 경성급인천지방	49
	종로도서관	공개자료없음	-
	국토지리정보원	공개자료없음	-
국외 소장 기관	미국 의회도서관	청진급나남지방, 의주지방, 함흥지방 평양지방, 진남포지방, 경성급인천지방, 대전지방, 대구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 인천근방, 부산요새근방, 진해만요새근방 영흥만요새부근, 회령부근	14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청진급나남지방, 함흥지방, 평양지방 진남포지방, 의주지방, 대구지방, 대전지방 경성급인천지방, 군산지방, 목포지방	99

IV.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근대지형도 특징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도서관은 도서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 분류체계는 19세기 후반 소장 도서를 분류하기 위해 개발한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에 따른다. 소장 도서를 21개의 알파벳으로 class(주류) 단위로 분류하고 있다¹⁰⁸⁾<표 67>.

<표 67>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 Class 분류

class	내용
A	GENERAL WORKS
B	PHILOSOPHY. PSYCHOLOGY. RELIGION
C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D	WORLD HISTORY AND HISTORY OF EUROPE, ASIA, AFRICA, AUSTRALIA, NEW ZEALAND, ETC.
E	HISTORY OF THE AMERICAS
F	HISTORY OF THE AMERICAS
G	GEOGRAPHY. ANTHROPOLOGY. RECREATION
H	SOCIAL SCIENCES
J	POLITICAL SCIENCE
K	LAW
L	EDUCATION
M	MUSIC AND BOOKS ON MUSIC
N	FINE ARTS
P	LANGUAGE AND LITERATURE
Q	SCIENCE
R	MEDICINE
S	AGRICULTURE
T	TECHNOLOGY
U	MILITARY SCIENCE
V	NAVAL SCIENCE
Z	BIBLIOGRAPHY. LIBRARY SCIENCE. INFORMATION RESOURCES (GENERAL)

출처 :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 분류체계 : <http://www.loc.gov/catdir/cpsolcco/>,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 재인용.

108)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pp.10~11.

지도류는 ‘G’로 분류되어 있고, 하위분류(G, GA…GV, 10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하위단계로 지도의 대상 지역과 성격에 의해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Subclass G’는 크게 지리일반(G1-922), 지역(G1000-3122), 지구의(G3160-3171), 지도(G3180-9980)로 분류되어 있다<표 68>.

<표 68>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 Subclass 분류

subclass	내용
Subclass G	Geography (General). Atlases. Maps
Subclass GA	Mathematical geography. Cartography
Subclass GB	Physical geography
Subclass GC	Oceanography
Subclass GE	Environmental Sciences
Subclass GF	Human ecology. Anthropogeography
Subclass GN	Anthropology
Subclass GR	Folklore
Subclass GT	Manners and customs (General)
Subclass GV	Recreation. Leisure

subclass G	내용
G1-922	Geography (General)
G1000-3122	Atlases
G3160-3171	Globes
G3180-9980	Maps

출처 :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 분류체계 : <http://www.loc.gov/catdir/cpsol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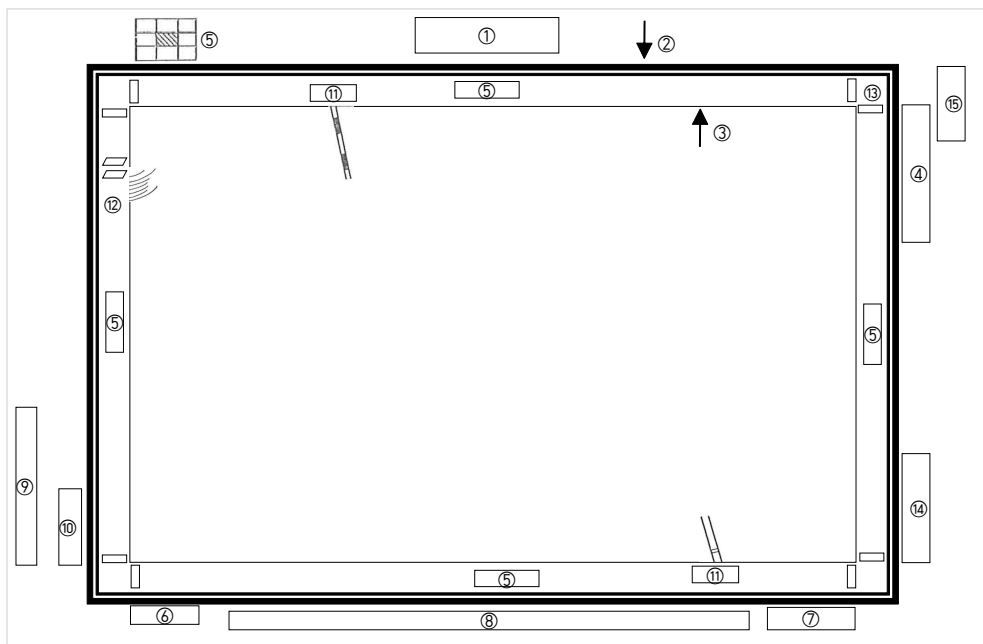
여기서 아시아 지도는 ‘G7400-8198.54’에 속해 분류 되어, Map Divis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한국 근대지형도에 해당하는 지도가 ‘G7900’으로 분류되어 있다. ‘G79--’는 한반도를 대상 지역으로 작성된 지도를 의미하고, 뒤에 따르는 숫자는 지도의 성격을 말해준다¹⁰⁹⁾. 본 장에서는 ‘G7900’으로 분류된 한국 근대지형도 1:50,000을 중심으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의 특징과 직인(職印), 인기(印記) 등을 통해 제작기관, 소장처, 이관정보 및 활용한 메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09) 양윤정, 2010, 앞의 논문, pp.10~12.

1. 제1차지형도의 특징

1) 제1차지형도의 구성

지형도의 구성은 도곽(圖郭)내와 도곽 외의 내용으로 나뉜다. 도곽 내에는 인문·자연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고, 도곽 외에는 지형도 읽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¹¹⁰⁾.



- | | | |
|---------------|----------------|---------------------|
| 1. 도엽명 | 7. 행정지역명 | 13. 경위도 |
| 2. 외도곽 | 8. 축척 | 14. 도곽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 |
| 3. 내도곽 | 9. 발행년월일 | 15. 인기(印記) : 略圖 |
|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 10. 저작권소유자명 | |
| 5. 인접도엽명 | 11. 경과도달(經過到達) | |
| 6. 범례(부호) | 12. 등고선의 표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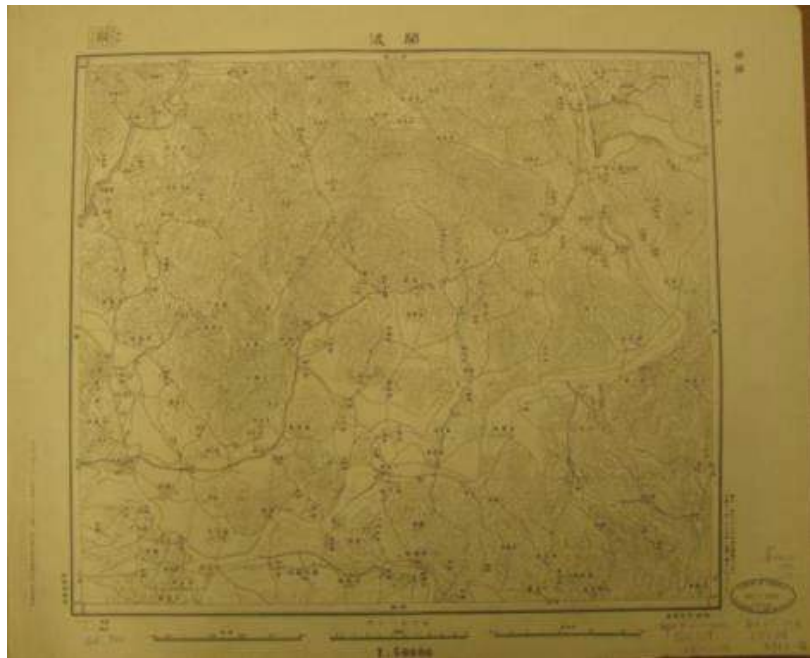
(그림 52) 제1차지형도의 구성

출처 : 建設省国土地理院, 1970, 測量, 地圖百年史, 建設省国土地理院, p.222. 圖-3.9 재구성.

110) 권동희, 1998, 지형도읽기, 한울아카데미,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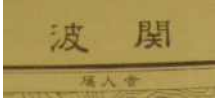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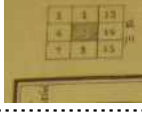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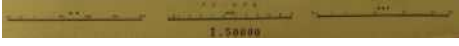



도곽 외의 정보를 난외주기(欄外註記)라 하는데, 도엽명, 도엽번호, 인접도엽색인도, 범례, 축척, 제작자, 인쇄발행일, 도식,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52). 지도에 찍힌 인기는 지도 소장자의 정보, 또는 지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3)은 제1차지형도 개성도엽으로 도엽의 난외주기를 보면, 도엽명인 ‘開城’, 인기(印記)인 ‘略圖’, 도엽의 종류와 번호인 ‘平壤一號(朝鮮五万分一圖)’, 인접도엽명, 인쇄및발행일, 저작권소유자명인 ‘明治四十四年十月十日印刷同十月十五日發行 著作權所有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 축척은 ‘五万分一之尺 米突·朝鮮里·日本里’, 범례(기호)는 약식으로 ‘郡界, 洞廟’만 넣었고, 행정지역명이 ‘朝鮮 平安南道’, 도식의 종류가 ‘圖式ハ明治に十八年式地形圖圖式に準ス’으로 구성하고 있다. 저작권소유자와 인쇄및발행자는 육지측량부로 명시되어 있다<표 69>.



(그림 53) 제1차지형도 ‘개성’도엽(평양 2호)

<표 69> 제1차지형도 '개성'도엽의 난외주기 내용

구분	내용	지형도 부분
1. 도엽명	開城	
15. 인기(印記)	略圖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平壤一號 (朝鮮五万分一圖)	
5. 인접도엽명		
9. 발행년월일 10. 저작권소유자명	明治四十四年十月十日印刷同 十月十五日發行 (1911년 10월 10일 인쇄, 1911년 10월 15일 발행) 著作權所有印刷兼發行者 陸地 測量部	
8. 축척	五万分一之尺 米突·朝鮮里·日本里	
6. 범례(기호)	郡界 洞廟	
7. 행정지역명	朝鮮 平安南道	
14. 도식(圖式)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	圖式ハ明治二十八年式地形圖 圖式二準ス (도식 1895년식)	

2) 제1차지형도의 직인·인기·이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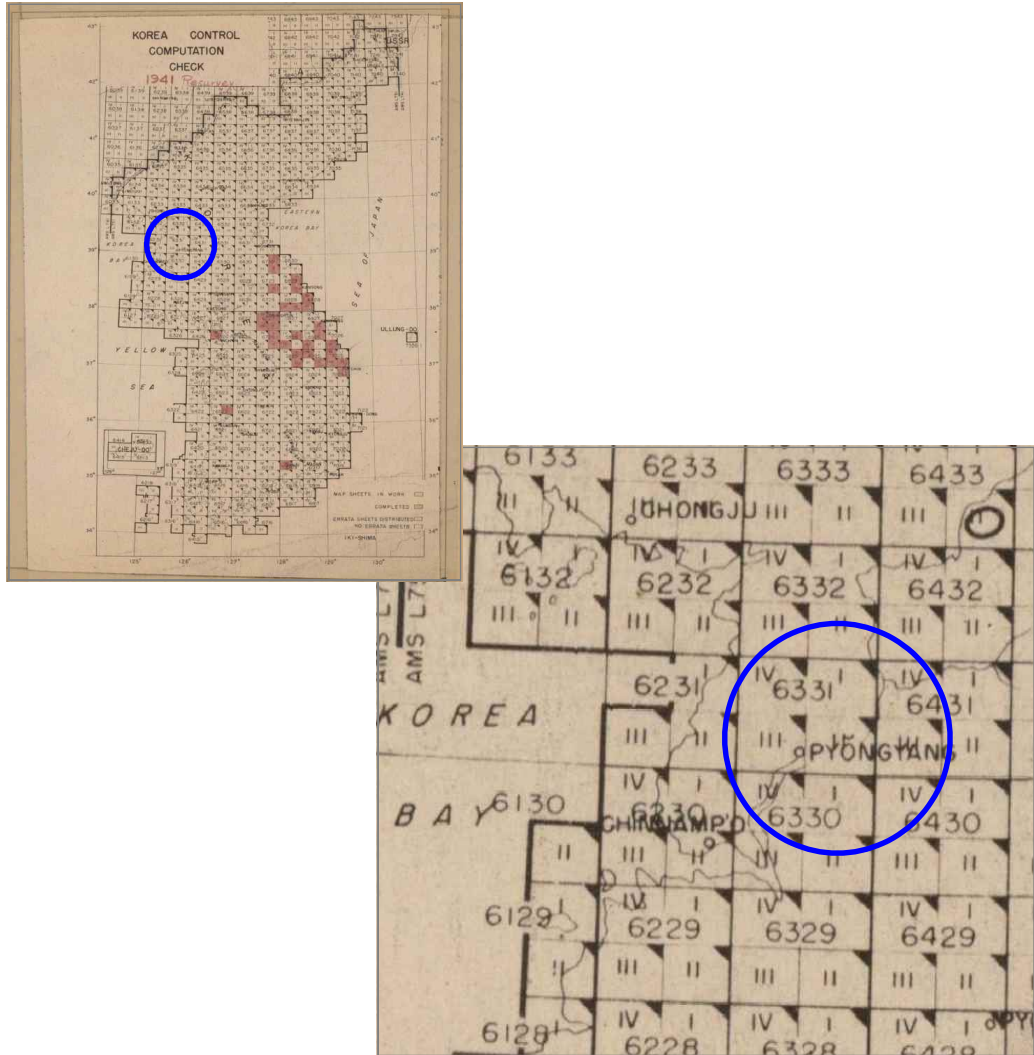
기본적인 지형도 정보 외에 소장처에서 기입한 여러 가지 직인(職印), 인기(印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성도엽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부여한 지도분류번호인 ‘G7900s50J3’, 지도번호인 ‘J51-Ⅱ-2’, AMS에서 부여한 ‘6331-Ⅱ’, 이관정보인 ‘LIBRARY OF CONGRESS TRANSRER ARMY & MAP DIVISION AUG 27. 1999’ 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도엽은 1999 8월 27일에 LIBRARY OF CONGRESS TRANSRER ARMY & MAP DIVISION으로 이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RETURN TO CIA MAP LIBRARY LOAN ONLY’, ‘H441-30 10246’ 찍혀 있다(그림 54).



(그림 54) 개성도엽의 직인·인기·이관정보

AMS에서 부여한 도엽번호는 근대 측량자료 (그림 55)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¹¹¹⁾. 평양 2호인 개성도엽의 AMS 번호 ‘6331-Ⅱ’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5) AMS도엽번호, 개성 '6331-Ⅱ'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근대측량자료

111) 조선총독부, 1941, 삼각점 및 수준점 측량 복구성과표 : 국토정보지리원 공개자료 중에 근대측량자료 확인. 'KOREAN RESURVEY CONTROL BULLETIN(1941)'AMS File No 774,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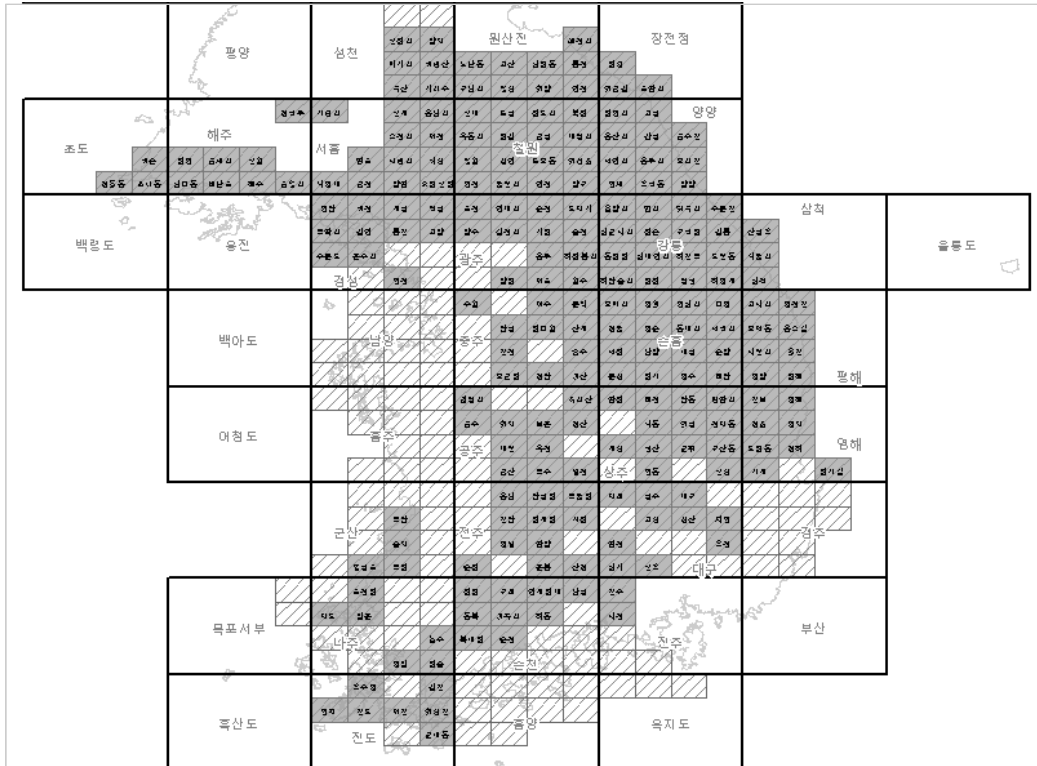
2. 제2차지형도의 특징

제2차지형도는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의 중간 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이 사이에 인문, 자연적인 지리정보의 변화된 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장서각에서도 제2차지형도가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일부 원본만 확인할 수 있었고, 장서각에는 제2차지형도의 일부분인 31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반면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장서각의 8배 정도의 양을 소장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2차지형도를 분석하여 소장범위, 지형도의 구성, 직인·인기·이관정보, 특징을 파악하려고 한다.

1) 제2차지형도의 도엽명 비교

미국 의회도서관의 제2차지형도는 227도엽이 소장되어 있고, 도엽의 위치를 보면 (그림 56)과 같다. 이는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제작된 제2차지형도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도엽이다. 누락된 도엽은 남양과 홍주, 경주, 마산, 부산 지역의 소속된 도엽이다.

한국 근대지형도는 시기별로 제작되면서, 소속도엽명과 도엽명이 변경되었다. 제2차지형도와 제1차지형도의 도엽명을 비교해보면, 227도엽 중 64개의 도엽명이 상이했다. 제1차지형도에서 제2차지형도의 소속도엽명의 변동을 보면, 고성은 간성으로, 한성은 경성으로, 시흥은 신막으로, 광주는 춘천으로 변동된 것을 알 수 있다<표 70>. 도엽명의 변동은 이 시기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지명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동된 소속도엽과 도엽명의 목록 정리로 한정한다.



(그림 56)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제2차지형도 도엽명

<표 70>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의 상이한 도엽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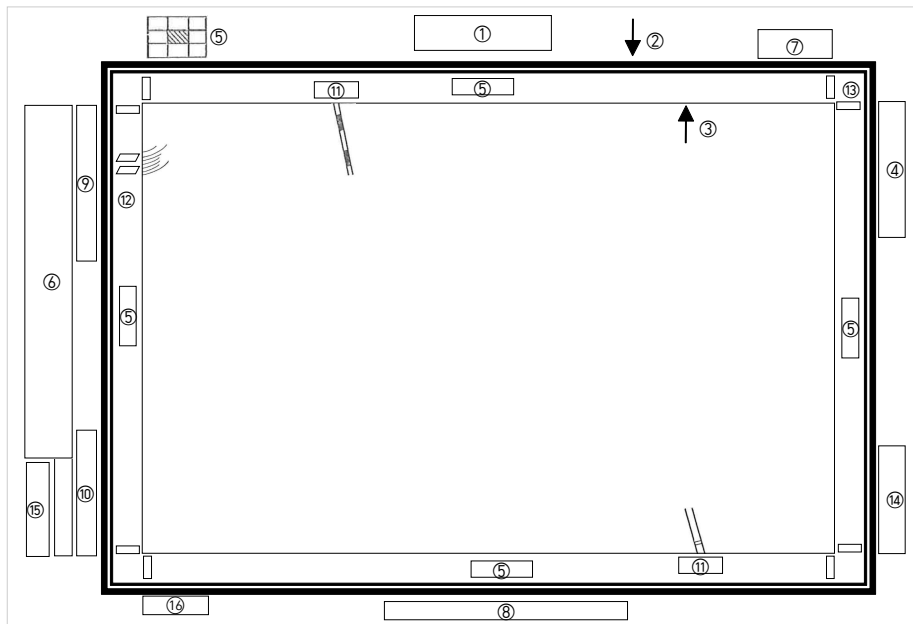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소속도엽_번호	도엽명	소속도엽_번호	도엽명
1	고성_12	고성 高城	간성_12	우석동 右石洞
2	고성_15	송도 松鳴	간성_15	서화리 瑞和里
3	고성_16	장전점 長箭店	간성_16	인제 麟蹄
4	한성_01	파주 坡州	경성_01	적성 積城
5	한성_06	통진읍내 通津邑內	경성_06	통진 通津
6	한성_08	제물포 濟物浦	경성_08	인천 仁川
7	한성_09	풍덕 豊德	경성_09	배천 白川
8	한성_11	정족산성 鼎足山城	경성_11	온수리 溫水里
9	한성_14	교동도 喬桐島	경성_14	무학리 舞鶴里

10	공주_01	송면장	松面場	공주_01	속리산	俗離山
11	공주_02	화령장	化寧場	공주_02	청산	淸山
12	공주_04	영동	永同	공주_04	설천	雪川
13	공주_08	양산	陽山	공주_08	무주	茂朱
14	공주_11	진잠	鎭岑	공주_11	대전	大田
15	공주_13	광정	廣程	공주_13	광정리	廣亭里
16	대구_12	신급	新及	대구_12	신우	新友
17	상주_02	차동	次洞	상주_02	천지동	泉旨洞
18	상주_03	소감천	小甘泉	상주_03	구산동	九山洞
19	상주_05	호잠	湖暫	상주_05	안동	安東
20	상주_06	구미	龜尾	상주_06	의성	義城
21	상주_07	의성	義城	상주_07	군위	軍威
22	상주_09	용궁	龍宮	상주_09	예천	醴泉
23	상주_10	수산	水山	상주_10	낙동	洛東
24	상주_15	갑장산	甲藏山	상주_15	개령	開寧
25	순천_05	지리산	智異山	순천_05	화개장대	花開場臺
26	순천_10	석실장	石實場	순천_10	괴목리	槐木里
27	순천_13	옥과	玉果	순천_13	창평	昌平
28	서흥_01	이목정	梨木亭	신막_01	용당리	龍塘里
29	서흥_04	구화장	九化場	신막_04	후평신장	後坪新場
30	서흥_05	지석장	支石場	신막_05	신계	新溪
31	서흥_06	신계	新溪	신막_06	추천리	楸川里
32	서흥_08	양합리	兩合里	신막_08	양합	兩合
33	서흥_11	평산	平山	신막_11	한포	汗浦
34	서흥_12	김천	金川	신막_12	금천	金川
35	서흥_13	능리	陵里	신막_13	기린리	麒麟里
36	서흥_16	온정원	溫井院	신막_16	탁영대	濯纓臺
37	전주_05	무주	茂朱	전주_05	안성장	安城場
38	진도_10	어란진	於蘭鎭	진도_10	진도	珍島
39	철원_01	통구현리	通口縣里	철원_01	북창	北倉
40	철원_02	송거리	松巨里	철원_02	대정리	大井里
41	철원_03	문등	文登	철원_03	외건솔	外乾率

42	철원_04	청평사	淸平寺	철원_04	양구	楊口
43	철원_05	창도역	昌道驛	철원_05	창도리	昌道里
44	철원_07	사방거리	四方巨里	철원_07	토요동	土要洞
45	철원_08	낭천	狼川	철원_08	화천	華川
46	철원_12	지포	芝浦	철원_12	풍전리	豊田里
47	철원_13	기산리	箕山里	철원_13	신대	新垆
48	철원_14	옥동	玉洞	철원_14	옥동리	玉洞里
49	철원_16	영평	永平	철원_16	연천	漣川
50	광주_01	부창	富昌	춘천_01	도지가	都地街
51	광주_02	연엽산	蓮葉山	춘천_02	홍천	洪川
52	광주_04	지평동부	砥平東部	춘천_04	원주	原州
53	광주_06	추동	楸洞	춘천_06	가평	加平
54	광주_07	광탄	廣灘	춘천_07	용두	龍頭
55	광주_08	지평	砥平	춘천_08	이포	梨浦
56	광주_09	가평	加平	춘천_09	화대리	禾垆里
57	광주_10	미원장	美原場	춘천_10	감천리	甘泉里
58	광주_12	곤지암	昆地巖	춘천_12	양평	楊平
59	충주_02	하담	河潭	충주_02	산계	山溪
60	충주_06	음죽	陰竹	충주_06	장호원	長湖院
61	충주_10	죽산	竹山	충주_10	안성	安城
62	해주_01	봉산	鳳山	해주_01	청석두	靑石頭
63	해주_04	평강	平江	해주_04	중일리	中一里
64	해주_07	안악	安岳	해주_07	신원	新院

2) 제2차지형도의 구성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의 구성요소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범례(부호)’와 ‘축척’의 표식이다. 제1차지형도의 경우, 범례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제작된 지형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범례가 없는 도엽도 있고, 범례가 있는 경우에는 ‘군 경계’, 동묘(洞廟) 등의 필요한 범례만을 표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지형도 이후에는 도곽 왼쪽 한 면을 채워 다양한 기호들로 채워 표식되어 있다(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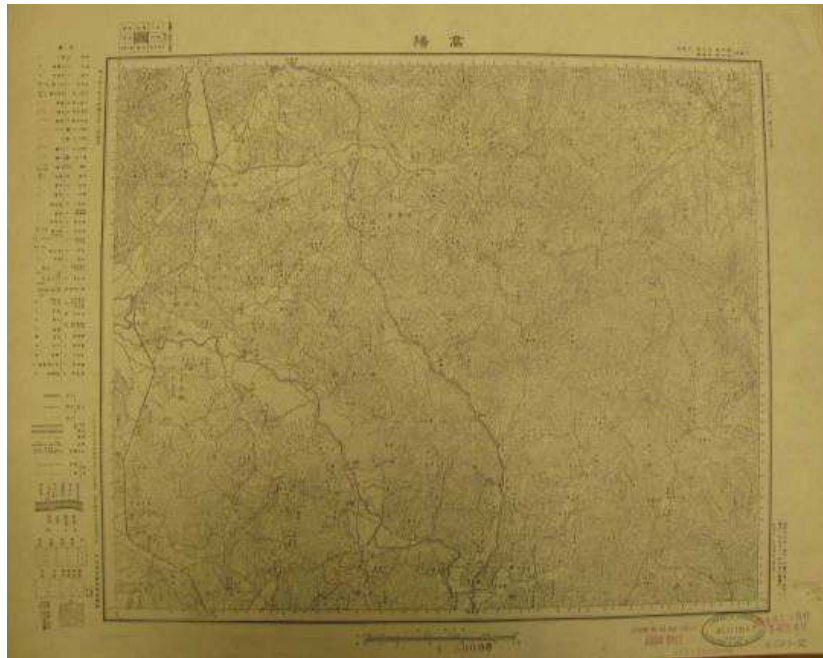
- | | | |
|---------------|-------------------|---------------------|
| 1. 도엽명 | 7. 행정지역명 | 13. 경위도 |
| 2. 외도곽 | 8. 축척 | 14. 도곽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 |
| 3. 내도곽 | 9. 측도.제판.수정측도 | 15. 범례(기호)의 주석 |
|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 10. 발행년월일.저작권소유자명 | 16. 정가(定價) |
| 5. 인접도엽명 | 11. 경과도달(經過到達) | |
| 6. 범례(부호) | 12. 등고선의 표고 | |

(그림 57) 제2차지형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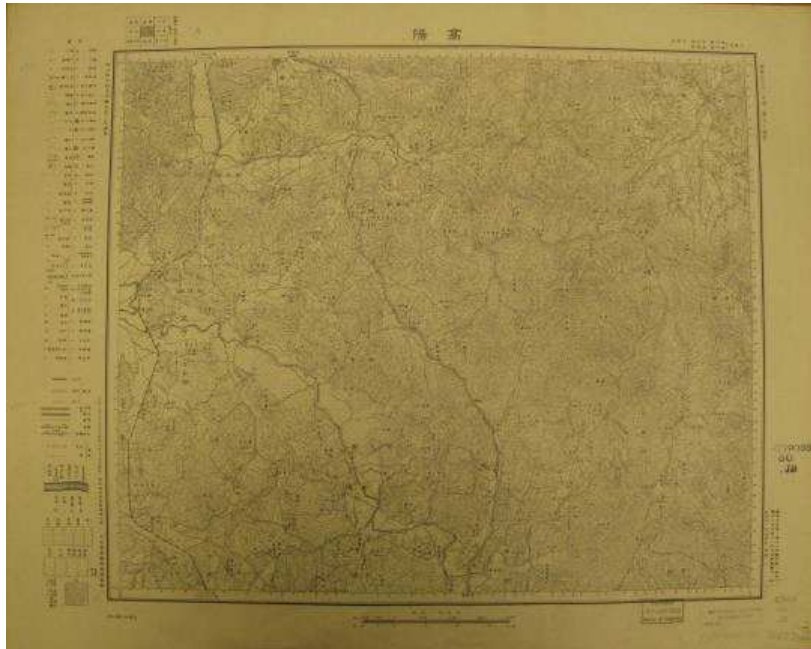
출처 : 建設省国土地理院, 1970, 測量, 地図百年史, 建設省国土地理院, p.222. 図-3.9 재구성.

제2차지형도의 구성요소를 ‘고양’도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58). 미국 의회도서관에는 ‘고양’도엽이 두 장 소장되어 있는데, 고양도엽(경성 2호)_01(그림 58)과 고양도엽(경성 2호)_02(그림 59)이다.

‘고양’도엽의 지형도 구성은 거의 동일하나, 고양도엽(경성 2호)_01에는 정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양도엽(경성 2호)_02에는 정가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판매용과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장의 ‘고양’도엽에는 직인, 인기, 이관정보 등이 서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림 58) 제2차지형도 ‘고양’도엽(경성 2호)_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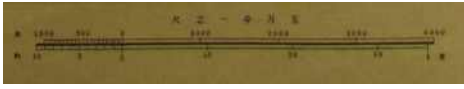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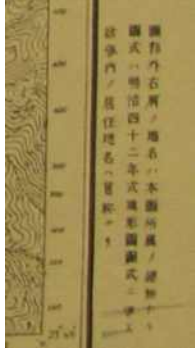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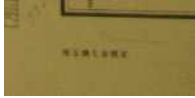
(그림 59) 제2차지형도 '고양'도엽(경성 2호)_02

제2차지형도에 해당하는 고양도엽(평양 2호)_01의 난외주기를 보면, 도엽명이 '高陽', 지도명은 도엽번호와 같이 '朝鮮五万分一京城二號(共十五面)'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엽소속지명 '京畿道 楊州郡·坡州郡·交河郡·高陽郡·京城府', 인접도엽색인도, 측도제판년도 '明治四十四年測圖大正二年製版', 인쇄 및 발행년월일과 저작권소유자 '大正二年八月十日印刷同八月十五日發行 著作権所有印刷兼發行者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축척 '五万分一之尺 米·町·里' 이다. 범례는 '符號'로 제1차지형도의 범례보다 다양한 범례가 난외주기 왼쪽 면에 있고, 도식은 '圖郭... 圖式ハ明治四十二年式地形圖圖式二準ス, ...'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양도엽(평양 2호)_02의 난외주기는 고양도엽(평양 2호)_01과 동일하고 왼쪽 아래 정가표시 '定價金七錢五厘'만 추가되어 발행되었다. 이것을 볼 때 제2차지형도는 판매용과 군사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71>.

<표 71> 제2차지형도 '고양'도엽의 난외주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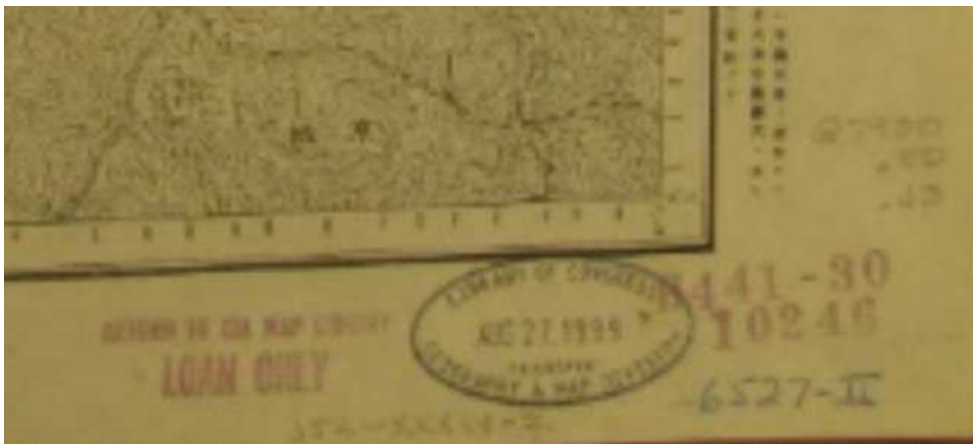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형도 부분
1. 도엽명	高陽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朝鮮五万分一京城二號 (共十五面)	
7. 행정지역명	京畿道 楊州郡·坡州郡·交河郡·高陽郡· 京城府	
5. 인접도엽명		
9. 측도제판수정측도	明治四十四年測圖 大正二年製版 (1911년 측도, 1913년 제판)	
6. 범례(기호)	符號 (일부내용)	
10. 인쇄 및 발행자 저작권소유자명	大正二年八月十日印刷同八月 十五日發行 (1913년 8월 10일 인쇄, 1913년 8월 15일 발행) 著作權所有印刷兼發行者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8. 축척	五万分之一尺 米·町·里	
14. 도식(圖式)의 기간면 도식의 종류	圖郭... 圖式ハ明治四十二年式地形圖 圖式に準ス (도식 1909년식)	
16. 정가	定價金七錢五厘 (고양도엽(평양 2호)_02 에만 해당)	

3) 제2차지형도의 직인 · 인기 · 이관정보

제2차지형도의 고양도엽은 두 장으로, 지형도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나 판매용(定價기입)과 군사용, 두 종류로 구분된다. 두 도엽은 직인, 인기, 이관정보 등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의회도서관에 이관되기 까지 서로 다른 소장처에서 보관·관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가 된다.

고양도엽_01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부여한 지도분류번호인 'G7900s50J3', 지도번호인 'J52- X X X IV-2', AMS에서 부여한 '6527-II', 이관정보인 'LIBRARY OF CONGRESS TRANSRER SEOERARMY & MAP DIVISION AUG 27. 1999', 'RETURN TO CIA MAP LIBRARY LOAN ONLY', 'H441-30 10246'의 인기가 있다(그림 60).



(그림 60) 고양도엽(경성 2호)_01의 직인.인기.이관정보

고양도엽_02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부여한 지도분류번호인 'G7900s50J3', 지도번호인 'J52- X X X IV-2', AMS에서 부여한 '6527-II', 이관정보인 'Map Division 3-JUN 1959 Library of Congress'의 인기와 압인이 있다(그림 61). 인기와 직인을 통해 고양도엽(경성 2호)_01은 1999년에 이관되었고, 고양도엽(경성 2호)_02에 1959년에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 고양도엽(경성 2호)_02의 직인.인기.압인.이관정보

3. 제3차지형도의 특징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제3차지형도는 424도엽으로, 이는 중복된 도엽을 제외한 도엽수이다. 제1회수정측도 도엽은 254도엽, 제2회수정측도 도엽은 71도엽, 제3회수정측도 도엽은 12도엽이다. 다른 국내외 조사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12도엽의 제3회수정측도 도엽을 확인할 수 있다<표 72>.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제3차지형도는 동일한 도엽이 최소 두 장에서 최대 네 장까지 소장되어 있다. 동일한 도엽이지만 난외주기와 직인·인기·이관정보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볼 때, 상이한 시기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정된 지도가 현재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에 첫 번째 제작한 지형도를 비롯하여 제1회~제3회수정측도를 한 도엽을 파악하는 것은 지도학적인 변화와 경관 변화에 의미 있는 일이다.

<표 72> 제3차지형도 현황

분류	도엽(중복포함)	도엽(중복제외)
제3차지형도	832	424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528	254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149	71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19	12
합	1,528	

1) 제3차지형도의 새로운 도엽 확인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 424도엽 중 한국에서 영인한 영인본에 소개 되지 않은 네 개의 도엽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네 개의 도엽은 호도반도(虎島半島), 부산(釜山), 가덕도(加德島), 동두말(東頭末)이다<표 73>, (그림 63, 64, 65, 66). 네 도엽은 공통적으로 1921년에 축도(縮圖)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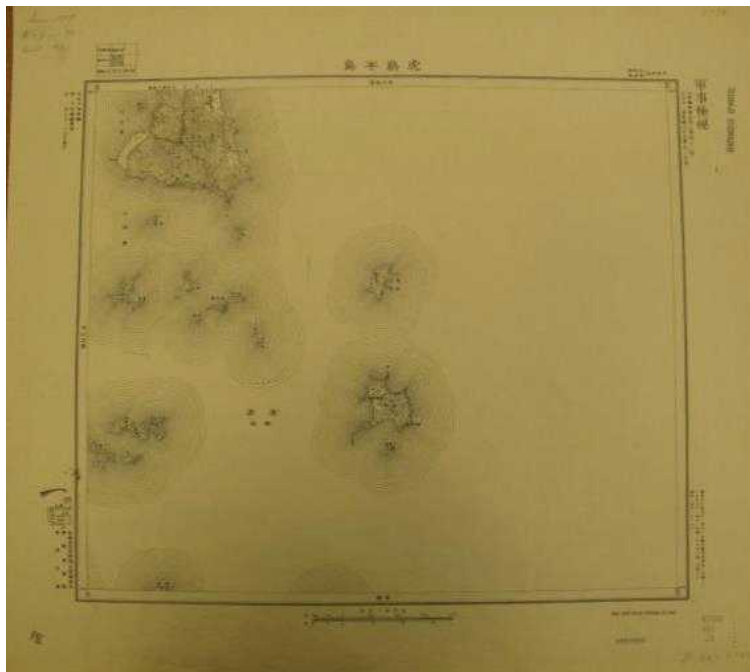
<표 73> 제3차지형도의 새롭게 확인한 네 도엽

도엽명	소속도엽명	축도	축도(縮圖) 제판	발행	인쇄
호도반도(虎島半島)	원산 5호	1917	1921	기록없음	1921.6.25
부산(釜山)	부산 13호	1916	1921	기록없음	1921.11.25
가덕도(加德島)	마산 2호	1916	1921	기록없음	1921.11.25
동두말(東頭末)	마산 3호	1916	1921	기록없음	1921.4.25

부산도엽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목록에서 확인 되었지만,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세 도엽은 국내외 조사 대상 기관의 소장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새롭게 확인한 네 도엽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62).



(그림 62) 제3차지형도의 새롭게 확인한 4개 도읍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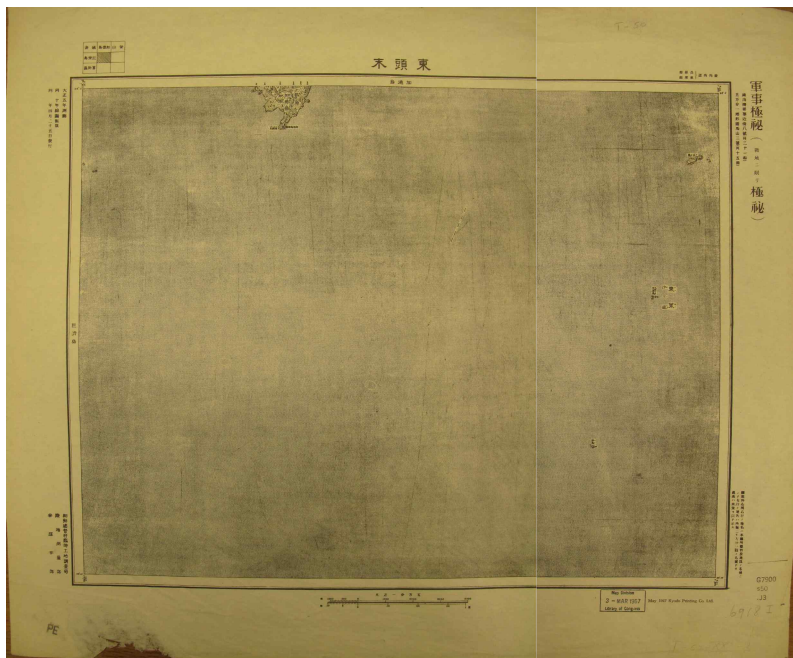
(그림 63) 호도반도 도엽(원산 5호)



(그림 64) 부산 도엽(부산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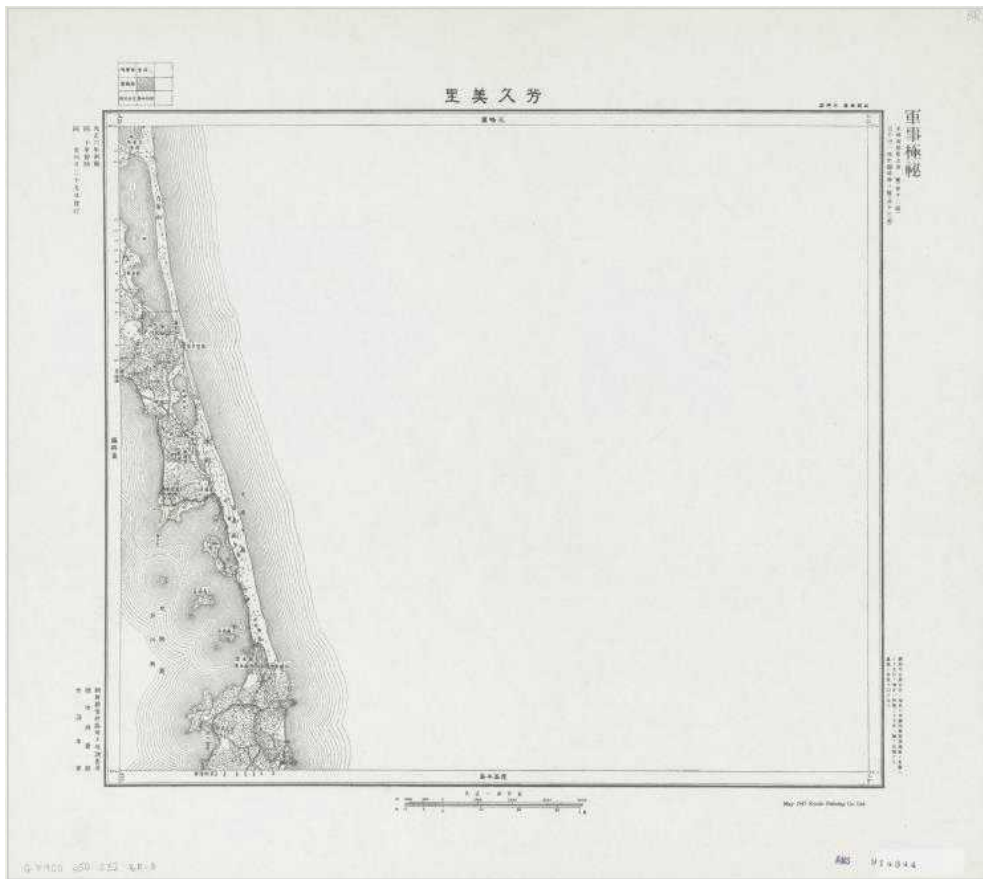


(그림 65) 가덕도 도엽(마산 2호)



(그림 66) 동두말 도엽(마산 3호)

제3차지형도 중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도엽은 다섯 도엽이다. 이 가운데 네 도엽이 본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었음을 확인되었고, 나머지 한 도엽은 영국의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¹¹²⁾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방구미리(芳久美里, 함흥 8호) 도엽이다(그림 67), <표 74>. 이로써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도엽, 모두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67) 방구미리(芳久美里) 도엽(함흥 8호)

출처 : Stanford Library, <https://library.stanford.edu/>

112) Stanford Library에서 Japanese imperial maps를 인덱스맵과 함께 소장된 도엽을 공개하고 있다. <https://library.stanford.edu/guides/gaihozu-japanese-imperial-m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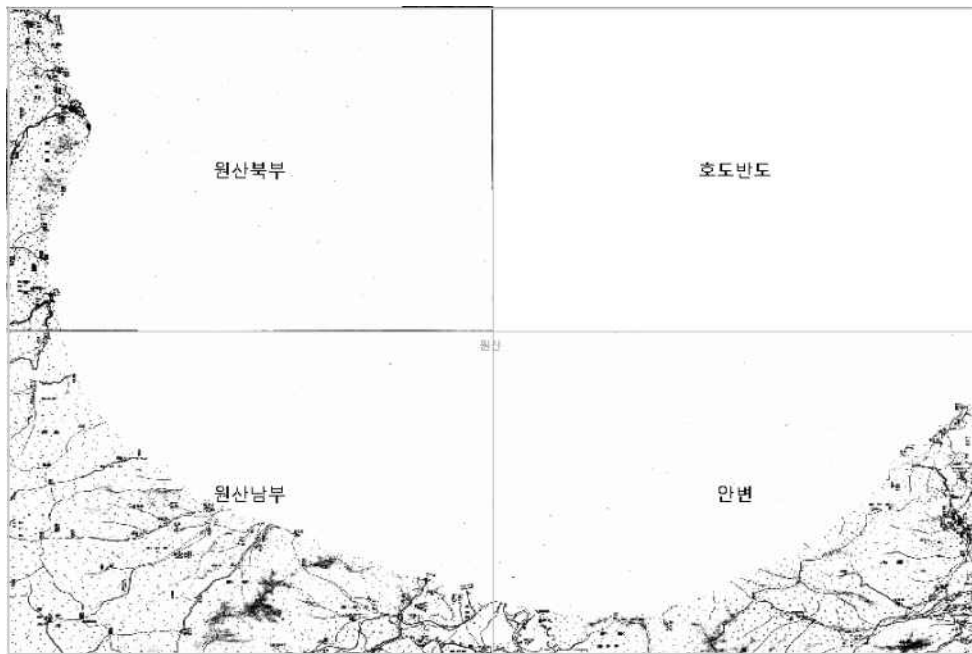
<표 74> 제3차지형도의 새롭게 확인한 방구미리 도엽

도엽명	소속도엽명	측도년도	축도(縮圖) 제판년도	발행년월일	인쇄년월일
방구미리(芳久美里)	함흥 8호	1917	1921	기록없음	1921.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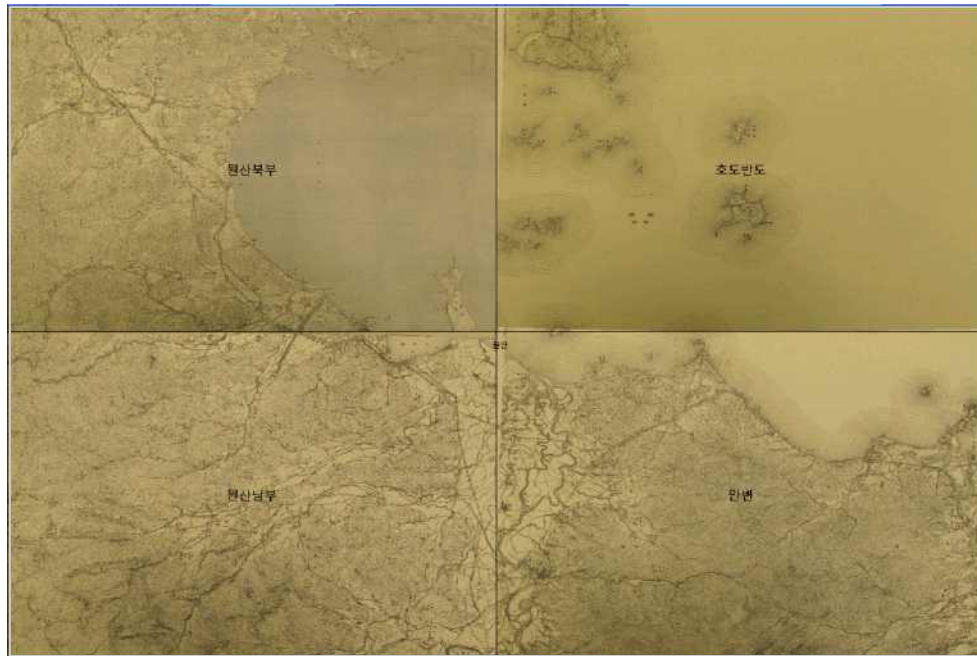
방구미리를 소장하고 있는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은 한국 근대지형도가 1947년 공동 인쇄된 것으로, 1947년 이후 AMS로 이관되어 보관, 관리해 오다가 영국으로 이관되어 온 것이다.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에는 한국 외에 다른 국가의 축척이 다른 지형도들을 소장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 관련 근대지형도도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뿐만 아니라 1:200,000, 1:25,000를 소장하고 있다.

원산, 부산, 마산 지역을 한국에서 발간한 영인본과 비교해 보았다. 영인본의 경우, 원산지역의 원산북부, 원산남부, 안변 도엽 모두 일부 지역이 삭제된 도엽인 반면,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지도의 경우, 삭제된 지역 없이 제작된 지형도이다(그림 68, 69). 부산과 마산지역의 동래, 월내리, 김해 도엽 역시 일부 지역이 삭제된 영인본에 반해, 삭제되지 않은 도엽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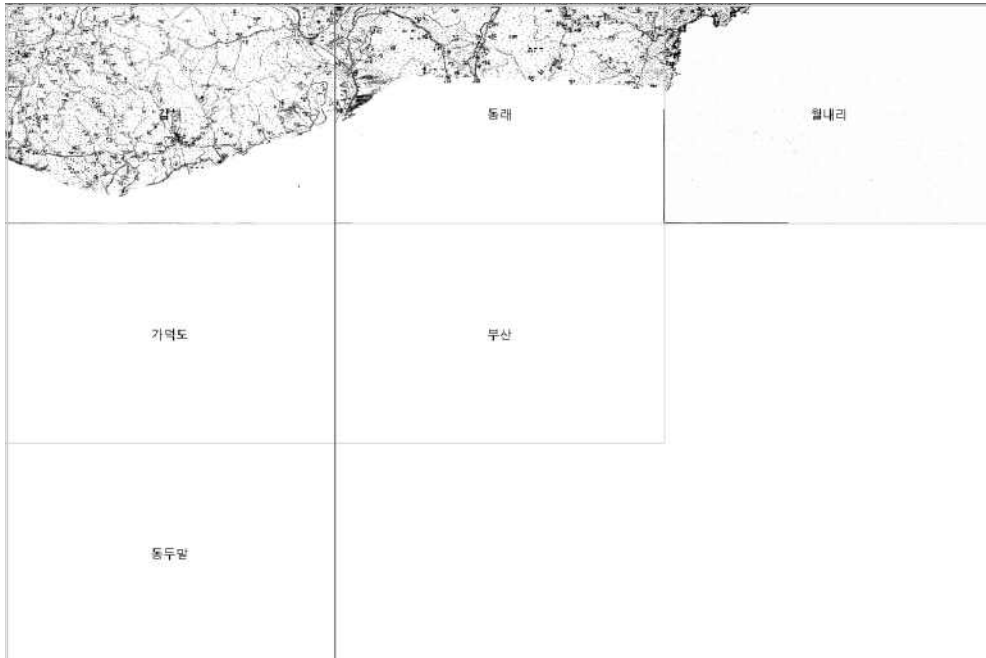
지금까지 영인본에 원산, 부산, 마산지역의 일부가 삭제되어 이 지역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축척이 다른 지형도를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앞으로는 원산지역과 부산, 마산 지역의 지리 정보를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원본 지형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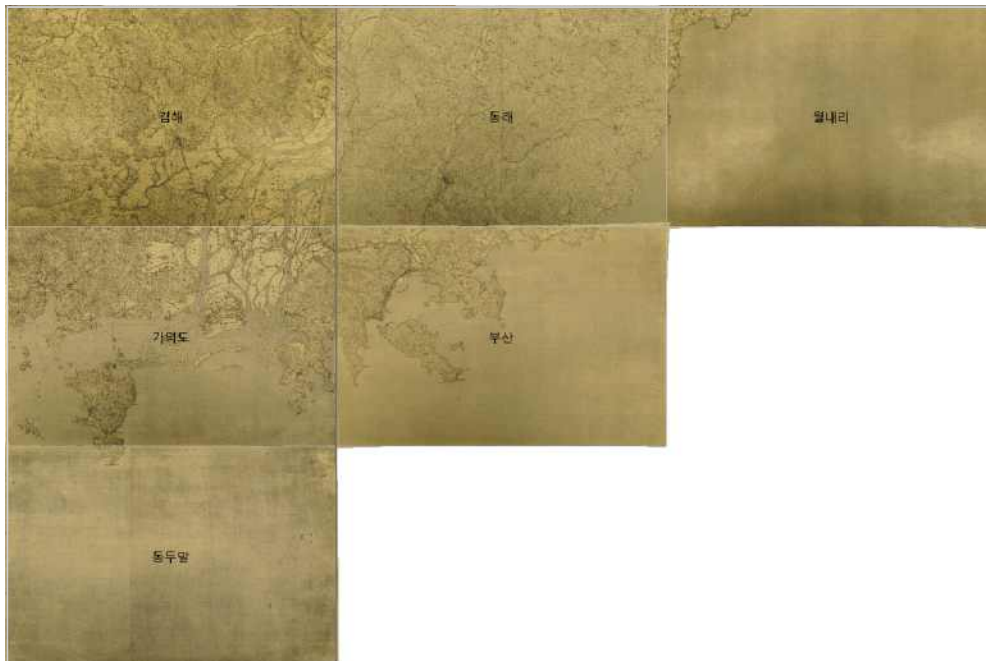
(그림 68) 원산 지역(영인본)



(그림 69) 원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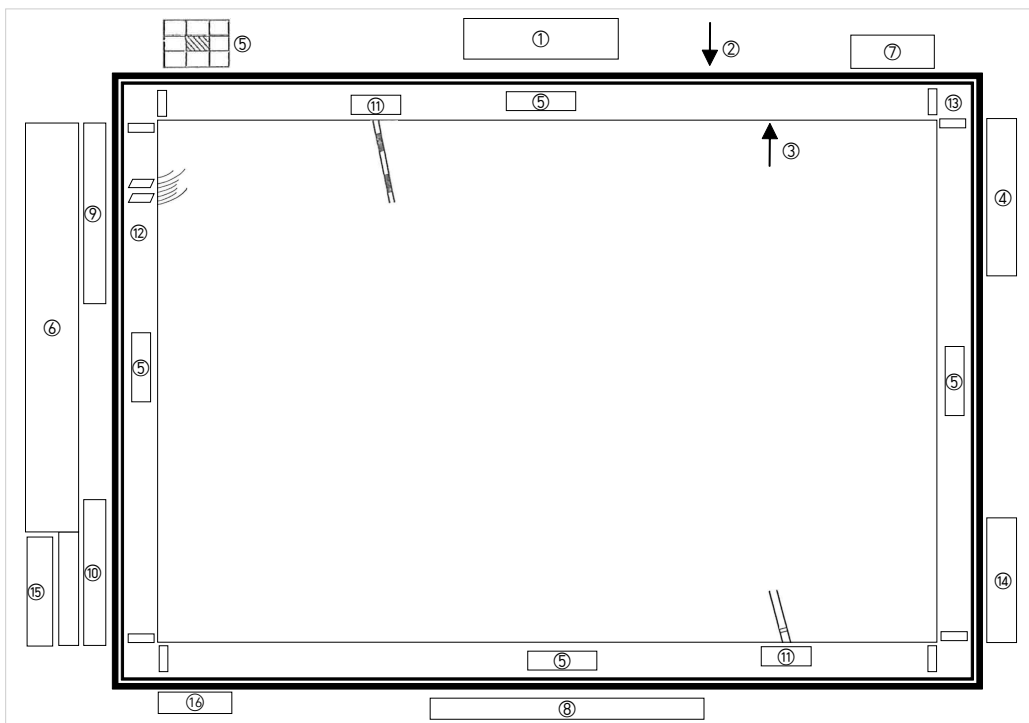
(그림 70) 부산, 마산 지역(영인본)



(그림 71) 부산, 마산 지역

2) 제3차지형도의 구성 내용

제3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나 ‘도엽 번호’에서 차이가 난다. 제2차지형도는 ‘도엽의 종류와 번호’로 ‘朝鮮五万分一〇〇□號(共〇面)’으로 표식이 되어 있는데, 제3차지형도에서는 ‘〇〇□號’로 변경되었다 (그림 72).



- | | | |
|-----------|--------------------|---------------------|
| 1. 도엽명 | 7. 행정지역명 | 13. 경위도 |
| 2. 외도곽 | 8. 축척 | 14. 도곽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 |
| 3. 내도곽 | 9. 축도·제판·수정축도 | 15. 범례(기호)의 주석 |
| 4. 도엽 번호 | 10. 발행년월일, 저작권소유자명 | 16. 정가(定價) |
| 5. 인접도엽명 | 11. 경과도달(經過到達) | |
| 6. 범례(기호) | 12. 등고선의 표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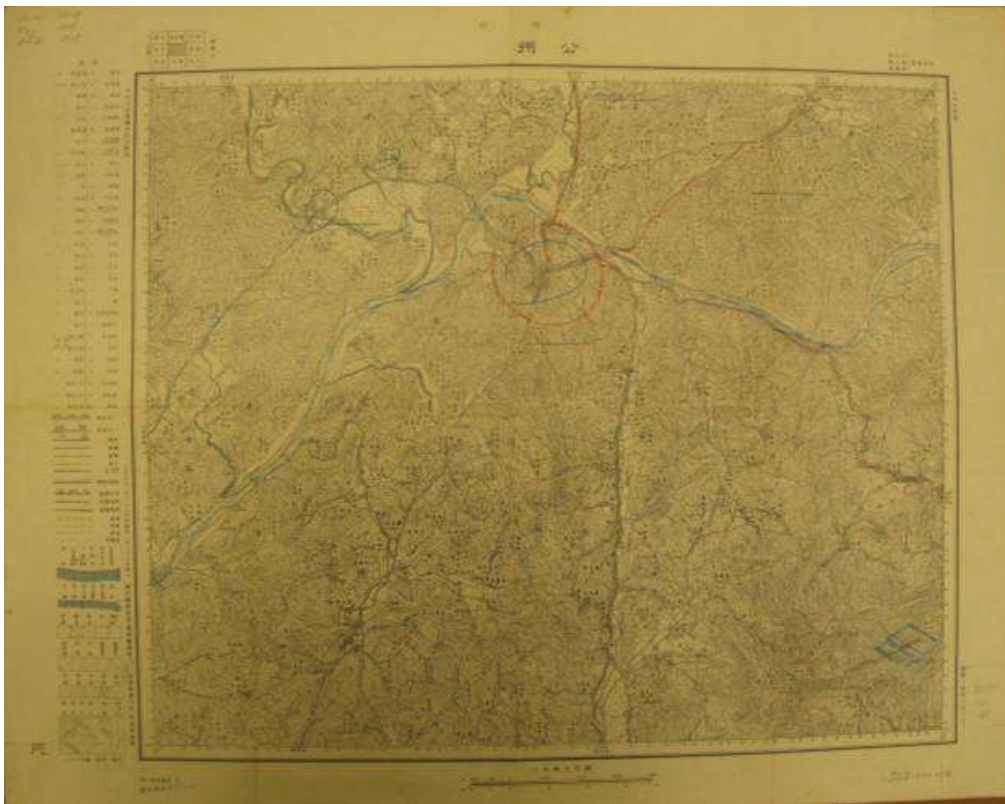
(그림 72) 제3차지형도의 구성

출처 : 建設省国土地理院, 1970, 測量, 地圖百年史, 建設省国土地理院, p.222. 圖-3.9 재구성.

제3차지형도는 수정측도가 이루어지기 전 처음으로 제작된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판으로, 네 판에 대한 지형도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였다.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판이 모두 존재하는 ‘공주’도엽을 대상으로 제3차지형도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제3차지형도의 특징

처음으로 제작된 제3차지형도에 해당하는 공주도엽은 (그림 73)와 같다. 1914년에 측도된 도엽으로 수부색이 담청색인 2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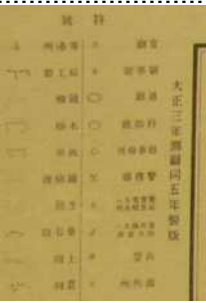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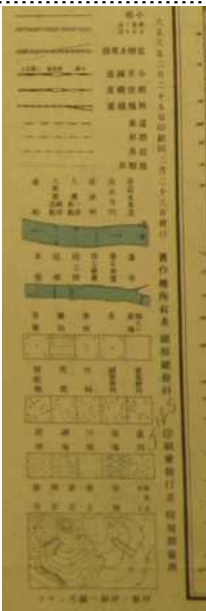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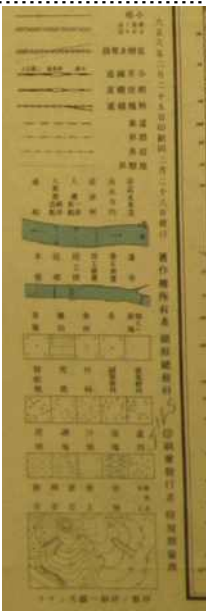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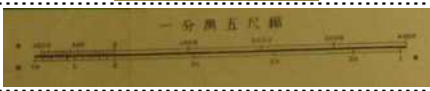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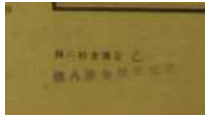
(그림 73)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공주 14호)

도엽의 난외주기를 보면, 도엽명 ‘公州’, 도엽번호 ‘公州十四號’, 도엽소속 지명 ‘忠淸南道 公州郡·論山郡·靑陽郡’, 인접도엽색인도, 측도제판년도 ‘大正三年測圖同五年製版’, 인쇄및발행년월일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및발행자 ‘大正八年二月二十五日印刷同二月二十八日發行 著作権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으로 기재되어 있다.

축척은 ‘縮尺五萬分一 米·町·里’,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당하는 ‘符號’는 지도에 사용한 기호를 정리하여 도엽 왼쪽에 넣었고, 도식 ‘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 정가 ‘乙 定價金拾六錢 -> 修正 定價金拾八錢’가 표시되어 있다. 정가의 경우, 인상되어 수정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채색은 2색으로 하천부분을 담청색으로 표시하였다<표 75>. 위의 도엽에서 청색과 적색 펜으로 기록한 메모를 볼 때, 지형도가 실제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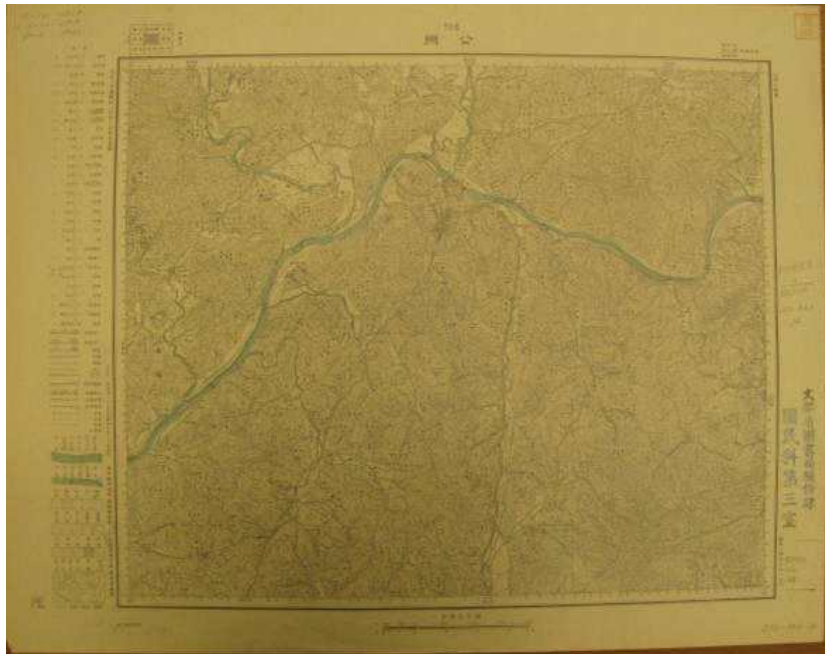
<표 75>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난외주기 내용

구분	내용	지형도 부분
1. 도엽명	公州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公州十四號	
7. 행정지역명	忠淸南道 公州郡, 論山郡, 靑陽郡	
5. 인접도엽명		

9. 측도제판수정측도	大正三年測圖同五年製版 (1914년 측도, 1914년 제판)	
6. 범례(기호)	符號 (일부내용)	
10. 인쇄 및 발행자 저작권소유자명	大正八年二月二十五日印刷同二月 二十八日發行 (1919년 2월 25일 인쇄, 1919년 2월 28일 발행)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	
8. 축척	縮尺五萬分一 米·町·里	
14. 도식(圖式)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	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	
16. 정가	乙 定價金拾六錢 修正 定價金拾八錢	

(2)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의 특징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에 해당하는 공주도엽을 보면 (그림 74)와 같다. 1914년에 측도되고 1919년에 수정측도된 도엽으로 제3차지형도와 비교해 볼 때, 지도 내 지리정보 측면에서 지명의 변동, 시가지의 확장과 하천 유로의 변화 등에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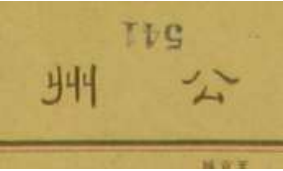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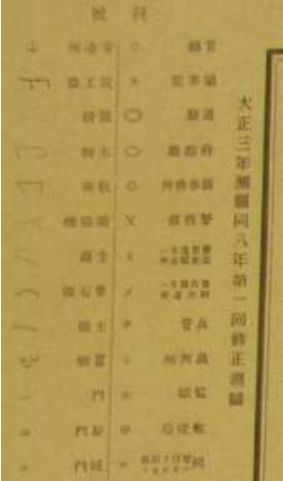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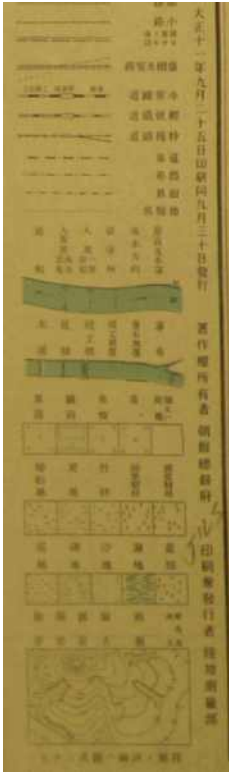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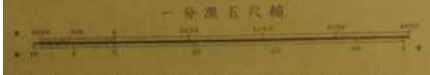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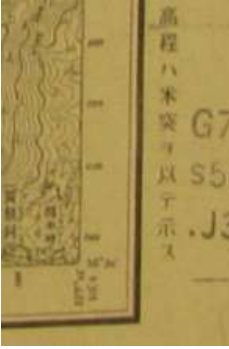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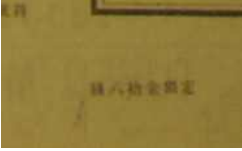
(그림 74) 제1회수정측도 '공주'도엽(공주 14호)

도엽의 난외주기는 도엽명 '公州', 도엽번호 '公州十四號', 도엽소속지명 '忠淸南道 公州郡·論山郡·靑陽郡', 인접도엽색인도, 측도수정측도년도 '大正三年測圖同八年第一回修正測圖', 인쇄및발행년월일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및발행자 '大正十一年九月二十五日印刷同九月三十日發行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 축척은 '縮尺五萬分一 米·町·里', 범례는 '符號', 도식 '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 정가 '定價金拾八錢'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6>. 제3차지형도에서 제1회수정측도 됨에 따라 ‘측도제판년도’가 ‘측도수정측도년도’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인쇄발행년월일’ 정보도 변경되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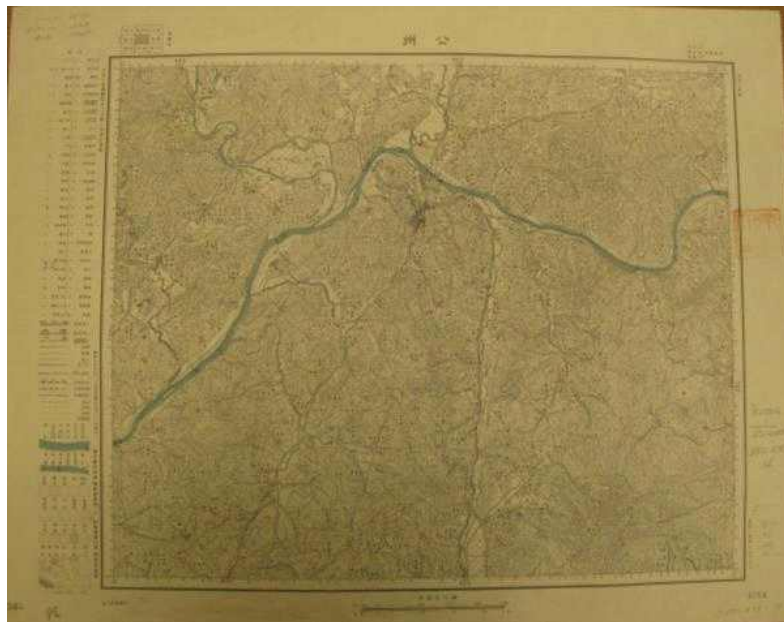
<표 76>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제1회수정측도)의 난외주기 내용

구분	내용	지형도 부분
1. 도엽명	公州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公州十四號	
7. 행정지역명	忠淸南道 公州郡, 論山郡, 靑陽郡	
5. 인접도엽명		
9. 측도제판수정측도	大正三年測圖 同八年第一回修正測圖 (1914년 측도, 1919년 제1회수정측도)	
6. 범례(기호)	符號 (일부내용)	

<p>10. 인쇄 및 발행자 저작권소유자명</p>	<p>大正十一年九月二十五日印刷 同九月三十日發行 (1922년 9월 25일 인쇄, 1922년 9월 30일 발행)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p>	
<p>8. 축척</p>	<p>縮尺五萬分一 米·町·里</p>	
<p>14. 도막(圖幕)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p>	<p>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p>	
<p>16. 정가</p>	<p>定價金拾八錢</p>	

(3)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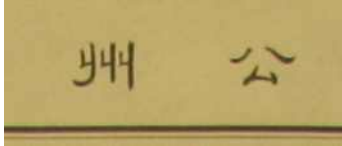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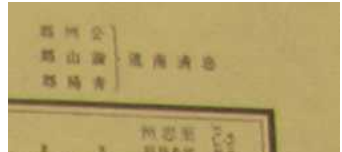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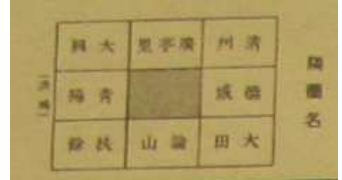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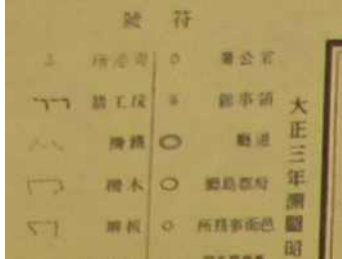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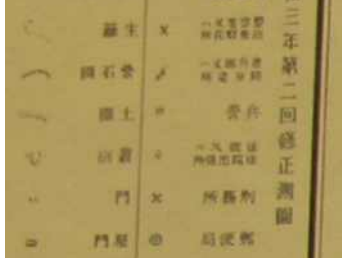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에 해당하는 공주도엽을 보면 (그림 75)와 같다.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된 지형도와는 공주 중심지 시가지의 확장, 하천 유로의 변화, 도로의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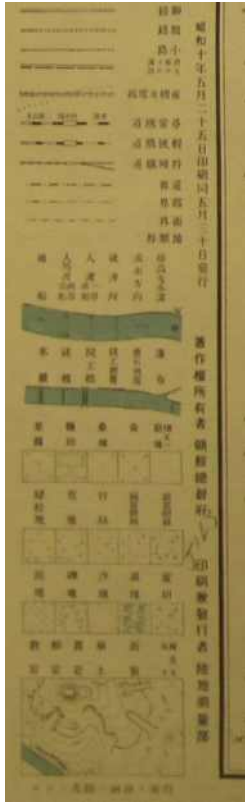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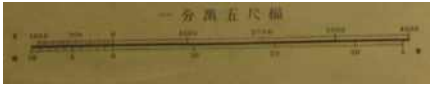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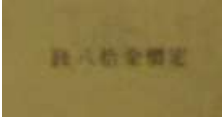


(그림 75) 제2회수정측도 '공주'도엽(공주 14호)

도엽의 난외주기를 보면, 도엽명 '公州', 도엽번호 '公州十四號', 도엽소속 지명 '忠淸南道 公州郡·論山郡·靑陽郡', 인접도엽색인도, 측도수정측도 '大正三年測圖昭和三年第二回修正測圖', 인쇄및발행년월일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 및발행자 '昭和十年五月二十五日印刷同五月三十日發行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 축척 '縮尺五萬分一 米·町·里', 범례 '符號', 도식 '高程ハ米突ヲ以 テ示ス', 정가 '定價金拾八錢'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77>. 수정측도가 이루어진 시기와 이에 따른 인쇄·발행정보가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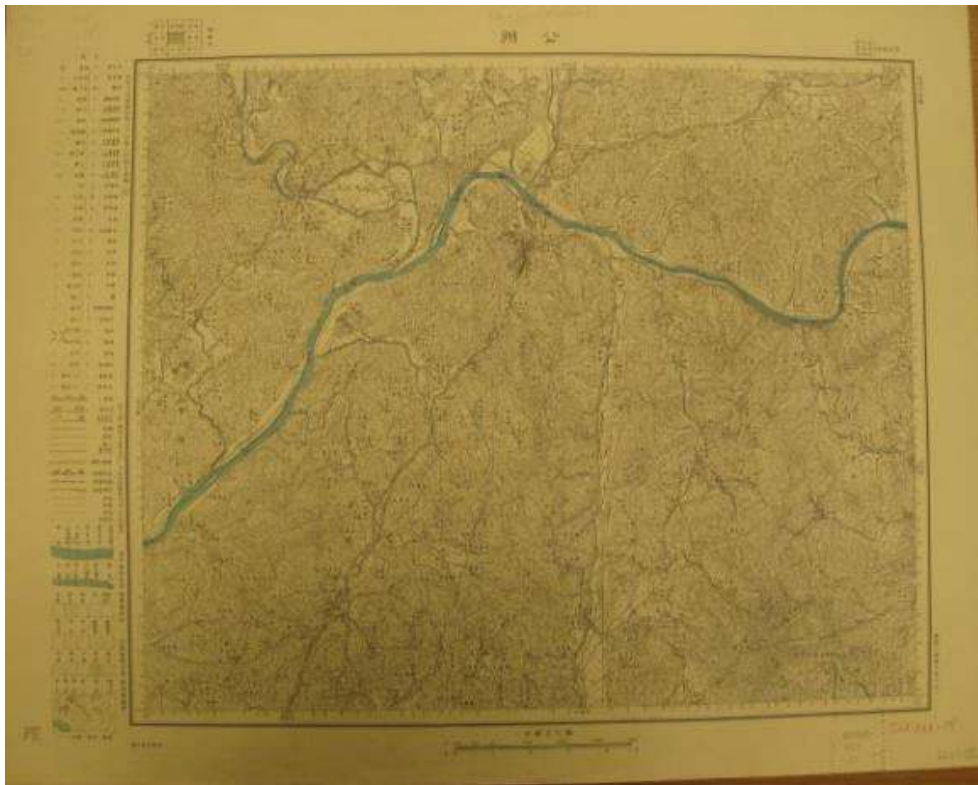
<표 77>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제2회수정측도)의 난외주기 내용

구분	내용	지형도 부분
1. 도엽명	公州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公州十四號	
7. 행정지역명	忠淸南道 公州郡, 論山郡, 靑陽郡	
5. 인접도엽명		
9. 측도제한수정측도	大正三年測圖昭和三年 第二回修正測圖 (1914년 측도, 1928년 제2회수정측도)	
6. 범례(기호)	符號 (일부내용)	

<p>10. 인쇄 및 발행자 저작권소유자명</p>	<p>昭和十年五月二十五日印刷同五月三十日發行 (1935년 5월 25일 인쇄, 1935년 5월 30일 발행)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p>	
<p>8. 축척</p>	<p>縮尺五萬分一 米·町·里</p>	
<p>14. 도막(圖幕)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p>	<p>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p>	
<p>16. 정가</p>	<p>定價金拾八錢</p>	

(4)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의 특징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에 해당하는 공주도엽을 보면 (그림 76)과 같다. 제3회수정측도 도엽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국내외 기관 중 미국 의회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으며, 12도엽이 있다. 제2회수정측도된 지형도와는 공주면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변화, 시가지 확장, 하천유로의 변화, 도로의 확장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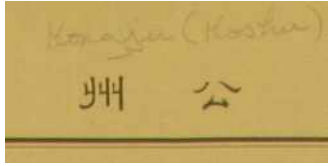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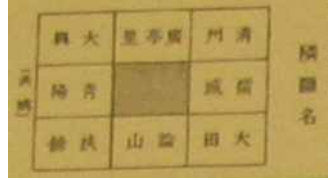


(그림 76) 제3회수정측도 '공주'도엽(공주 14호)

도엽의 난외주기는 도엽명 '公州', 도엽번호 '公州十四號', 도엽소속지명 '忠淸南道 公州郡·論山郡·靑陽郡', 인접도엽색인도, 측도수정측도년도 '大正三年測圖昭和十三年第三回修正測圖', 인쇄및발행년월일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

및 발행자 ‘昭和十五年九月二十五日印刷同九月三十日發行 著作権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 축척 ‘縮尺五萬分一 米·町·里’, 범례 ‘符號’, 도식 ‘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 정가 ‘[定價金拾八錢]’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78>.

<표 78>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제3회수정측도)의 난외주기 내용

구분	내용	지형도 부분
1. 도엽명	公州	
4. 도엽의 종류와 번호	公州十四號	
7. 행정지역명	忠淸南道 公州郡, 論山郡, 靑陽郡	
5. 인접도엽명		

<p>9. 측도, 재판 수정 측도</p>	<p>大正三年測圖昭和十三年 第三回修正測圖 (1914년 측도, 1938년 제3회수정 측도)</p>	
<p>6. 범례(기호)</p>	<p>符號 (일부내용)</p>	
<p>10. 인쇄 및 발행자 저작권소유자명</p>	<p>昭和十五年九月二十五日印刷 同九月三十日發行 (1940년 9월 25일 인쇄, 1940년 9월 30일 발행)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p>	
<p>8. 축척</p>	<p>縮尺五萬分一 米·町·里</p>	

14. 도곽(圖郭)의 기준면 도식의 종류	高程ハ米突ヲ以テ示ス	
16. 정가	(定價金拾八錢)	

제3차지형도, 제1차수정측도, 제2차수정측도, 제3차수정측도 됨에 따라 제작된 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난외주기는 일정한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수정측도의 발행 시기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지도 내용의 경우에는 시가지의 확장과 지명의 변동, 하천 유로의 변화,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화까지 그 시기 변화된 지역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3차지형도와 세 번의 수정측도 과정은 20세기 초 변화된 지역의 지리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5) 제3차지형도 채색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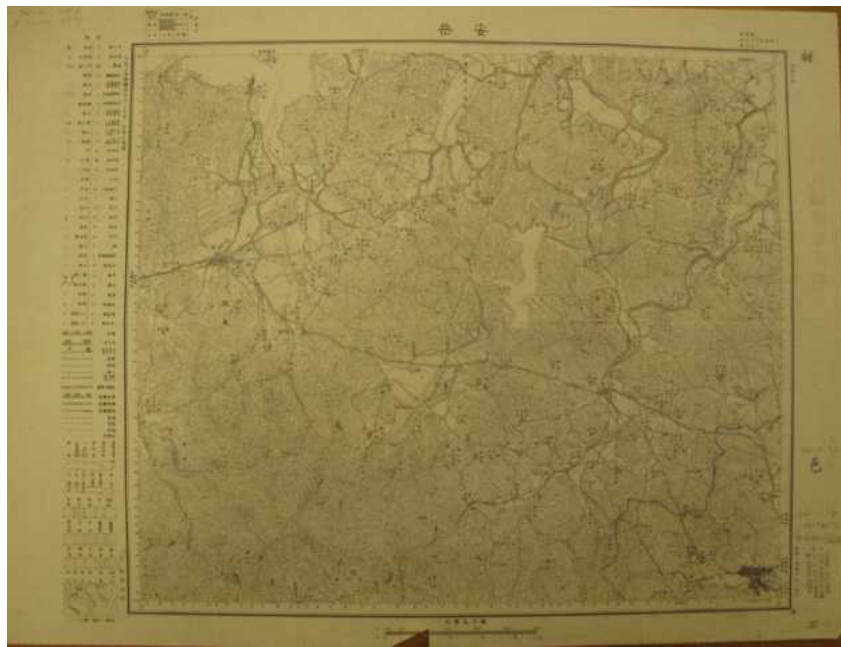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는 1색 흑색 단색으로 제작되고, 제3차지형도는 기본 2색(하천 담청색)으로 제작되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제3차지형도의 경우에는 흑색단색, 2색(하천 담청색), 3색(하천 담청색, 도로 갈등색), 채색지도(교통도)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다른 국내외 기관에서 볼 수 없는 청사진도 확인하였다. 각 채색별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흑색 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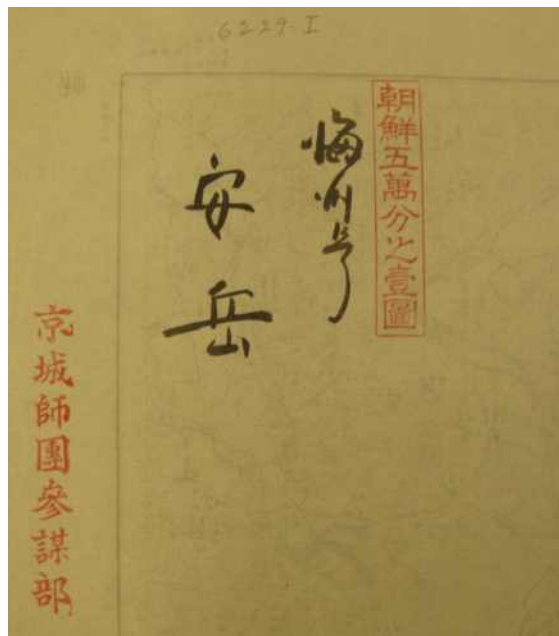
흑색 단색으로 인쇄된 도엽 중에 예를 들어 안악도엽(해주 9호)를 보면, 1918년에 축도하고 1937년에 1회수정축도 도엽이다.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는 흑색 단색으로 제작되었지만, 제3차지형도는 기본적으로 2색으로 채색하여 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 의해 발행된 지형도는 채색을 가미하여 제작되었지만, 그 외에 제작기관에서 발행한 지형도는 모두 흑색 단색으로 제작하여 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제1회수정축도된 도엽은 2색(하천 담청색)으로 제작되었는데, 제3차지형도의 안악도엽의 경우, 이 도엽은 흑색 단색으로 인쇄되었다(그림 77). 이는 참모본부(參謀本部)의 경우도 흑색 단색으로 제작하여 발행된 것이다.

안악도엽 뒷면의 내용을 보면, ‘京城師團參謀部’, ‘海州 安岳’, ‘朝鮮五萬分之壹圖’, ‘6229-I’의 인기가 있다. 이것으로 안악도엽은 ‘경성사단참모부’에서 ‘조선오만분지일도’로 분류하여 보관·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229-I’의 기록은 이후 AMS에서 부여한 도엽번호로 이 기관에서 보관·관리해 온 것임을 알 수 있고(그림 78), 군사용으로 보관·관리해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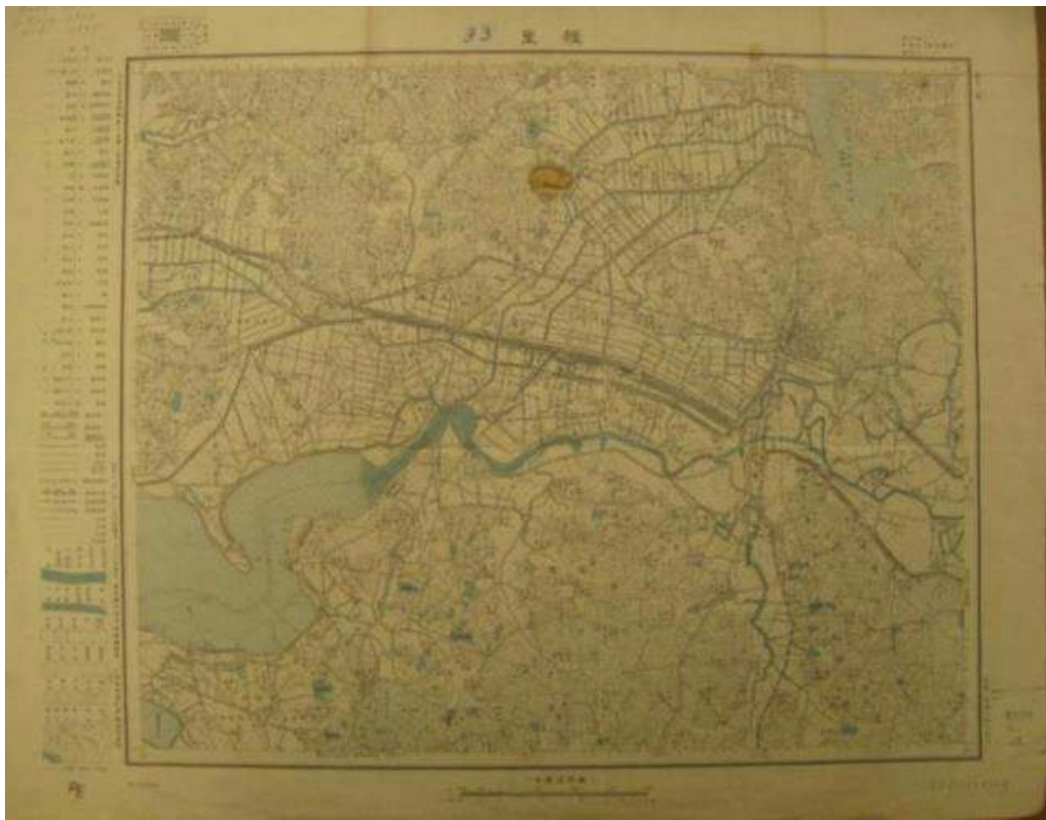
(그림 77) 채색 1색(흑색 단색), 안악도엽(해주 9호)



(그림 78) 안악도엽(해주 9호)의 뒷면

② 2색(하천 담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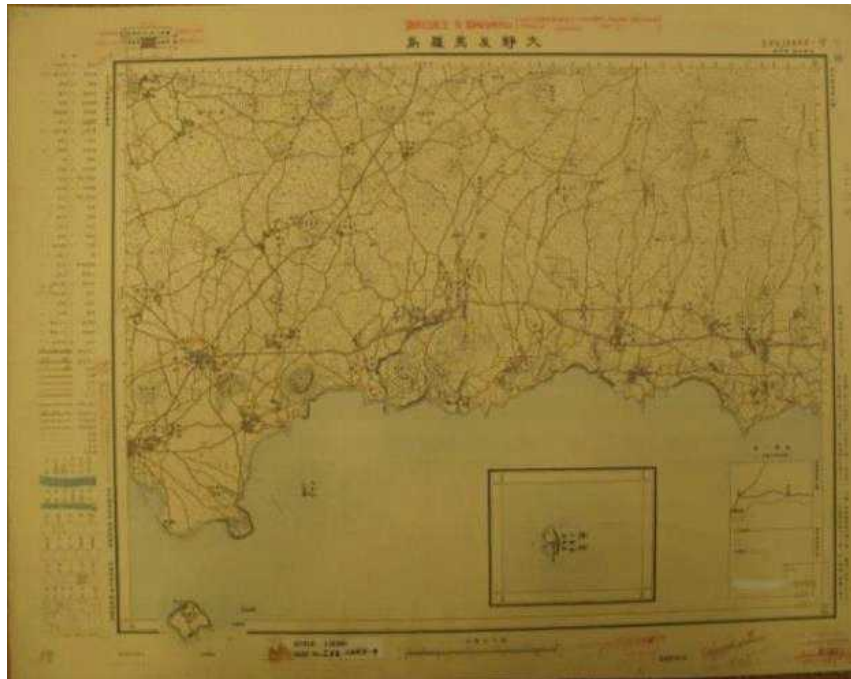
제3차지형도는 하천을 담청색으로 2색 채색지도가 기본이다. 도로의 색이 추가되면서 3색 도엽도 일부 제작되었지만, 2색(하천 담청색)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리도엽을 보면, 1916년에 측도하고 1934년에 제2회수정측도 도엽으로, 2색으로 인쇄되었다. 흑색 단색에서 2색으로의 변화는 수계(水系)와 관련한 하천, 수리조합저수지, 호수, 우각호 등을 담청색으로 표현되었다(그림 79).



(그림 79) 채색 2색(하천 담청색), 이리도엽(군산 1호)

③ 3색(하천 담청색, 도로 갈등색)

제3차지형도에 3색(하천 담청색, 도로 갈등색)으로 인쇄된 도엽 ‘대정급마라도’ 도엽은 1918년에 측도·제판된 도엽이다. 수계(水系)와 관련한 바다, 하천 등을 담청색으로, 일등도로, 이등도로, 달로(達路), 간로(間路), 소로(小路) 등은 갈등색으로 채색하여, 지리 정보를 표현하였다(그림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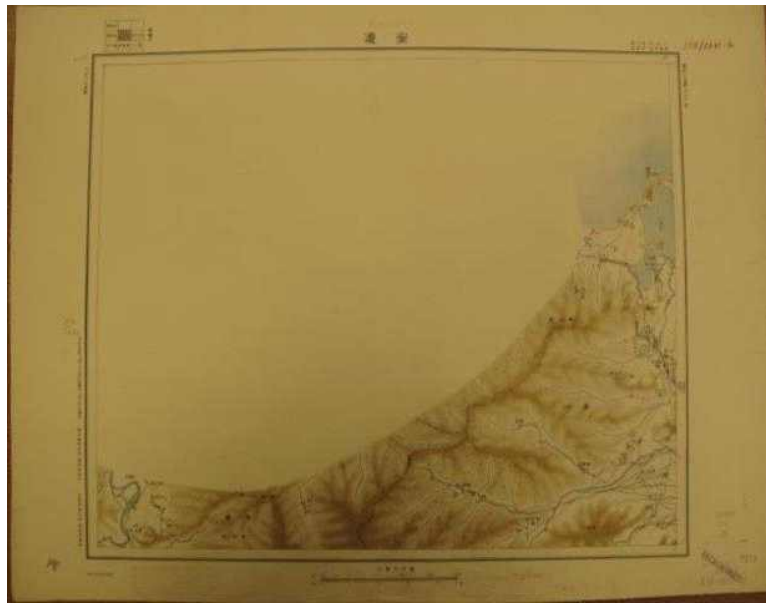
(그림 80) 채색 3색(도로 갈등색), 대정급마라도(제주도남부 9호)

④ 채색지도(조선교통도)

제3차지형도에는 조선교통도(朝鮮交通圖)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교통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지형도 중 오른쪽 난외주기에 ‘朝鮮交通圖’로 명명된 지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출판한 영인본에도 소개된 바 있으나, 흑백으로 인쇄된 영인본으로는 채색을 확인할 수 없다. 조선교통도의 채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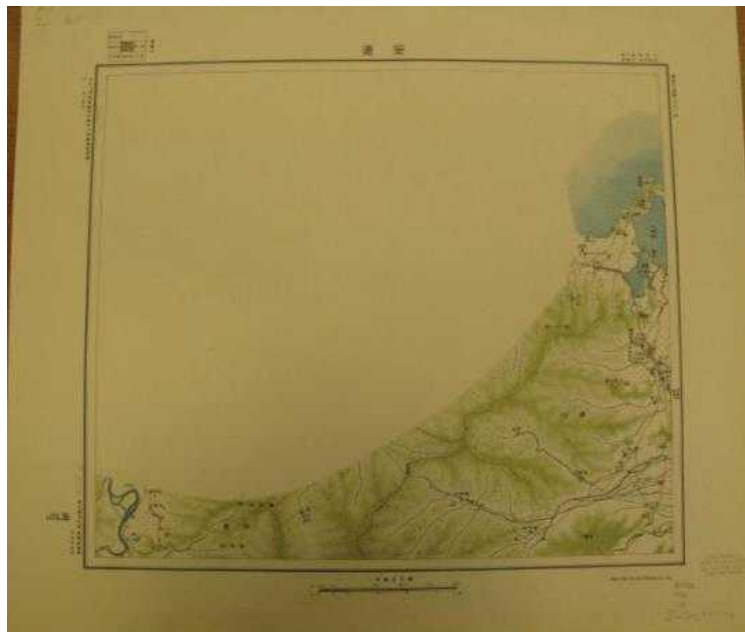
은 두 종류로, 산지 부분이 갈색 또는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산지부분을 갈색으로 채색한 안변도엽_01은, 1917년에 측도, 1926년 8월 25일 인쇄, 30일에 발행되었다. ‘著作權所有者 朝鮮總督府 印刷兼發行者 陸地測量部’로 저작권소유자는 조선총독부, 인쇄 및 발행자는 육지측량부임을 알 수 있다. 정가는 ‘定價金貳拾貳錢’으로 22전이고, 수계(水系)와 관련한 바다와 하천 등은 담청색으로, 산지부분은 갈색으로 채색되어 있다(그림 81).



(그림 81) 채색지도(갈색), 안변도엽(원산 6호)_01

안변도엽_02는 안변도엽_01와 동일한 지역으로 산지부분이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다(그림 82). 1917년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측도하고 1925년에 제판된 도엽으로. 저작권소유자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이다. 안변도엽_01와는 동일한 지역이지만, 정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변도엽_02은 판매용이 아닌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제작·보관·관리·활용한 도엽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2) 채색지도(녹색), 안변도엽(원산 6호)_02

⑤ 청사진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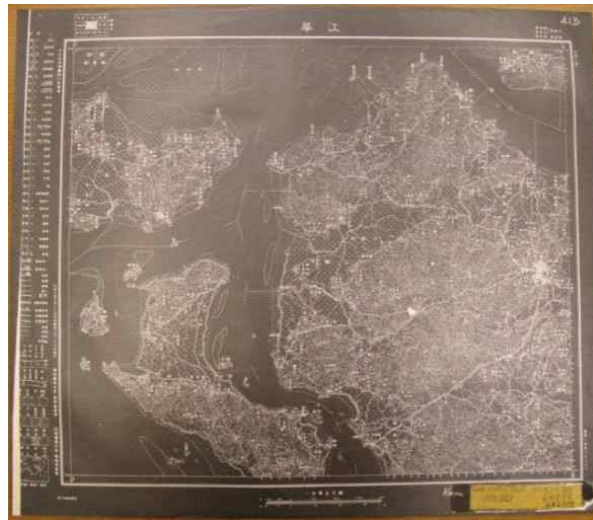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 청사진 도엽으로, 제3차지형도에서 총 129도엽이 있다<표 79>.

<표 79> 제3차지형도 청사진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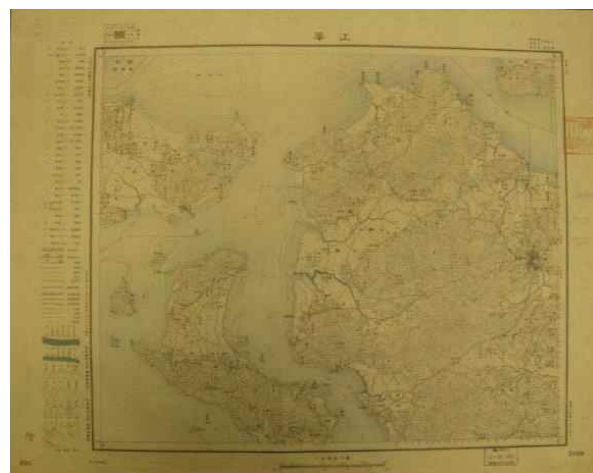
소속도엽명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간성	9	신막	15	장산곶	2
강릉	5	안주	4	장전	3
경성	3	영덕	1	철원	15
곡산	13	영월	15	춘천	4
백령도	4	응진	7	평양	3
선천	2	원산	11	해주	13
		합			129

제3차지형도에 청사진으로 인쇄된 도엽 중에, 예를 들어 강화도엽(경성 10호)은 1916년에 측도, 1919년 2월 25일 인쇄, 28일에 발행하였다. 저작권소

유자는 조선총독부, 인쇄 및 발행자는 육지측량부이다. ‘定價金拾八錢’으로 정가가 18전이다(그림 83). 청사진의 내용과 동일한 도엽과 함께 비교해 보면, 강화도엽(경성 10호)이고, 2색(하천 담청색)이다(그림 84). 청사진본이 남아 있는 강화도엽은 2색으로 제작된 제3차지형도와 비교해 본 결과, 지리정보를 포함 난외주기 정보까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3) 청사진, 강화도엽(경성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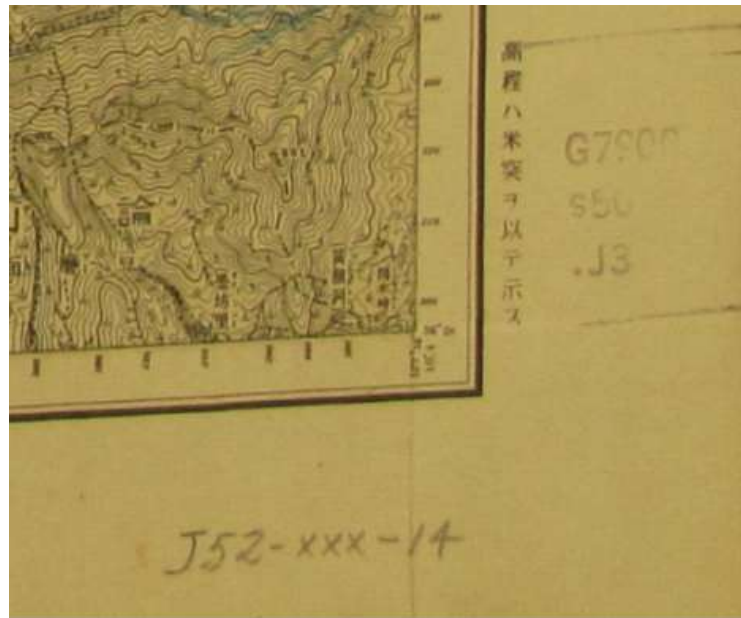
(그림 84) 2색, 강화도엽(경성 10호)

3) 제3차지형도의 직인 · 인기 · 이관정보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제3차지형도의 공주도엽을 선택하여 한국 근대 지형도의 직인, 인기, 이관정보 등을 파악하였다. 공주도엽은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 도엽으로, 네 종류의 도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도의 사용용도, 지도의 소장기관의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 제3차지형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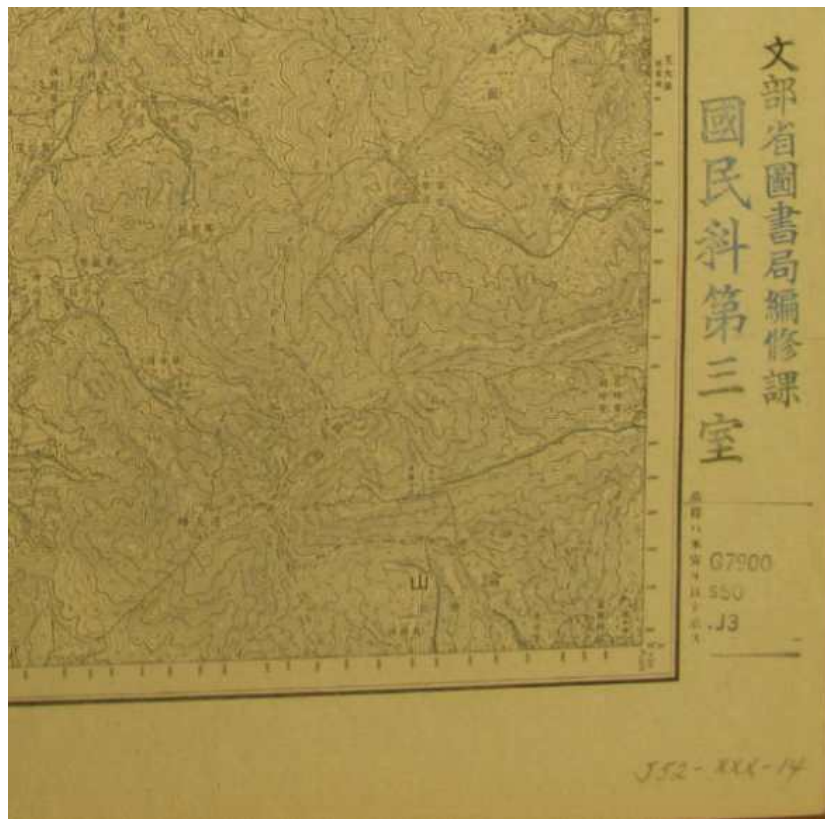
공주도엽은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부여한 지도 분류번호 'G7900s50J3'와 지도번호 'J52-X X X-14'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85).



(그림 85)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인기

(2)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의 내용

제1회수정측도 공주도엽은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번호 'G7900s50J3', 'J52-XXX-14'이고, 담청색으로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삼실(文部省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¹¹³⁾의 인기가 있다. 이 인기를 통해 지형도가 일본 문부성 도서관에서 보관·관리되어 오다가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유입된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그림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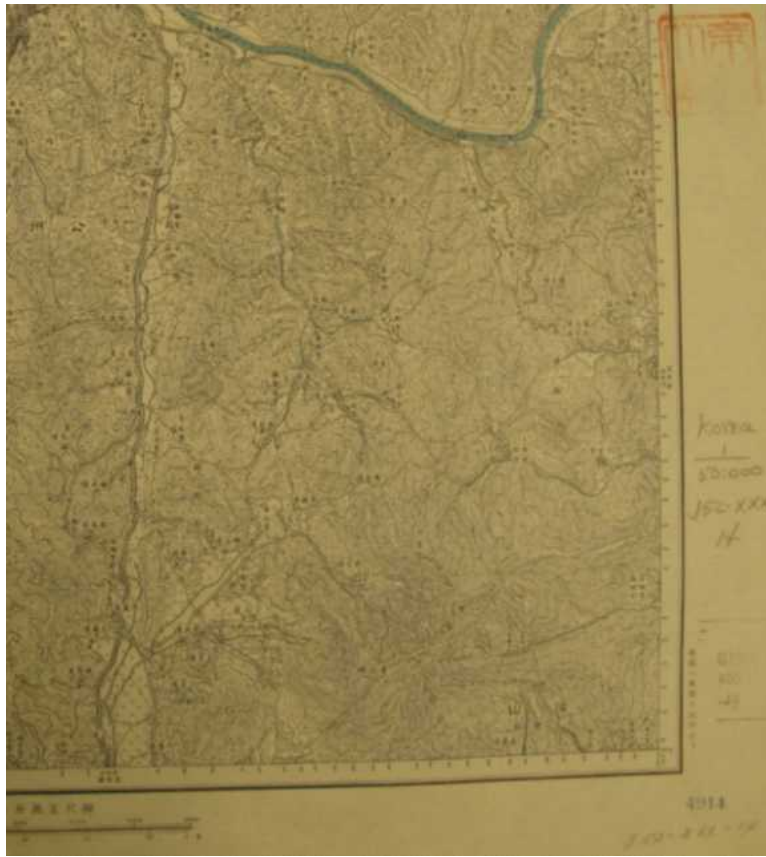


(그림 86) 제1회수정측도 공주도엽 직인·인기·이관정보

113) 일본 문부성, 교육(教育), 학예(學藝), 종교(宗教) 등(等)을 다루는 관청(官廳)으로 1871년 9월 2일 설치하였다. 1956년에는 과학기술청이 설치되었는데, 2001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설치하였다.

(3)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의 내용

제2회수정측도 공주도엽는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번호 ‘G7900s50J3’, ‘J52-XXX-14’이고, ‘경성제국(京城帝國)¹¹⁴⁾’ 직인이 찍혀져 있다. 이 직인은 지형도가 경성제국대학에서 보관·관리되어 오다가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유입된 것을 짐작 할 수 있게 한다(그림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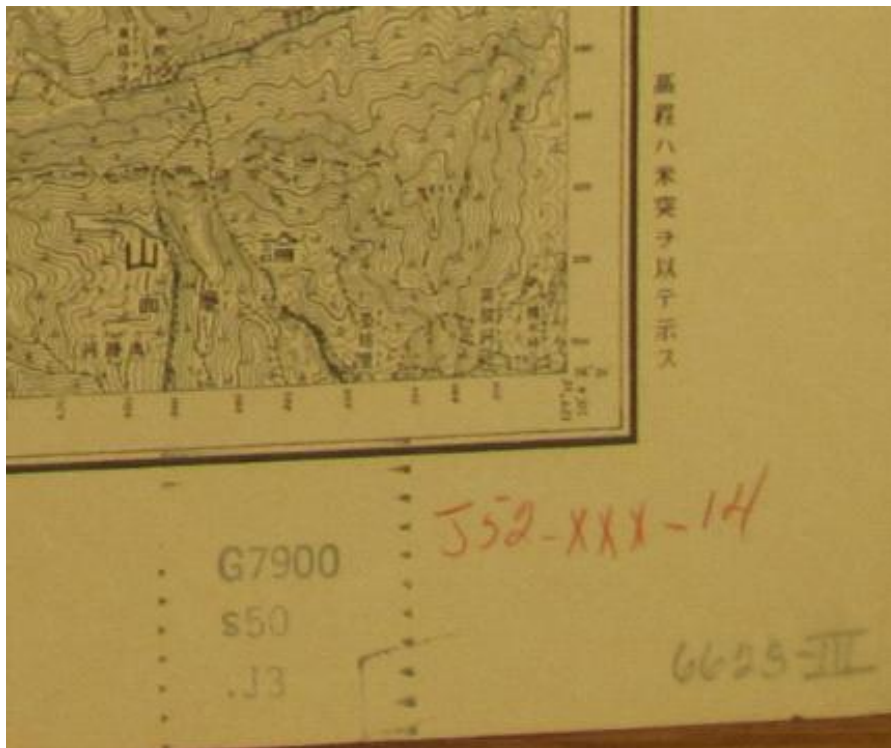


(그림 87) 제2회수정측도 공주도엽 직인·인기·이관정보

114) 경성제국대학은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대학으로 1923년에 설립하여 1946년에 해체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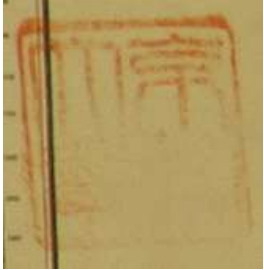
(4)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의 내용

제3회수정측도 공주도엽은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번호 'G7900s50J3', 'J52-XXX-14'이고, AMS에서 부여한 도엽번호 '6623-III'의 인기를 볼 때, 이 도엽은 AMS에서 보관·관리하여, 이후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8).



(그림 88) 제3회수정측도 공주도엽 직인·인기·이관정보

<표 80>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직인·인기

	일본 문부성도서국	경성제국대학	AMS 도엽번호
직인 인기 내용			

제3차지형도 공주도엽의 네 도엽은, ‘文部省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 ‘京城帝國’, ‘6623-III’의 직인, 인기가 있다<표 80>. 이를 통해 일본에서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관·관리 되어 오다가 미국의 회도서관으로 유입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이동경로는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고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유입 시기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다양하다. 한국 근대지형도에 찍힌 인기를 통해 확인된 기관은 <표 81>과 같다. 그 결과 한국 근대지형도가 1930년대 처음으로 미국으로 유입되었으며, 1947년부터 1967년까지 여덟 번에 걸쳐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1> 이관 기관과 내용

	이관정보	도엽
1	GEOGRAPHY & MAP DIVISION LISRARY OF CONGRESS	10
2	AUG-8 1932	3
3	MAY 11 1936	3
4	LIBRARY OF CONGRESS TRANSFER 90 JAN 15 1947 DIVISION OF MAPS	68
5	LIBRARY OF CONGRESS TRANSFER 90 DEC 3 1952 DIVISION OF MAPS	18
6	LIBRARY OF CONGRESS TRANSFER JUL 31 1951 DIVISION OF MAPS	6
7	Map Division 26 JUL 1956 Library of Congress	7
8	Map Division 3-JUN 1959 Library of Congress	18
9	Map Division 3-JUN 1960 Library of Congress	1
10	Map Division AUG--1961 Library of Congress	19
11	Map Division 3-MAR 1967 Library of Congress	49
12	WAR DEPARTMENT SEP 1 '16 7798 OFFICE CHIEF OF STAFF WAR COLLEGE DIVISION	168

4. 한국 근대지형도의 철도보입(鐵道補入)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지형도는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이다. 이 중에 측도·제판·수정측도에 철도보입이 함께 명시된 도엽이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지형도에서 철도보입을 명시한 도엽은 중북 도엽을 제외하고 모두 23도엽이다. 소속도엽별로 <표 82>와 같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충주에 속한 도엽이 8도엽(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이천, 진천, 천안, 평택)으로 가장 많고, 해주, 대구, 순천, 전주 등에 속한 도엽이 이에 해당한다.

<표 82> 철도보입 소속도엽과 도엽

소속도엽명	도엽	해당도엽명
대구	3	밀양, 영천, 유천
순천	4	괴목리, 구례, 순천, 유둔리
전주	2	임실, 진안
충주	8	수원, 안성, 여주, 오근장, 이천, 진천, 천안, 평택
해주	6	공세리, 사리원, 신원, 장연, 재령, 황주
합	23	

철도보입 지형도는 기존 도엽에 철도노선 정보를 추가하면서 제작한 지형도이다. 제3차지형도의 경우,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 됨에 따라 하천(저수지), 해안선(간석지), 교통로(철도와 도로)의 경관 변화를 볼 수 있다. 철도는 교통로의 변화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철도보입이 명시된 도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달된 철도노선은 <표 83>과 같고, 철도보입 도엽의 측도, 제판, 수정측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84>.

<표 83> 일제강점기 사설철도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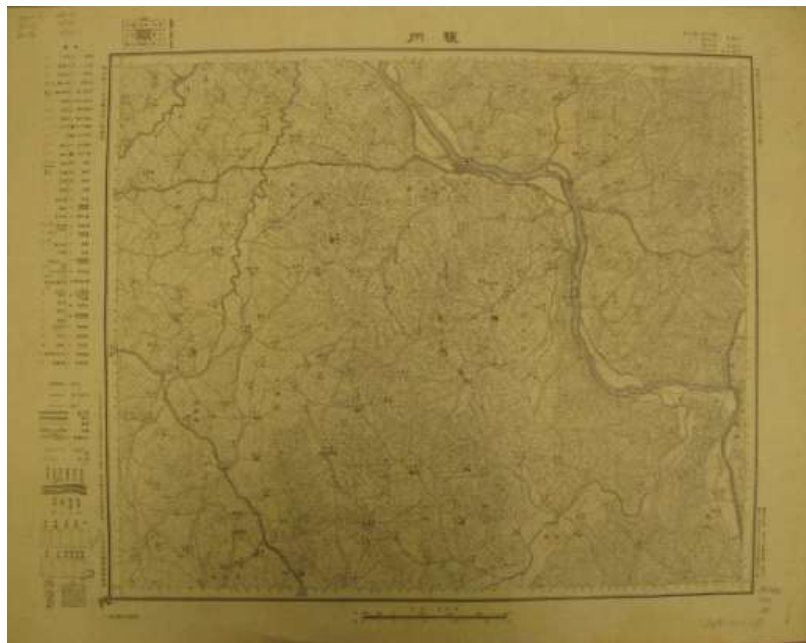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구간	길이km	영업기간	특이사항
전북철도	이리-전주	24.8	1914-1927	전주 동산농장이 주동
개천철도	신안주-천동	36.6	1916-1933	광산회사의 직영
조선중앙철도	대구-포항 경주-울산	147.4	1917-1928	경주지역 관광수송도 도모
조선철도 황해선	토성-사리원/ 웅진/장연	278.5	1919-1944	재령평야와 해주항 일대 교통 확충
조선철도 충북선	조치원-충주	93.4	1921-1946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연결
남조선철도	송정리-담양 마산-진주	105.9	1922-1931	호남-영남 종관철도를 계획
도문철도	회령-동관진	57.9	1920-1929	만주 간도지방과의 국경 연락
조선 경남철도	장호원-천안-장항	214.0	1922-1946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및 항구를 연결
신흥철도	서호리-함흥-사수-부전호	16.5	1923-1945	부전산맥 수력 전력개발
금강산 전기철도	철원-내금강	116.6	1924-1945	수력발전사업의 부업으로서 전철로 등산객 수송
조선철도 경북선	김천-경북안동	118.1	1924-1940	점촌-안동 1944 철거
조선철도 함북선	고무산-무산	60.0	1927-1944	임업자원 및 철광석 개발
조선 경동철도	여주-수원-인천항	125.4	1930-1946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및 인천항 연결
조선 평안철도	진남포-용강온천	35.7	1938-1945	광량만 소금수송
서선중앙철도	승호리-성천-북창	108.9	1939-1945	평양 탄광 개발
다사도철도	신의주-남시/ 다사도	58.0	1939-1945	부동항인 다사도와 연결
평안철도	정주-수풍	115.1	1939-1945	압록강댐 건설 및 만주 연결
단풍철도	단천-홍군	80.3	1939-1945	장진강 수력 전력개발
경춘철도	성동-춘천	93.5	1939-1946	강원도청 소재 춘천과 연결
삼척철도	묵호-도계	41.4	1940-1946	삼척 탄광개발
조선마그네사이트	여해진-용양	59.7	1943-1945	함경북도 자원 개발

출처: 도도로키 히로시, 2001, "수력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48,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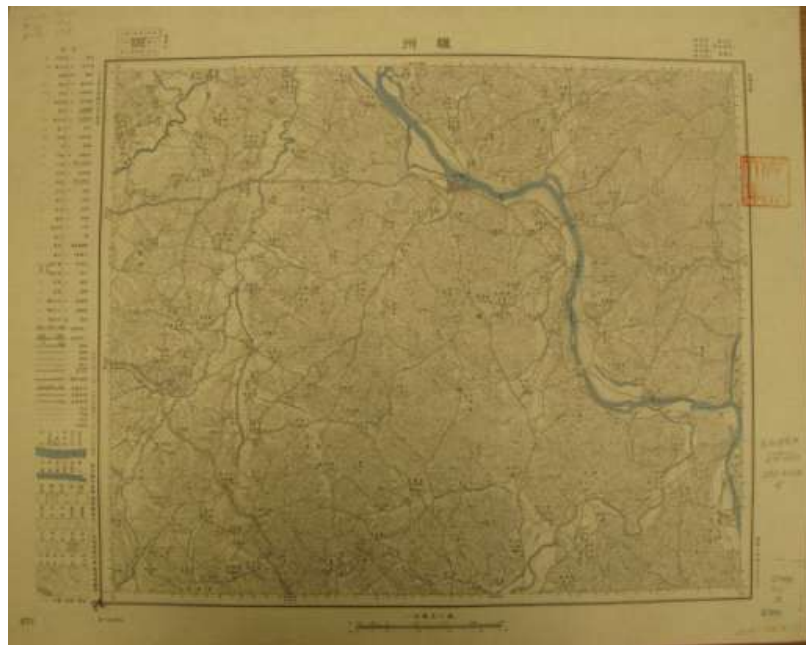
<표 84> 철도보입 도엽의 측도.수정측도.제판

도엽명	소속도엽	측도	수정측도	제판	EDISION
영천	대구_01	1915년	1937년(제2회)		제2회수정측도
유천	대구_03	1914년	1937년(제2회)		제2회수정측도
밀양	대구_04	1914년	1937년(제2회)		제2회수정측도
구례	순천_09	1917년	1934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괴목리	순천_10	1917년	1934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순천	순천_11	1915년	1931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유둔리	순천_12	1915년	1931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진안	전주_10	1917년		1932년	제3차지형도
임실	전주_11	1917년		1932년	제3차지형도
여주	충주_05	1915년		1918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이천	충주_09	1915년		1918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안성	충주_10	1915년		1916년	제3차지형도
진천	충주_11	1914년	1937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오근장	충주_12	1914년		1916년	제3차지형도
수원	충주_13	1914년	1919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평택	충주_15	1914년	1919년(제1회)		제1회수정측도
천안	충주_16	1914년	1925년(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황주	해주_01	1918년		1924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사리원	해주_05	1918년		1924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재령	해주_06	1918년		1924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신원	해주_07	1918년		1924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공세리	해주_11	1918년		1930년 철도보입	제3차지형도
장연	해주_15	1918년	1930년(제1회) 1937년 철도보입	-	제1회수정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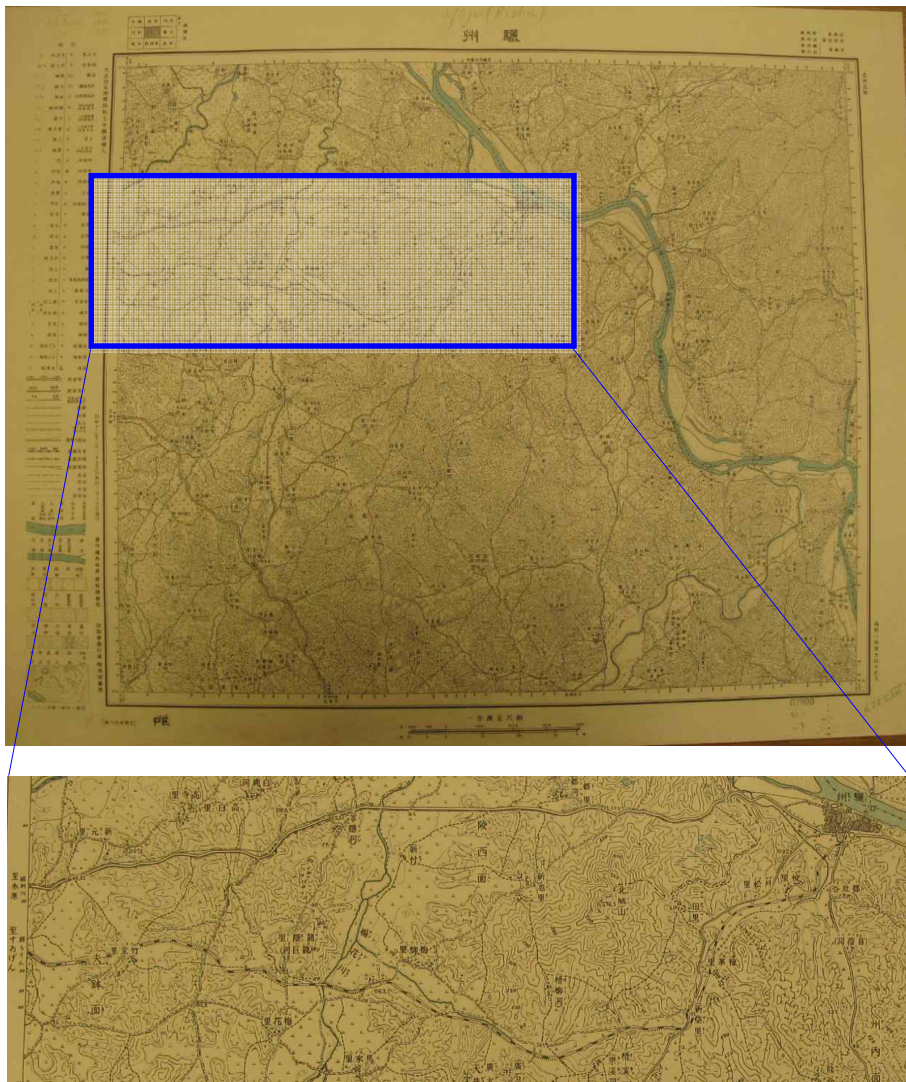
여주도엽(충주 5호)의 경우, 1910년 측도, 1915년 측도, 1932년 측도되어 제작되었다. 마지막에 제작된 1932년 지형도에 철도가 보입(補入)되면서 수정측도 하여 제작되었다(그림 89, 90, 91). 여주도엽에 철도는 조선 경동철도로 여주와 수원, 인천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930~1946년 사이에 건설된 것이다<표 84>. 여주 지역에 철도 건설 전과 후에 변화된 지역 모습을 도엽에서 볼 수 있다.



(그림 89) 여주도엽(총주 5호), 1910년 측도



(그림 90) 여주도엽(총주 5호), 1915년 측도



(그림 91) 여주도엽(총주 5호), 1915년 측도 1932년 철도보입

5. 한국 근대지형도의 판권(板權)과 활용

1) 저작권소유 및 인쇄·발행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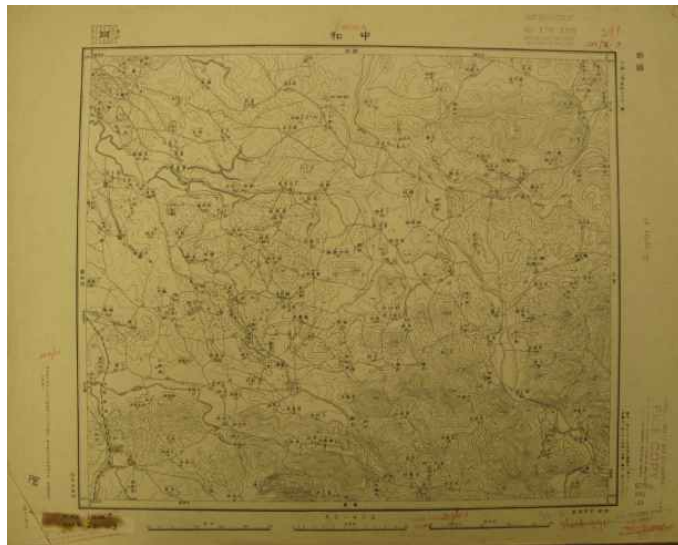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1:50,000지형도, 1,864도엽을 저작권소유 및 인쇄·발행자로 분류하면 <표 85>와 같다. 지도제작 기관의 조직이 개편·개칭된 경우, 지형도에 수정되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5> 저작권소유자 인쇄·발행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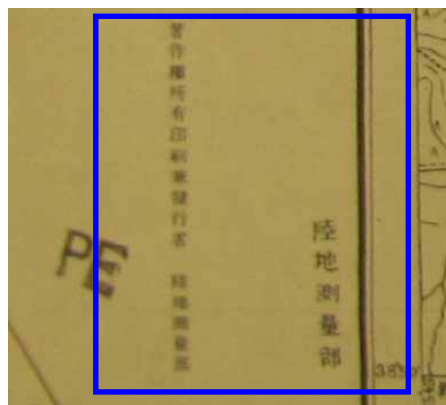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발행자	도엽
1	陸地測量部	70
2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266
3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194
4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1
5	參謀本部	249
6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陸地測量部 參謀本部	36
7	陸地測量部 參謀本部	16
8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參謀本部	5
9	陸地測量部(測圖) 關東軍司令部(製版) 參謀本部	9
10	內務局土木課	5
11	司政局土木課	2
12	저작권소유자 인쇄·발행자 기록없음	1
	합	1,864

(1)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

‘육지측량부’에 해당하는 도엽은 70도엽으로, 모두 제1차지형도 해당한다. 한일병합 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기 전으로, 일본군 소속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것이다. 채색은 흑색 단색으로 대부분의 도엽에 측도년도와 제판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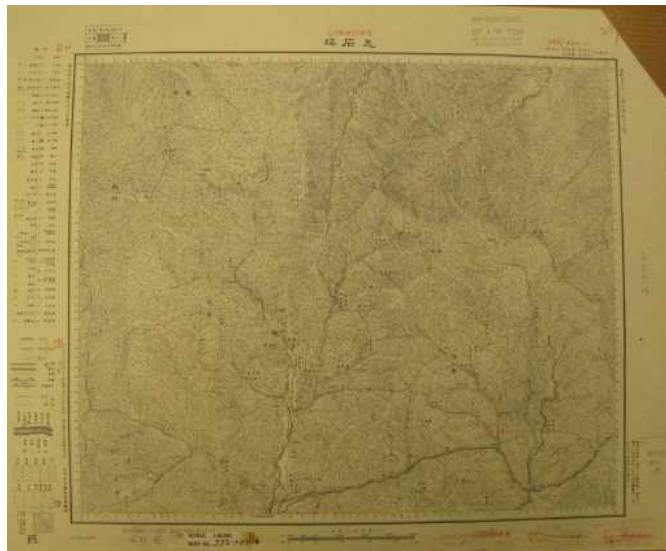
(그림 92) 중화도엽(평양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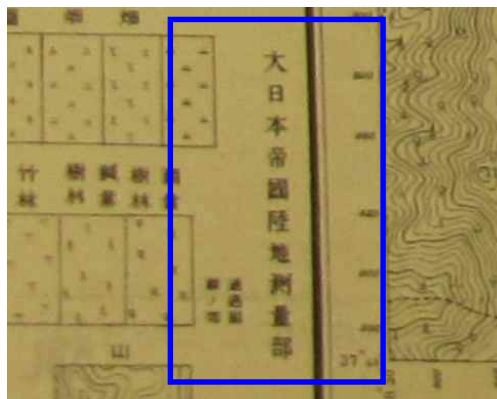
(그림 93)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

(2)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대일본제국육지측량’에 해당하는 도엽은 266도엽으로, 제2차지형도 해당한다. 제2차지형도 역시, 측량 시점이 한일병합 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저작권소유자가 일본군 소속 육지측량부로 되어 있다. 채색은 흑색 단색이고, 제3차지형도를 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지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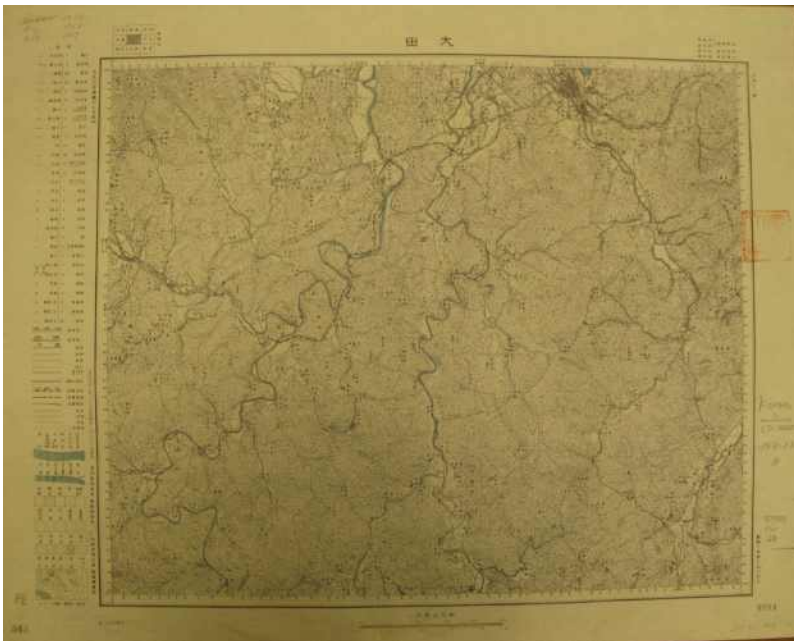
(그림 94) 구석평(강릉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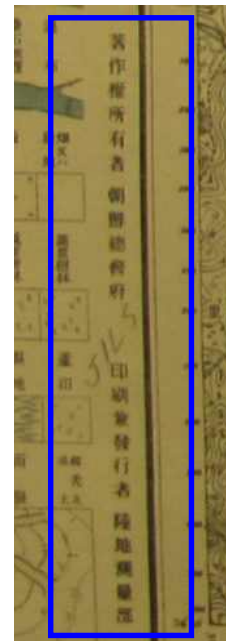
(그림 95)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3)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 해당하는 도엽은 1,194도엽으로 가장 많은 도엽이 있다.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에 해당하는 도엽으로, 한일병합 이후 측도·제작된 지도이다. 채색은 2색 혹은 3색으로 되어 있고, 제1·2차지형도 제작 이후 만들어진 지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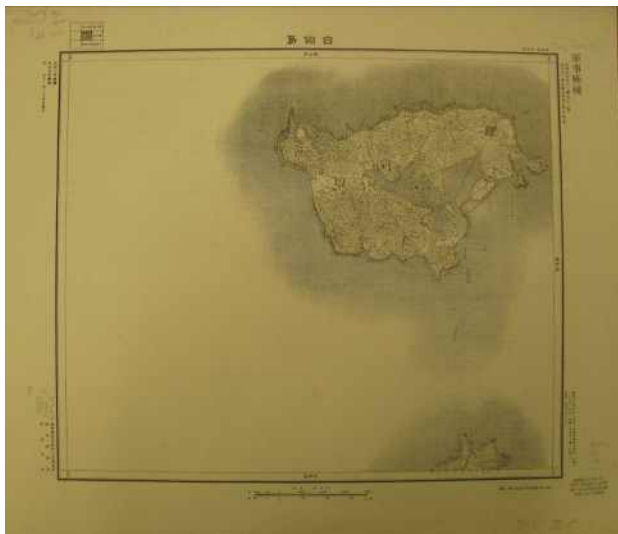
(그림 96) 대전도엽(대전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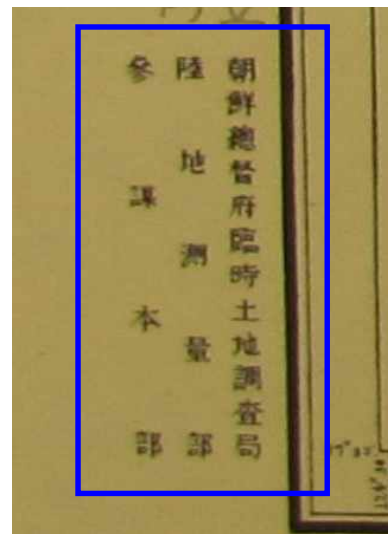
(그림 97)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4)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 해당하는 도엽은 11도엽으로 제3차지형도에 해당된다. 1917~1918년 측도, 1920~1921년 제판·발행된 도엽이다. 해당 도엽은 백령도도엽(마합도,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 용진도엽(용매도, 강령, 부포), 원산도엽(패천리)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한 곳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엽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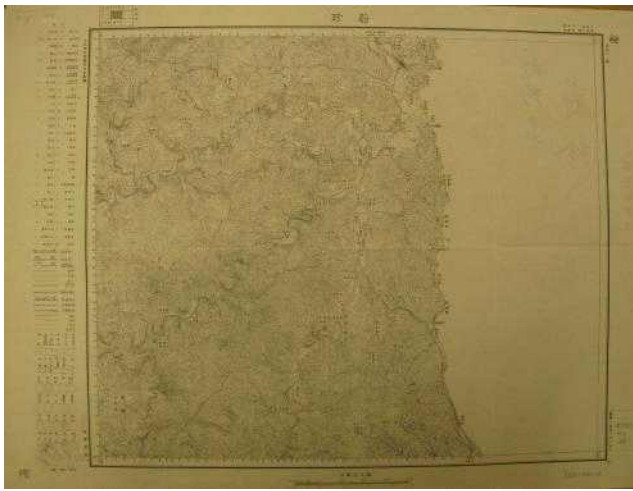
(그림 98) 백령도도엽(백령도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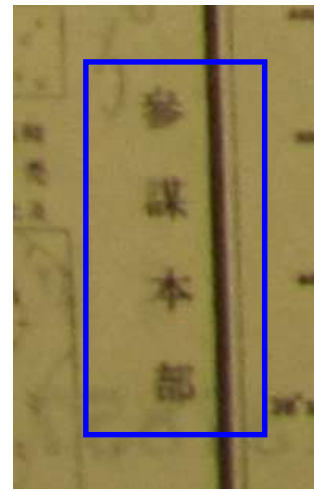
(그림 99)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5) 참모본부(參謀本部)

‘참모본부’에서 제작·발행한 도엽은 249도엽으로,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된 도엽이 이에 해당한다. 제3차지형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색이 2색으로 되어 있지만, ‘참모본부’에서 제작한 제3차지형도에 해당하는 도엽은 흑색 단색을 채색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00) 울진도엽(울진 11호)



(그림 101) 참모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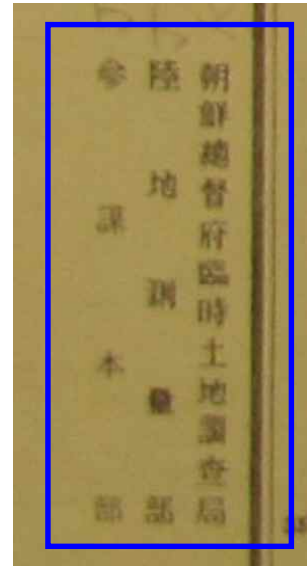
(6)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陸地測量部 參謀本部)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육지측량부 참모본부’에서 발행한 지도는 36도엽으로, 경성소속도엽(인천, 용유도), 고흥소속도엽(죽포리, 돌산, 외라노도동부), 마산소속도엽(김해, 가덕도, 동두말, 마산, 거제도, 구조라, 선녕, 진동, 미륵도, 사천, 삼천포, 미조리), 목포소속도엽(자은도, 기좌도), 부산소속도엽(월내리, 동래, 부산), 순천소속도엽(진교, 남해, 상주리, 광양, 여수), 원산소속도엽(호도반도, 안변, 원산북부, 원산남부, 두류산, 마전리), 진도소속도엽(하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덕도’, ‘동두말’, ‘부산’, ‘호도반도’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한 도엽이다. 채색은 흑색 단색으로 되어 있다.



(그림 102) 부산도엽(부산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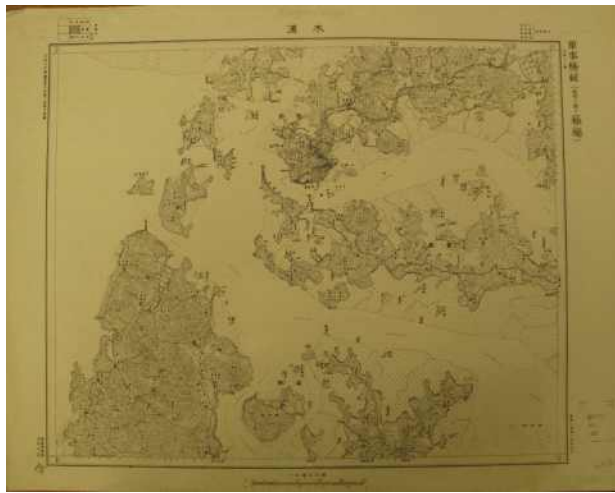


(그림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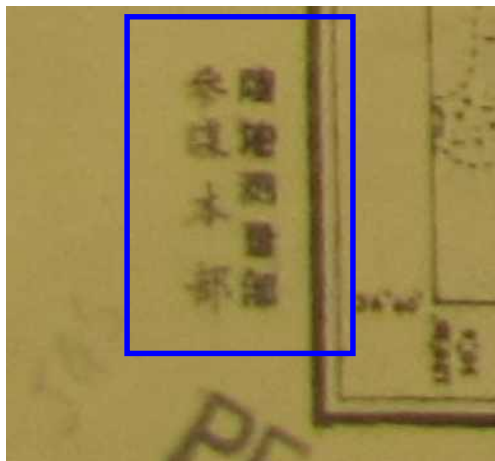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
국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7) 육지측량부 참모본부(陸地測量部 參謀本部)

‘육지측량부 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도엽은 16도엽으로, 제주도남부소속도엽(표선, 서귀포, 대정급마라도, 모슬포), 제주도북부소속도엽(김녕, 성산포, 제주, 한라산, 한림), 경주소속도엽(장생포), 목포소속도엽(목포)이 해당한다. 제3차지형도에 해당하지만, 흑색 단색으로 채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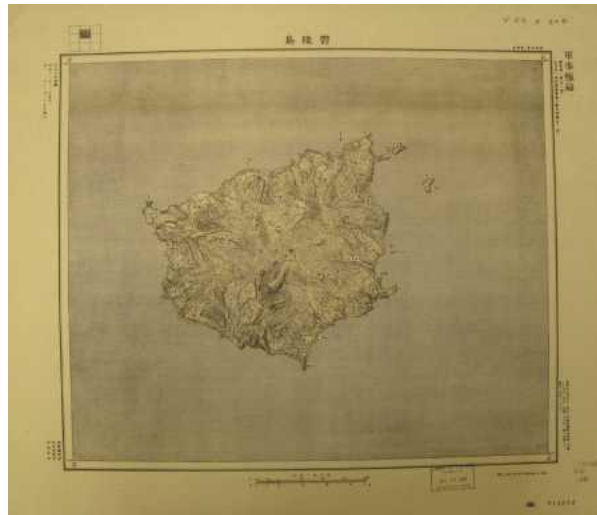
(그림 104) 목포도엽(목포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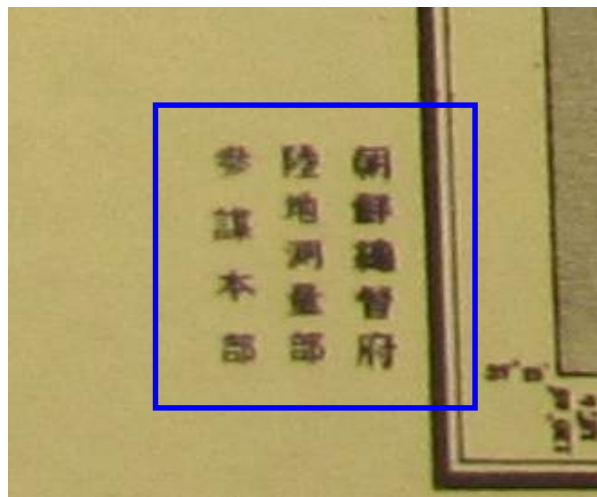
(그림 105)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8)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참모본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參謀本部)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참모본부’인 도엽은 총 5도엽이다. 울릉도소속도엽 3도엽(울릉도 3장), 경주소속도엽 2도엽(장생포, 양산)이다. 제3차지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색은 흑색 단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림 106) 울릉도도엽(울릉도 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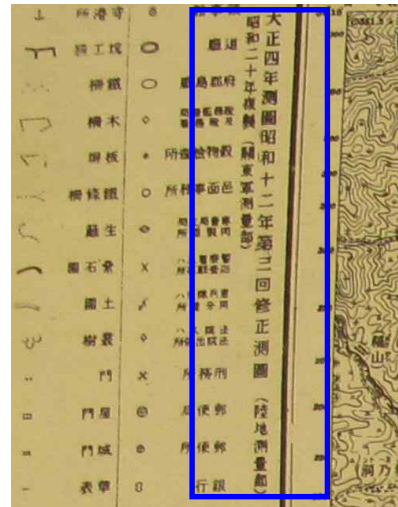
(그림 107)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9) 육지측량부(측도) 관동군사령부(제판) 참모본부
 (陸地測量部(測圖) 關東軍司令部(製版) 參謀本部)

‘육지측량부(측도) 관동군사령부(제판) 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도엽은 9도엽으로, 1914~1915년 측도, 1920·1937·1939년 수정측도(제1·2·3회)되었다. 대구소속도엽 1도엽(영천), 상주소속도엽 7도엽(안동, 의성, 효령, 예천, 인동, 상주, 김천), 영덕소속도엽 1도엽(영양)이 제작되었다. 채색은 흑색 단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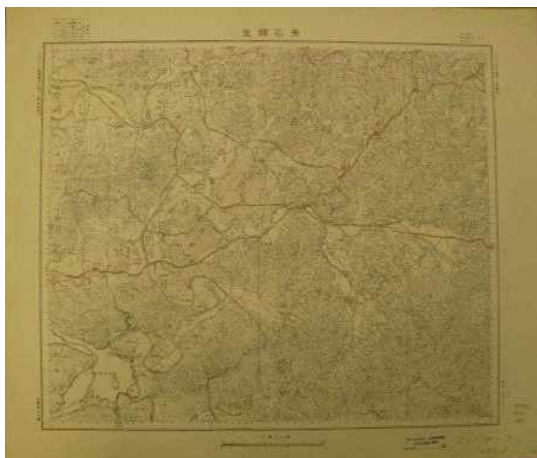
(그림 108) 김천도엽(상주 16호)



(그림 109) 관동군사령부

(10) 내무국토목과(內務局土木課)

‘내무국토목과’에 해당하는 도엽은 5도엽으로, 제3차지형도에 해당한다. 해주소속도엽에 해당되는 ‘청석두리’, ‘신주막’, ‘재령’, ‘신원’, ‘신천’ 도엽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형도는 1918년 측도, 1930년 수정측도(제1회) 되었고, 인쇄·발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현재 파악된 결과로는 제1회수정측도 이후에 제작된 지형도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지도의 경우, 제1회수정측도 도엽 위에 상이한 지리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적색 판이 더해져 인쇄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제1회수정측도 이후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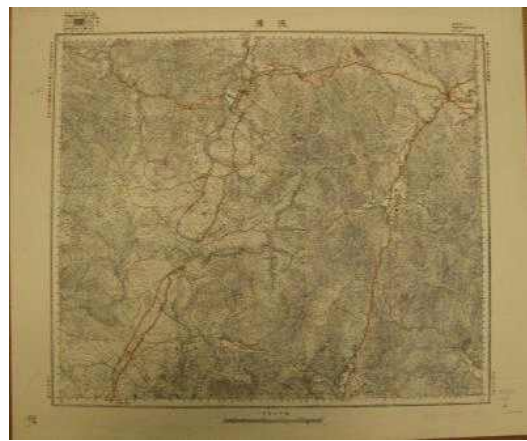
(그림 110) 청석두리도엽(해주 3호, 1930년 수정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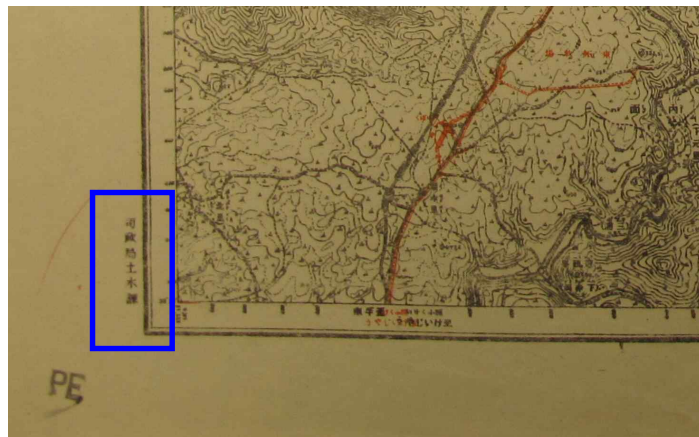
(그림 111) 내무국토목과와 수정흔적

(11) 사령국토목과(司寧局土木課)

‘사령국토목과’에 해당하는 도엽은 2도엽으로, 제3차지형도에 해당되고, 도엽은 ‘의정부’·‘세포’ 도엽이 이에 해당한다. 두 지역의 도엽에서 수정된 지명 정보와 경계가 적색 판으로 인쇄되어 있다. 내무국이 1941년 11월 사령국으로 개칭되면서 지형도에 반영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¹¹⁵⁾.



(그림 112) 의정부(춘천 14호, 1941년 수정측도) (그림 113) 세포(철원 9호, 1941년 수정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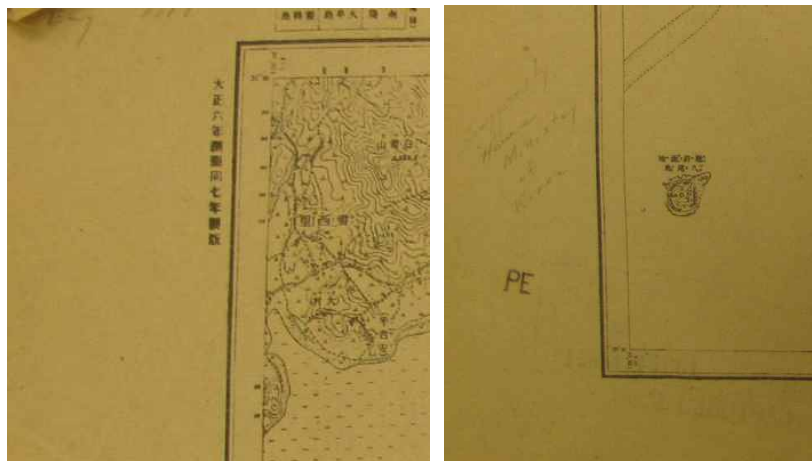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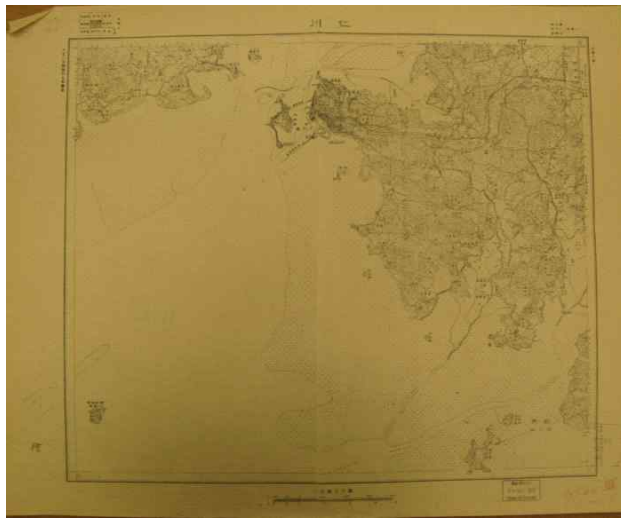


(그림 114) 사령국토목과와 수정흔적

115) 일본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https://www.jacar.go.jp/>

(12)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발행자 미기록

저작권소유자 및 인쇄·발행자 미기록 도엽은 1도엽으로, ‘인천’ 도엽(경성 8호)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 도엽은 1917년 측도되고 1918년 제판되었는데, 지형도 난외주기에 인쇄·발행년월일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범례의 기호, 발행자 및 저작권소유자의 기록도 없다.



(그림 115) 저작권소유·인쇄발행자 미기록, 인천도엽(경성 8호)

2) 이관 소장처별 분류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1:50,000지형도, 1,864도엽의 소장처는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 이는 지형도에 찍힌 직인·인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형도를 소장했던 기관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64도엽 가운데 이관 소장처가 기입되어 있는 도엽은 465도엽이다.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文部城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에 해당하는 도엽은 91도엽,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에 해당하는 도엽은 180도엽, ‘경성사단참모부(京城師團參謀部)’에 해당하는 도엽은 19도엽, ‘AMS’에 해당하는 도엽이 176도엽이 있다<표 86>.

<표 86> 소장처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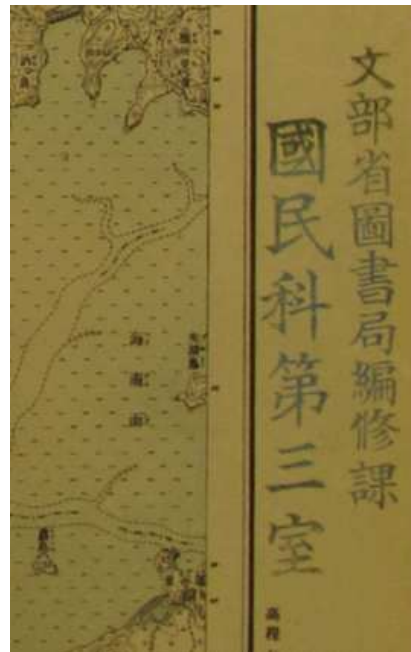
	소장처	도엽
1	文部城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	91
2	京城帝國大學	180
3	京城師團參謀部	19
4	AMS(Army Map Service)	176
	합	466

(1)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文部城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에 해당하는 도엽은 91도엽으로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의 일부가 해당한다. 간성, 경성, 공주, 대구, 목포, 안주, 영원, 철원, 춘천, 평양 등 다양한 지역의 도엽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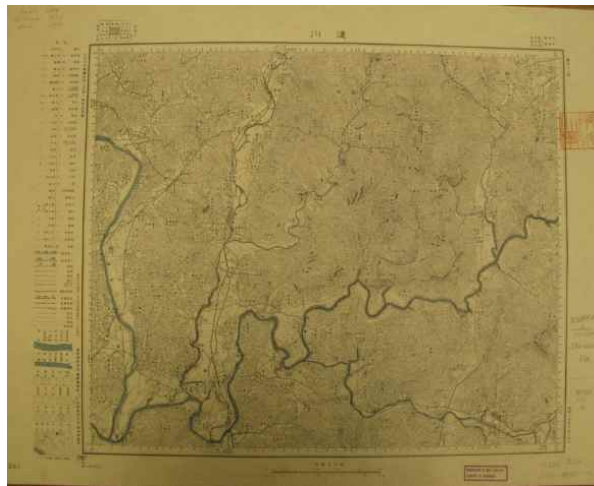
(그림 116) 우수영도엽(진도 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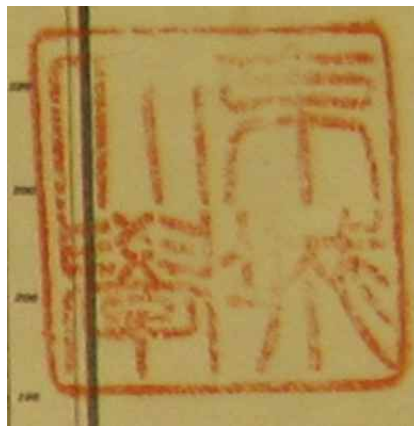
(그림 117)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

(2)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경성제국대학’에 해당하는 도엽은 180도엽으로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의 일부가 해당한다. 간성, 강릉, 경성, 경주, 공주, 군산, 대구, 목포, 상주, 선천, 순천, 신막, 안주, 영덕, 영주, 전주, 진도, 철원, 춘천, 충주, 평양, 해주 지역에 속한 도엽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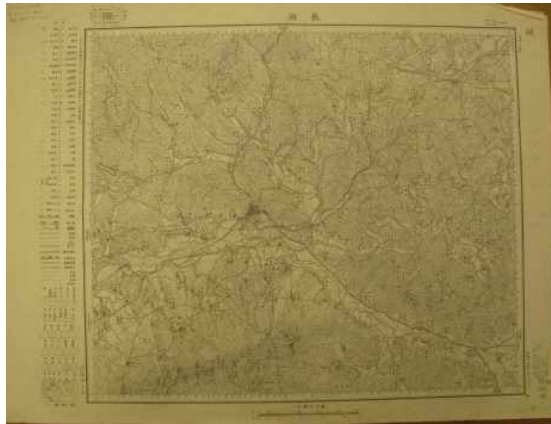
(그림 118) 연천도엽(철원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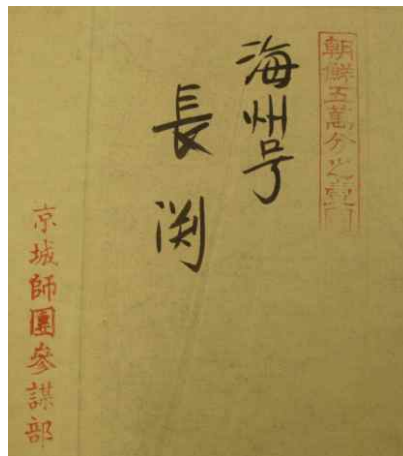
(그림 119) 경성제국대학 직인

(3) 京城師團參謀部

‘경성사단참모부’에 해당하는 도엽은 19도엽으로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해당 지역으로는 군산(1도엽), 대구(1도엽), 목포(5도엽), 순천(3도엽), 전주(3도엽), 진도(4도엽), 철원(1도엽), 해주(1도엽)이 여기에 해당하는 도엽이다. 이중 전주에 속한 도엽 중에 진안, 임실도엽은 철도보입 지형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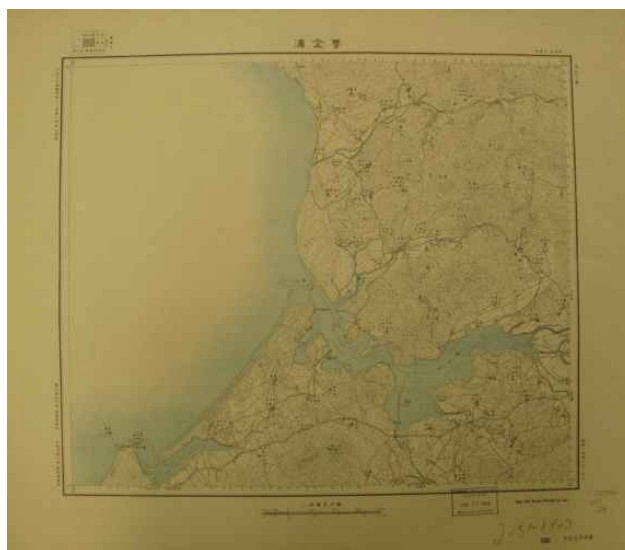
(그림 120) 장연도엽(해주 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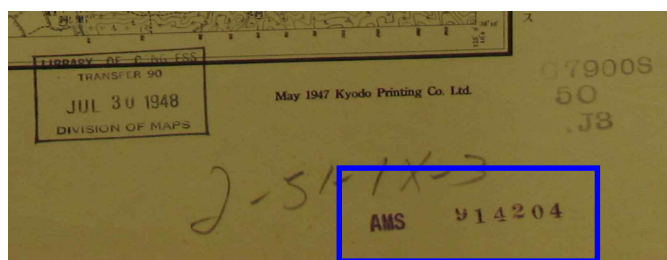
(그림 121) 경성사단참모부

(4) AMS(Army Map Service)

‘AMS(Army Map Service)’에 해당하는 도엽은 176도엽으로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도엽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지역으로 보면, 강릉, 경성, 곡산, 군산, 대구, 마산, 목포, 선천, 순천, 안주, 영월, 영주, 울진, 원산, 장전, 전주, 제주도, 진도, 철원, 춘천, 충주, 평양, 해주 등에 속한 도엽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원산, 마산, 장전, 제주도, 진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122) 몽금포도엽(장산곶 3호)



(그림 123) AMS 번호

3) 지형도 사용(메모) 정보

현재 이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는 여백에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한국 근대지형도를 단순히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지역의 인구정보, 지명·경계 수정, 지역·지명 수정, 군사시설사용의 메모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 한국 근대지형도는 여러 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가지로 분류된 한국 근대지형도를 각각 예를 들어 보면, 첫째 인구에 대한 메모로 ‘중화’도엽에서 귀호리(睽湖里)과 만달면(晩達面)에 인구를 메모한 흔적이 있다.

‘Pop For 60% Sungho-ri =say-8,500’

(만달면의 60% 인구가 승호리에 거주하고 말에 의하면 승호리에 8,500명이 거주하고 있다.)

‘Onoda Peinent Factory’

‘Now 睽湖邑’

‘Pop=14,051-S ’ 36 for myŏ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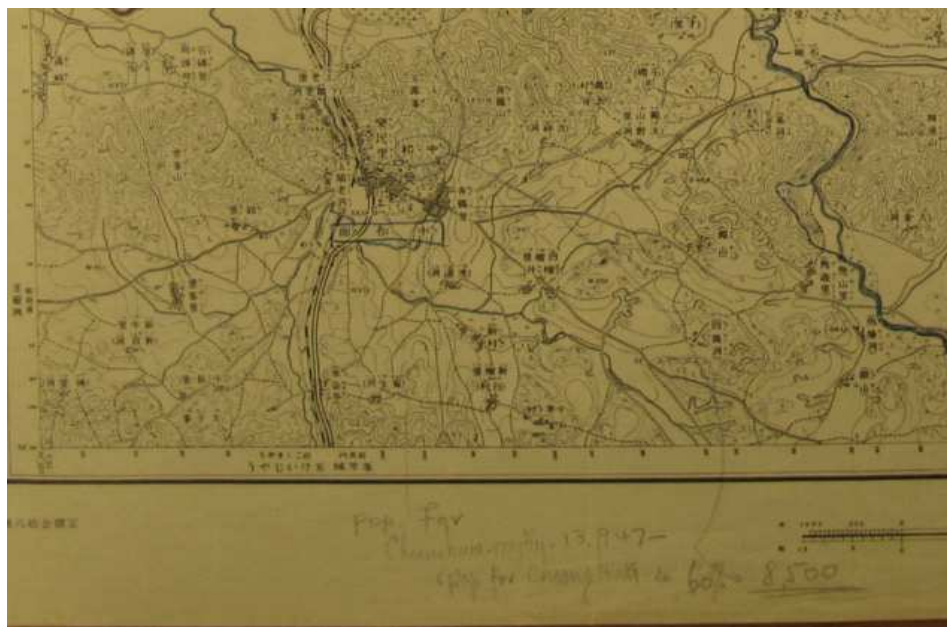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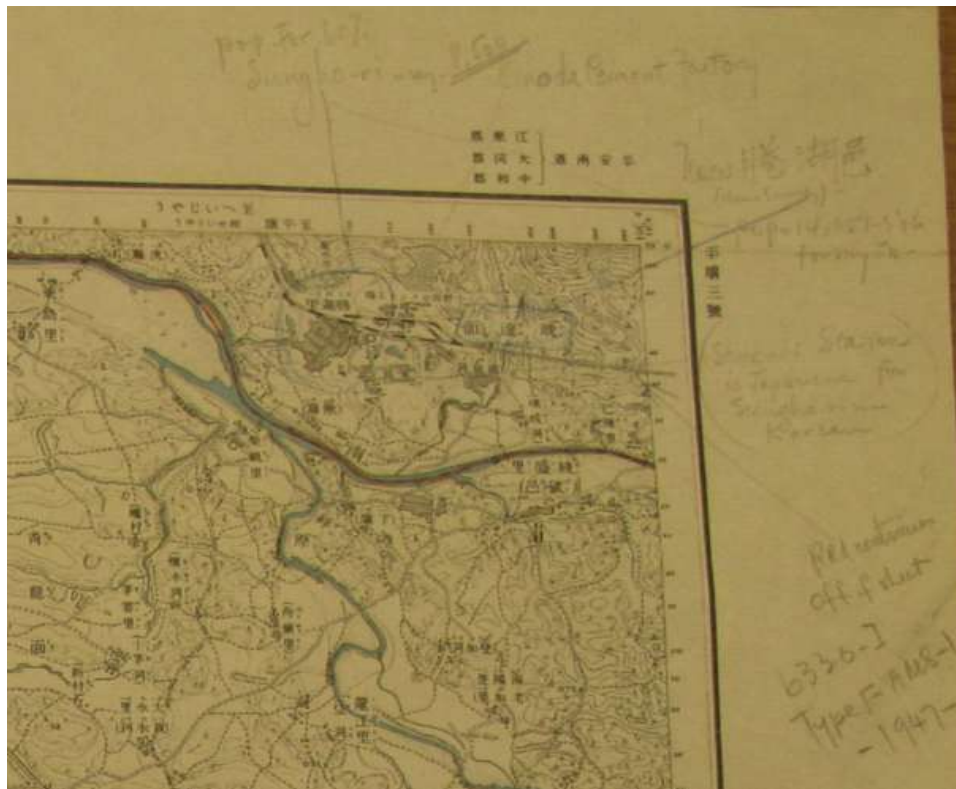
Shokori Station in Japanese for Sungho-ri in Korea

Red contitunes off of sheet 6330- I Type F AMS-1-1947-’

(승호읍 인구는 14,051명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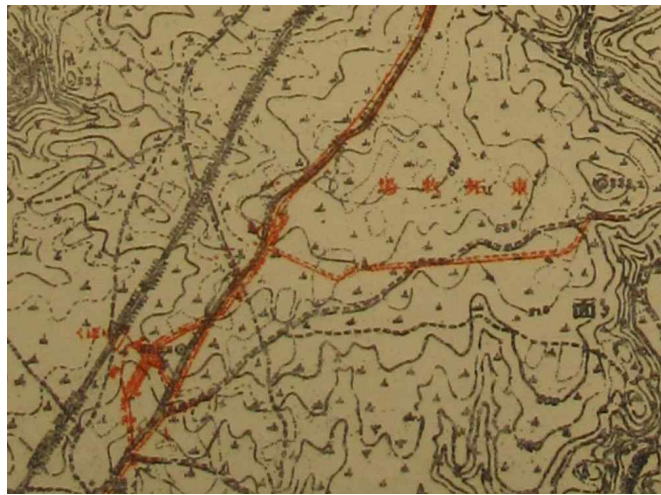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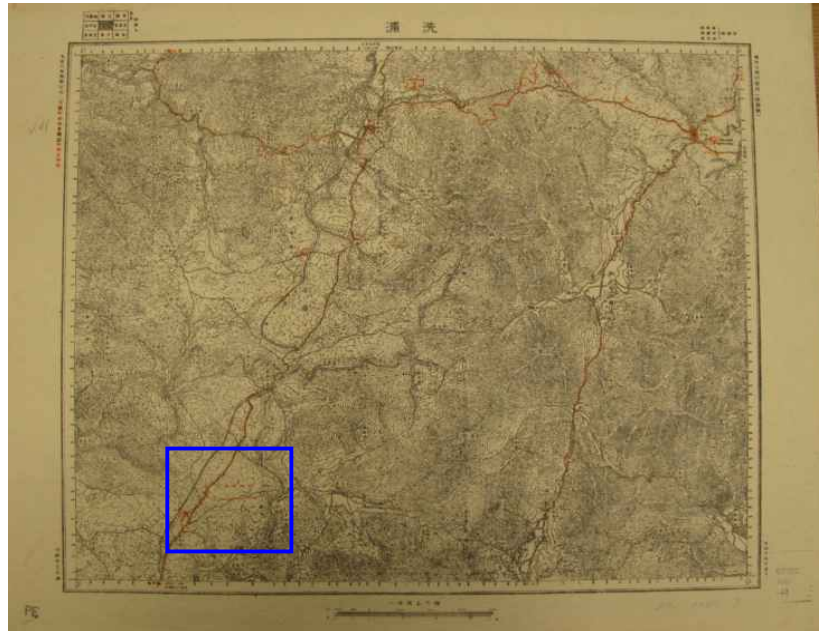
승호리에 일본어로 쇼코리역이라는 곳이 있다.

빨간 부분은 다음 6330- I 도엽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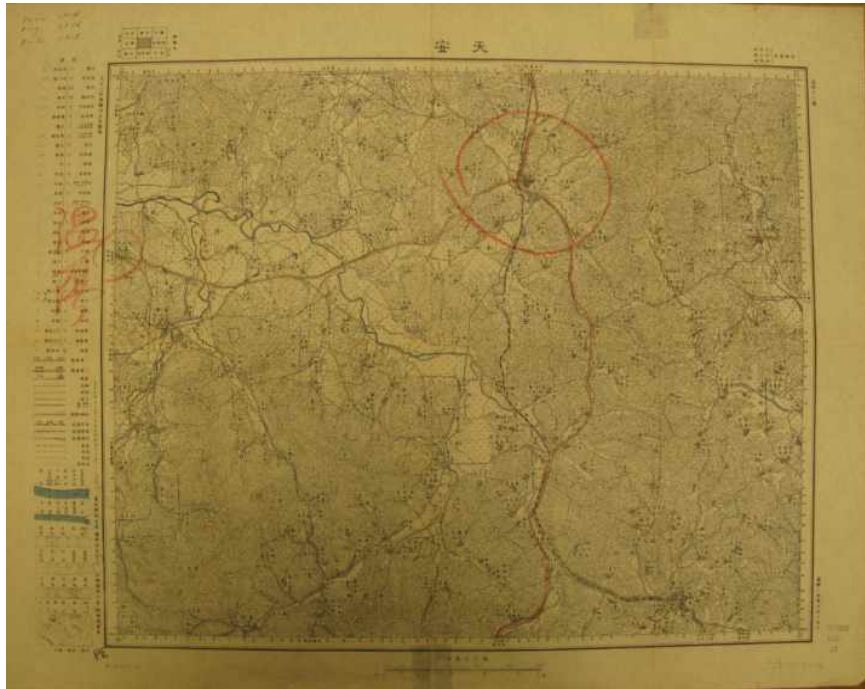
(그림 124) 중화도엽(평양 3호)

둘째, 지명·경계를 수정한 흔적은 (그림 125)와 같이 재령도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색 판으로 경계와 지명을 수정한 것을 볼 수 있다. ‘東拓牧場’ 지명이 추가 되었고, 아래쪽으로 도로가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5) 세포도엽(철원 9호)

셋째, 지역·지명을 수정한 흔적으로, 천안도엽에서 지역과 지명, 경계를 수정하고, 적색으로 ‘溫泉(里)’과 ‘天安 邑內里’가 메모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126).



(그림 126) 천안도엽(충주 16호, 1916년 측도제판), 溫泉(里)와 天安 邑內里

넷째, 군사시설을 위한 메모 정보는 구성도엽에서 볼 수 있는데, 1917년에 측도하고 1918년에 제판된 도엽이다(그림 127).



(그림 127) 구성도엽(안주 9호)

Taechön

'Red's airfield is being built-up in this area. For further informations see as arfiede under Washington Post, Nov.19,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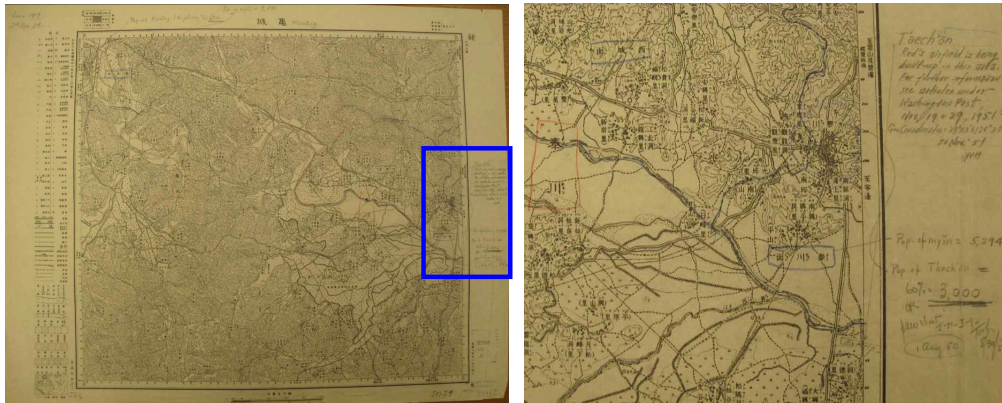
'27 Nov , 51'

'see later edition for the location.'

(Red의 비행장이 이 지역에 건설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1951년 11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참조하라.)

(위치는 더 나중의 버전을 확인하라.)

(그림 128)은 ‘大正六年測圖昭和十四年第二回修正測圖(1917년 측도, 1939년 수정측도)’에 제작한 도엽이다. 제1회수정측도(1917년 측도) 도엽과 제2회수정측도(1939년 수정측도) 도엽에 모두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그림 129).



(그림 128) 구성도엽(안주 9호) 제2회수정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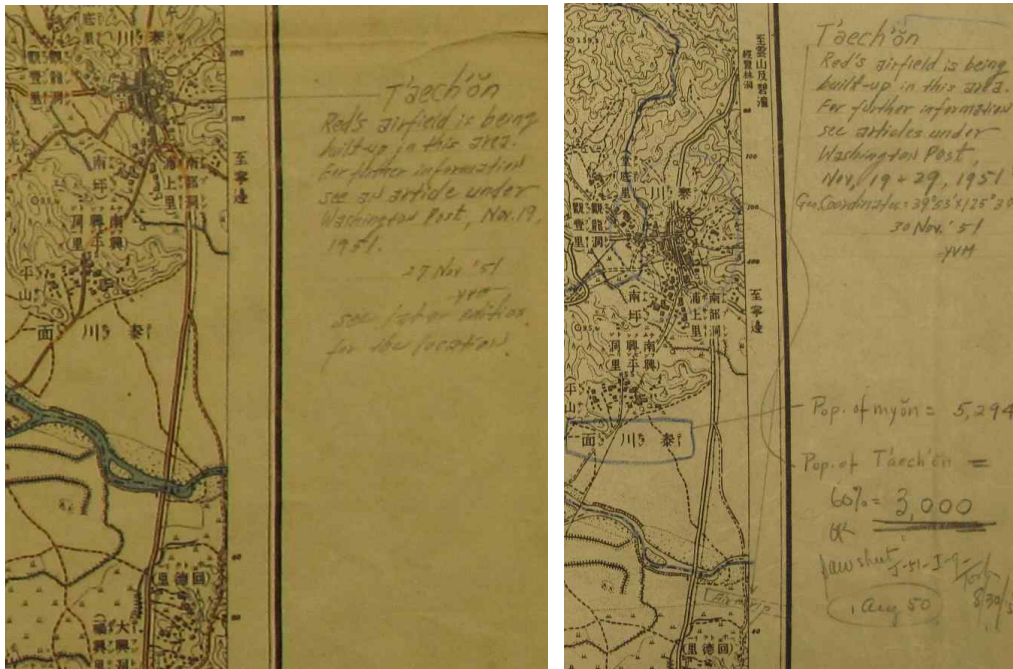
Taechön (→ Airstrip)

‘Red’s airfield is being built-up in this area. For further informations see arfiedes under Washington Post, Nov.19+29.1951’

(적색은 이 지역에 건설 중인 비행장이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1951년 11월 19일, 29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참조하라.)

‘Gas, Coordinates, 39°53′ × 125°30′ . 30 Nov., 51, YVM’

(가스, 좌표 39°53′ × 125°30′. 1951년 11월 30일)



(그림 129) 1917년 측도와 1939년 제2회수정 측도 비교

V. 한국 근대지형도의 활용

본 논문 III장과 IV장에서는 국내외 기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지형도 목록과 지형도 구성 내용,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국 근대지형도는 제작시기와 수정측도 시기에 따라 분류되며, 20세기 초 변화하는 지리정보를 수정·보완하여 지도가 제작되었다. 제작 시기별에 따라 한국 근대지형도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이는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측도는 대부분 제3차지형도 제작에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가 반영된 근대지형도가 상당수 제작되었다.

수정측도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인문 지리정보를 지도상에 반영하였고, 이는 당시 변화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3차지형도는 간석지 발달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 하천공사로 인한 하천의 변화, 저수지 개발의 변화, 교통로의 건설로 인한 철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각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의 기능 변화 및 확대, 그리고 교통체계의 변화까지 보여주는 자료로 중요성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를 통해, 자연·인문 지리정보가 변화된 지역을 바탕으로 비교와 복원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3차지형도 전체 도엽을 활용하여 전국단위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해안선과 간석지의 모습, 하천의 모습을 복원하고, 다음으로 시기별 제작된 지형도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로 행정구역, 지명, 교통로 등의 변화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1.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복원

1) 복원 과정

한국에서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¹¹⁶⁾와 역사지도 편찬 사업¹¹⁷⁾ 등을 통하여 역사지도 제작이 시도되었고, GIS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구역의 복원, 지명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졌다. 위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이 된다. 여기서 사용된 지도는 한국에서 발행한 영인본(구한말 한반도지형도, 근세오만분일지형도)이다. 이는 원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원본 이미지의 정확성을 담고 있지 못한 점이 있다. 부분적으로 삭제된 형태의 도엽(원산, 부산 등)들로 인해 정밀한 지도 복원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여러 국내외 기관에서 수집한 원본 이미지를 통해 앞에서 말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복원을 시도하였다.

종이지도로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를 바탕으로,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의 자연환경, 행정구역, 교통망,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¹¹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이 있다.

첫째, 축척이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는 근대지

-
- 116)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 <http://atlaskorea.org/historymap.web/IdxRoot.do>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 사업은 2002~2007년에 연구재단에 지원을 받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시행하였다. 시간·공간·주제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조선시대 군현 단위의 행정구역을 복원하였으며, 주요 25개 주제의 문화요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구축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117)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은 2008~2015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 지원을 받아 연세대 국학연구원,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였다. GIS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북아 일대의 행정구역을 복원, 지명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지도 편찬 사업은 중단되었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기 구축된 GIS를 기반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118) 김종혁, 2013,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권 2호, p.78. 논고를 통해 역사지도 제작은 자료원의 문제로부터 GIS 시스템 구축, 필드 구조 설계와 입력, 위치 비정, mapping, 출력·인쇄·출판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으며, 바탕도, 기본도, 주제도, 일반도 등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형도의 원본을 대형 스캐너를 통한 스캔,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화 할 수 있다. 이미지화 된 지형도는 Photoshop을 이용하여 수평 조절 한 후, 다른 도엽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난외주기 제거작업¹¹⁹⁾을 한다. 여기까지 종이 지도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이며, 이후 전자지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좌표를 부여한다. 이는 ArcMap으로 구축한 인덱스맵(index map)에 좌표를 지정하는 것으로, 각각의 도엽들을 하나로 붙이기 위한 기본 정보가 된다.

둘째, 한국의 경위도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 도엽의 좌표를 확인하고 인덱스맵을 제작한다. 여기서 사용한 투영법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제작 기준인 횡축메르카토르도법(TM법), 세계측지계ITRF2000을 사용하였고, 중심자오선으로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셋째, 난외주기 제거작업으로 준비된 지형도 이미지를 인덱스맵에 붙여 넣는데, 이를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 이라고 한다. 이 작업은 각 도엽에 좌표값을 부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 근대지형도 727도엽을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전자지도화 하는데 기본이 구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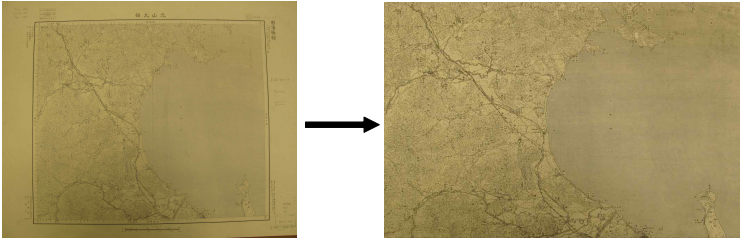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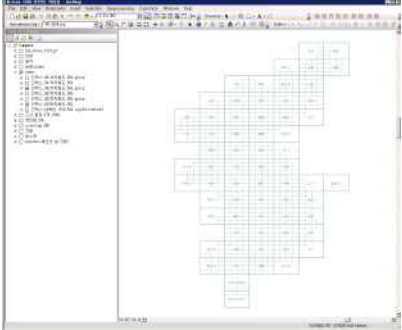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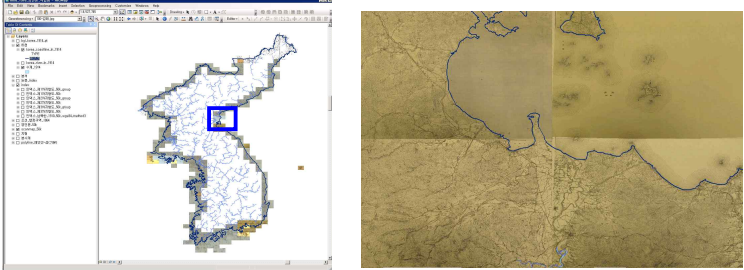
넷째, 지오레퍼런싱을 통해 도엽과 도엽을 연결하여 한반도 지도를 한판으로 구축하여 GIS 작업 환경을 만든 후에, 행정구역, 교통로, 자연환경, 지명 등 각각의 레이어(Layer)를 생성하여 디지털화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점(point)·선(line)·면(polygon)은 좌표값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위치값을 갖게 된다. 위치값을 부여 받은 점·선·면은 구축한 자료의 현 위치를 비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역사 지리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위에 구축 단계는 필수 작업이다¹²⁰⁾. 구축 단계를 정리하면 <표 87>과 같다.

119) 난외주기 제거작업은 지형도의 도곽내 이미지만 남겨두고 난외주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르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도엽과 도엽을 인덱스맵에 붙여 넣었을 때 도엽과 도엽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120) 김종혁, 2017, 일제시기 한국 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의 변동, 선인, pp.27-34. 김종혁의 철도망 복원과,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와 역사지도편찬사업 등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복원 작업을 시행하였다.

<표 87> 20세기 초의 수계망과 해안선의 복원 과정

1	<p>이미지 →난외주기 제거작업</p>	
2	<p>인덱스맵</p>	
3	<p>지오레퍼런싱</p>	
4	<p>디지털라이징</p>	

종이지도인 한국 근대지형도는 현재의 수치지도처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치지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같이 각각의 인문, 자연요소들을 디지털화하여 좌표를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 근대지형도에서 추출한 자연환경(해안선과 수계망), 행정구역, 교통로,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디지털화하여 현대의 수치지도처럼 좌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쳐 종이 지도로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현대 수치지도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여 해안선과 하천, '공주' 지역의 역사지리환경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다. 이 작업은 오늘날 자연환경(해안선 및 하천), 행정구역, 교통로,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비교를 넘어서, 100년 전 한반도의 역사지리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

2) 해안선과 하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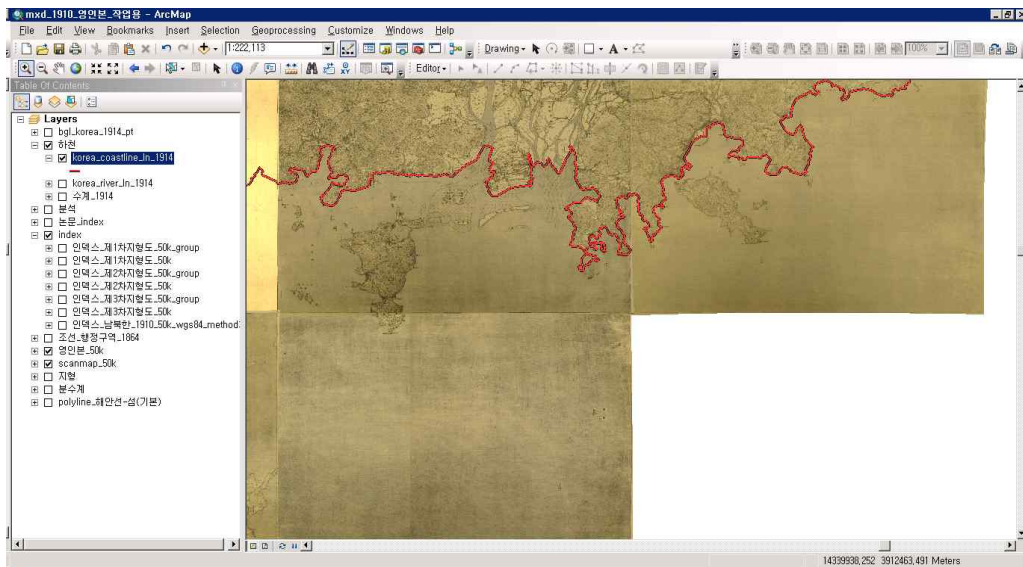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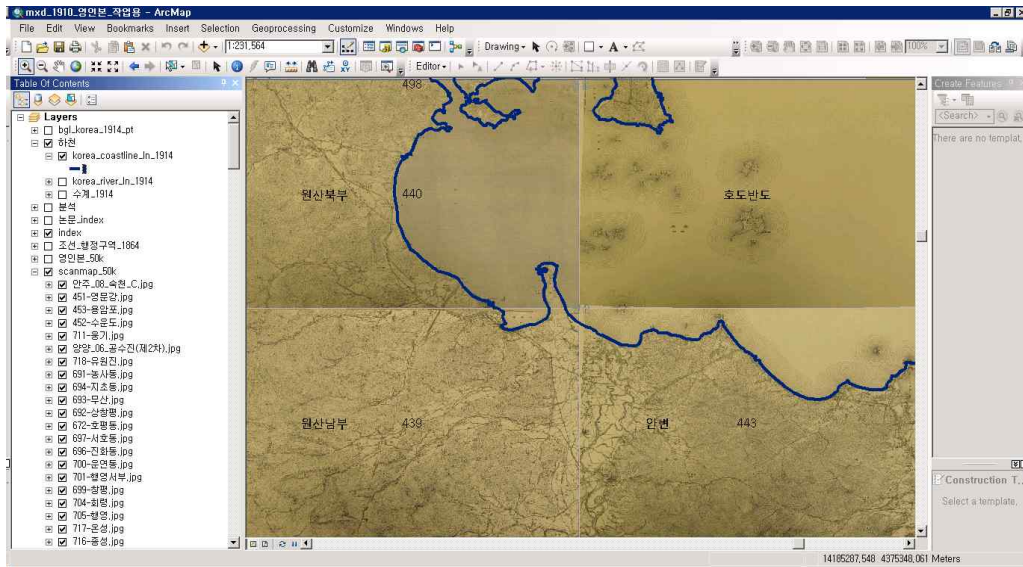
(1) 해안선 복원

한국 근대지형도 중에 제3차지형도를 기반으로 하여 1910년대의 해안선 복원을 시도하였다. 원 자료가 종이지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안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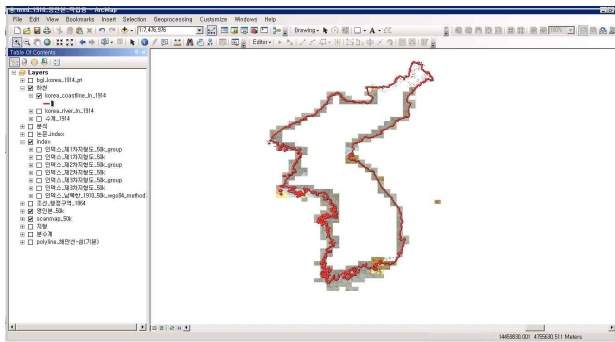
첫째, 자료는 미국 의회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 종로도서관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였으며, 제3차지형도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축척인 1:50,000으로 제작되었고, 또한 조선 후기의 한반도의 지리환경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지리환경을 복원하는데 기본도로 삼은 것이다.

둘째, 해안선 추출의 기준은 한반도 외곽에 표시된 실선(간척지, 염전, 제방 포함)을 기본 해안선으로 하였고, 갯벌 등 실선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장 진한 선을 해안선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인본을 활용해 해안선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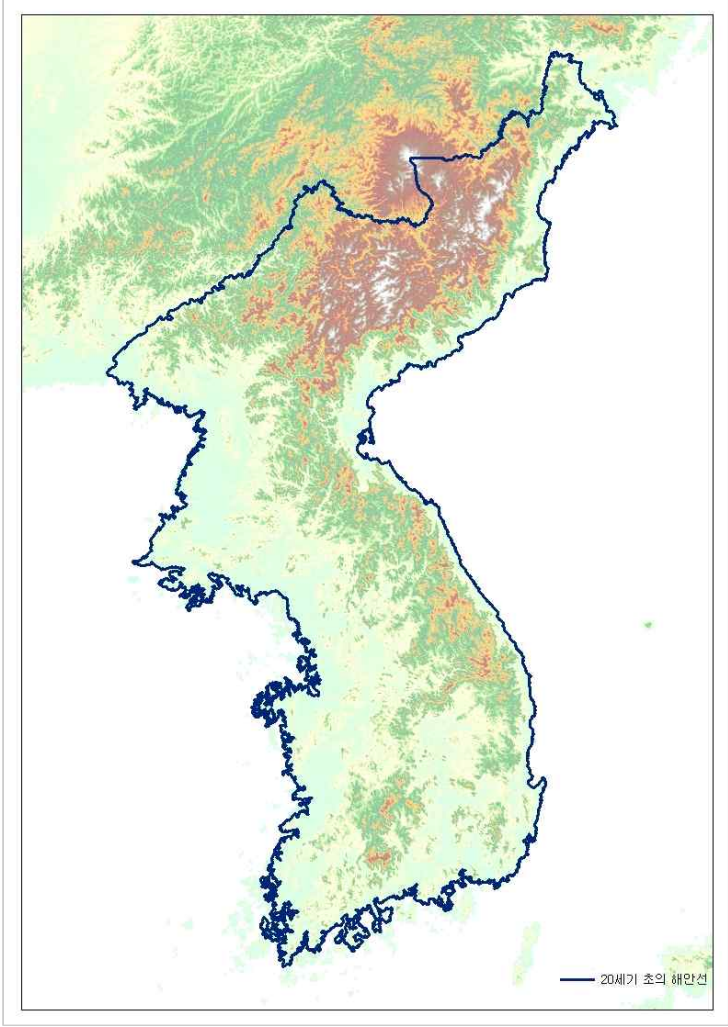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III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원산과 부산, 마산 지역의 도엽 이미지를 발견하였고(그림 130), 이에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본을 활용하여 이 지역의 정확한 해안선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131).



(그림 130) 원산(위)과 부산.마산(아래) 지역 복원 화면



지도화 과정



(그림 131) 20세기 초의 해안선의 지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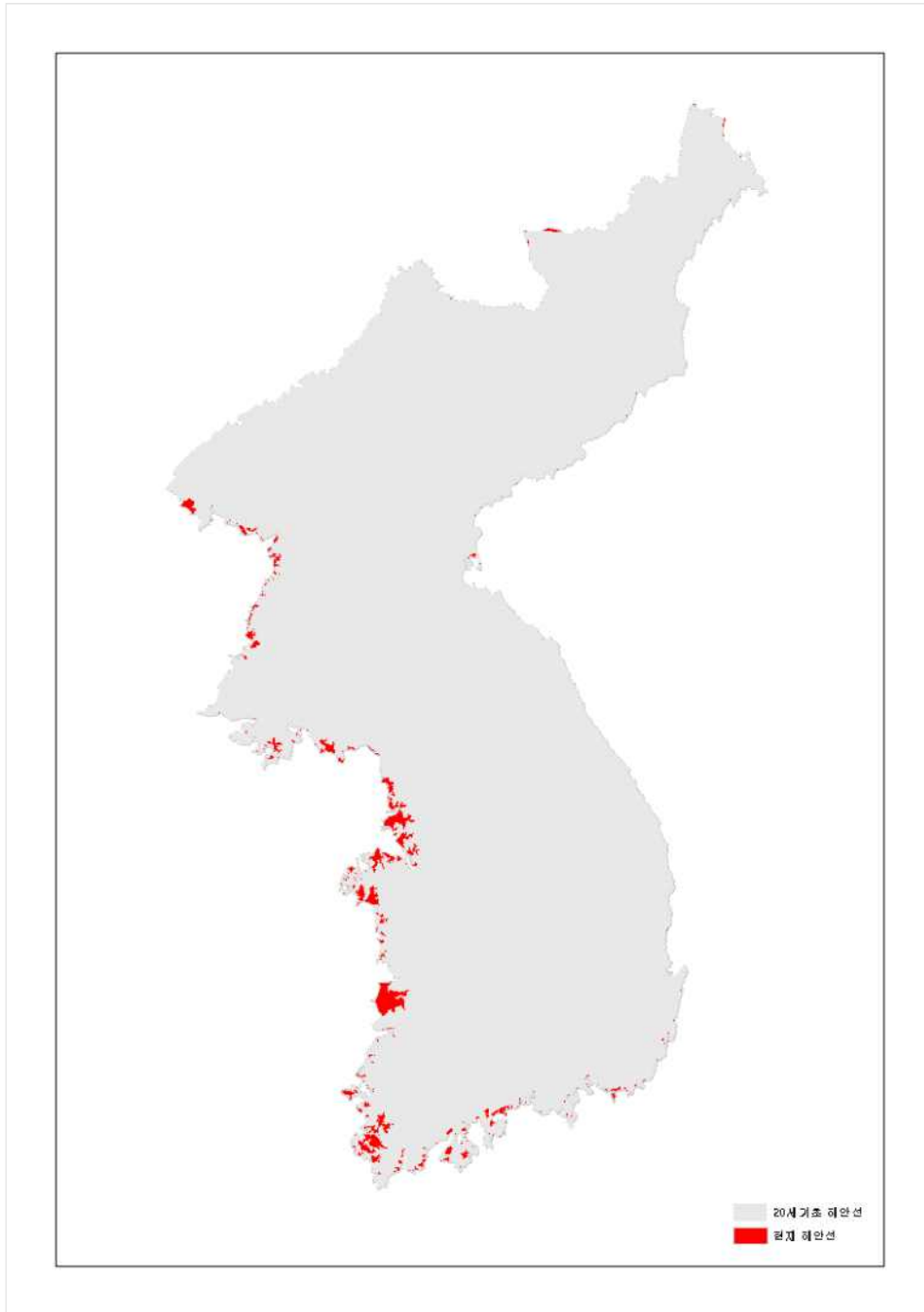
한반도의 해안선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간석지의 발달, 제방 등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20세기 초의 해안선(적색)과 현재 해안선(회색)을 오버레이 하였다¹²¹⁾(그림 132).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초의 해안선과 현재 해안선 내부 영역의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해안선 내부의 한반도 면적이 약 218,038km²이고, 20세기 초의 해안선 내부의 한반도 면적은 약 214,618km²이다. 따라서 두 해안선 내부의 한반도 면적 차이는 약 3,420km²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8km²)에 약 2배에 해당되는 크기이다<표 88>.

<표 88> 20세기 초와 현재 해안선 영역의 면적 비교

구분	면적(km ²)
20세기초의 한반도 면적	214,618
현재 한반도 면적	218,038
▼	
면적의 차	3,420

출처 : 해안선의 면적은 1:50,000 지형도에 디지털라이징 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121) 20세기 초의 해안선과 현재 해안선의 범위는 서해, 남해, 동해와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압록강, 두만강을 포함하였다.



(그림 132) 20세기 초와 현재 국토면적 비교

해안선이 변화하는 원인 중 가장 영향을 준 한국의 간척 사업이다.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하천퇴적물이 많은, 간척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서해안의 간척 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248년 “안주(安州)에 제방을 쌓고 농사를 짓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²²⁾. 조선시대 간척은 문헌에서 ‘축언(築堰)’ 또는 ‘축동(築洞)’, 간척을 할 수 있는 갯벌을 ‘해택(海澤)’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서해안 일대에 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꾸준히 간척되어 왔다¹²³⁾. 근대적인 간척이 이루어진 것은 법령의 정비¹²⁴⁾와 정책적인 지원, 새로운 간척 기술의 도입으로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¹²⁵⁾.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산미증산 계획으로 군량미 조달을 위해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광복이후 소규모 간척사업과 대규모 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서해안 일대의 청라지구(인천·김포)와 시화지구(시흥·안산), 새만금지구(군산·김제·부안) 등에 조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 농경지, 도시개발, 공업용지, 환경시설 등 토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매립사업이 진행되었다. 송도국제도시(인천), 송산그린시티(화성), 남악신도시(무안) 등에 조성되었다¹²⁶⁾. 이렇게 고려시대~현대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일대는 소규모·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0세기 초의 해안선을 위성지도인 구글 지도와 중첩해하여 서해안의 하천 변화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교하면, 북한의 남포 지역(대동강 하류), 한국

1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123) 양선아, 2011, “조선후기 대규모 간척지 조성 과정과 기술적 특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3권 제1호, p.91.

124) <조선공유수면 매립령> 1926년 제정.

125) 양선아, 2011, 앞의 논문,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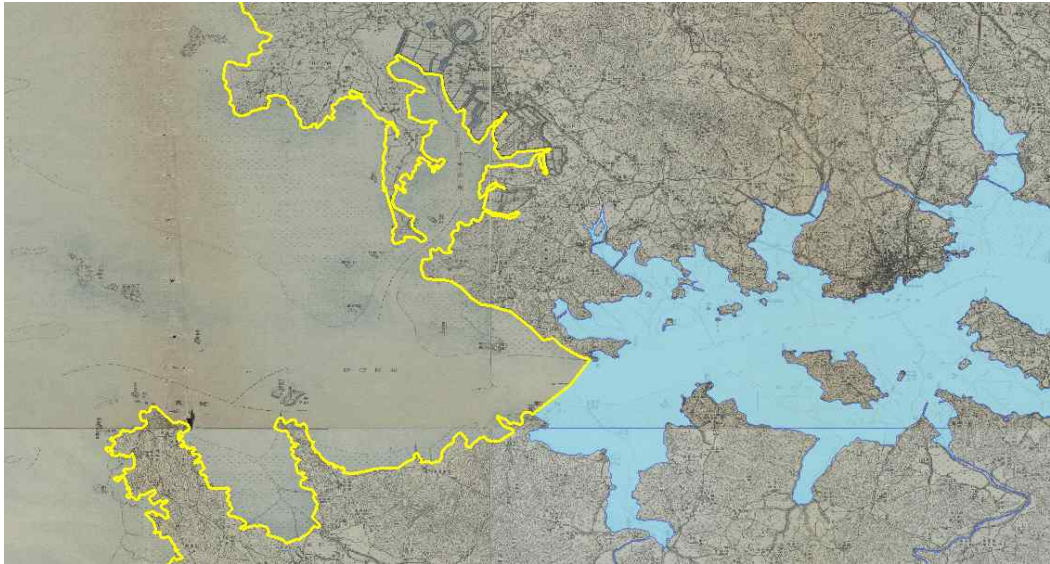
126) 정원욱·김종진·박수민, 2016, “국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따른 인천 해안선의 변화(1895~2016)”,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 p.104.

의 인천광역시와 시흥, 안산 지역, 군산·김제·부안 지역, 목포·영암 지역에서 간척사업으로 크고 작은 만(灣)들이 사라지면서, 변화된 해안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 지역의 대동강 하류 일대 해안선을 구글 지도에 중첩하여 비교해 보면, 100년 전의 남포 지역의 해안선과 대동강 하류의 강폭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133)과 (그림 134)은 구글 지도와 제3차지형도의 해안선을 보여준다. 노란색 실선은 20세기 초의 해안선을 나타내고, 청색은 20세기 초의 하천을 복원한 것이다. 20세기 초 해안선 밖 일대에 대대적인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이 농경지와 공업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 해안선 부근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농경지화 되었다.



(그림 133) 20세기 초의 남포 지역의 해안선



(그림 134) 제3차지형도의 남포 지역

출처 : 종로도서관

20세기 초의 인천광역시·시흥시·안산시 일대 해안선을 구글 지도에 중첩하여 비교해 보면, 100년 전의 해안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135)과 (그림 136)은 현재와 20세기 초 해안선으로, 제3지형도를 통해 복원한 해안선을 비교해보면, 간척사업으로 대부분이 아파트와 주택단지, 공업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시흥시 호조방죽은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인천의 간척은 1883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1894년 일본인들이 급증하면서 조계지 근처 해안을 매립하게 되었다¹²⁷⁾.

127) 양선아, 2011, “조선후기 대규모 간척지 조성 과정과 기술적 특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33권 제1호, p.129.



(그림 135) 20세기 초의 인천.시흥.안산 지역의 해안선



(그림 136) 제3차지형도의 인천.시흥.안산 지역

출처 : 종로도서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근의 시화만에 방조제를 건설하여 인공호수인 시화호를 조성하였다. 시화지구의 개발 목적은 농지와 공업단지 및 수도권 의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1단계로는 방조제를 건설 하고 주거단지 및 시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는 간석지에 도시, 산업 단지 및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시화지구 개발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농 경지 조성과 농업용수를 위한 시화호에 목적을 두었다¹²⁸⁾. 일제강점기와 현 대의 해안선 변화의 요인은 간척 산업이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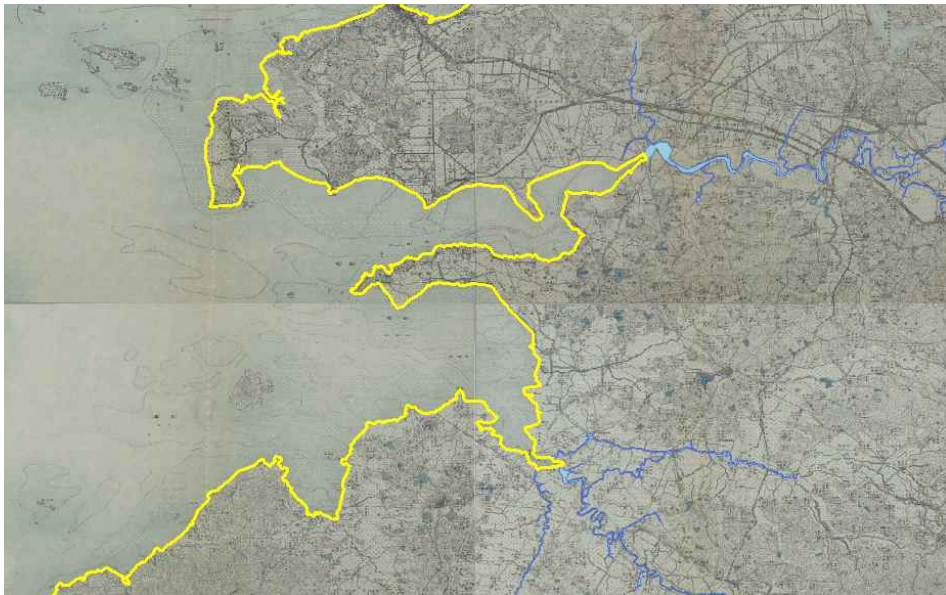
20세기 초의 군산·김제·부안 일대의 해안선과 현재 해안선을 비교해 보 면, 간척사업으로 인해 군산 부근 해안선 일대는 주택단지와 농경지로, 김 제·부안 일대의 해안선 부근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나타난 다(그림 137, 138).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간척 토 지(291km²)와 호소(118km²)를 조성하고,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km²와 신항 만 4.4km² 등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이었다¹²⁹⁾. 새만금간척사업은 단일 토목공 사로 최대 규모이고,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심해간척공사로, 이로 인해 국토를 확장하고, 농경지화 하였다.

128) 이해경, 2012,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환경법과 정책 제9권, p.159.

129)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sda/sub/why/SMA10001.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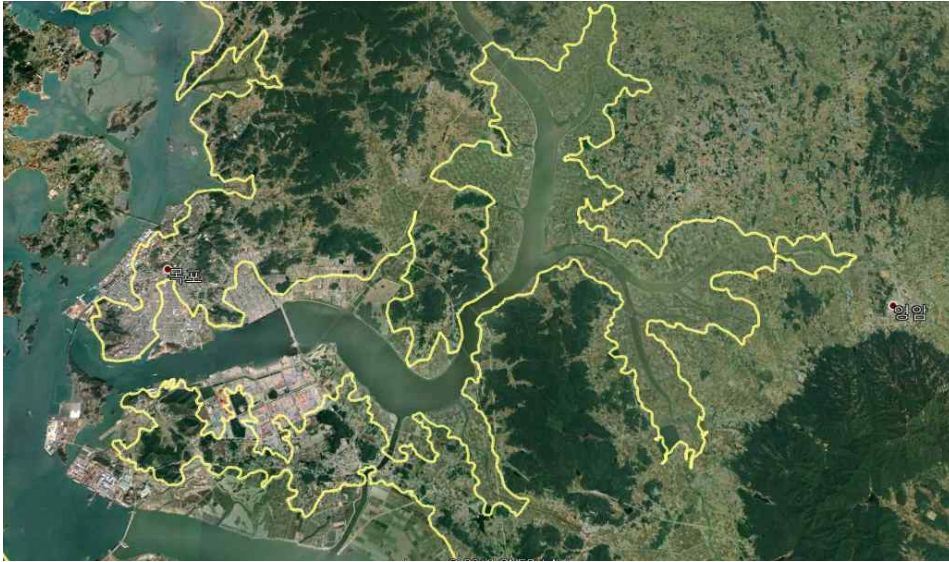
(그림 137) 20세기 초의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해안선



(그림 138) 제3차지형도의 군산.김제.부안 지역

출처 : 종로도서관

현재 해안선과 20세기 초 목포·영암 지역의 해안선을 비교해 보면, 간척 사업을 통해 목포 지역에는 주택 단지와 공업지대 등의 산업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영암 지역 일대에는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그림 139, 140).



(그림 139) 20세기 초의 목포.영암 지역의 해안선



(그림 140) 제3차지형도의 목포.영암 지역

출처 : 종로도서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남포 지역(대동강 하류),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시흥, 안산 지역, 군산·김제·부안 지역, 목포·영암 지역에서 간척사업 등으로 20세기 초의 해안선과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 이는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해안선 일대에 간척사업을 통해 농경지, 주택시설, 공업 등의 산업시설 등이 입지하여 해안선의 지리환경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간척사업을 통해 갯벌이 감소됨에 따라 하구역사경관¹³⁰⁾을 복원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가 하구역사경관복원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130) 해안선 경관을 되살리자는 의미로 '역 간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구복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성에 따라 하구(생태)복원, 하구(갯벌)복원, 하구(경관)복원, 하구(역사)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있다. 여기서는 '하구역사경관복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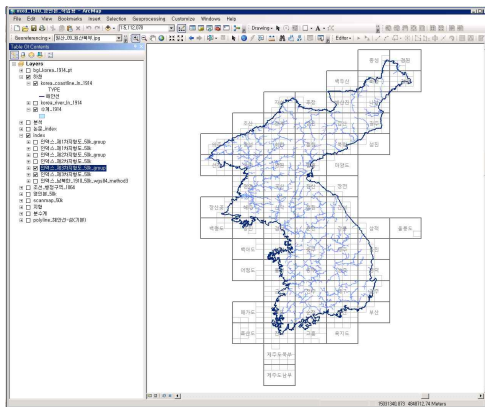
(2) 하천 복원

한국 근대지형도 중에 제3차지형도를 기반으로 하여 1910년대의 하천 복원을 시도하였다. 원 자료가 종이지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하천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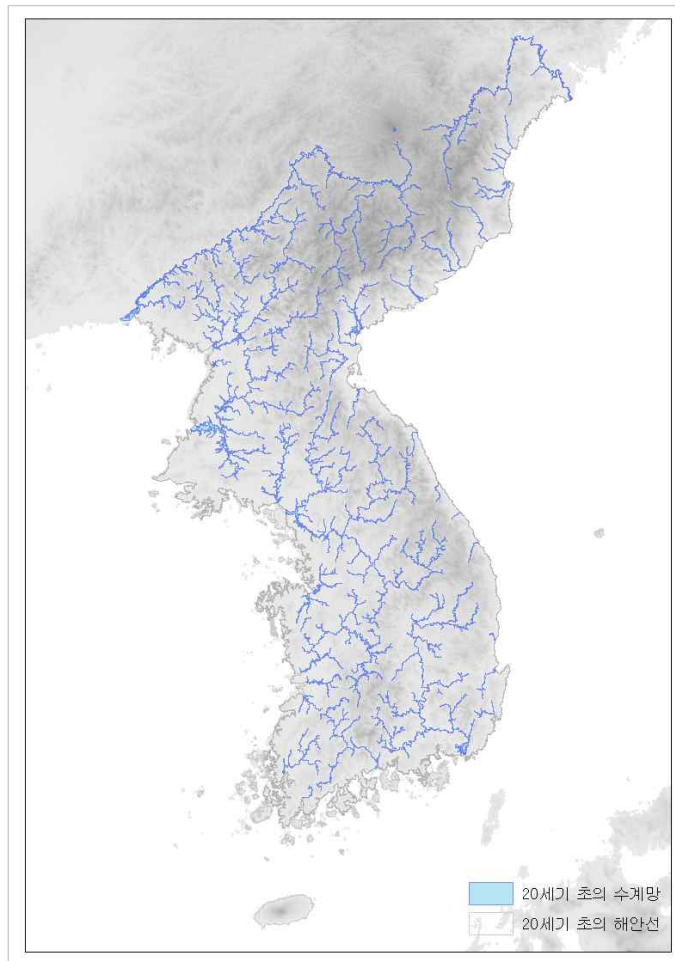
첫째, 자료는 미국 의회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 종로도서관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였으며, 제3차지형도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축척인 1:50,000으로 제작되었고, 또한 조선 후기의 한반도의 지리환경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지리환경을 복원하는데 기본도로 삼은 것이다.

둘째, 하천의 유로는 하류지역에서는 수시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또한 제방을 설치하는 등의 이유로 자유 곡류 하천이 직강화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하천 복원의 방법은 일제강점기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한국 근대지형도에 기반으로 하여 추출하는 것이다. 이에 하천 추출의 기준은 제3차지형도에서 이중실선(double line) 형태로 나타난 구간으로 한정하여 디지털화하였다. (그림 141)은 20세기 초의 하천을 추출한 것으로 한국 근대지형도 제3차지형도 전체를 활용한 것이다.

한국 근대지형도를 통해 20세기 초의 하천 복원의 의미는 근대적인 토목공사로 인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전의 한반도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있다. 또한 100년 전의 역사지리환경을 복원함으로써 현재의 지리환경과의 비교를 시도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하천의 원형 모습을 밝히고, 원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자료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도화 과정



(그림 141) 20세기 초의 수계망의 지도화

한국 근대지형도에서 추출한 난지도와 잠실 사이의 한강의 모습으로, 청색의 20세기 초에 하천 유로를 나타내고, 이를 구글 지도 위에 중첩하였다. 난지도와 여의도, 뚝섬, 잠실 부근의 한강 유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그림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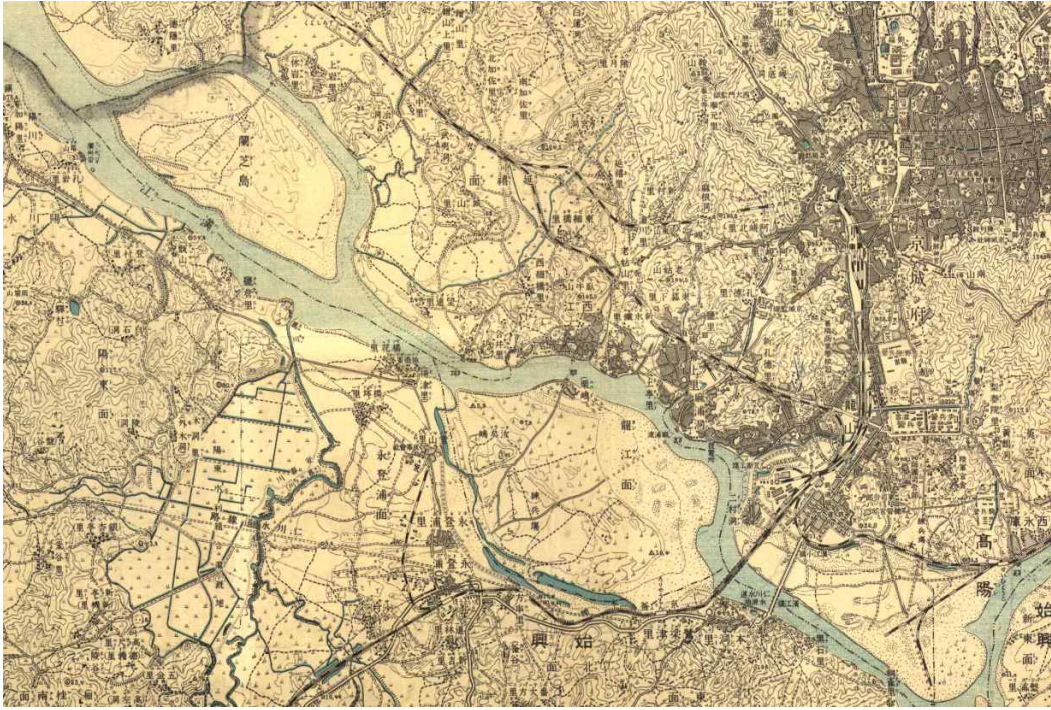
잠실 부근에는 원래 한강의 범람원으로 발달되었던 부리도(浮里島)가 있었다. 이는 신천리와 잠실리가 있었던 곳으로 잠실도(蠶室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본래 하중도였던 이곳이 육지와 연결된 것은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 때문이었다. 이때 한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석촌호수가 생겨난 것이다¹³¹⁾.



(그림 142) 20세기 초의 한강의 유로(난지도에서 잠실까지)

출처 : Google Earth와 하천 복원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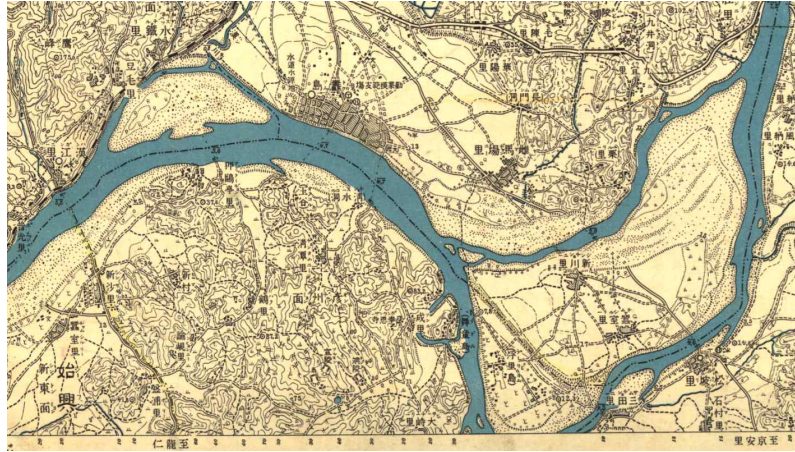
13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그림 143) 제3차지형도 '京城' 도엽 (1926년 제1회수정측도), 난지도, 여의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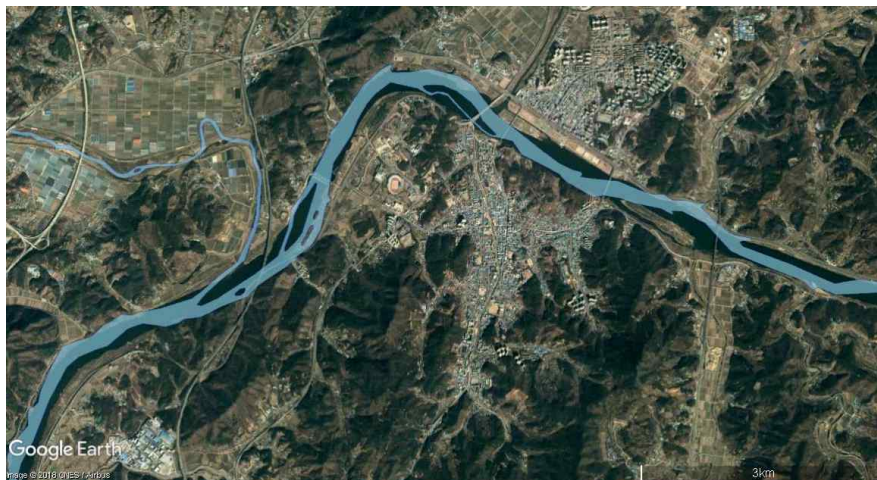
(그림 143)은 제3차지형도의 1926년 제1회수정측도 된 '경성(京城)' 도엽이다. 현재 난지도와 여의도 부근으로 1926년 수정측도 될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의도 지역에 용강면(龍江面), 여의도(汝矣島), 연병장(練兵場) 등의 지명이 있고, 여의도 남쪽으로 철도로 경부본선(京釜本線)이 놓여있다.

(그림 144)는 제3차지형도 '독도(蠓嶋)' 도엽으로 1915년에 측도되었다. 현재 잠실부근의 모습인데, 1915년 측도될 당시 부리도(浮里島)는 하중도의 모습이였다. 잠실리(蠓室里), 신천리(新川里), 삼전리(三田里), 송파리(松坡里)의 지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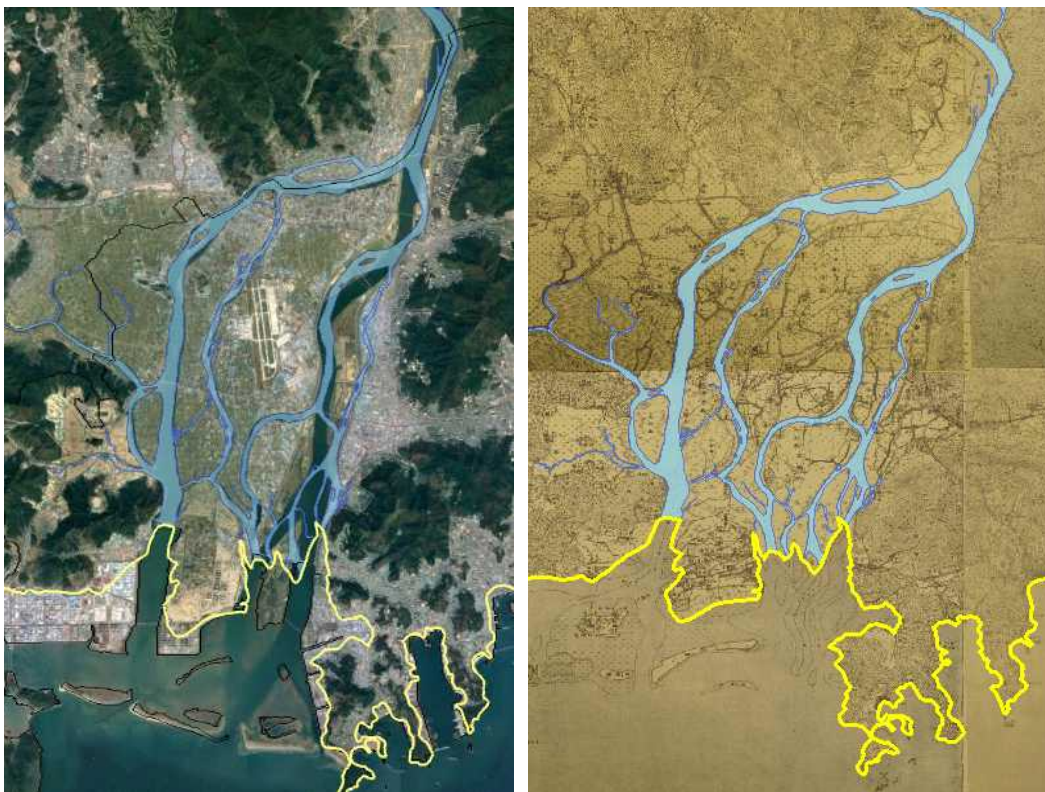
(그림 144) 제3차지형도 '龜城 邑' 도엽 (1915년 측도, 부리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근대지형도에서 추출한 금강을 구글 지도에 중첩한 것으로, 청색이 20세기 초의 금강의 모습이다. 당시 하중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금강의 직강화와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은 단순해지고, 공산성 위쪽과 공주시 왼쪽에 발달되었던 하중도가 사라지게 되었다(그림 145).



(그림 145) 20세기 초의 금강의 유로(공주시 부근 일대)
출처 : Google Earth와 하천 복원 Layer.

낙동강을 복원한 레이어를 구글 지도와 제3차지형도에 중첩한 것으로, 청색이 20세기 초의 낙동강의 모습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하천의 주 유출로인 동쪽의 낙동강의 본류를 중심으로 퇴적이 매우 발달되었다. 현재와 20세기 초의 낙동강 하류를 비교해보면, 하천의 직강화로 복잡했던 낙동강의 유로가 단순해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46). 낙동강 망류하계망 주변으로 하중도, 해안으로 삼각주 연안사주, 충적지형 주변의 배후습지가 발달되어 있다.



(그림 146) 현재와 20세기 초의 낙동강 하류의 유로

출처 : Google Earth와 제3차지형도의 하천 복원 Layer. 미국 의회도서관

대동강의 유로를 복원한 레이어를 구글 지도에 중첩한 것으로 20세기 초의 대동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의 평양일대의 대동강의 유로도 현재와 비교해 볼 때, 댐의 건설과 자유 곡류천을 직강화 하면서 하천이 단순해지고 하중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7).



(그림 147) 20세기 초의 대동강의 유로(평양시를 중심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강, 금강, 낙동강, 대동강의 20세기 초 복원한 하천 유로는 오늘날 하천의 유로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 이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요 하천 주변 지역에 도시발달과 그에 따른 교통로 구축 등의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하천의 직강화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하천의 유로가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20세기 초의 청계천 복원

청계천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내수로, 전통적인 지리사상 측면 이외에 도시하천으로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00년 전 서울의 역사지리환경을 복원하는데 도성 안으로 흘렀던 청계천과 작은 지천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도성 안의 청계천과 지천을 복원함으로써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먼저 옛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을 사료를 통해 역사지리환경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치수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가 미비하였으나, 육전조례(六典條例)¹³²에 도성 내 천거(川渠)¹³³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성 내에 흐르는 대천·소천에 대한 발원과 유역의 위치, 거리를 설명한 내용은 정리하였다.

도성내 천거의 발원이, 북쪽에는 백악(白岳), 서쪽에는 인왕(仁旺)이 있고, 남쪽에는 목멱(木覓), 동쪽에는 타락(駝駱)이 있으나 이는 대개 백악의 서쪽과 인왕의 동쪽이며, 백운동으로부터 오는 원맥(源脈)이 가장 길고, 이리(迤邐)¹³⁴하게 남쪽으로 흘러 자수궁(慈壽宮)의 다리를 지나 옥유동·누각동의 하류와 더불어 금청교에 합하여, 또 남쪽은 송침교(松簷橋)라 하고, 사직동 남쪽과 경희궁의 북쪽에서 흐르는 물은 승전색(承傳色)의 다리를 지나, 송침교 북쪽으로 들어가며, 또 그 남쪽은 송기교(松杞橋)라 하고, 돈의문(敦義門)의 동·북쪽에 있으며, 경복궁 안의 물은 북쪽 어교(御橋)¹³⁵를 거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은 송기교의 동·북쪽으로 들어가고 와서는 내가 약간 커지고, 남쪽으로 뻗

132) 고종(조선) 명편, 1867, 육전조례 10권, pp.23~2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kyupdf/pdfview.jsp>

육전조례(六典條例)는 1865년(고종 2) 12월부터 1866년 사이에 당시 각 관아(官衙)에서 시행되고 있던 모든 조례(條例)와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빠진 제사(諸司)의 시행규정 등을 모아 대전(六典)으로 분류(分類)·성편(成編)하여 1867년에 인행된 조례집(條例集)이다.

133) 천거는 각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과 이들이 합류하는 개천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이다. 도성내의 흐르는 대천·소천거에 대한 발원과 유역의 위치, 거리를 설명하였다.

134) 이리(迤邐)는 잇달아 뻗은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135) 어교(御橋)는 궁내에 임금의 통행하는 다리이다.

다가 동쪽으로 꺾인 곳에 모전교(毛塵橋)라 하며, 삼청동(三清洞)의 물은, 백악산 동록(東麓)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십자교(十字橋)를 지나 대은암(大隱巖)의 하류의 경복궁 서금교(西禁橋)를 따라 경회지(慶會池)의 물과 합하여 금천교(禁川橋)의 동·남쪽을 지나 남금교(南禁橋)로 나오는 것으로 더불어 중학교(中學橋)의 남쪽에서 흐르는 물과 합하여 여기를 혜정교(惠政橋)라 하고 모전교 서쪽으로 들어가며, 또 그 동쪽은 대광통교(大廣通橋)라 하는 바 이는 종각(鍾閣)의 남쪽에 있으며, 황화방(皇華坊) 정릉동의 물은, 서쪽으로부터 동쪽에는 군기시교(軍器寺橋)라 하고, 또 동쪽은 창동 수각교(水閣橋)의 하류와 합하며, 또 동쪽은 소광통교라 하고, 또 회현동·장흥동의 하류 및 명례동의 하류와 합하고, 또 조금 북쪽에는 곡교(曲橋)라 하고, 대광통교의 물로 더불어 합하여 이를 장통교(長通橋)라 하며, 여기에 이르러서는 내의 규모가 더욱 넓어진다. 또 동쪽은 수표교(水標橋)라 학, 수표교의 서쪽 한 가운데에 석표(石標)를 세워 척·촌을 새겼으며(길이는 1장(丈)으로 한다) 또 동쪽은 하량교(河梁橋)라 하고, 장수교(長壽橋) 및 이진동(履塵洞)의 물의 동·북쪽은 하량교 서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며, 또 동쪽은 영풍교(永豐橋)라 하고(속칭 효경교(孝經橋)라 한다), 주자동의 하류 및 부동·이문동의 하류가 북류(北流)와 아울러 영풍교 서쪽으로 들어가며, 또 동쪽은 태평교(속칭 마전교(馬塵橋)라고 한다)라 하고, 태평교의 위의 남·북쪽에는 모두 별항(別港)이 있으며, 남쪽에 있는 것은, 그 근원이 금위영의 남별영에서 나와 무침(無沈)·청령(淸寧)의 모든 다리를 지나, 훈련도감 염초청의 서쪽에 이르러 개천으로 들어가고, 북쪽에 있는 것은, 즉 이교(二橋, 무침교와 청령교를 말한다)의 물이 창경궁 후원에서 발원하여 금천교를 거쳐, 선인문 옆 수구로 나와, 남쪽으로 흘러 신석교(新石橋)(혹은 황참의교라고 한다)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뺀다가 남쪽으로 꺾어 연지동을 지나서 나오며, 회동(灰洞)·제생동(濟生洞)의 물은 남쪽으로 흘러 향교동으로 들어가서는 동쪽으로 꺾이는 바, 여기를 파자교(把子橋)라 한다. 이는 창덕궁 돈화문의 남쪽에 있으며, 파자교의 물은, 서쪽은 금위영 아래 적은 개울의 돈령부를 지나서 오는 것으로 더불어 합하고, 동쪽은 북영 물의 요금문 결의 수구를 거쳐 창덕궁의 금천교로 들어가서 단봉문 결의 수구로 나오는 것으로 더불어 합하고 또 동쪽은 종묘의 전교(前橋)·이현동교(梨峴洞橋)를 지나 파자교의 북쪽으로 들어간다. 또 크고 작은 안국동의 물은 남쪽으로 흘러 대사동을 지나는 곳에 이를 통운교(通雲橋)(속칭 철물전교라고 한다)하고 종각의 동쪽에 있으며, 대로를 뚫어 지나서, 꺾어 동쪽으로 흘러 2교의 남쪽으로 들어가서 개천에 도달하며, 태평교를 거쳐 내리는 곳에 5간수문이라 하고, 여기도 또한 병항이 있는바, 남쪽은 둘,

북쪽은 하나이며, 남쪽은 쌍이문동 및 남소문동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북쪽은 초교의 물로서 그 근원의 하나는 혜화문 곁에서, 또 하나는 성균관의 남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합류하여 오의본궁을 도달하고, 5간수문을 지나 동쪽에 영도교(永渡橋)라 하고, 남소문동의 하류1과와 또 2간수문으로 나오는 물이 대천으로 더불어 영도교의 서쪽에서 합한다. 동쪽 대천은 백동의 별정(伐井)앞 장경교(長慶橋)로부터 대천의 항구(港口)에 이르기까지 길이 1천4백7보, 넓이 10여보이며, 영도교로부터 송기교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3천1백22보이고 그 넓이에 있어서 영도교는 52보, 태평교는 34보, 영풍·하량·수표·장통교등은 모두 24이며, 이 이상을 지나 지천(支川)과 소천(小川)의 10여보, 10보미만 또는 2·3보의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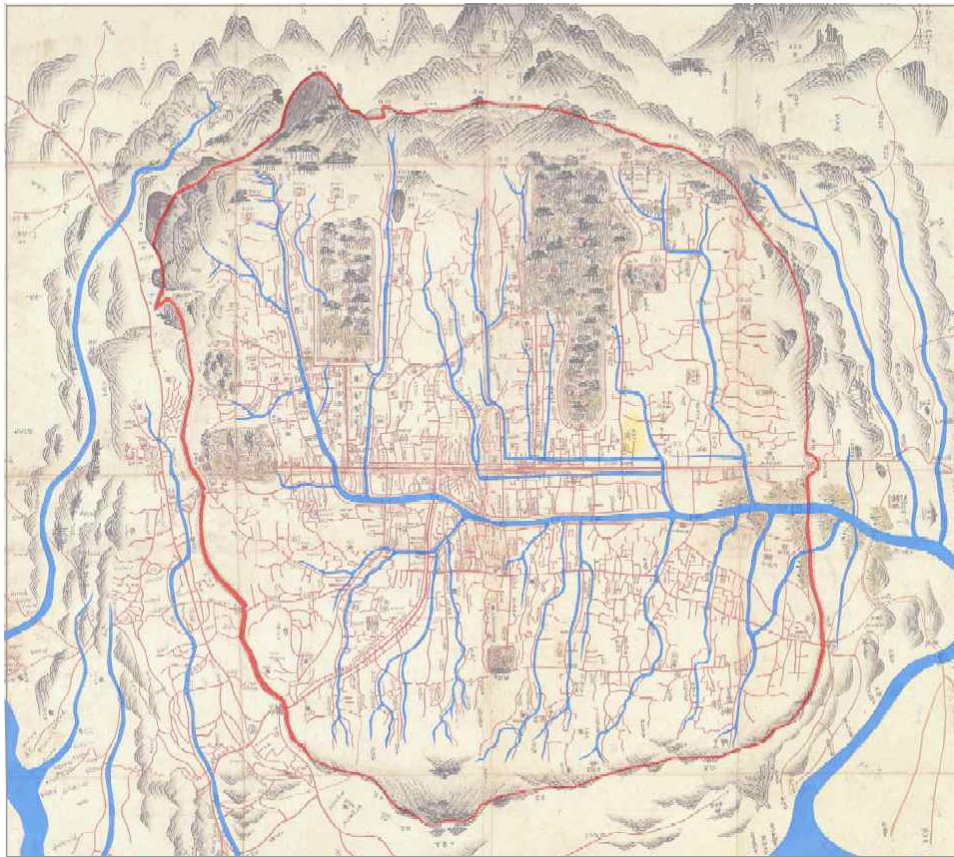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은 육전조례의 기록에서 보듯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지천들이 서울 안으로 흐르고 있었다. 청계천은 중심으로 14개의 지천이 발달했으며, 76개의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왕산에서 흘러내리는 백운동천, 옥류동천, 낙산에서 흘러내리는 흥덕동천, 북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삼청동천, 원동천, 계생동천, 만리퇴, 북영천, 옥류천,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남산동천, 쌍리동천, 주자동천, 묵사동천, 필동천, 남소문동천, 창동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¹³⁶⁾.

청계천과 지천들은 자연하천이면서 동시에 도시하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천은 주요시설이 들어서 있는 마을 단위의 중심 공간이었고, 빨래터이자 하수구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산기슭의 계곡은 상수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명승지로 예술·사상·문학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도성 안의 마을은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 영역과 구조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청계천과 하천은 도성 안의 형성된 마을 문화와 분위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하천의 복개 사업으로 청계천과 지천들도 사라지게 되었고, 과거 조선의 수도인 한양 도성 안의 문화들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¹³⁷⁾.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계천 복원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 수

136) 임희지, 2014, 한성의 정체성 회복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p.242.

도 한양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도성 안의 옛 모습을 조선후기 고지도와 일제강점기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 1:25,000, 1:10,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복원한다. 19세기 초에 제작된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에는 당시 도성 안과 밖으로 흐르는 지천들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의 경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현재와 조선시대 서울의 경관을 비교하기 위해 한양도성과 청계천과 물줄기, 도로를 추출하였다(그림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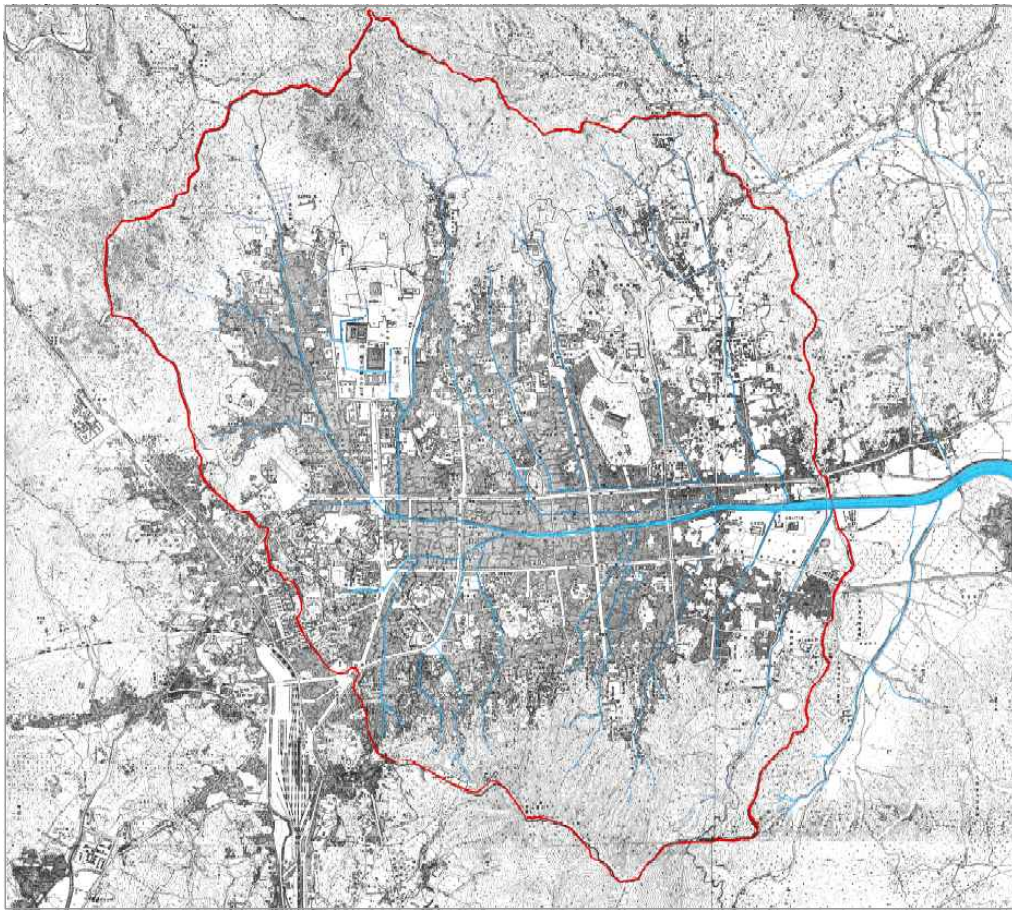


(그림 148)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와 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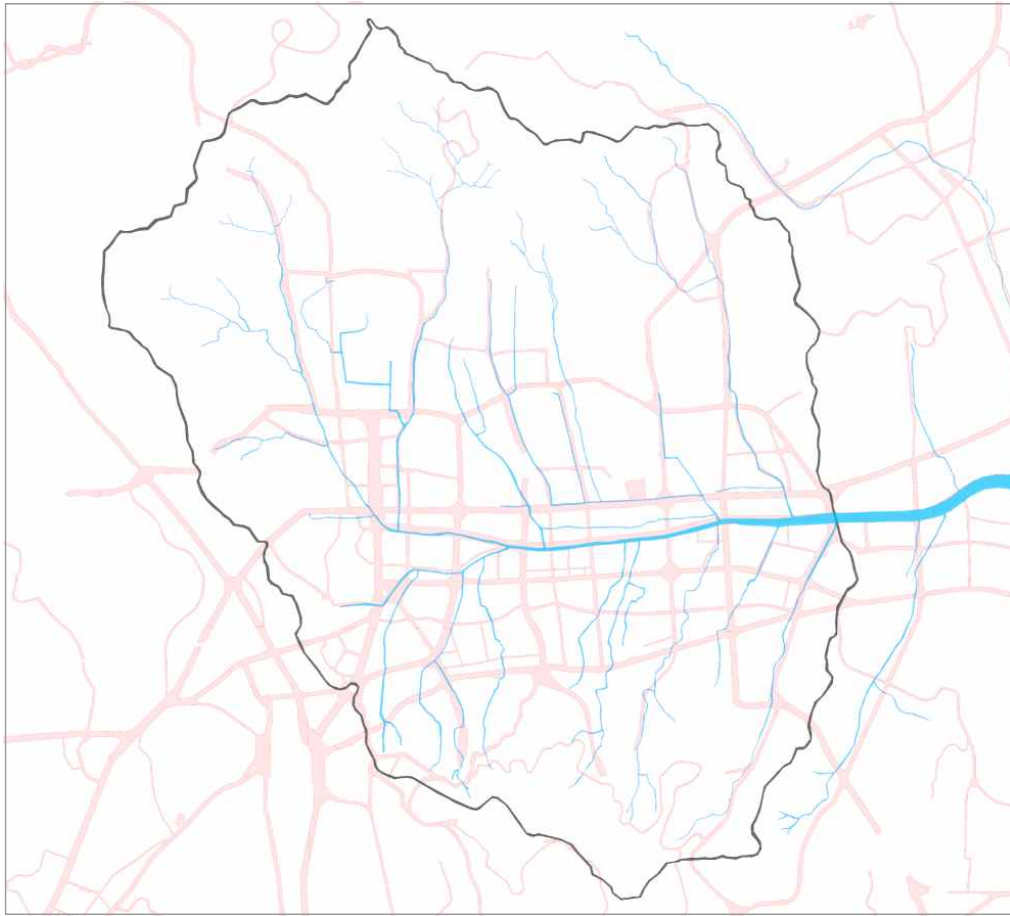
출처 :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19세기 초

137) 임희지, 2014, 앞의 책, pp.242~244.

한국 근대지형도는 측량 방법으로 제작된 지형도로 고지도에서 비해 비교적 인문, 자연 요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50,000, 1:25,000, 1:10,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청계천과 지천들의 복개되기 전 모습을 추출하였다(그림 149).



(그림 149) 도성내의 개천



(그림 150) 현대 도로와 개천

일제강점기 당시의 청계천 및 지천을 현대 도로에 중첩해 보니,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었다(그림 150). 이렇듯 한국 근대지형도의 경관 복원 작업은 100년 전의 하천 경관을 회복하고, 마을의 중심 공간이었던 청계천과 지천들, 계곡 주변의 문화와 경관을 되살리는데 기초 단서가 될 것이다.

2. 한국 근대지형도를 이용한 ‘공주’의 변화 과정

1) 한국 근대지형도 ‘공주’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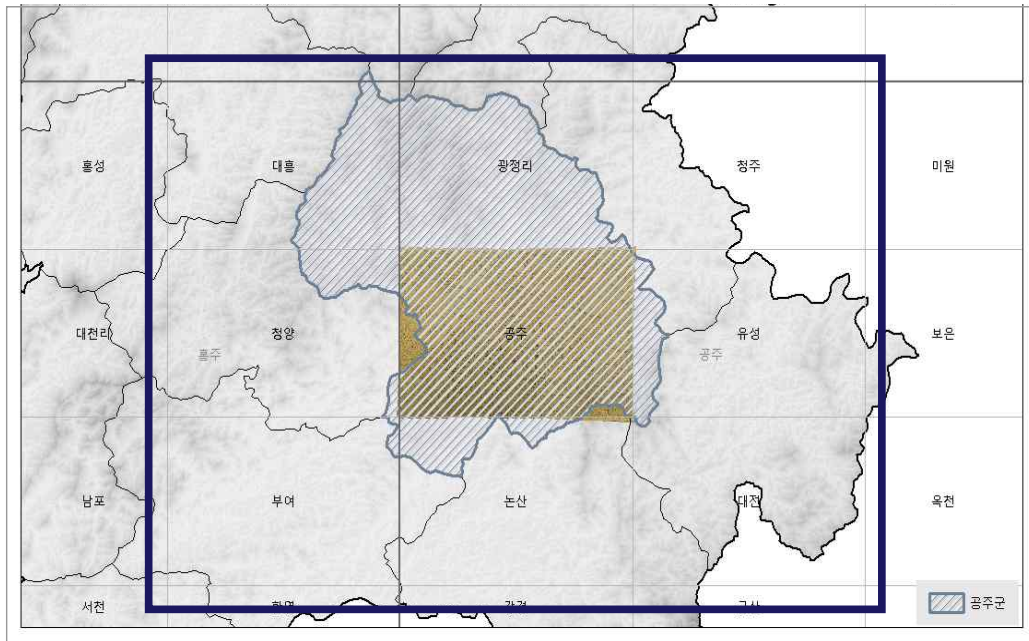
한국 근대지형도는 시기별로 크게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 제3차지형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1918년 측도되고, 그 시기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세 번의 수정측도가 진행되었다. 수정측도는 한반도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았으며, 본 절에서는 세 번에 걸쳐 수정측도가 이루어진 12 도엽 중 ‘공주’지역을 사례도엽으로 선택하여 지형도의 인문·자연경관을 비교하였다.

‘공주’지역은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제2회수정측도, 제3회수정측도로 총 6번에 걸쳐 근대지형도가 제작되었다. 이 중에 제2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수정측도 포함)는 1910년에서 1938년 사이에 측도와 세 번의 수정측도가 이루어졌고, 1913년에서 1940년 사이에 인쇄 및 발행 되었다<표 89>.

공주 지역은 1:50,000 축척으로 제작된 근대지형도에서는 아홉 개의 도엽(대흥, 광정리, 청주, 청양, 공주, 유성, 부여, 논산, 대전)에 걸쳐져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 ‘공주’도엽을 대상으로 인문·자연요소를 비교하려고 한다(그림 151).

<표 89> '공주' 도엽의 판권(板權)

유형	측도년도	수정측도년도	제판년도	인쇄년월일	발행년월일	소장처
제2차지형도	1910년	-	1912년	1913년4월10일	1913년4월15일	미국 의회도서관
제3차지형도	1914년	-	1916년	1919년2월25일	1919년2월28일	미국 의회도서관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1914년	1919년	-	1922년9월25일	1922년9월30일	미국 의회도서관 종로도서관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1914년	1928년	-	1935년5월25일	1935년5월30일	미국 의회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1914년	1938년	-	1940년9월25일	1940년9월30일	미국 의회도서관 스탠포드도서관



(그림 151) 사례도엽 '공주'

2)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화

(1) 행정구역의 변화

방어와 수운에 유리한 공주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특징은 475년에 백제가 도읍을 위례성에서 공주로 옮기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 지역은 538년까지 64년간 백제의 도읍지 역할을 하였으며, 웅진성(熊津城)으로 불렸다. 백제가 멸하고 당나라는 이곳에 웅진도호부를 설치하였다. 686년(신문왕 6) 통일신라시대에는 이 지역에 웅천주를 설치, 13개 군(郡)과 29개의 현(縣)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 지명이 응주로 개칭되었다¹³⁸⁾.

고려시대 940년(태조 23)에 오늘날과 같은 지명인 '공주(公州)'로 개칭되었다. 983년(성종 2)에 12목(牧) 중 하나인 공주목이 설치되었고, 1018년(현종 9)에 공주목은 지사군으로 강등되었으나, 1341년(충혜왕 2)때 다시 목(牧)으로 승격되었다¹³⁹⁾.

조선시대에 군사적 요충지였던 공주 지역은 1457년(세조 3)에 진관체제(鎭管體制)로 확정되면서 진(鎭)이 설치되었고,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던 충청감영이 1603년(선조 36)¹⁴⁰⁾에 공주로 이전되어 충청도의 군사 중심지가 되었다¹⁴¹⁾. 17세기 이후 공주목은 임천·한산의 2개 군과 전의·정산·은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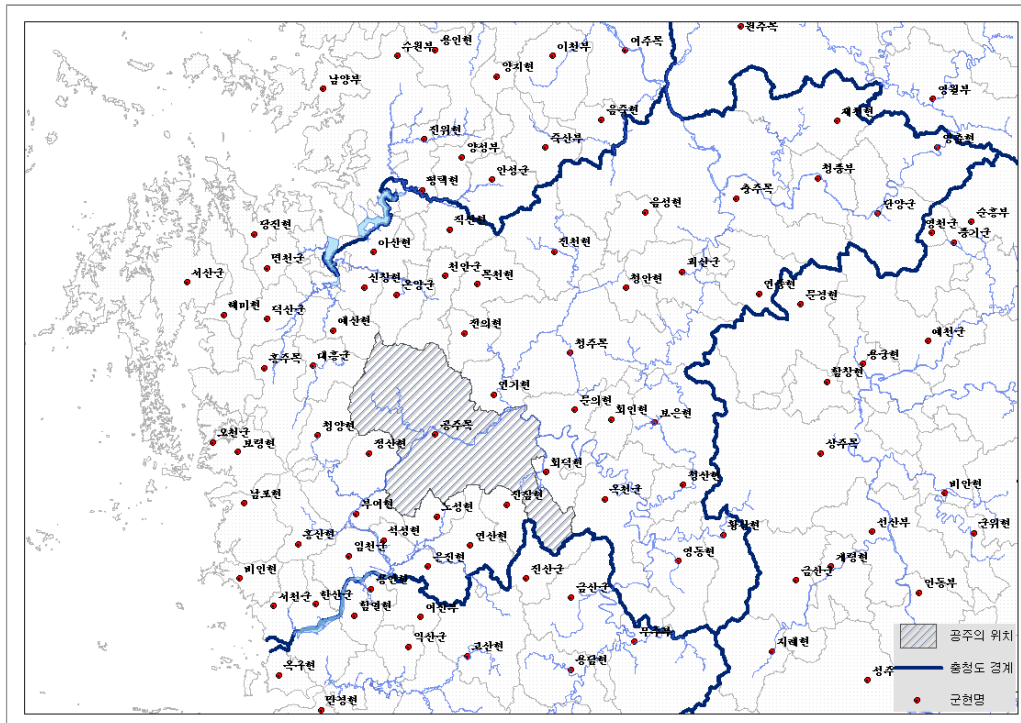
138)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시사(公州市誌), 대문사, pp.458~456.

139)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충청남도지-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p.358.

14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0, 역사문화연구총서(4) 충남역사의 이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pp.203~206. 조선시대 공주목의 충청감영이 이전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1589, 1598, 1600, 1602, 1603년 등이다. 그러나 충청도관찰사에 재임 중에 감영을 설치하는 절차를 계문하여, 1603년에 검목하라는 비답이 내려지니, 쌍수산성을 수축하고, 영사(營舍, 감영의 청사)와 공복문, 진남문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공주목에 충청감영의 이전은 160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영은 1603년에 공산성으로 이전, 1604년 공주 고을의 구영(舊營)으로 이전되었다.

141)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덕·진잠·연산·노성·부여·석성·연기현의 10개의 현을 관리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¹⁴²⁾. (그림 152)은 조선후기(1864년)의 충청도의 공주목이다.



(그림 152) 조선후기 공주목 (18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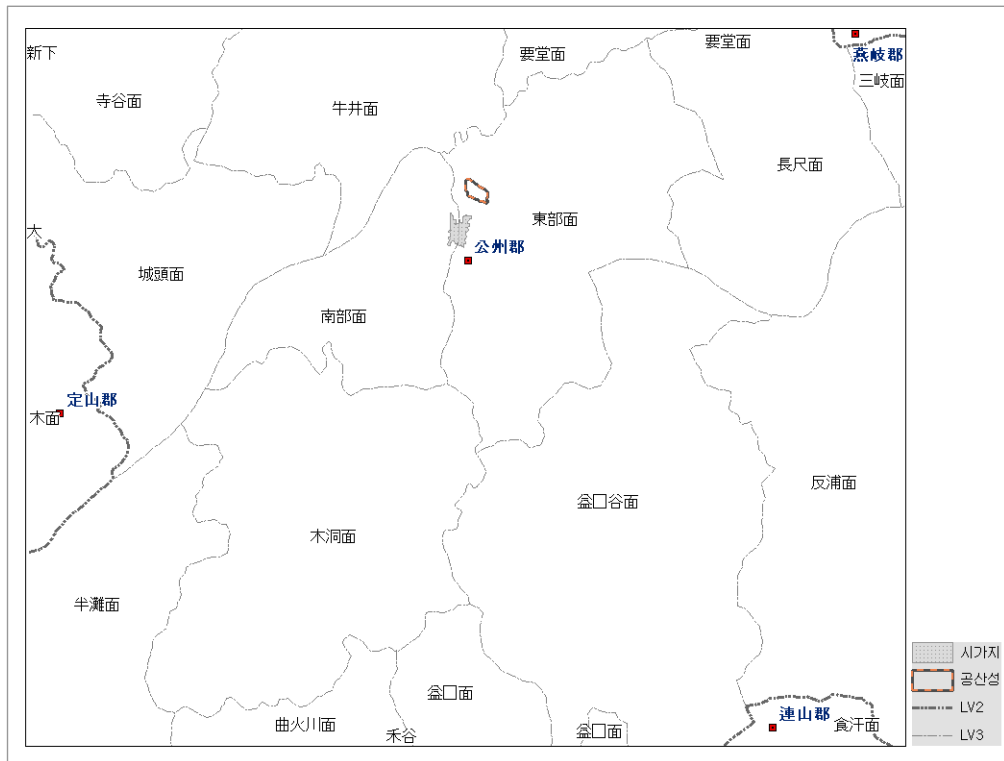
출처 :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하여 재구성

조선시대 행정편제는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었다. 이때 공주목도 1895년(고종 32) 23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공주군으로 개편되어 26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896년 8월에 13도제를 시행한 이후 충청도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분리되었고, 전국의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

142) 뿌리깊은나무(편), 1983, 한국의 발견 - 충청남도-, 뿌리깊은나무, p.210.

로 나누어지게 된다.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에 속한 공주군은 1등군에 속하였으며, 이후 산내면·천내면·구죽면이 회덕군으로 이관되면서 23면으로, 탄동면·유등천면이 다시 이관되어 21개면으로 되었다. 충청남도의 최대 규모의 군이었다. 1912년 1월 1일 공주군은 21개면, 1,059동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기에 군청소재지는 남부면 고상아리에 위치하고 있었다¹⁴³⁾.

(그림 153)은 제2차지형도 ‘공주’ 도엽(1910년 측도)에서 행정구역을 복원한 것이다. 제2차지형도에는 면 경계는 지형도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제3차지형도의 면 경계를 기준으로 면의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 복원하였다.



(그림 153) 제2차지형도 ‘公州’ (1910년 측도)

143)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시사(公州市誌), 대문사, pp.308-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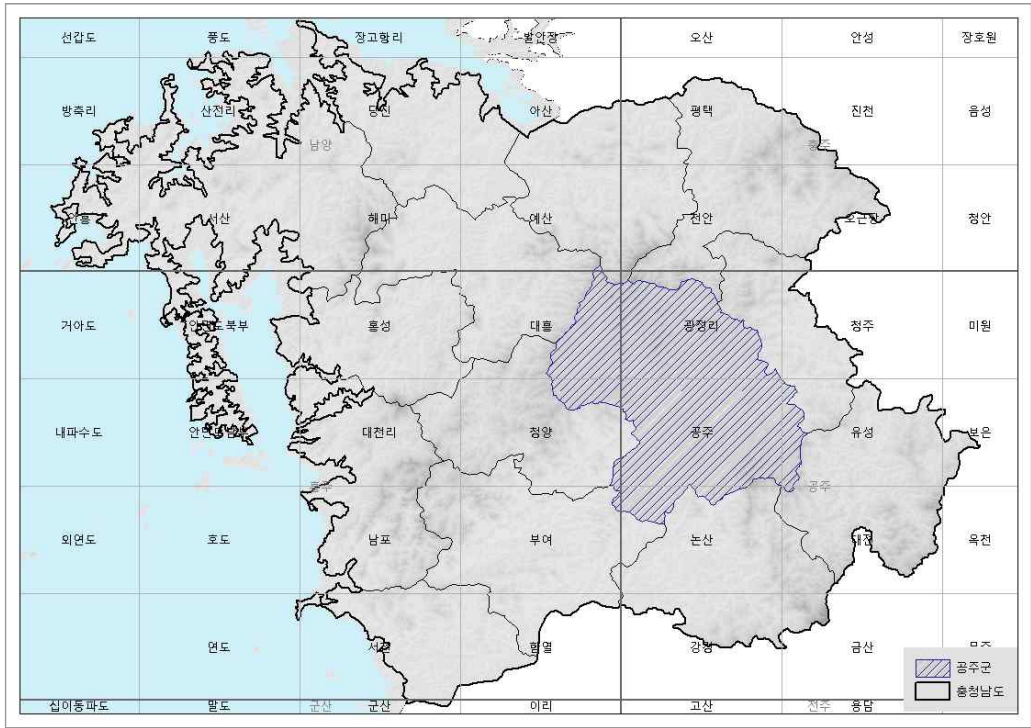
(그림 154)는 제2차지형도 ‘공주’ 도엽에서 남부면과 동부면이 공주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1914년 이후에는 남부면과 동부면의 일부가 공주면으로 변동되었다.



(그림 154) 제2차지형도 ‘公州’ (1910년 측도)의 공주의 일부분

공주가 누리온 행정중심지로서 역할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축소되게 된다. 공주군은 1914년에 ‘군면폐합(행정구역의 축소)’이 실시됨과 동시에 제3차지형도의 대대적인 측도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림 155)는 1914년 기준으로 충청남도 공주군의 행정구역 영역이다. 이때 공주군은 13개면 6개정 207개리로 재편이 되었다. 공주면은 일본식인 마치(町)로 끝나는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⁴⁴⁾

144) 정치영, 2017, 지도로 본 과거 100년간 한국 지방 도시의 경관변화-금강을 끼고 자리한 공주-, 한국학중앙연구원(사업 보고서),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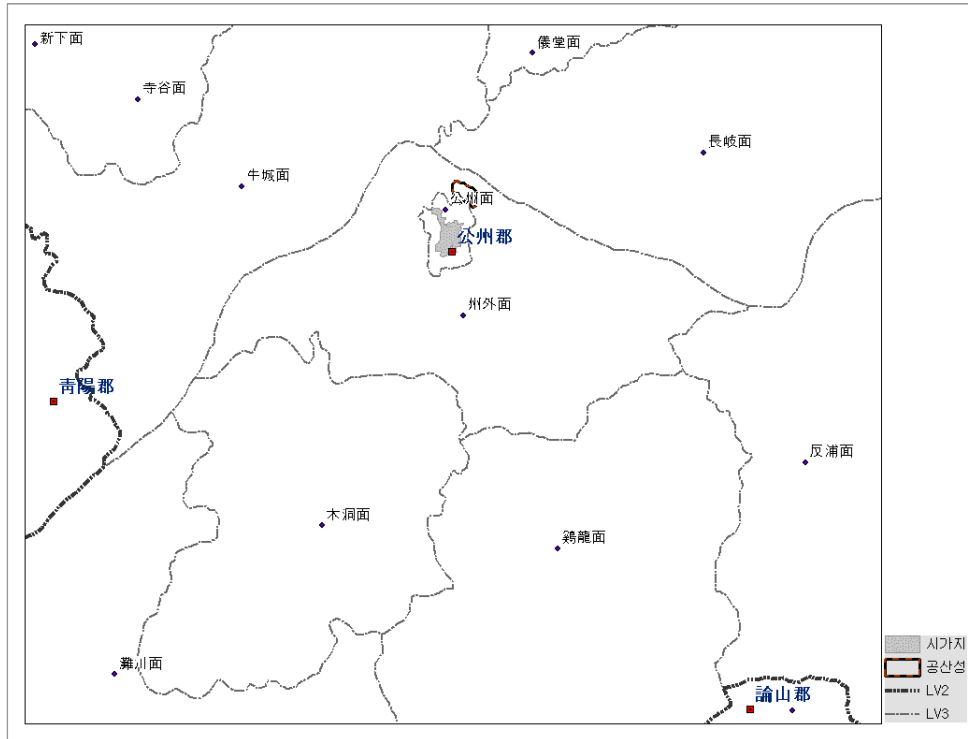


(그림 155) 일제강점기 공주군 (1914년)

1914년 ‘군면폐합’으로 면의 명칭과 편제가 개편됨에 따라 공주군은 공주면(6개정), 주의면(11개리), 목동면(14개리), 우성면(25개리), 탄천면(22개리), 반포면(16개리), 계룡면(16개리), 사곡면(17개리), 장기면(19개리), 정안면(22개리), 의당면(17개리), 신상면(11개리), 신하면(17개리)로 13개면 6개정 207개리로 변동되었다¹⁴⁵⁾.

(그림 156)은 제3차지형도 ‘공주’ 도엽으로 1914년 측도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복원한 모습이다.

145)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시사(公州市誌), 대문사, p.309.



(그림 156) 제3차지형도 '公州面' (1914년 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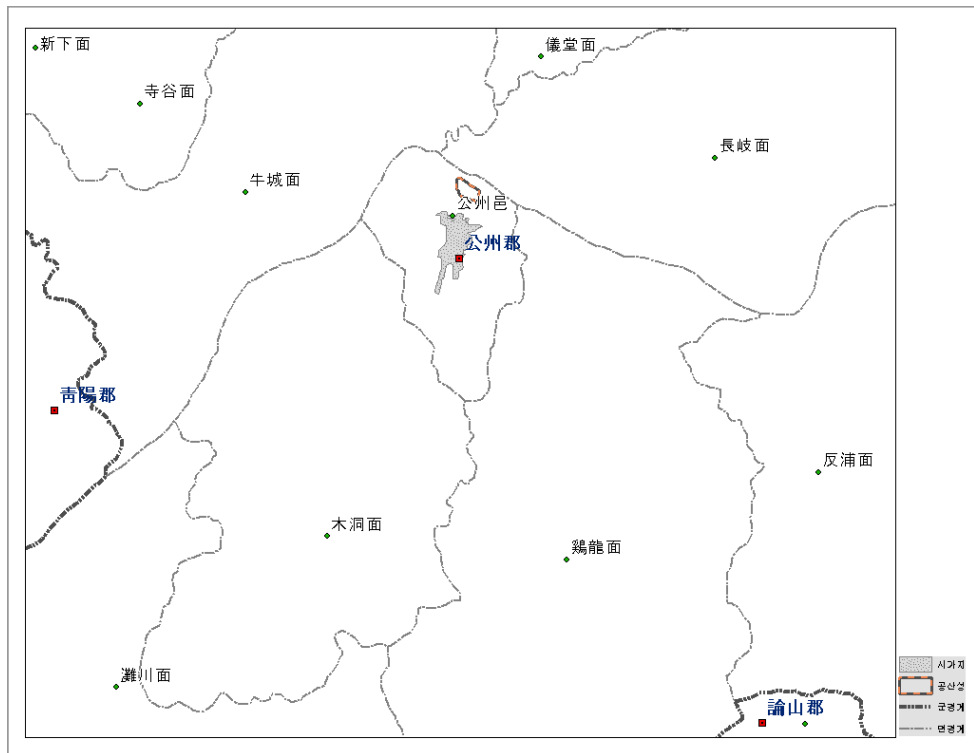


(그림 157) 제3차지형도 '公州面' (1914년 측도)의 공주면 부근

(그림 157)은 제3차지형도 ‘공주’ 도엽에서 공주면의 영역과 공주시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주면에는 산성정, 본정, 대화정, 상반정, 옥정, 금정의 6개정이 소속되어 있다.

1914년 이후 공주군에는 부분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졌다. 1931년 4월 1일 부령 제103호로 공주면이 읍으로 승격이 이루어지고, 이에 공주군은 1읍 12면이 되었다. 또한 1938년 10월 1일에 주외면이 폐지되고, 소속 리와 동은 공주읍과 이인면에 편입이 되어 공주군은 1읍 11면으로 변동되었다¹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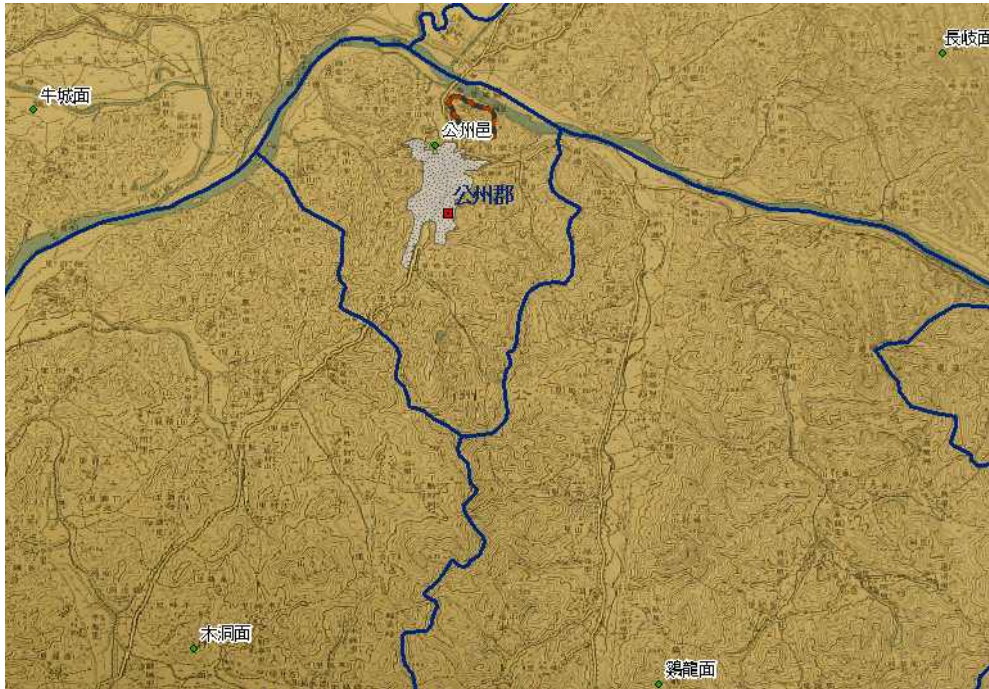
(그림 158)은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공주’ 도엽으로 1938년 수정측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복원하였다.



(그림 158)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公州郡’ (1938년 수정측도)

146)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앞의 책, pp.309-312.

(그림 159)는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공주’ 도엽으로 공주면의 영역과 공주시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주면의 영역이 제3차지형도와 제3회수정측도 과정에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9)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公州郡’ (1938년 수정측도) 공주읍 부근

이와 같이 1914년 이후 행정구역 개편이 부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주’도엽에 면의 영역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 변화 시점은 제2차지형도(1910년)와 제3차지형도(1914년), 제3차지형도와 제3회수정측도(1938년)에서 나타난다. 행정구역상 제3차지형도에서 1914년 면의 통폐합 때와 제3회수정측도된 제3차지형도에서 1938년 주의면이 폐지된 것으로 이를 한국 근대지형도에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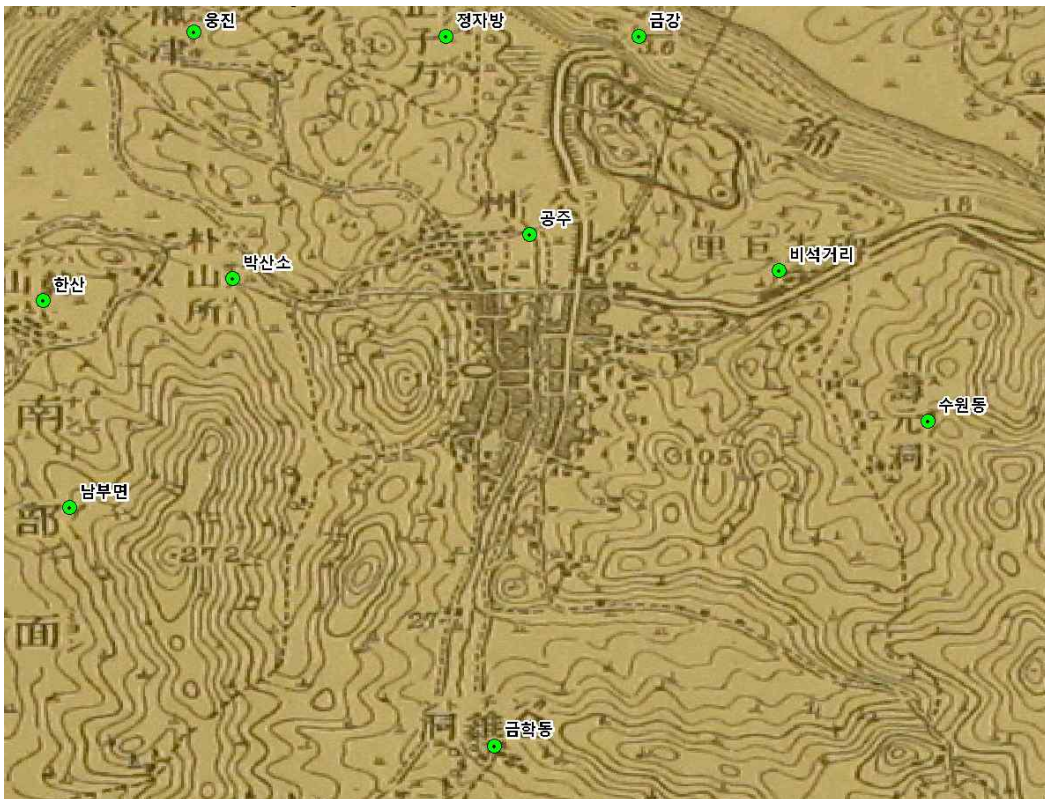
(2) 지명의 변화

한국 근대지형도 ‘공주’도엽에서 제2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도엽에 나타나는 지명을 분석하고, 공주시까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90>은 제2차지형도(1910년 측도)와 제3차지형도(1914년 측도), 제1회수정측도(1919년 수정측도) ‘공주’ 도엽의 전체 지명에 대해 통계 낸 것이다. 크게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문지명으로 분류하고 하위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제2차지형도 265개, 제3차지형도 463개로 전체 지명의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90> 시기별 ‘공주’ 도엽의 지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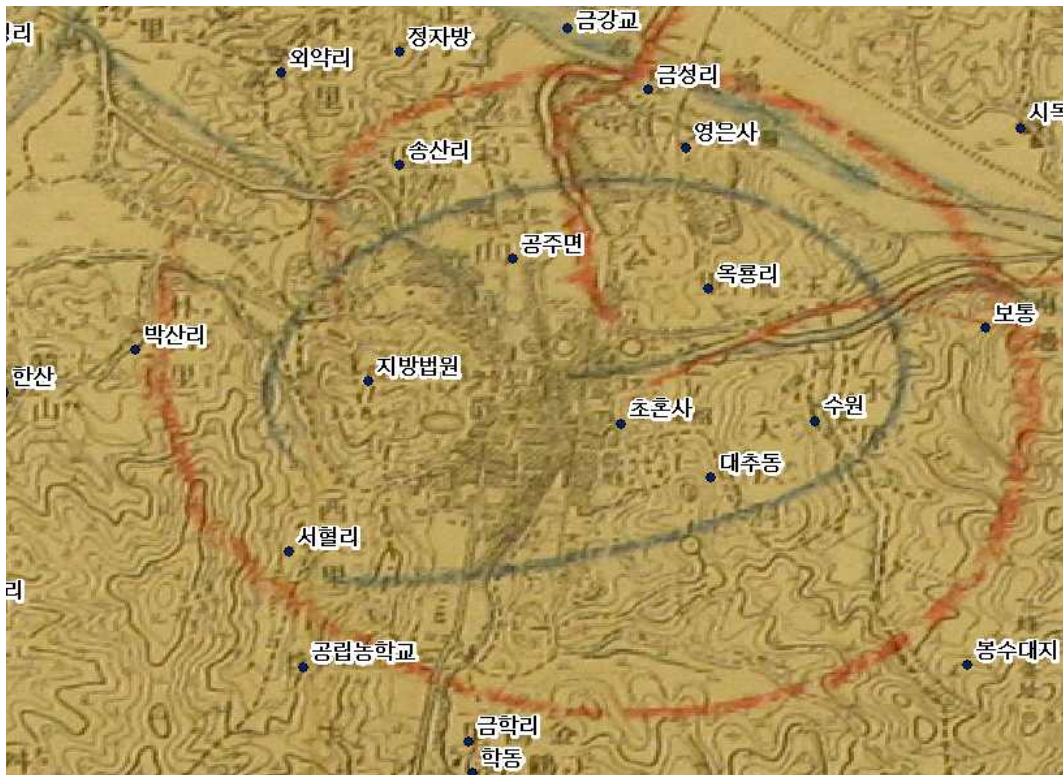
1차 분류	2차 분류	제2차지형도 (1910년 측도)	제3차지형도 (1914년 측도)	제1회수정측도 (1919년 수정측도)
행정지명	행정지명(군)	3	3	3
	행정지명(면)	7	13	13
	행정지명(리/동)	47	97	95
	건축물			1
자연지명	산	10	17	17
	고개	6	5	6
	하천	2	6	7
	호수	1	2	2
인문지명	교량		1	1
	수상교통		1	1
	촌락(자연마을)	185	310	314
	국가행정공공시설		2	2
	군사통신시설		1	1
	능(陵)	2		
	종교시설	2	4	4
	학교		1	1
	합	265	463	468

공주시가지 중심으로 지명 변화를 보고자 한다. (그림 160)은 1910년에 측도된 제2차지형도, 공주시가지의 모습이다. 공주시가지 중심으로는 지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주시가지 주변으로 금강, 남부면, 비석거리, 수원동, 박산소, 금학동, 정자방, 웅진 등의 지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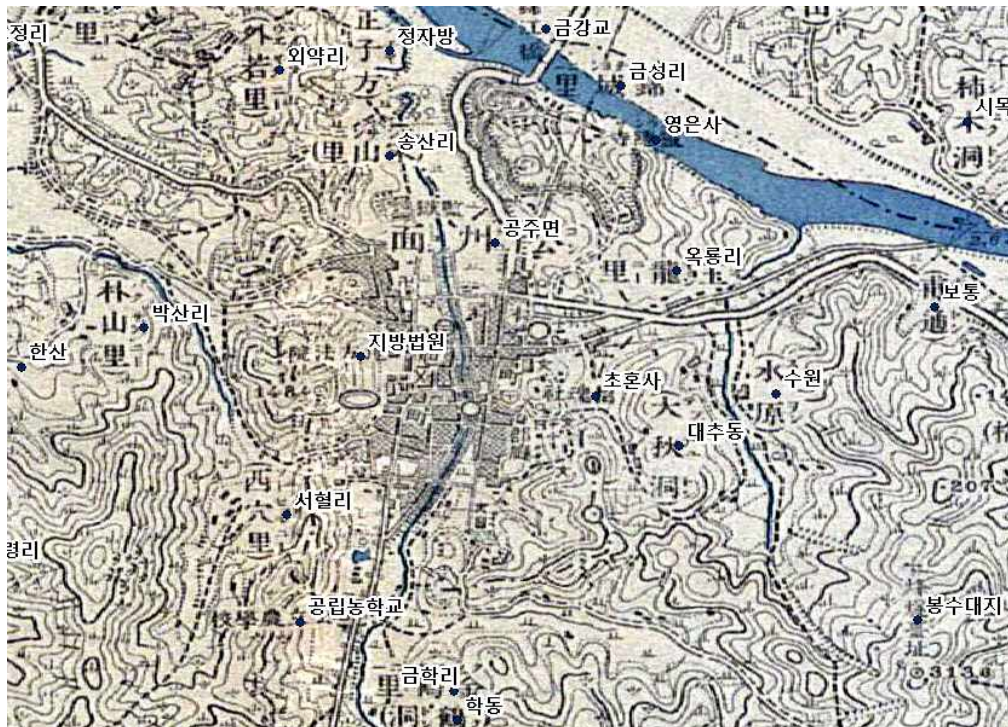
(그림 160) 제2차지형도 '公州' (1910년 측도)의 공주시가지의 지명
출처 : 미국의회도서관

(그림 161)은 1914년에 측도된 제3차지형도로 공주시가지 중심의 모습이다. 공주시가지 중심으로 제2차지형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명이 보인다. 공주면과 지방법원, 초혼사, 영은사, 공립농학교, 대추동, 서혈리, 송산리 등이다. 그리고 제2차지형도에서 비석거리가 제3차지형도에서 옥룡리로 변동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교도 지명과 더불어 지형도에 보인다.



(그림 161) 제3차지형도 '公州' (1914년 측도)의 공주시가지의 지명
출처 : 미국의회도서관

(그림 162)는 제1회수정측도 도엽으로 1919년에 측도되었다. 1914년 측도가 이루어진 제3차지형도의 지명에서 변동은 없다. 그러나 공주시가지 내부에는 관공서, 학교 등이 지명은 보이지 않지만 기호가 추가되고, 시가지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2) 제1회수정측도 '公州' (1919년 측도)의 공주시가지의 지명
출처 : 종로도서관

제2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 사이에 지명의 변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 지명의 수는 물론, 지명 변동도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차지형도와 제1회수정측도 사이에는 지명의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공주시가지가 확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시기별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여 지역마다, 혹은 전국적으로 지명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교통로의 변화

(1) 도로

근대 교통로인 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공주 지역은 서울과 전라도 양방향으로 향하는 삼남대로(三南大路)의 주요거점이었다. 충청도 지역의 지방행정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공주는 충청남도의 중심에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각 지방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가 방사상으로 발달되었다. 그리고 천안에서 차령산맥을 넘어 공주를 거쳐 호남지방으로 가는 도로는 조선시대에도 대로(大路) 중에 하나였다. 공주에서 천안, 논산, 대전으로 발달된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이 중에 공주-천안-논산 간 도로는 구조곡을 따라 발달되어서 남북으로 거의 직선의 형태이다¹⁴⁷⁾.

공주에 철도선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도청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1923년 공주에는 1등도로(천안-논산), 2등도로(대전-조치원), 3등도로(부여-예산)가 방사성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1, 2등도로는 총독부가 관리하였고, 3등도로는 도(道)에서, 등외도로는 소재지 읍면(邑面)에서 관리하였다¹⁴⁸⁾.

당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했던 도로는 ‘공청가도(公淸街道)’로 불리는 도로였다. 전막(금강교의 건너편)을 지나 조치원과 청주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전쟁을 목적으로 급조한 신작로이다. 조치원에 있는 철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였다¹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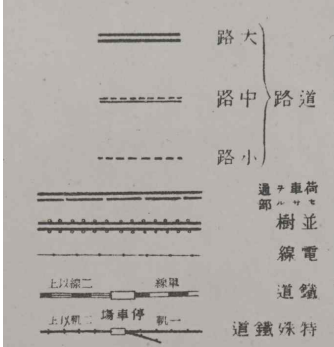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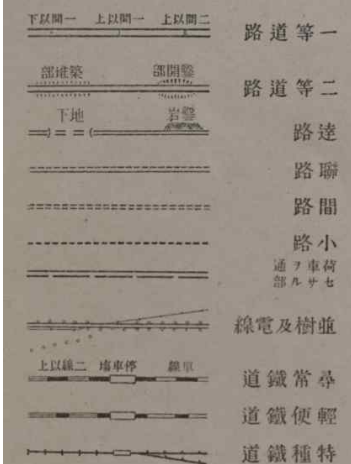
한국 근대지형도 범례 중에 도로의 기호를 보면, 2차지형도는 도로를 대

147)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충청남도지-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pp.360~361.

148)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앞의 책, p.489.

149)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앞의 책, p.489.

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 제3차지형도는 일등도로(一等道路)·이등도로(二等道路)·달로(達路)·연로(聯路)·간로(間路)·소로(小路)로 분류되어 있다. 도로의 기호는 1910년 측도된 제2차지형도에는 도로를 세 가지 형태(대로·중로·소로)로 분류하였고, 1914년 이후 측도된 제3차지형도는 1914년에 도로규칙을 제정하여 1·2·3등도로와 등의도로로 구분하였다¹⁵⁰⁾ (그림 163).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p>대로 중로 소로</p> <p>집수레통로 가로수 전선 철도 특종철도</p>		<p>일등도로 이등도로 달로 연로 간로 소로 집수레통로 가로수외전선 심상철도 경편철도 특종철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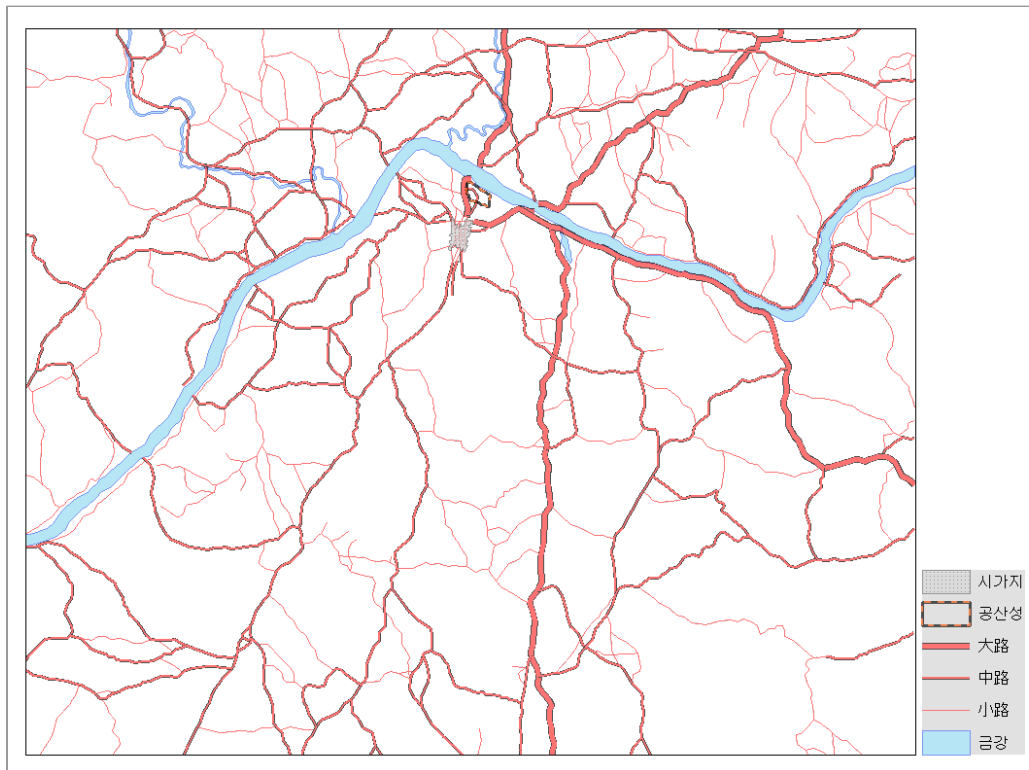
(그림 163) 교통로의 범례

제2차지형도에 대로(大路)로는 천안-논산, 대전, 조치원, 중로(中路)는 부여로 도로망이 표현되어 있고, 제3차지형도(1914, 1919, 1928)에 일등도로(一等道路)로는 천안-논산, 이등도로(二等道路)는 대전, 조치원, 부여로 통하는 도로망으로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 측도된 제3회수정측도(1938)에는 부여로 통하는 도로망이 일등도로로, 논산-대전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새롭게 구축된 것을 반영되어 있다.

150) 김종혁, 2013,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권 2호, p.86.

간선도로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공산성을 가로 질러 통과하여 나루로 연결되었던 조선시대 대로(大路)가 공산성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우회하여 금강교로 향하도록 노선이 바뀐 점이다. 이 도로는 이후 1등도로로 지정이 되었고, 새로 건설된 도로 구간에 가로수를 심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⁵¹⁾. 제2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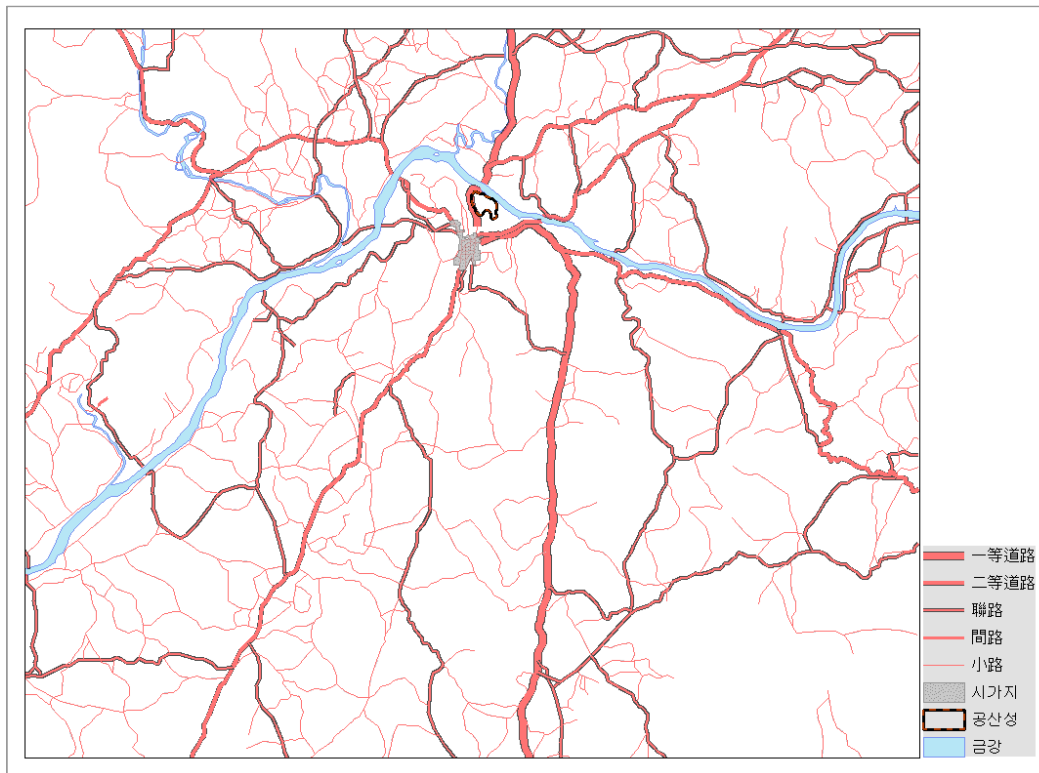
(그림 164)는 제2차지형도에 나타난 대로·중로·소로를 복원한 것이다. 각각의 도로의 총 길이는, 대로의 길이 4.4km, 중로의 길이 2.7km, 소로의 길이는 2.8km로 나타났다.



(그림 164) 제2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0년 측도)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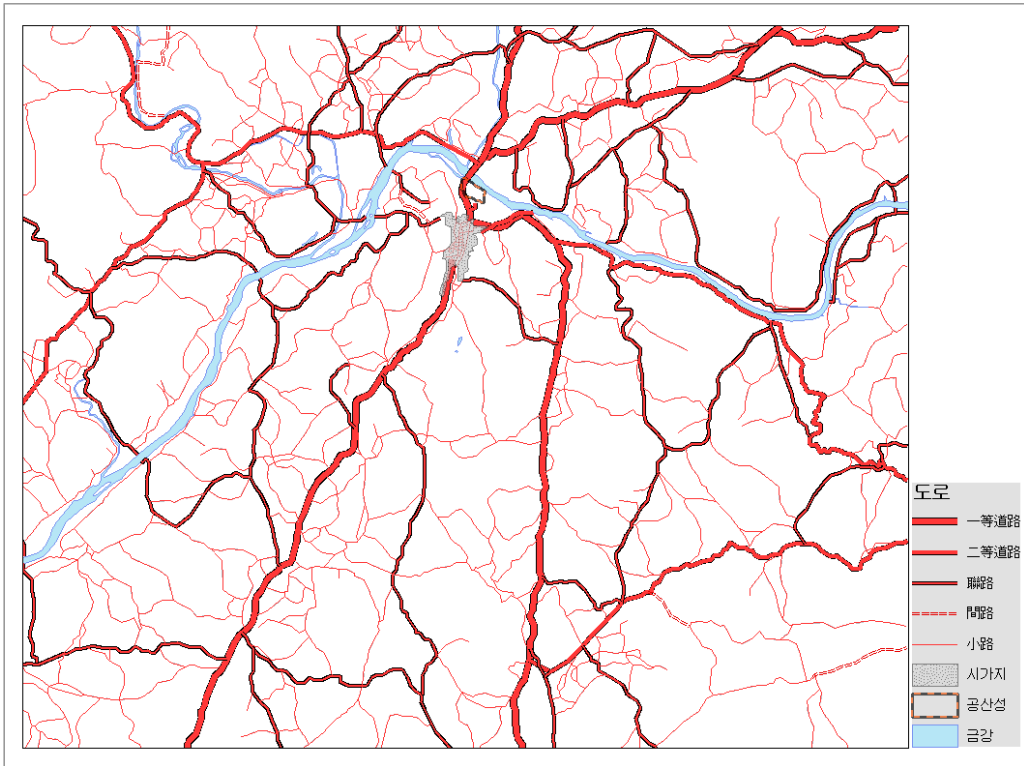
151) 정치영, 2017, 지도로 본 과거 100년간 한국 지방 도시의 경관변화-금강을 끼고 자리한 공주-, 한국학중앙연구원(사업 보고서), p.97.

(그림 165)는 제3차지형도에 도로인 일등도로·이등도로·달로·연로·간로·소로를 복원한 것이다. 각각의 도로의 총 길이는, 일등도로의 길이 2.1km, 이등도로의 길이 6.6km, 연로의 길이 1.8km, 간로의 길이 0.35km, 소로의 길이는 5.1km으로 나타났다. 제2차지형도의 대로·중로·소로로 분류한 것과 달리, 제3차지형도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여섯 개로 세분화되었다.



(그림 165) 제3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4년 측도)의 도로

(그림 166)은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도엽으로 일등도로·이등도로·달로·연로·간로·소로를 복원한 것이다. 각각의 도로의 총 길이는, 일등도로의 4.8km 길이는 , 이등도로의 길이는 4.9km, 연로의 길이 1.7km, 간로의 길이 8.9km, 소로의 길이는 5.5km로 나타났다.



(그림 166)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38년 수정측도)의 도로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도로의 길이는 <표 91>과 같다. 제3차지형도에서 제3회수정측도 사이에 이등도로였던 공주-부여간 도로가 일등도로가 되면서 도로의 길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제3회수정측도에서 계룡산 부근에 간로와 소로가 놓이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표 91> '공주' 도엽의 도로 길이(km)

	大路	中路	小路		
	一等道路	二等道路	聯路	間路	小路
제2차지형도	4.4	2.7	2.8		
제3차지형도	2.1	6.6	1.8	0.35	5.1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4.8	4.9	1.7	8.9	5.5

(2) 금강교

공주를 관통하는 금강은 내륙수로로서 서해와 내륙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운로(水運路)로, 물산의 집산지,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하던 장소이다. 금강은 하구에서 연기군 부강(芙蓉) 구들기나루까지 24개의 하항(河港)이 있었고, 강경, 규암, 왕진, 공주, 부강 등이 유명하였다. 그 결과, 공주 지역은 고마나루와 전막일대가 번창하였으며, 금강 나루는 하천으로 분리된 지역을 연결해주는 이동로이자 교통로, 전통시대의 산업도로망 역할을 하였다¹⁵²⁾.

그러나 경부선(부설시기 1899~1905년)과 호남선(1910~1914년)의 노선이 조치원과 대전을 중심으로 발달함에 따라 공주는 개발의 기회가 상실되었고, 금강의 수운로의 기능은 경부선 철도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1914년 대전을 분기점으로 호남선이 건설됨에 따라 금강의 내륙수로의 기능은 강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¹⁵³⁾.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전후로 1918년까지 공주의 시가지 정비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초반에 추진한 사업이 금강교 건설이었다. 금강교가 건설된 후에는 중부와 호남을 연결하기 위해 연기군으로 우회하던 도로가 없어지고, 천안에서 공주와 논산을 거쳐 호남으로 통하는 이동거리를 약 50km 단축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이후 금강교는 공주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¹⁵⁴⁾

금강교의 명칭은 배다리, 산성교, 김갑순다리 등 다양하게 불리었는데, 제일 처음 생긴 금강교의 위치는 금강나루가 있던 지점이다. 금강교가 가설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과 물류의 이동은 나루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가설된 후 1933년 금강철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공주의 구도심과 금강 북쪽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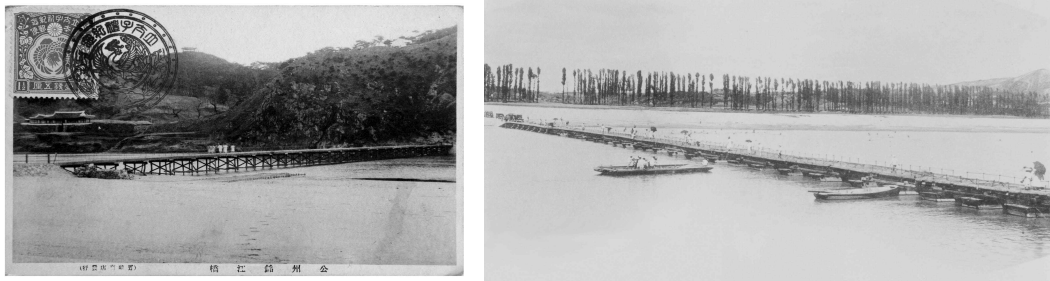
152) 정현정, 2012, “공주지역 근현대 유적 ‘금강교’의 역사자료와 의미”, 웅진문화 25집, p.75.

153)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시사(公州市誌), 대문사, pp.458~456.

154) 정현정, 2012, 앞의 논문, p.76.

하는 교통로였다¹⁵⁵⁾.

금강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노베르트 베버(Nobert Weber)신부의 회상록¹⁵⁶⁾에서 볼 수 있다. 1911년 4월 22에 다리를 건넜다는 내용으로 적어도 이 시기에 다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자료는 기념엽서이다. 엽서에 ‘입태자례기념(立太子禮記念) 공주 5. 11. 3’의 공주우편국 소인이 찍힌 것으로 보아 1916년임이 확인 할 수 있고, 금강교의 모습이 목교(木橋)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¹⁵⁷⁾. 금강교의 형태는 시기별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920년대 배다리의 형태로 된 것을 (그림 16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7) 금강교 기념엽서 목교 형태(1916, 위), 배다리 형태(1920년대,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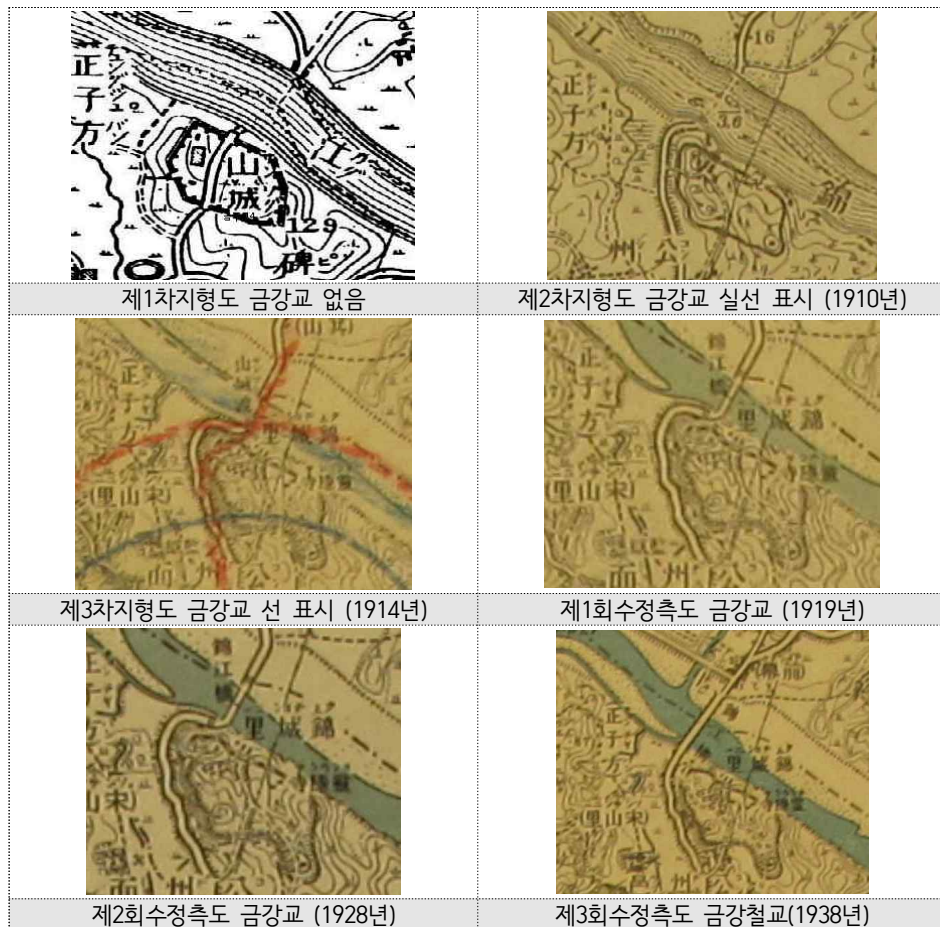
출처 : 정현정, 2012, “공주지역 근현대 유적 ‘금강교’의 역사자료와 의미”, 웅진문화 25집, pp.84~85, 재인용.

금강교의 변화 과정을 한국 근대지형도에서도 나타난다.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에서는 다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지형도에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3차지형도(1914년 측도)에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168).

155) 정현정, 2012, 앞의 논문, pp.73~74.

156) 노베르트 베버(Nobert Weber), 동방의 조용한 나라에서-한국에 대한 여행, 회상록.

157) 정현정, 2012, 앞의 논문,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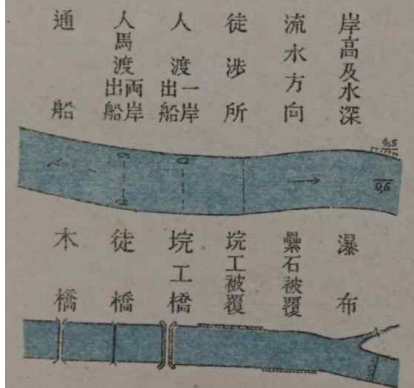
(그림 168) 공주 금강교(錦江橋)의 모습

제1회, 제2회수정측도 지형도에서는 다리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19년에는 이미 금강교가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3회수정측도 지형도에서는 1933년에 완공된 금강철교와 그 주변으로 도로가 함께 발달된 모습이 반영되었다. 금강철교는 도청 이전의 보상으로 건설된 것으로 길이 514m의 길이로 개통되었다¹⁵⁸⁾. 시기별 제작된 지형도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158) 정치영, 2017, 지도로 본 과거 100년간 한국 지방 도시의 경관변화-금강을 끼고 자리한 공주-, 한국학중앙연구원(사업 보고서), pp.102-103.

금강교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형도의 범례 중 하천과 교량 기호를 비교해 보면, 제2차지형도의 범례에서는 교량에 대한 기호가 없고, 제3차지형도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량의 형태에 따라 교량을 구분, 完工橋 · 徒橋 · 木橋로 분류하였다(그림 169). 이는 이 시기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 확장 및 철도 건설과 함께 자연환경인 강으로 분리되었던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교각)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근대지형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후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 철도망을 계획하는 기본 정보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p>기선</p> <p>배기(인양)</p> <p>배기(인양)</p> <p>수레가 건너는 지점</p> <p>도보로 건너는 지점</p> <p>수심과 어력높이</p>	<p>통선</p> <p>사람 말 건너는 배(인양)</p> <p>사람만 건너는 배(인양)</p> <p>도보로 건너는 지점</p> <p>우깃방향</p> <p>어력높이와 수심</p> <hr/> <p>목교</p> <p>도교</p> <p>완공교</p> <p>완공피복</p> <p>누석피복</p> <p>폭포</p>

(그림 169) 수부(水部)의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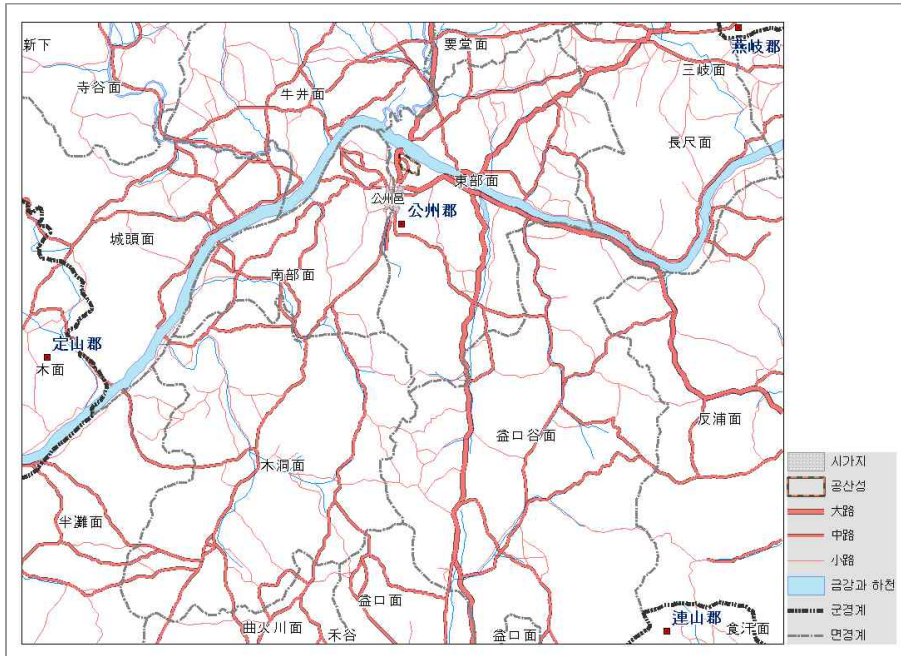
4)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20세기 전반 ‘공주’의 모습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 제1회~제3회수정측도, 총 5개도엽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공주’도엽의 행정구역, 교통로, 구시가지와 공산성, 하천의 레이어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그림 17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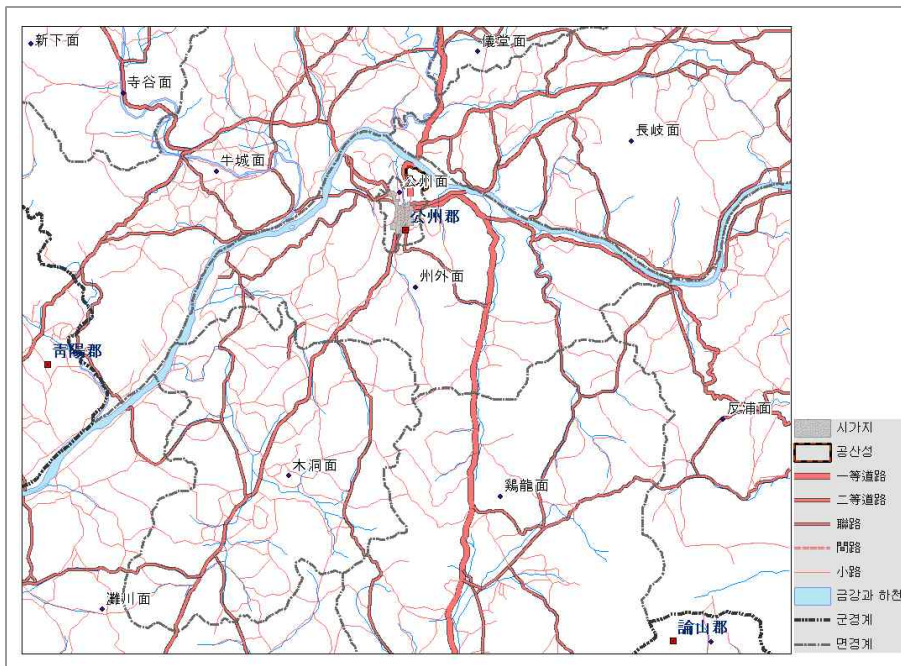
행정영역과 행정지명의 변화, 도로의 확장, 하천유로의 변화, 시가지 영역의 확장 등의 내도곽 내용의 변화가 지형도를 수정측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기별 지형도는 문헌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시공간의 인문·자연지리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임에 틀림이 없다.

각각의 인문·자연요소별로의 레이어를 추출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현대 수치지도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형도는 종이지도로 형태로 있어 현재의 데이터와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지형도를 수치지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20세기초 인문, 자연지리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경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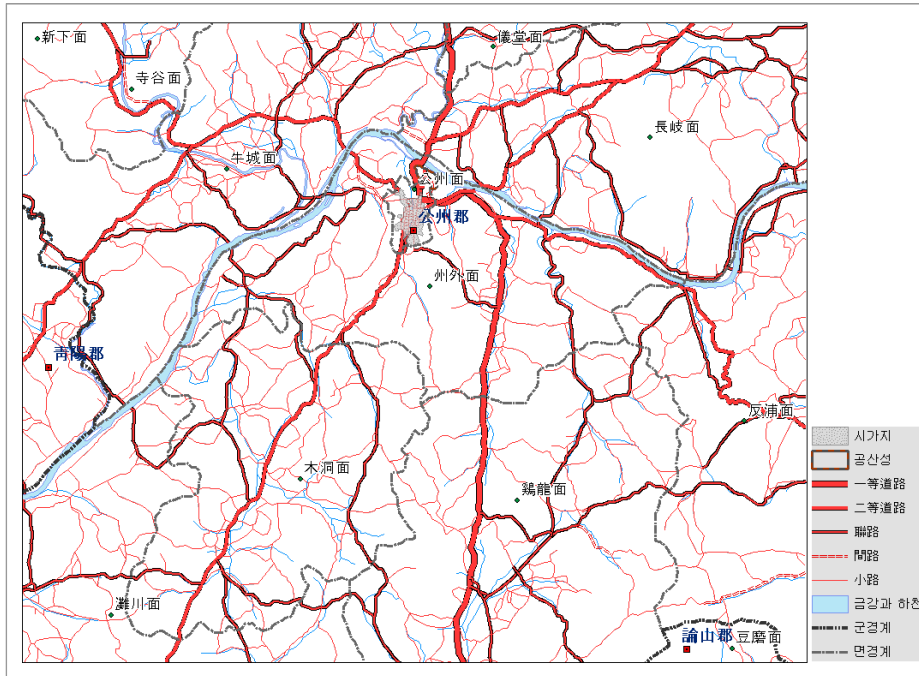
지금까지 ‘공주’도엽의 내도곽의 내용을 각각의 레이어로 추출하여 1910년에서 1938년 사이에 변화상을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공주’도엽을 수치지도화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세 시기의 지형도를 ‘공주’도엽과 같은 방법으로 수치지도화 작업을 한다면, 20세기 초의 한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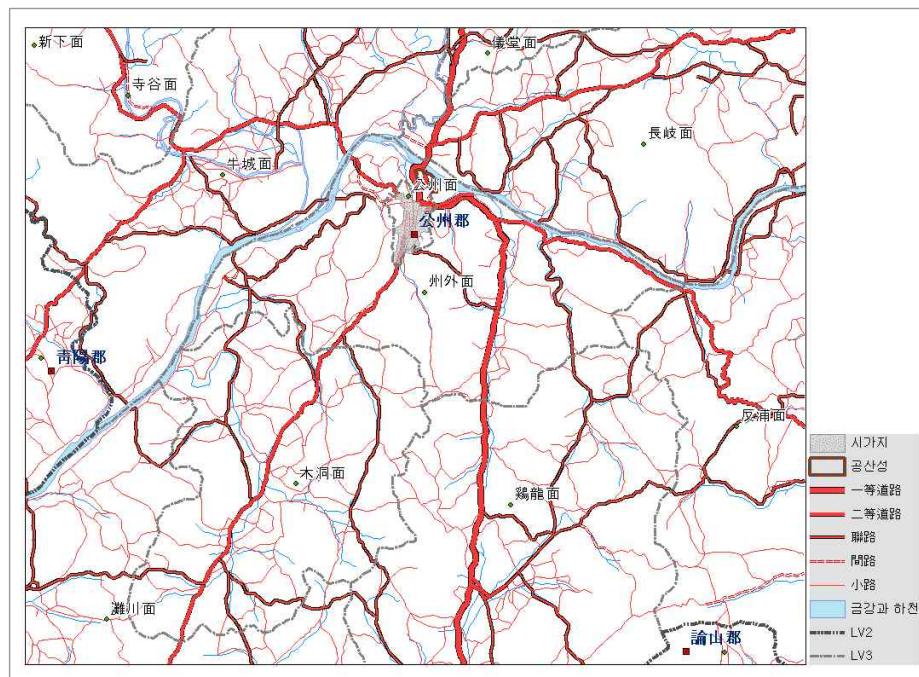
(그림 170) 제2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0년 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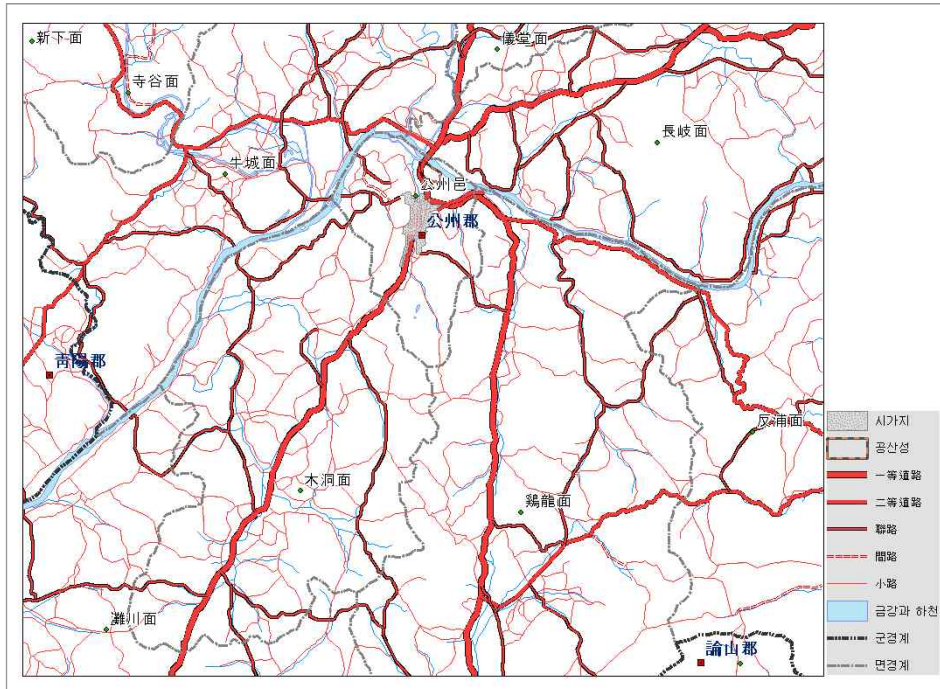
(그림 171) 제3차지형도 '공주' 도엽 (1914년 측도)



(그림 172) 제3차지형도 제1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19년 수정측도)



(그림 173) 제3차지형도 제2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28년 수정측도)



(그림 174)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공주' 도엽 (1938년 수정측도)

VI. 결론

한국의 지도 제작의 역사를 볼 때, 전통적 지도 제작이 아닌 삼각점 망을 이용한 근대적 측량을 통한 지도 제작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한일병합 이전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근대적 측량 방법에 의한 한국의 지형도는 일본에 의해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가 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국 근대지형도라 칭하였다. 본 논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국내외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 목록 정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까지 한국 근대지형도 관련 자료는 한국에서 발간된 영인본 『舊韓末 韓半島地形圖』,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를 이용해 왔다. 이는 이 시기 지역 연구와 경관 연구를 위한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한국 근대지형도에 대한 지도사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시기별로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특징과 국내외 소장 현황에 따른 특징을 정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근대지형도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국내외 6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종로도서관, 국토지리정보원을, 해외 기관은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이제까지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구체적인 목록이 소개되지 않았던 만큼,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를 공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둘째, 여섯 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 목록을 정리한 결과, 한국 기관 중 가장 많은 도엽을 소장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양한 축척의 한국 근대지형도 1,520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제1차지형도 137도엽, 제2차지형도 335도엽, 제3차지형도 712도엽(중복도엽 제외)이 소장되어 있다. 제3차지형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1회~3회 수정축도가 이루어졌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제1회수정축도 25도엽, 제2회수정축도 8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제1차지형도 81도엽, 제2차지형도 34도엽, 제3차지형도 494도엽이 소장되어 있으며, 수정축도 도엽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로도서관에는 제3차지형도 633도엽이 소장되어 있고, 이중 제1회수정축도 8도엽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는 제3차지형도 722도엽 중 제1회수정축도는 128도엽, 제2회수정축도는 34도엽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 네 개 기관 중 제3차지형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해외 기관인 미국 의회도서관에는 1:50,000 한국 근대지형도가 중복된 도엽을 포함하여 총 1,864도엽이 소장되어 있다.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제1차지형도 70도엽, 제2차지형도 266도엽, 제3차지형도 494도엽(중복된 도엽 제외)으로 정리된다. 또한 제3차지형도에는 제1회수정축도 254도엽, 제2회수정축도 71도엽, 제3회수정축도 12도엽이 있다. 여섯 개의 기관 중에 제3회수정축도 도엽은 미국 의회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는 다양한 축척의 한국 근대지형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중 1:50,000지형도를 시기별로 보면, 제1차지형도 446도엽, 제2차지형도 315도엽, 제3차지형도 706도엽이다. 제3차지형도 중 제1회수정축도 42도엽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지형도는 자료로 이용되었을 뿐, 소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6

개 기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은 본 논문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셋째, 국내외 기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를 정리, 목록화한 결과, 제3차지형도의 제작 도엽수는 총 727도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영인본에서는 722도엽으로, 일본 외방도 연구 결과에서는 724, 또는 727도엽으로 소개된 바 있다. 727도엽의 경우, 이는 과거 문헌을 통한 추정 숫자일 뿐, 영인본 제작 시 722도엽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제까지 727도엽에서 영인본에 누락되어 있었던 5도엽의 원본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제3차지형도 중 네 도엽(부산, 가덕도, 동두말, 호도반도)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확인하였고, 나머지 방구미리도엽의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의 조사 대상 기관 외에 스탠포드대학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였다. 이로써 다섯 도엽 모두 새롭게 확인하였고, 이는 총 727도엽으로 구성된 제3차지형도의 제작 도엽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성과 중에 하나이다.

넷째, 영인본은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를 모아 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제2차지형도는 구체적인 도엽 확인이 되지 않았었다. 다만 장서각에 소장된 34도엽만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34도엽은 총 342도엽으로 구성된 제2차지형도의 약 1/10 정도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제2차지형도 원본을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확인하여, 그 목록을 정리하였다. 제2차지형도는 제1차지형도와 제3차지형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다섯째,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기관 중 미국 의회도서관은 한국 근대지형

도의 도엽 수가 가장 많고, 제1차지형도부터 시작해 제3차지형도 제3회수정측도 도엽까지 각 시기별로 제작된 지형도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 제작 기관 역시 육지측량부를 포함하여, 당시 각 기관별 필요에 따라 제작된 지도가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다. 그런 만큼, 총 1,864도엽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 근대지형도를 중심으로 지도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산, 가덕도, 동두말, 호도반도 도엽을 확인하였고, 제3회수정측도 12도엽 역시 유일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외 어떤 기관에도 소장하지 않은 지도로, 그 가치가 있다.

시기별로 제1차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3차지형도와 제1회~제3회수정측도 도엽의 지형도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각 시기별로 제작된 한국 근대지형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차지형도와 제2차지형도의 가장 큰 차이는 지리정보의 범위와 표현 방법 및 범례의 위치, 그리고 축척의 표식이었다. 그리고 제2차지형도에서 제3차지형도로 제작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흑색 단색으로 제작되었던 지도에 채색이 2색(수부 담청색), 3색(갈등색)이 추가된 점, 지역에 따라 수정측도 도엽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에 찍힌 직인·인기·메모 기록 등 지도가 제작된 이후에 추가된 정보를 파악한 결과, 일제강점기의 지형도 제작은 주 제작자(기관)인 ‘육지측량부’를 포함한 11개 기관에서 행해졌다. 11개 기관이란 시기별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의 변화를 지도 제작 시 반영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기관에서 시기별로 필요에 의해 지도를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또한 인기를 통해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이관되기 전 원소장처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유입되기 전 이 지도들은 ‘문부성도서국편수과 국민과제3실(文部城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경성사단참모부(京城師

團參謀部)’에 소장, 관리되었다. 이 기관에 소장되었던 한국 근대 지형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이 지도를 처음으로 소장했던 기관은 ‘AMS(Army Map Service)’이며, 현재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는 20세기 전반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각 기관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기관의 특성 상 지형도라는 형태로 제작된 같은 형식의 지도이지만,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별로 제작된 지도의 목적과 제작범위 등에 대한 부분은 연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여섯째, 한국 근대지형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의 한반도 지형을 포함하여, 당시 지역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지리 환경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GIS 기술을 기반으로 제3차지형도 전체를 활용하여 전국단위로 20세기 초 해안선과 하천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제작된 도엽을 활용하여 ‘공주’ 지역의 행정구역, 지명, 하천, 도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와 20세기 초의 해안선 비교한 결과, 현재 한반도 면적은 제주도의 약 2배 정도 커졌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경지 확대, 주택시설 확충, 산업시설의 건설 등으로 인한 간석지 개발 결과, 해안선의 변화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이 지역 해안의 지리 환경 변화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GIS 기술을 활용한 전국단위, 지역단위의 복원과 정과 방법은 앞으로 역사지리환경 변화의 연구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소장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형도 연구를 통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영인본의 수준을 넘어 원본을 확인함으로써 근대의 한국의 자

연, 인문정보를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하고 그 원형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시작한 한국 근대지형도의 목록 파악과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외 기관별 한국 근대지형도 중에 축척이 1:50,000 지형도를 중심으로 목록과 지형도 분석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앞으로 이 외에 축척별, 도엽별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한국 근대지형도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기관 중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목록 파악은 물론, 각 지도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해외 다른 기관에 소장된 한국 근대지형도 파악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대지형도를 활용한 역사지리환경에 대한 시계열적인 자연, 인문적인 지리정보의 분석, 또한 남은 과제이다. 이에 반드시 한국 근대지형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헌

조선총독부, 1929, 조선하천조사서,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1941, 삼각점 및 수준점 측량 복구성과표, 국토정보지리원.

고종(조선) 명편, 1867, 육전조례 10권.

2. 지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근대지형도 1,520도엽.

국립지리정보원, 한국 근대지형도, 416도엽.

미국 의회도서관, 한국 근대지형도 1,864도엽.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한국 근대지형도 1,401도엽.

종로도서관, 한국 근대지형도 722도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 근대지형도 609도엽.

朝鮮總督府(경인문화사 편), 199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경인문화사.

朝鮮總督府(남영우 편), 1996, 『舊韓末 韓半島地形圖』, 성지문화사.

朝鮮總督府, 1895, 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영인본), 柏書房.

3.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 1997, 光復以後 博物館資料目錄集, 국립중앙박물관.

국토해양부, 2010, 조선하천조사서(192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1, 1928까지 조선토목사업지 하천개수편(193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1, 제3-1권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수집 및 발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1, 한국 수문조사의 역사와 미래 최종보고서 제1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권동희, 1998, 지형도읽기, 한올아카데미.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200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시사(公州市誌), 대문사.

공주대학교 박물관·충청남도 공주시, 1995, 공주의 역사와 문화, 공주대학교 박물관·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문화원, 2001, 공주의 지리지·읍지, 공주문화원.

구만옥, 2016,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들녘.

기꾸치 도시오,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문화사.

김종혁, 2017, 일제시기 한국 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의 변동, 선인.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大韓測量協會, 1993, 韓國의 測量.地圖, 大韓測量協會.

리진호, 1989, 대한제국 지적 및 측량사, 토지.

박현욱, 2006,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 시월.

뿌리깊은나무(편), 1983, 한국의 발견 - 충청남도-, 뿌리깊은나무.

사이먼 가필드, 2015, 지도 위의 인문학, 다산북스.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임희지, 2014, 한성의 정체성 회복 이야기, 한올아카데미.

조선총독부, 1929, 조선헌천조사서, 조선총독부 / 국토해양부, 2010, 조선헌천조사서(1929), 국토해양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0, 역사문화연구총서(4) 충남역사의 이해, 충청

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충청남도지-제2권 충남의 인문환경-, 충청남도지
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지리류3-, 한국학중
앙연구원 출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 史部19-, 한국학중앙
연구원 출판부.

高木菊三郎, 1931, 日本地圖測量小史, 古今書院.

國立國會圖書館, 1993, 國立國會圖書館所藏 朝鮮關係地圖資料目錄, 記伊國屋
書館.

渡辺正氏所藏資料集編集委員會, 2005, 終戦前後の参謀本部と陸地測量部—渡
辺正氏所藏資料集—,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小林 茂, 2011, 外邦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図—, 中公新書2119.

小林 茂(編), 2009,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圖」への
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_____, 2017,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大學出版會.

小林 茂・鳴海邦匡・波江彰彦, 2010, 日本地政學の組織と活動—綜合地理研究
會と皇戰會—,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井上英二, 1966, 五万分の一地圖, 中央公論社刊.

織田武雄, 1974, 地圖の歴史-日本篇, 講談社.

清水靖夫, 1986, 日本統治機關作製にかかる朝鮮半島地形圖の概要, 「一萬分一
朝鮮地形圖集成」 解題, 柏書房.

建設省國土地理院, 1970, 測量・地圖百年史, 建設省國土地理院.

4. 논문

- 구산우, 2011,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 연구, 30, 한국중세사학회, p.504~543.
- 국립환경과학원, 2010, “우리나라 해안의 자연경관”, 자료.
- 김두일, 2007, “일제에 의해 제작된 만주지도의 현황과 연구에 대한 소고”, 원광 군사논단, pp.163~190.
- 김원, 2012, “일제강점기 하천공사의 역사-1935년 조선 직할하천 공사연보”, 하천과분화 제8권 pp.3~9.
- 김중혁, 2001,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朝鮮時代 行政區域의 變動과 復元”,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2호, pp.97~124.
- _____, 2005, “상주박물관 소장 근대지도의 자료 특성과 내용적 가치”, 한국고지도연구 제7권 제1호, pp.109~126.
- _____, 2005, “한국의 근현대 지도 제작 약사(略史)”, 경기지도집성Ⅱ-경기의 근현대지도(논고).
- _____, 2008, “고지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19세기 지명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특징”,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3호, pp.51~78.
- _____, 2008,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국학연구 제12집, pp.263~290.
- _____, 2009,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 분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2호, pp.58~75.
- _____, 201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문화·역사지도의 DB 구조”, 대한지리학회 2013년지리학대회 발표논문요약집, pp.291~295.
- 김현중, 2017,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를 활용한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

- 방법론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9권 제3호, pp.145~165.
- 남영우, 1992,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문화역사지리 4호, pp.77~96.
- _____, 2007, “舊韓末과 日帝强占期の 韓半島 地圖製作”, 한국지도학회지 제7권 1호, pp.19~29.
- _____, 2012, “일본군 호남 의병토벌대의 陣中日誌에 이용된 전투약도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3호, pp.407~425.
- 남영우, 이호상, 2010, “日帝 참모본부 장교의 측량침략과 朝鮮 日測圖의 특징”, 한국지도학회지 제10권 1호, pp.1~12.
- 남영우·渡理繪·山近久美子·이호상·小林茂, 2009, “조선말 일제 참모본부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 제44권 제6호, pp.761~778.
- 도도로키히로시, 2001, “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86~90.
- 박선영, 2006, 장서각 소장 근대지형도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역사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배선학, 2007, “1910년대 지형도를 이용한 근대화 이후의 도시 변화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10권 제3호, pp.93~103.
- 양보경, 1991, “고산자 지지의 현대적 평가(Revisiting Regional Geography of Jung Ho Kim)”, 지리학 제26권 제2호, pp.164~181.
- _____,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규장각 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vol.15, pp.93~123.
- _____,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 시민강좌 제16집, pp.84~121.
- _____, 1998,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민강좌, 제23집, pp.45~59.

- _____, 1999,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사상”, 국토 207호, pp.82~89.
- _____, 2005, “지도의 근대와 전근대”, 문화역사지리학회 심포지움 「근대와 지리」, pp.1~16.
- _____, 2005. “테마기행: 지도이야기(8)-국토의 중심, 도성과 도성도, 測量”, 대한측량협회, pp.56~57.
- _____, 2012, “조선 후기 서구식 지도의 수용과 『회입곤여만국전도』”, 문화역사지리 제24권 제2호, pp.43~58.
- 양보경, 양윤정, 2009,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관련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pp.82~83.
- 양선아, 2011, “조선후기 대규모 간척지 조성 과정과 기술적 특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3권 제1호, pp.91~133.
-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논문.
- 양윤정 · 양보경, 2009, “19세기 후반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지도”,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3호, pp.32~46.
- 염복규, 2009,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정섭, 2010, “조선후기 대동강 하루 하중도의 개간과 공방제의 성립 및 변천”, 규장각37, pp.101-130.
- 이용석, 2002, “일제 강정기에 제작된 근대 지형도의 성격과 활용”, 생활문화연구, 7, pp.49~68.
- 이진호, 2006, “내 책 《大韓帝國_地籍_및_測量史》를 자평한다”, 측량과 지적 창간호, pp.116~119.
- 이현균, 2005, “조선시대 한성부의 형성배경과 입지적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 8권 1호, pp.29~39.
- 이혜경, 2012,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환경법과 정

책 제9권, p.153~171.

이혜은, 2013, 고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이찬·양보경, 1994, “서울 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Ⅲ, pp.1~39.

이호상·北田愧司·남영우, 2009, “일본의 지도학자 伊能忠敬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 제9권 2호, pp.19~32.

정원욱·김종진·박수민, 2016, “국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따른 인천 해안선의 변화(1895~2016)”,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 pp.104~107.

정요근, 2013, “GIS 기반 고려시대 역사지도의 제작”, 한국중세사연구 37, pp.307~342.

정치영, 2017, 지도로 본 과거 100년간 한국 지방 도시의 경관변화-금강을 끼고 자리한 공주-, 한국학중앙연구원(사업 보고서), pp.90-109.

정현정, 2012, “공주지역 근현대 유적 ‘금강교’의 역사자료와 의미”, 웅진문화 25집, pp.73~97.

최선웅, 2015, “근현대 지도제작 기술의 변천”, 한국지도학회지 15권 2호, pp.103~115.

허수열, 2012, “일제강점기 하천개수의 식민지적 성격”, 학술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51집2호, pp.25~27.

허우궁, 2011, “지도와 사회”, 한국고지도연구 Vol.3 No.2, pp.5~23.

홍명진, 2017, “일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연구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일본근세 시대 지역공간 복원방법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6호 pp.845~861.

谷屋 郷子, 2005, “朝鮮半島の外邦図の作製過程-The process of Japanese mapping of Korea, 1895~1945-”, 外邦図研究ニューズレター No.3. p.108.

渡辺正氏所藏資料集編集委員會, 2005, 終戦前後の参謀本部と陸地測量部-渡辺正氏所藏資料集-,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pp.73~74.

石原 潤, 2004, “はしがき：「外邦図」のこと”, 外邦図研究グループ, 外邦図研究 No2,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p. iv.

清水靖夫, 1981, “「日本統治機關作制にかゝる朝鮮半島地形図の概要」, 『一万分一朝鮮地形図集成』” 解題.

6.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 국토 및 지역개발, 청계천복원사업

<http://www.archives.go.kr>

국립중앙박물관 : <http://www.museum.go.kr>

국토정보플랫폼 : <http://map.ngii.go.kr/pd/ctlsSvc/ctlsSvc.do#>

미국 의회도서관 : <http://www.loc.gov>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영국 스탠포드대학 라이브러리 :

<https://library.stanford.edu/guides/gaihozu-japanese-imperial-maps>

오사카대학 인문지리학교실(阪大學人文地理學教室のウェブサイト) :

<http://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http://www.ndl.go.jp/>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https://www.jacar.go.jp/>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IdxRoot.do>

종로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ABSTRACT

The Collec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Topography Maps of Korea
made between the End of 19th and the Middle of 20th Century

Park, SeonYoun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University

The map contains not only geographic information of the surfac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area included in the map and surrounding area, the people who lived in the area, and the maker of the map. It is possible, therefore, through the map, to restore the past of the area and even imagine the life of the people in the area . The map, which began to be made with the beginning of history, has been made in various forms, from the walls of caves in early times, to paper and computers today. This is result of efforts of both map makers and users to produce more efficient maps, the production method and the shape of map have been changed with the times.

For the history of making maps in Korea, it was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at Korean peninsula map was made using the modern survey method by Korean. However, during the confusion era of signing of the Ganghwa Treaty in 1876, the Imo Incident and Treaty of

Chemulpo in 1882, and the Japanese occupation, the topography maps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made by Japan.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ntil the liberation in 1945, the top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made three times at large and they are divided into the First, Second, and Third topography maps according to the measured time periods. We refer to them, in this study, as modern topography maps of Korea in common.

The modern topography maps of Korea are found abundantly in abroad as well as Korea. However, the current status and list of modern topography maps have not yet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list of topographic maps of Korea collected by Korean and foreign institutions was cre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cordingly, to analyze the contents and form of topographic map based on the list, and to study the changed coastline and land us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y utilizing the modern topography map of Korea.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 three broad categories:

First, the institutions to be surveyed were the four Korean ones including National Museum of Korea, Jangseogak Archives, Jongno Public Library, an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two overseas institutions including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and Japanese National Library of Congress. The presence of topography maps in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has been known but the specific lists had not yet been published.

A summary of the list of topography maps of Korea in Korea and overseas institutions are as follow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ollected 132, 335, and 712 sheet of First, Second, and Third topography

map, respectively, which is richest collection in Korea, and also collected topography maps of each time period that is not found in other institutions. The Jangseogak Archives, Academy of Korean Studies collected 81, 34, and 494 sheets, respectively, and the Jongno Public Library collected 81 sheets of only Third topography maps.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collected 722 sheets of Third maps, which is the richest collection of Third topography map in Korea.

For the overseas institutions,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collected 46, 227, and 424 sheet, respectively, and, considering the overlapped ones, total of 1,864 sheets, which is largest collection. This institution also collected maps made by various institutions other than the Department of Land Survey(陸地測量部). The Japanese National Library of Congress collected 446, 315, and 706 sheet, respectively.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list of modern topography maps of Korea in six Korean and overseas institutions, five sheets(Busan, Gadukdo, Dongdumal, Hodobando, and Banguumi) were found for the first time at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and Library of British Stanford University. In case of Second topography maps, though some of them were had been found in Jangseogak Archives, Academy of Korean Studies, overall list of Second maps was completed based on the maps in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Second, it was found that, among the six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collection of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collected was most abundant and from most various makers. In addition, most of them were not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1,864 sheets of 1:50,000 scale topography map in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The First, Second, Third topography maps representing each time period

were examined in terms of range of collection, composition of map, official seal, stamps(transferred information), and notes and, based on them, maker institution, owner, transfer information, and trace of using the map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ps of Busan, Gadeokdo, Dongdumal and Hodobando and 12 sheets of Third maps revised by three measurements are collected in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These maps, which were not found in other institutions, were reveal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and, in addition, the makers were as various as 11 ones, reflecting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renaming of map-making institutions at that time. Considering they are collection of overseas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d the original owners before the maps were transferred to this institution and found ‘Third National Task Room,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文部城圖書局編修課 國民科第三室)’, ‘Keijō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and ‘Gyeongseong Division Chief of Staff(京城師團參謀部)’.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se maps when they arrived in US was ‘Army Map Service(AMS)’.

Third, the modern topography maps made by the modern survey method is an important evidence to confirm not only the top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also the regional changes. This study, therefore, extracted the coastline and river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sing GIS technology from all the Third topography maps and analyze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raffic routes, rivers, and place names on a regional basis using the topography maps of each time period.

The comparison of areas within coastline of Korean peninsula between

from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with those of the present one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area based on two coastlines was found to be about twice the area of the Jeju Island.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west coastline showed that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by placement of agricultural l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housing facilities through the land reclamation project for about 100 years. The restoration process and the method using GI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have value as a new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landscape change in Korea.

This most important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 in the first summarization of the list of modern topography maps which are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These data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c information for studying the process of illegal export of the modern topography map of Korea occurred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s well as investigating the status of modern topography maps of Korea in other overseas institutions. The seco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by examining the catalog of modern topographic maps of Korea and basic research using them,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for developing digital archives of modern topography maps in the future. Third, this study showed the appearance of Korean peninsula in early 20th century by comparing coastlines. The restoration process of historical geography environment using topography maps of Korea based on GIS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research method for the study on change of Korean landscape over 100 years.

부록 2. 한국 근대지형도 제2차지형도 제작 목록

소속도업명	도업명	측도	제판	소속도업명	도업명	측도	제판
강릉_01	주문진	1911	1913	순천_01	단성	1909	1912
강릉_02	강릉	1911	1913	순천_02	노안	1909	1913
강릉_03	도천동	1911	1913	순천_03	노양동	1909	1913
강릉_04	하인계	1911	1913	순천_04	남해	1909	1913
강릉_05	퇴곡리	1911	1913	순천_05	지리산	1909	1912
강릉_06	구석평	1911	1913	순천_06	하동	1909	1912
강릉_07	하진부	1911	1913	순천_07	함양	1909	1913
강릉_08	정사	1911	1913	순천_08	여수	1909	1912
강릉_09	현리	1911	1913	순천_09	구례	1909	1912
강릉_10	창촌	1911	1913	순천_10	석실	1909	1912
강릉_11	상대현리	1911	1913	순천_11	석성	1909	1912
강릉_12	상평창	1911	1913	순천_12	유문	1909	1913
강릉_13	음양리	1911	1913	순천_13	옥과	1909	1912
강릉_14	상근도리	1911	1913	순천_14	동북	1909	1912
강릉_15	동평창	1911	1913	순천_15	북내	1909	1912
강릉_16	하안현리	1911	1913	순천_16	보성	1909	1912
강성성_01	적성	1911	1913	순천_01	물은리	1911	1913
강성성_02	고양	1911	1913	순천_02	서벽리	1910	1913
강성성_03	경성	1911	1913	순천_03	봉화	1910	1913
강성성_04	시흥	1910	1912	순천_04	예산	1910	1913
강성성_05	개성	1911	1913	순천_05	연안	1911	1913
강성성_06	통진	1911	1913	순천_06	문대리	1911	1913
강성성_07	부평	1911	1913	순천_07	수영	1911	1913
강성성_08	인천	1910	1913	순천_08	영주	1910	1913
강성성_09	백천	1911	1913	순천_09	영월	1911	1913
강성성_10	강화	1911	1913	순천_10	영춘	1911	1913
강성성_11	내동	1911	1913	순천_11	단양	1911	1913
강성성_12	영동	1911	1913	순천_12	단상	1910	1913
강성성_13	연안	1911	1913	순천_13	오미리	1911	1913
강성성_14	무화	1911	1913	순천_14	청풍	1911	1913
강성성_15	주동	1911	1913	순천_15	서상	1911	1913
강성성_05	사라	1910	1912	순천_16	개경	1911	1913
강성성_06	안포	1910	1912	양양_06	공수	1911	1913
강성성_09	연양	1911	1912	양양_07	오리	1911	1913
강성성_10	조양	1909	1912	양양_08	양양	1911	1913
강성성_11	울남	1909	1912	양양_09	고성	1911	1913
강성성_12	남양	1910	1912	양양_10	간성	1911	1913
강성성_13	양양	1910	1912	양양_11	용두	1911	1913
강성성_14	모양	1909	1912	양양_12	우석	1911	1913
강성성_15	연양	1912	1912	양양_13	창연	1911	1913
강성성_16	연양	1909	1912	양양_14	용산	1911	1913
강성성_01	속리	1910	1913	양양_15	서화	1911	1913
강성성_02	속리	1910	1912	양양_16	인제	1911	1913
강성성_03	영양	1910	1912	영해_08	창기	1910	1913
강성성_04	영양	1910	1912	영해_09	영해	1910	1912
강성성_05	영양	1910	1912	영해_10	영덕	1910	1912
강성성_06	영양	1910	1912	영해_11	영청	1910	1912
강성성_07	영양	1910	1912	영해_12	영흥	1910	1912
강성성_08	영양	1910	1912	영해_13	영진	1910	1912
강성성_09	영양	1910	1912	영해_14	영송	1910	1913
강성성_10	영양	1910	1912	영해_15	도평	1910	1913
강성성_11	영양	1910	1912	영해_16	월척	1910	1913
강성성_12	금산	1910	1912	육지도_05	대매	1909	1913
강성성_13	광정	1910	1912	육지도_09	육지도	1909	1913
강성성_14	광정	1910	1912	육지도_13	육지도	1909	1913
강성성_15	광정	1910	1912	원산지_02	패천	1911	1914
강성성_16	광정	1910	1912	원산지_03	통천	1911	1914
광안성_01	도지	1911	1913	원산지_04	화천	1911	1913
광안성_02	홍천	1911	1913	원산지_07	남평	1911	1914
광안성_03	하창	1911	1913	원산지_08	회양	1911	1913
광안성_04	원주	1911	1913	원산지_11	고산	1911	1914
광안성_05	춘천	1911	1913	원산지_12	철령	1911	1913

광주_06	가평읍	1911	1913	원산진_15	노탄동	1911	1914
광주_07	용두	1911	1913	원산진_16	구당리	1911	1913
광주_08	이포	1911	1913	장전_12	포항리	1911	1913
광주_09	화대리	1911	1913	장전_15	담점	1911	1913
광주_10	감천리	1911	1913	장전_16	장전_16	1911	1913
광주_11	마성우리	1910	1912	전주_01	무봉상	1910	1912
광주_12	양천	1910	1912	전주_02	거상	1910	1912
광주_13	양포	1911	1913	전주_03	안의	1910	1912
광주_14	양주	1911	1913	전주_04	안의청	1910	1912
광주_15	생상리	1910	1912	전주_05	안의청	1910	1912
광주_16	생상리	1910	1912	전주_06	안의청	1910	1912
군산_01	군산_01	1910	1913	전주_07	안의청	1910	1912
군산_02	군산_02	1910	1913	전주_08	안의청	1910	1912
군산_03	군산_03	1910	1913	전주_09	안의청	1910	1912
군산_04	군산_04	1910	1913	전주_10	안의청	1910	1912
군산_05	군산_05	1910	1913	전주_11	안의청	1910	1912
군산_06	군산_06	1910	1913	전주_12	안의청	1910	1912
군산_07	군산_07	1910	1913	전주_13	안의청	1910	1913
군산_08	군산_08	1910	1913	전주_14	안의청	1910	1913
군산_09	군산_09	1910	1914	전주_15	안의청	1910	1913
군산_10	군산_10	1910	1914	전주_16	안의청	1910	1913
군산_11	군산_11	1910	1914	진도_01	안의청	1909	1912
군산_12	군산_12	1910	1914	진도_02	안의청	1909	1914
군산_16	군산_16	1910	1914	진도_03	안의청	1909	1914
나주_01	나주_01	1909	1912	진도_05	안의청	1909	1912
나주_02	나주_02	1909	1912	진도_06	안의청	1909	1914
나주_03	나주_03	1909	1912	진도_07	안의청	1909	1914
나주_04	나주_04	1909	1912	진도_09	안의청	1909	1914
나주_05	나주_05	1909	1912	진도_10	안의청	1909	1914
나주_06	나주_06	1909	1912	진도_14	안의청	1909	1914
나주_07	나주_07	1909	1912	진도_12	안의청	1909	1912
나주_08	나주_08	1909	1912	진도_13	안의청	1909	1912
나주_09	나주_09	1909	1914	진도_14	안의청	1909	1913
나주_10	나주_10	1909	1914	진도_15	안의청	1909	1913
나주_11	나주_11	1909	1914	진도_16	안의청	1909	1913
나주_12	나주_12	1909	1914	진도_17	안의청	1911	1913
나주_13	나주_13	1910	1914	진도_18	안의청	1911	1913
나주_14	나주_14	1909	1914	진도_19	안의청	1911	1913
나주_15	나주_15	1909	1914	진도_20	안의청	1911	1913
남양_01	남양_01	1910	1913	진도_21	안의청	1911	1913
남양_02	남양_02	1910	1913	진도_22	안의청	1911	1913
남양_03	남양_03	1910	1913	진도_23	안의청	1911	1913
남양_04	남양_04	1910	1912	진도_24	안의청	1911	1913
남양_05	남양_05	1910	1913	진도_25	안의청	1911	1913
남양_06	남양_06	1910	1913	진도_26	안의청	1911	1913
남양_07	남양_07	1910	1913	진도_27	안의청	1911	1913
남양_08	남양_08	1910	1913	진도_28	안의청	1911	1913
남양_09	남양_09	1910	1914	진도_29	안의청	1911	1913
남양_10	남양_10	1910	1914	진도_30	안의청	1911	1913
남양_11	남양_11	1910	1914	진도_31	안의청	1911	1913
남양_12	남양_12	1910	1914	진도_32	안의청	1911	1913
남양_15	남양_15	1910	1914	진도_33	안의청	1911	1913
남양_16	남양_16	1910	1914	진도_34	안의청	1911	1913
대구_01	대구_01	1910	1912	진도_35	안의청	1911	1913
대구_02	대구_02	1909	1912	진도_36	안의청	1911	1913
대구_03	대구_03	1909	1912	진도_37	안의청	1911	1913
대구_04	대구_04	1909	1913	진도_38	안의청	1911	1913
대구_05	대구_05	1910	1912	진도_39	안의청	1910	1913
대구_06	대구_06	1909	1912	진도_40	안의청	1910	1913
대구_07	대구_07	1909	1912	진도_41	안의청	1910	1913
대구_08	대구_08	1909	1913	진도_42	안의청	1910	1912
대구_09	대구_09	1910	1912	진도_43	안의청	1910	1912
대구_10	대구_10	1910	1912	진도_44	안의청	1910	1912
대구_11	대구_11	1910	1912	진도_45	안의청	1910	1912
대구_12	대구_12	1910	1913	진도_46	안의청	1910	1912
대구_13	대구_13	1910	1912	진도_47	안의청	1910	1912
대구_14	대구_14	1910	1912	진도_48	안의청	1910	1912

대구 15	합천	1910	1912	충주 14	진위	1910	1912
대구 16	상가	1910	1912	충주 15	상환	1910	1912
목포서부 01	대비치도	1910	1914	충주 16	천안	1910	1912
목포서부 02	부남군도	1909	1914	평해 09	추천지	1910	1913
삼척 14	산성읍	1911	1913	평해 10	용추갑	1910	1913
삼척 15	낙동리	1911	1913	평해 11	울진	1910	1913
삼척 16	삼척	1911	1913	평해 12	평해	1910	1913
상주 01	평항리	1910	1913	평해 13	고사리	1910	1913
상주 02	차등	1910	1913	평해 14	오저동	1910	1913
상주 03	음지	1910	1913	평해 15	사천리	1910	1913
상주 04	신령	1910	1913	평해 16	영양	1910	1913
상주 05	안동	1910	1913	해주 01	청석두	1911	1913
상주 06	의성	1910	1913	해주 04	중일리	1911	1913
상주 07	군위	1910	1913	해주 07	신원	1911	1913
상주 08	장기동	1910	1913	해주 08	해주	1911	1913
상주 09	예천	1910	1913	해주 11	공세장	1911	1913
상주 10	낙동	1910	1913	해주 12	태담포	1911	1913
상주 11	선사	1910	1913	해주 15	장연	1911	1913
상주 12	인동	1910	1912	해주 16	남흥동	1911	1913
상주 13	함상	1910	1913	홍주 01	대홍	1910	1912
상주 14	상주	1910	1912	홍주 02	정산	1910	1912
상주 15	개령	1910	1912	홍주 03	부여	1910	1912
상주 16	기천	1910	1912	홍주 04	하산	1910	1913
서흥 01	용당리	1911	1913	홍주 05	홍주	1910	1913
서흥 02	이천	1911	1913	홍주 06	보령	1910	1913
서흥 03	사령	1911	1913	홍주 07	남포	1910	1913
서흥 04	후평시장	1911	1913	홍주 08	서천	1910	1913
서흥 05	신계	1911	1913	홍주 09	승산리	1910	1914
서흥 06	초천리	1911	1913	홍주 10	홍포	1910	1914
서흥 07	시번리	1911	1913	홍주 12	가제본 연도	1910	1914
서흥 08	양합리			홍주 13	거아도	1910	1914
서흥 11	함포	1911	1913	홍양 01	죽포	1909	1913
서흥 12	김천	1911	1913	홍양 02	연도	1909	1913
서흥 13	기린장	1911	1913	홍양 05	돌산	1909	1913
서흥 16	탁영대	1911	1913	홍양 06	예하리	1909	1913
성천 01	석두지			홍양 09	홍양	1909	1913
성천 02	양덕	1911	1914	홍양 10	소영리	1909	1913
성천 03	백사	1911	1914	홍양 11	순죽도	1909	1913
성천 04	가려주	1911	1914	홍양 13	녹수	1909	1913
성천 05	수덕리			홍양 14	감목리	1909	1913
성천 06	신창리	1911	1914	홍양 15	서동리	1909	1913
성천 07	마가리	1911	1914				
성천 08	곡산	1911	1914				

출처: 小林 茂(共著),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学出版会, p.150, 표Ⅲ-3-2 수정하여 작성함.

부록 3. 한국 근대지형도 제3차지형도 측도별 제작 도엽

總圖名	1914	1915	1916	1917	1918	不明	總數
경의				4			4
경의				10			10
경의				1			1
경의				3			3
경의				14			14
경의				15			15
경의				13			13
경의				2			2
경의		3					3
경의		8					8
경의		9					9
경의		3					3
경의	6						6
경의	1						1
경의			2				2
경의			4				4
경의			14				14
경의			8				8
경의				1			1
경의				14			14
경의				1			1
경의			2				2
경의			4				4
경의		6					6
경의		16					16
경의		16					16
경의		13					13
경의	3						3
경의	4						4
경의		4					4
경의			4				4
경의			11				11
경의			3				3
경의			7				7
경의			16				16
경의			16				16
경의				9			9
경의			1		3	1	5
경의			3		1		4
경의		4					4
경의		8					8
경의		9					9
경의	7						7
경의	6						6
경의		6					6
경의			3				3
경의			1				1
경의			1	15			16
경의			1	15			16
경의			2	10			12
경의			2				2
경의			15				15
경의			16				16
경의			12				12
경의				4			4
경의				6			6
경의			3		10		13
경의			11		1		12
경의	6						6
경의	1						1
경의		12			1		13
경의			3				3
경의			2		1		3
경의			2				2
경의			2				2
경의			13				13
경의			5		2		7
경의			3		1		4
경의		3					3
경의		15					15
경의			2				2
경의			1				1
경의			2				2
경의			8		14		22
경의					3		3
경의					3		3
경의					13		13
경의					4		4
경의			2		5		7
경의							
경의		2					2
경의							
경의				6			6
경의				8			8
경의				8			8
경의		3			2		5
경의				3			3
경의				12			12
경의				1		4	5
경의				4			4
합	34	147	200	283	61	2	727

부록 4. 한국 근대지형도 1:25,000 지형도의 도엽명과 측도.수정측도

소속도엽명(號)	도엽명	측도	수정(1회)	수정(2회)	수정(3회)	비고
清津及羅南地方 1	清津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2	羅盆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3	輪城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4	羅南	1918			1935	
清津及羅南地方 5	鐘城	1918			1935	
清津及羅南地方 6	龍峴洞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7	漁游洞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8	梧上洞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9	生氣嶺	1917			1935	
清津及羅南地方 10	宋乙温場	1917			1935	
咸興地方 1	德洞里	1917	1924		1933	
咸興地方 2	純陸	1917	1924		1933	
咸興地方 3	西湖津	1917	1924		1933	
咸興地方 4	定和陸	1917	1924		1933	
咸興地方 5	咸興	1917	1924		1933	
咸興地方 6	連浦	1917	1924		1933	
咸興地方 7	上開里	1917	1924		1933	
咸興地方 8	地境	1917	1924		1933	
咸興地方 9	廣浦	1917	1924		1933	
義州地方 1	金剛山	1917			1938	
義州地方 2	館洞	1917			1938	
義州地方 3	批嶺	1917			1938	
義州地方 4	義州	1917	1921		1938	
義州地方 5	白馬山	1917	1921		1938	
義州地方 6	石下	1917	1921		1938	
義州地方 7	新義州及東安	1917	1921		1938	
義州地方 8	城外洞	1917	1921		1938	
義州地方 9	龍岩浦	1917	1921		1938	
平壤地方 1	馬山里	1915	1919		1937	
平壤地方 2	平壤東部	1916	1919		1937	
平壤地方 3	柳新里	1916	1919		1937	
平壤地方 4	西浦	1915	1919		1937	
平壤地方 5	平壤西部	1915	1919		1937	
平壤地方 6	土城	1915	1919		1937	
平壤地方 7	長嶺場	1915	1919		1937	
平壤地方 8	險場	1915	1919		1937	
平壤地方 9	太平	1915	1919		1937	
鎮南浦地方 1	佳川	1916	1919		1938	
鎮南浦地方 2	鎮南浦	1916	1919		1929	
鎮南浦地方 3	廣梁嶺	1916	1919		1938	
鎮南浦地方 4	德洞里	1916	1919		1938	
大邱地方 1	白安洞	1915	1918		1930	
大邱地方 2	東村	1914	1918		1930	
大邱地方 3	慶山	1914	1918		1930	
大邱地方 4	漆谷	1915	1918		1930	
大邱地方 5	大邱	1914	1918		1930	
大邱地方 6	龍溪洞	1914	1918		1930	
大邱地方 7	後館	1915	1918		1930	
大邱地方 8	縣內洞	1914	1918		1930	
大邱地方 9	川內洞	1914	1918		1930	
京城及仁川地方 1	牛耳洞	1915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2	靈鳴	1915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3	新院里	1915	1918	1926	1937	
京城及仁川地方 4	板橋	1914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5	北湊山	1915	1918	1926	1937	
京城及仁川地方 6	京湊山	1914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7	冠岳山	1914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8	專溝場	1914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9	杏州	1915	1918	1926	1937	
京城及仁川地方 10	陽川	1915	1918	1926	1937	
京城及仁川地方 11	素砂	1914	1918	1926	1937	
京城及仁川地方 12	君子山	1914	1918	1927	1937	
京城及仁川地方 13	金浦	1915	1918	1927	1937	
京城及仁川地方 14	富平	1915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15	仁川東部	1916	1918	1927	1937	秘級
京城及仁川地方 16	玉貴嶺	1916	1918	1927	1937	秘級
京城及仁川地方 17	永宗嶺	1916	1918		1937	
京城及仁川地方 18	仁川西部	1917	1918	1927	1937	秘級
大田地方 1	懷仁	1914	1918			
大田地方 2	壇若	1914	1918			
大田地方 3	沃川	1914	1918	1928		

大田地方	4	西山	1915	1918	1928	
大田地方	5	新藤津	1914	1918		1936
大田地方	6	懷德	1915	1918		1936
大田地方	7	大田	1914	1918	1928	1936
大田地方	8	上所里	1915	1918		1936
大田地方	9	大平里	1914	1918		1936
大田地方	10	備城	1914	1918		1936
大田地方	11	鎮峯	1916	1918		1936
大田地方	12	新嶋里	1915	1918		1936
群山地地方	1	龍安	1916	1923		1934
群山地地方	2	威悅	1916	1922		1934
群山地地方	3	禪里	1916	1921		1934
群山地地方	4	木川浦	1916	1921		1934
群山地地方	5	新嶋里	1916	1922		1934
群山地地方	6	羅浦	1916	1923		1934
群山地地方	7	臨岐	1916	1921		1934
群山地地方	8	萬頃	1916	1921		1934
群山地地方	9	舒川	1916	1923		1931
群山地地方	10	群山	1916	1921		1931
群山地地方	11	五谷里	1916	1921		1931
木浦地方	1	三郷	1916	1922		1931
木浦地方	2	木浦	1917	1923		1931
木浦地方	3	三浦里	1917	1922		1931
木浦地方	4	柳海島	1916	1922		1931
木浦地方	5	諷津山	1916	1923		1931
木浦地方	6	馬山	1917	1922		1931
鎮海要港	1	東萊	1916			
鎮海要港	2	釜山	1916			
鎮海要港	3	牧島	1916			
鎮海要港	4	釜山	1916			
鎮海要港	5	下流	1916			
鎮海要港	6	多里	1915			
鎮海要港	7	茂里	1916			
鎮海要港	8	所里	1916			
鎮海要港	9	加德	1916			
鎮海要港	10	東木	1916			
鎮海要港	11	沙巴	1916			
鎮海要港	12	鎮海	1916			
鎮海要港	13	松浦	1916			
鎮海要港	14	河清	1915			
鎮海要港	15	馬山	1916			
鎮海要港	16	飛鳳	1916			
鎮海要港	17	龍洞	1916			
鎮海要港	18	城浦	1916			
鎮海要港	19	鎮東	1916			
鎮海要港	20	塘基	1916			
鎮海要港	21	塘洞	1916			
水興要港	1	慈山	1917			
水興要港	2	鎮津	1917			
水興要港	3	芳久	1917			
水興要港	4	松濱	1917			
水興要港	5	麗島	1917			
水興要港	6	中坪	1917			
水興要港	7	鎮興	1918			
水興要港	8	大嶺	1918			
水興要港	9	杏村	1917			
水興要港	10	元山	1917			
水興要港	11	元山	1917			
水興要港	12	陽灘	1917			
水興要港	13	箭灘	1917			
水興要港	14	箭灘	1917			
水興要港	15	文源	1917			
水興要港	16	龍溪	1917			
水興要港	17	山城	1917			
水興要港	18	靈泉	1917			
水興要港	19	會寧	1917			
水興要港	20	會寧	1917			
水興要港	21	會寧	1917			
水興要港	22	會寧	1917			
水興要港	23	會寧	1917			
水興要港	24	會寧	1917			
水興要港	25	會寧	1917			
水興要港	26	會寧	1917			
水興要港	27	會寧	1917			
水興要港	28	會寧	1917			
水興要港	29	會寧	1917			
水興要港	30	會寧	1917			
水興要港	31	會寧	1917			
水興要港	32	會寧	1917			
水興要港	33	會寧	1917			
水興要港	34	會寧	1917			
水興要港	35	會寧	1917			
水興要港	36	會寧	1917			
水興要港	37	會寧	1917			
水興要港	38	會寧	1917			
水興要港	39	會寧	1917			
水興要港	40	會寧	1917			
水興要港	41	會寧	1917			
水興要港	42	會寧	1917			
水興要港	43	會寧	1917			
水興要港	44	會寧	1917			
水興要港	45	會寧	1917			
水興要港	46	會寧	1917			
水興要港	47	會寧	1917			
水興要港	48	會寧	1917			
水興要港	49	會寧	1917			
水興要港	50	會寧	1917			
水興要港	51	會寧	1917			
水興要港	52	會寧	1917			
水興要港	53	會寧	1917			
水興要港	54	會寧	1917			
水興要港	55	會寧	1917			
水興要港	56	會寧	1917			
水興要港	57	會寧	1917			
水興要港	58	會寧	1917			
水興要港	59	會寧	1917			
水興要港	60	會寧	1917			
水興要港	61	會寧	1917			
水興要港	62	會寧	1917			
水興要港	63	會寧	1917			
水興要港	64	會寧	1917			
水興要港	65	會寧	1917			
水興要港	66	會寧	1917			
水興要港	67	會寧	1917			
水興要港	68	會寧	1917			
水興要港	69	會寧	1917			
水興要港	70	會寧	1917			
水興要港	71	會寧	1917			
水興要港	72	會寧	1917			
水興要港	73	會寧	1917			
水興要港	74	會寧	1917			
水興要港	75	會寧	1917			
水興要港	76	會寧	1917			
水興要港	77	會寧	1917			
水興要港	78	會寧	1917			
水興要港	79	會寧	1917			
水興要港	80	會寧	1917			
水興要港	81	會寧	1917			
水興要港	82	會寧	1917			
水興要港	83	會寧	1917			
水興要港	84	會寧	1917			
水興要港	85	會寧	1917			
水興要港	86	會寧	1917			
水興要港	87	會寧	1917			
水興要港	88	會寧	1917			
水興要港	89	會寧	1917			
水興要港	90	會寧	1917			
水興要港	91	會寧	1917			
水興要港	92	會寧	1917			
水興要港	93	會寧	1917			
水興要港	94	會寧	1917			
水興要港	95	會寧	1917			
水興要港	96	會寧	1917			
水興要港	97	會寧	1917			
水興要港	98	會寧	1917			
水興要港	99	會寧	1917			
水興要港	100	會寧	1917			

부록 5. 1:10,000 지형도의 도엽명과 측도.수정측도

번호(1932)	번호(1944)	도엽명	측도	수정(1회)	수정(2회)	수정(3회)
1	1	회령	1917	1920		1935
2	2	회령	1917	1920	1926	1935
3	3	나남	1917	1920	1926	1935
4	4	충성	1917	1920	1926	1935
5	5	성진	1917	1920	1926	1935
6	6	회령	1917	1920	1924	1933
7	7	회령	1917	1920	1928	1935
8	8	의안	1917	1921		1934
9	9	시안	1915	1921		
	11	신의주			1930	
	12	정주				1936
	13	선주				1936
	14	시안				1934
	15	안주				1934
10	16	평양	1915	1922		1932
11	17	지남포	1915	1919	1929	
	18	경이포				1932
	19	황주				1932
	20	사리원			1929	
12	21	해주	1916	1919	1929	1938
13	22	철원	1917	1920	1927	1937
	23	철원				1933
14	24	개성	1917		1925	1934
15	25	개성	1916	1919	1929	1938
16	26	경성	1915	1921		1937
17	27	영등포	1917		1929	1936
18	秘	이천	1916	1919	1929	
	28	이천				1938
19	29	수원	1917	1919		1932
	30	천안				1930
20	31	충주	1916	1919		1938
33	32	충주	1917		1925	1936
30	33	안동	1917	1920		1934
29	34	상주	1917	1919	1927	1937
31	35	경주	1917	1920	1927	1937
22	36	경주	1917	1919	1929	1936
21	37	초지	1916	1919	1927	1938
24	38	대전	1917	1919	1928	1936
23	39	대전		1919	1928	1938
25	40	충성	1916	1919		1932
27	41	구산	1916	1919		1931
26	42	이리	1916	1919		1931
28	43	전주	1916	1921		1932
	44	전주				1932
32	45	대구	1917	1925	1930	1937
36	46	밀양		1920		1937
34	47	밀양	1916	1919	1925	1936
35	48	영주	1917	1920		1938
37	49	분서	1916	1919	1928	1936
38	50	진해	1916			1928
39	51	마산	1916	1919		1930
40	52	통영	1916	1919		1933
41	53	진주	1917	1919		1933
	54	남원				1938
	55	수원				1935
	56	승리				1933
42	57	광주	1917	1921		1933
43	58	나주	1917	1923		1931
44	59	영산포	1917	1922		1931
45	60	영산포	1917	1919		1932
	61	해산				1937
	62	강계				1937
	63	김제				1937

출처: 小林 茂(共著),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ツ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学出版会, p.169 ~ 170. 표Ⅲ-3-5를 수정하여 작성함.

부록 6. 국내외 기관별 제1차지형도 소장 현황

INDEX ID	도업명_한글	도업명_한자	국박_132	장서각_81	미의회_46	일본국회_446
가사 01	합수	合水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2	합수포	石浦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3	합수족	合乙足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4	합수산	合山	제1차			제1차
가사 05	합수설령	南雲嶺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6	합수정창	銅店	제1차			제1차
가사 07	합수도창	都倉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8	합수장파	長坡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9	합수대문장	大門場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10	합수갑산	甲山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11	합수림어	林魚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12	합수조기	曹記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13	합수삼수	三水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14	합수원덕	院德	제1차			제1차
가사 15	합수평리	坪里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16	합수황수	黃水	제1차	제1차		제1차
가사 05_06	가계동충남	東從南	제1차			제1차
가사 07_08	가계동충남	從南界	제1차			제1차
가사 09_1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11_1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13_1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15_1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17_1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19_2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21_2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23_2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25_2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27_2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29_3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31_3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33_3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35_3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37_3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39_4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41_4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43_4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45_4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47_4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49_5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51_5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53_5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55_5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57_5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59_6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61_6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63_6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65_6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67_6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69_7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71_7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73_7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75_7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77_7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79_8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81_8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83_8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85_8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87_8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89_9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91_92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93_94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95_96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97_98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가사 99_100	가계동충남	從南洞	제1차			제1차

조	16	여산	彌山		제1차	제1차
조	01	남산	富昌山			제1차
조	02	연평도	蓮葉島		제1차	제1차
조	04	지평	砥平			제1차
조	05	춘천	春川			제1차
조	06	관동	廣洞			제1차
조	07	관동	廣洞			제1차
조	08	관동	廣洞			제1차
조	09	가평	加平			제1차
조	10	미원	美原			제1차
조	11	양근	楊根			제1차
조	12	양주	楊州			제1차
조	13	고지	昆地			제1차
조	14	포천	抱川			제1차
조	15	양주	楊州		제1차	제1차
조	16	송파	松坡			제1차
조	01	오상	五常			제1차
조	02	목양	木洋			제1차
조	05	지장	地場			제1차
조	06	지상	地上			제1차
조	07	하대	下臺			제1차
조	08	화대	花臺			제1차
조	09	명천	明川			제1차
조	10	상소	上社			제1차
조	11	김주	金州			제1차
조	12	림성	臨溟			제1차
조	13	수성	水城		제1차	제1차
조	14	수남	水南			제1차
조	15	수평	水坪			제1차
조	16	쌍양	雙陽			제1차
조	01	양주	楊州			제1차
조	02	광주	光州			제1차
조	03	장흥	長興			제1차
조	04	광주	光州			제1차
조	05	광주	光州			제1차
조	06	광주	光州			제1차
조	07	포산	浦山			제1차
조	08	양산	梁山			제1차
조	09	보천	保川		제1차	제1차
조	10	망운	望雲		제1차	제1차
조	11	무안	務安		제1차	제1차
조	12	목포	木浦		제1차	제1차
조	13	월도	月島		제1차	제1차
조	14	월도	月島		제1차	제1차
조	15	지도	智島		제1차	제1차
조	01	양양	陽陽			제1차
조	02	안장	安場			제1차
조	03	아산	牙山			제1차
조	04	예산	禮山			제1차
조	05	대부	大阜			제1차
조	06	해운	海雲			제1차
조	07	해운	海雲			제1차
조	08	해운	海雲			제1차
조	09	영흥	靈興			제1차
조	10	영흥	靈興			제1차
조	13	덕적	德積			제1차
조	14	덕적	德積			제1차
조	01	영천	永川			제1차
조	02	영천	永川			제1차
조	03	영천	永川			제1차
조	04	삼랑	三浪			제1차
조	05	대구	大邱			제1차
조	06	경산	慶山			제1차
조	07	청도	淸道			제1차
조	08	밀양	密陽		제1차	제1차
조	09	밀양	密陽			제1차
조	10	고령	高靈			제1차
조	11	고령	高靈			제1차
조	12	초신	草新		제1차	제1차
조	13	지례	知禮			제1차

대구	14	가조장	加祚場				제1차
대구	15	가천	陝川				제1차
대구	16	가정가도	陝川嘉鳴		제1차		제1차
대구	04	삼덕도	三德嶋				제1차
마안도	13	마양도	馬養島	제1차			제1차
부산	09	마이관	伊川南里				제1차
부산	01	관남리	南川				제1차
부산	02	관남정	南川		제1차		제1차
부산	05	개고성	開古城				제1차
부산	06	곡구역	谷口驛				제1차
부산	07	리원사	利原山				제1차
부산	08	거금	居金				제1차
부산	09	창영	昌嶺				제1차
부산	10	북평	北平		제1차		제1차
부산	11	창흥	昌興		제1차		제1차
부산	12	신창	新昌				제1차
부산	13	촌리	浦洞				제1차
부산	14	촌리	利洞		제1차		제1차
부산	15	간조	間島		제1차		제1차
부산	16	평동	平洞		제1차		제1차
부산	02	차소	次甘				제1차
부산	03	가천	甘泉				제1차
부산	04	신령	新寧				제1차
부산	05	호미	湖尾				제1차
부산	06	구미	龜尾				제1차
부산	07	의성	義城				제1차
부산	08	의흥	義興				제1차
부산	09	궁수	宮水				제1차
부산	10	수산	水山				제1차
부산	11	고산	高山				제1차
부산	12	하향	下向				제1차
부산	13	창주	尙州				제1차
부산	14	상산	尙山				제1차
부산	15	상산	尙山				제1차
부산	16	금성	金山				제1차
부산	01	이목	梨木	제1차			제1차
부산	02	이천	伊川				제1차
부산	03	사화	沙化				제1차
부산	04	구화	九化				제1차
부산	05	지석	支石				제1차
부산	06	시계	新溪				제1차
부산	07	시변	市邊				제1차
부산	08	양합	兩合				제1차
부산	09	대평	大坪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0	충수	淸水				제1차
부산	11	평산	平山				제1차
부산	12	평리	平里				제1차
부산	13	기흥	金川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4	기흥	瑞興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5	기림	麟場				제1차
부산	16	온정	溫井				제1차
부산	07	담사	甘沙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08	담사	甘沙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09	대신	大申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09	유진	楡津				제1차
부산	13	성리	城津		제1차		제1차
부산	14	성리	梨湖		제1차		제1차
부산	01	기림	麟山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02	양덕	陽德				제1차
부산	03	백년	百年				제1차
부산	04	가오	佳洲				제1차
부산	05	가오	柳洞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06	가오	玉露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07	가오	文城				제1차
부산	08	가오	文城				제1차
부산	09	가오	倉山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0	가오	東倉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1	가오	新羅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2	가오	遂安	제1차		제1차	제1차
부산	13	가오	成川	제1차		제1차	제1차

14	동양	江東	제1차		제1차	제1차
15	양성	三祥	제1차		제1차	제1차
16	원성	原城	제1차		제1차	제1차
01	양양	襄陽	제1차		제1차	제1차
02	양양	襄陽	제1차		제1차	제1차
03	양양	襄陽	제1차		제1차	제1차
04	남해	南海	제1차		제1차	제1차
05	지리산	智異山	제1차		제1차	제1차
06	하양	河東	제1차		제1차	제1차
07	광양	光陽	제1차		제1차	제1차
08	광양	光陽	제1차		제1차	제1차
09	수레장	水禮場	제1차		제1차	제1차
10	석실	石實場	제1차		제1차	제1차
11	천장	天場	제1차		제1차	제1차
12	유모	油毛場	제1차		제1차	제1차
13	유과	油果場	제1차		제1차	제1차
14	유과	油果場	제1차		제1차	제1차
15	내성	內城場	제1차		제1차	제1차
16	보성	寶城	제1차		제1차	제1차
12	마중	麻中	제1차		제1차	제1차
14	중리	中里	제1차		제1차	제1차
15	신당	新堂	제1차	제1차	제1차	제1차
16	경산	慶山	제1차		제1차	제1차
01	안성	安寧	제1차		제1차	제1차
02	영천	寧川	제1차		제1차	제1차
03	개천	价川	제1차		제1차	제1차
04	자산	順山	제1차		제1차	제1차
04보	천치	慈川	제1차		제1차	제1차
05	천치	慈川	제1차		제1차	제1차
06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7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8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8보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9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0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1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2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2보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3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4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5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6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9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0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1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3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4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5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6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9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0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1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3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4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5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6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09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0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1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2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3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4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5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6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2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16	안주	安州	제1차		제1차	제1차

부록 7. 국내외 기관별 제2차지형도 소장 현황

INDEX_ID	도엽명 한글	도엽명 한자	국박_335	장서각_34	미의회_227	일본국회_315
01	주문진	注文津	제2차		제2차	제2차
02	강릉	江陵	제2차		제2차	제2차
03	도전등	石屏山	제2차		제2차	제2차
04	하임계	下臨溪	제2차		제2차	제2차
05	하임리	退谷里	제2차		제2차	제2차
06	구석평	九石坪	제2차		제2차	제2차
07	하진부	下珍富	제2차		제2차	제2차
08	상향	旌善	제2차		제2차	제2차
09	상향리	旌善里	제2차		제2차	제2차
10	상향촌	旌善村	제2차		제2차	제2차
11	상대평	上大和里	제2차		제2차	제2차
12	상대평향	上大昌	제2차		제2차	제2차
13	상대평향리	陰陽里	제2차		제2차	제2차
14	상대평향리	上軍村里	제2차		제2차	제2차
15	상대평향리	上銅坪場	제2차		제2차	제2차
16	하안흥	下安興里	제2차		제2차	제2차
01	하안흥	積城	제2차		제2차	제2차
02	고양	高陽	제2차		제2차	제2차
03	고양	京城	제2차			제2차
04	고양	始興	제2차			제2차
05	개성	開城			제2차	
06	개성	通津			제2차	
07	부내	富平邑內	제2차			제2차
08	부내	仁川	제2차		제2차	제2차
09	부내	白川			제2차	
10	부내	江華	제2차		제2차	제2차
11	부내	陵內洞	제2차		제2차	제2차
12	부내	龍流島			제2차	제2차
13	부내	延安	제2차		제2차	제2차
14	부내	舞鶴洞	제2차		제2차	제2차
15	부내	注文島	제2차		제2차	제2차
05	부내	土羅浦	제2차			
06	부내	土安浦	제2차			
09	부내	延日	제2차			
10	부내	朝陽山	제2차			제2차
11	부내	蔚山	제2차			
12	부내	南倉州	제2차			
13	부내	慶州	제2차			제2차
14	부내	毛良里	제2차			제2차
15	부내	彦陽山	제2차			제2차
16	부내	梁山	제2차			
01	부내	俗離山	제2차		제2차	제2차
02	부내	靑山	제2차		제2차	제2차
03	부내	靑山同	제2차	제2차		제2차
04	부내	雪川	제2차	제2차	제2차	
05	부내	文義	제2차	제2차		
06	부내	文報恩川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7	부내	沃川	제2차	제2차		제2차
08	부내	茂朱	제2차		제2차	제2차
09	부내	淸州	제2차	제2차		
10	부내	淸德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1	부내	懷德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2	부내	大田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3	부내	錦山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4	부내	廣程里	제2차	제2차	제2차	
15	부내	公州	제2차		제2차	제2차
16	부내	連山	제2차			제2차
01	부내	江景	제2차			제2차
02	부내	都地街	제2차		제2차	제2차
03	부내	洪川	제2차		제2차	제2차
04	부내	下靑峰里	제2차		제2차	제2차
05	부내	原州	제2차		제2차	제2차
06	부내	春川	제2차		제2차	제2차
07	부내	加平	제2차		제2차	제2차
08	부내	龍頭	제2차		제2차	제2차
09	부내	梨浦	제2차		제2차	제2차
09	부내	禾架里	제2차		제2차	제2차

05	창도리	昌道里	제2차		제2차	제2차
06	금오동	金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07	토요동	土腰洞	제2차		제2차	제2차
08	도화동	土華洞	제2차		제2차	제2차
09	평안강항리	平康江項里	제2차		제2차	제2차
10	김화동	金化洞	제2차		제2차	제2차
11	평안김화리	平安金化里	제2차		제2차	제2차
12	신대리	新垓里	제2차		제2차	제2차
13	대리	垓里	제2차		제2차	제2차
14	원평동	原平洞	제2차		제2차	제2차
15	철원평촌	鐵原平村	제2차		제2차	제2차
16	백담동	白潭洞	제2차		제2차	제2차
03	조천동	助天洞	제2차		제2차	제2차
04	니들동	泥洞	제2차		제2차	제2차
08	청문동	靑文洞	제2차		제2차	제2차
01	산문동	山文洞	제2차		제2차	제2차
02	문계동	文溪洞	제2차		제2차	제2차
03	산주동	山州洞	제2차		제2차	제2차
04	충곡동	忠谷洞	제2차		제2차	제2차
05	고산동	高山洞	제2차		제2차	제2차
06	장안동	長安洞	제2차		제2차	제2차
07	원성동	原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08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9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0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1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2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3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4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5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6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9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0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1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2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3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4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5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6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1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2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3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4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5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6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7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8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09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0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1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2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3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4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5	안성동	安城洞	제2차	제2차	제2차	제2차

12	龍遊島	龍遊島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3	延舞	延舞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4	注文	注文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5	訓我	訓我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6	新訓	新訓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5	九龍	九龍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9	延龍	延龍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0	蔚山	蔚山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1	長生	長生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2	慶州	慶州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3	毛良	毛良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4	彦梁	彦梁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5	慶山	慶山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6	古邑	古邑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7	西新	西新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9	雄羅	雄羅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0	古德	古德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1	乾原	乾原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3	明河	明河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4	德新	德新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5	梨津	梨津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1	竹圃	竹圃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2	所里	所里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5	突山	突山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6	老興	老興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8	廣島	廣島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9	高島	高島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0	外羅	外羅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1	草島	草島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2	巨文	巨文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3	鹿頭	鹿頭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4	居金	居金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5	攝島	攝島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1	石湯	石湯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2	陽慶	陽慶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3	仙巖	仙巖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4	蘭達	蘭達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5	坡呂	坡呂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6	大同	大同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7	坤里	坤里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8	新谷	新谷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9	谷倉	谷倉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0	禮栗	禮栗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1	栗安	栗安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2	成江	成江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3	江原	江原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4	原里	原里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5	俗離	俗離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1	山同	山同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2	靑水	靑水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3	永雪	永雪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4	院恩	院恩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5	米報	米報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6	沃城	沃城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7	清州	清州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8	佛大	佛大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9	城田	城田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0	大鐘	大鐘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1	亭山	亭山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2	廣州	廣州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3	江景	江景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4	禮里	禮里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15	堤金	堤金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1	井邑	井邑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2	金井	金井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03	井邑	井邑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